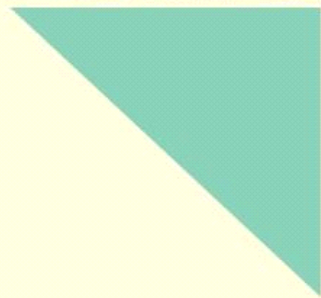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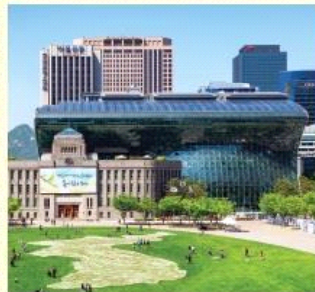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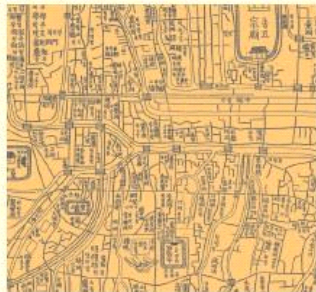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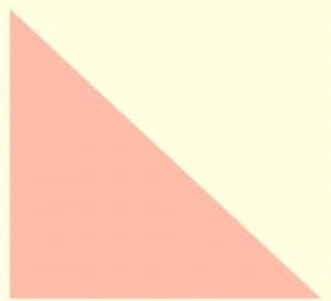


서울 중구, 동네방네 이야기



서울 중구, 동네방네 이야기

서울 중구, 동네방네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의장 조영훈입니다.

『서울 중구, 동네방네 이야기』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료집 발간을 위해 애쓰신 중구문화원 이종철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져 TV 프로그램도 많아졌지만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역사에 대해서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에서도 도심지인 중구는 역사적으로 도성을 끼고 있으며 오래된 마을이 많지만 도시화·현대화를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오늘날 중구는 빌딩과 한옥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풍경을 만들어 내고, 적은 편이지만 주민들이 모여 마을 공동체를 꾸리며 마을 축제를 스스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모습이 공존하는 중구의 역사와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중구민들에게 우리 지역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동명 속에는 우리 조상의 사고와 의지가 담겨진 것도 있고 생활 모습을 나타내는 것도 있어서, 우리 문화 발전의 역사와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명을 살펴보는 일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중구를 더욱 빛나게 하는 뜻 깊은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책 발간을 축하드리며, 이 책을 통해 우리 지역의 정체성과 애향심이 후대에도 계속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발간사 서울 중구문화원장 _이종철 · 4
축하의글 서울 중구청장 _서양호 · 5
축하의글 서울 중구의회의장 _조영훈 · 6

총론 | 서울 중구의 내력과 현황 · 10

- 1 역사 속의 서울, 역사 속의 중구 · 11
- 2 중구의 위치 및 환경 · 19
- 3 중구의 행정동과 법정동 · 26

제1장 소공동 권역 · 32

- | | |
|-----------------|-----------------|
| 01. 소공동 · 33 | 02. 북창동 · 38 |
| 03. 태평로2가 · 41 | 04. 의주로1가 · 45 |
| 05. 충정로1가 · 48 | 06. 서소문동 · 52 |
| 07. 정동 · 56 | 08. 남대문로2가 · 62 |
| 09. 남대문로3가 · 65 | 10. 남대문로4가 · 68 |
| 11. 순화동 · 71 | |

제2장 회현동 권역 · 75

- | | |
|-----------------|----------------|
| 01. 회현동1가 · 76 | 02. 회현동2가 · 81 |
| 03. 남대문로5가 · 84 | 04. 남창동 · 88 |
| 05. 봉래동1가 · 93 | 06. 봉래동2가 · 96 |

제3장 명동 권역 · 100

- | | |
|----------------|----------------|
| 01. 명동1가 · 102 | 02. 명동2가 · 105 |
| 03. 장교동 · 109 | 04. 무교동 · 113 |

- | | |
|-----------------|------------------|
| 05. 다동 · 115 | 06. 삼각동 · 119 |
| 07. 태평로1가 · 122 | 08. 을지로1가 · 127 |
| 09. 을지로2가 · 130 | 10. 남대문로1가 · 133 |
| 11. 수하동 · 136 | 12. 수표동 · 138 |
| 13. 충무로1가 · 142 | 14. 충무로2가 · 145 |
| 15. 저동1가 · 148 | 16. 남산동1가 · 150 |
| 17. 남산동2가 · 154 | 18. 남산동3가 · 157 |
| 19. 회현동3가 · 160 | |

제4장 필동 권역 · 164

- | | |
|-----------------|----------------|
| 01. 필동1가 · 166 | 02. 필동2가 · 169 |
| 03. 필동3가 · 173 | 04. 남학동 · 177 |
| 05. 주자동 · 179 | 06. 예장동 · 182 |
| 07. 충무로3가 · 185 | |

제5장 장충동 권역 · 188

- | | |
|-----------------|-----------------|
| 01. 장충동1가 · 189 | 02. 장충동2가 · 193 |
| 03. 목정동 · 196 | |

제6장 광희동 권역 · 199

- | | |
|-----------------|-----------------|
| 01. 광희동1가 · 200 | 02. 광희동2가 · 202 |
| 03. 을지로6가 · 204 | 04. 을지로7가 · 207 |
| 05. 쌍림동 · 210 | 06. 인현동2가 · 212 |
| 07. 예관동 · 215 | 08. 오장동 · 217 |
| 09. 충무로4가 · 219 | 10. 충무로5가 · 222 |

제7장 을지로동 권역 · 225

- | | |
|-----------------|-----------------|
| 01. 을지로3가 · 227 | 02. 을지로4가 · 230 |
| 03. 을지로5가 · 232 | 04. 주교동 · 235 |
| 05. 방산동 · 238 | 06. 입정동 · 240 |
| 07. 산림동 · 243 | 08. 초동 · 245 |
| 09. 인현동1가 · 247 | 10. 저동2가 · 251 |

제8장 신당동 권역 · 254

- 01. 신당동 · 256
- 03. 무학동 · 262

- 02. 흥인동 · 260

제9장 다산동 권역 · 266

제10장 약수동 권역 · 270

제11장 청구동 권역 · 275

제12장 신당5동 권역 · 279

제13장 동화동 권역 · 283

제14장 황학동 권역 · 288

제15장 중림동 권역 · 292

- 01. 중림동 · 293
- 03. 만리동1가 · 301

- 02. 의주로2가 · 297
- 04. 만리동2가 · 303

후주(後註) · 308

서울 중구의 내력과 현황

중구(中區)는 서울의 중앙에 위치한 자치구이다. 동쪽으로는 성동구, 서쪽으로는 서대문구와 마포구, 북쪽으로는 종로구, 남쪽으로는 용산구와 접한다. 서울을 대표하는 산인 남산(南山) 북쪽 사면에 걸쳐 있으며 청계천을 경계로 종로구와 마주한다. 서울특별시청 등 각종 관공서와 기업체들의 본사 건물, 재래시장 등이 밀집한 곳이기도 하다. 1960년대 이래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한강 이남 지역의 서울 편입과 강남 개발을 비롯한 급속한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중구가 차지하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중심성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서울시의 구제(區制)는 기본적으로 오행(五行)의 구분을 토대로 한 조선 초기의 부제(部制)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중구라는 명칭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졌다. 일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남촌(南村) 일대가 경성부의 중심이라 하여 명명되었다. 1943년 6월 10일 구제도가 실시되어 경성부 직할구역으로 중구역소가 설치되었고, 광복 직후인 1946년 9월 28일 서울시헌장에 의해 서울시 중구로 승격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1일 기존의 정(町) 행정구역을 동(洞)으로 일괄 변경하였다.

1. 역사 속의 서울, 역사 속의 중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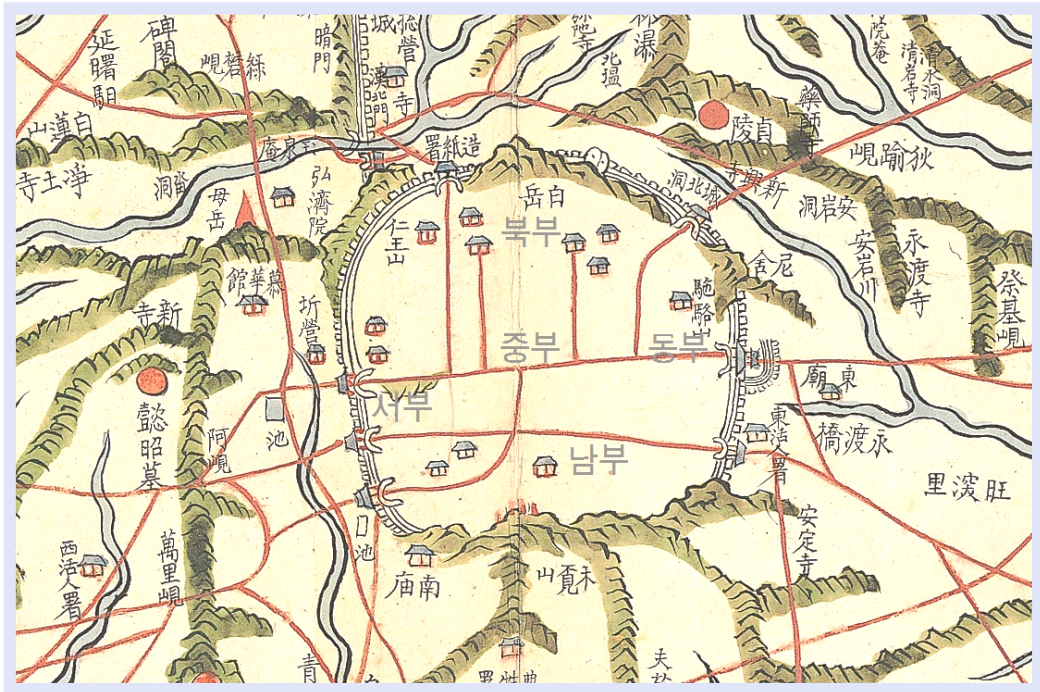
조선시대의 한성부

조선왕조 창건 직후 건국의 주역들은 풍수지리설에 따라 한양(漢陽)을 도읍지로 정하고 태조 3년(1394)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한 후 한양을 한성부(漢城府)로 개칭하였다. 태조 5년(1396)에는 백악산, 낙산, 목멱산, 인왕산을 연결하는 약 18km의 도성을 쌓았다. 초기 한성부의 관할구역은 도성(都城) 안쪽과 성저십리(城底十里), 즉 도성 밖 십 리 안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이루어졌다. 세종 10년(1428)의 기록을 보면 도성 내에는 1만 6,921호에 인구 10만 3,328명이 거주하였고, 성저십리에는 1,601호에 6,044명의 인구가 살았다.¹⁾

도성은 음양오행과 풍수지리설을 바탕으로 궁궐을 배치하고 산세와 하천을 고려하여 가로망을 형성하였고, 부방제(部坊制)를 도입하였다. 성곽 안을 중·동·서·남·북의 5부(部)로 나누고, 각각에 아래 표와 같이 10여 개씩의 방(坊)을 두어 5부 52방 체계를 구축하였다. 목민 기관인 5부는 수령이 관할하였고 방은 5부의 행정 기능을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했는데, 주민의 동태 보고, 범죄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방의 구획 기준은 도로였으며, 한성부의 도시 공간이 도성 밖으로 확대됨에 따라 방의 관할 지역 또한 확대되었다. 조선 전기를 기준으로 오늘날 중구에 해당되는 지역

조선 전기 한성부의 부방제(部坊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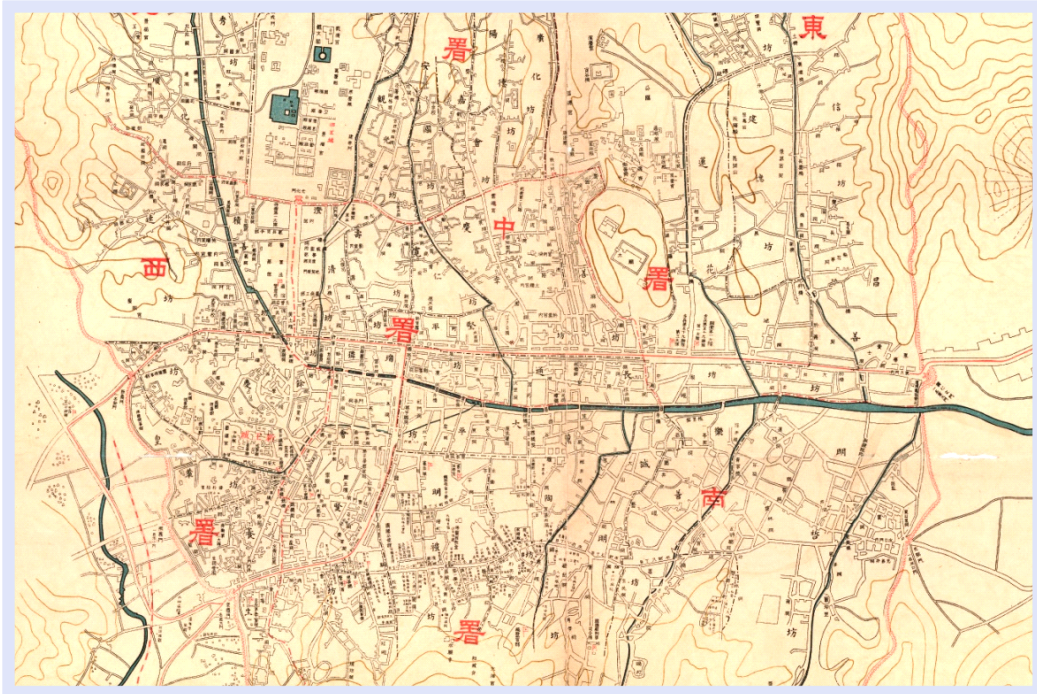
5부(部)	52방(坊)
중부	정선방, 경행방, 관인방, 수진방, 징청방, 장통방, 서린방, 건평방
동부	연희방, 송교방, 천달방, 창선방, 건덕방, 덕성방, 서운방, 연화방, 송신방, 인창방, 관덕방, 홍성방
서부	영견방, 인달방, 적선방, 여경방, 황화방, 취현방, 인지방, 양생방, 반송방, 신화방, 반석방
남부	광통방, 호현방, 명례방, 태평방, 훈도방, 성명방, 낙선방, 명철방, 성신방, 정심방, 예성방
북부	광화방, 양덕방, 가회방, 안국방, 관광방, 진정방, 순화방, 명통방, 준수방, 의통방



조선 전기의 5부제. 도성 안을 중·동·서·남·북의 5부로 나누었다. 「경조오부도(京兆五部圖)」(부분)

은 남부 광통방, 호현방, 명례방, 태평방, 훈도방, 성명방, 낙선방, 명철방 일원과 서부 양생방, 반송방, 반석방, 황화방의 일부 지역이다.

세종 때에 서부 영건방, 인지방, 취현방 등 3개 방이 폐지되어 49개 방으로 되었다. 한성 5부의 구역은 점차 확대되어 오늘날의 중구, 종로구, 용산구 전역과 마포구 성산동 일부, 서대문구 아현동 고개, 중랑천 이남의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지역, 도봉구의 우이동 일부를 포함하는 매우 넓은 범위를 관할하였다. 방 아래에는 다시 리(里)·비(比)로 구분했는데, 영·정조시대 이후에는 리·비 대신에 계(契)를 두었다. 고종 4년(1867년)의 『육전조례(六典條例)』를 보면 한성부는 5부 47방 340계로 구성되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근대적 제도를 도입하면서 한성부가 군(郡)으로 낮아졌는데, 이때 5부(部)가 5서(署)로 개칭되었다. 또한 계를 줄이고 동을 따로 정하여 47방 288계 775동으로 편제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23부 제도가 폐지되고 다시 전국이 1부(한성부) 13도로 바뀌면서 옛 이름을 되찾았다. 갑오개혁 이후 계 밑에 동



『최신경성전도最新京城全圖』에 표시된 경성의 5서(署) 관할구역 경계(1907, 일한서방 발행)

(洞)을 두어 행정체계는 한성부 → 계 → 방 → 동 → 통 → 호에 따라 이루어졌다.²⁾

일제 강점기의 한성부

조선을 강제 점령한 일제는 전통적인 한성의 수도 기능을 무시한 채 식민지의 일반 도시 중 하나로 취급하였다. 즉, 국가의 중앙정부 업무를 수행하던 한성을 경기도 도장관(道長官)의 지시를 받는 일개 도시로 격하시켰던 것이다. 새로운 지방관제의 발표에 의해 한성부를 경성부로 바꾸고, 구 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현재 신세계백화점 자리 소재)에서 부의 업무를 개시하였다.

아울러 새로이 경성부 하부 행정조직으로서 5부 8면제를 실시하였다. 도성 내와 도성 외의 일부를 동부(연화, 건덕, 창선, 숭교), 서부(적선, 양생, 인달, 황화, 여경, 반석, 반송), 남부(명철, 태평, 낙석, 명례, 성명, 회현, 훈도, 광통), 북부(광화, 관광, 준수, 양덕, 가회, 진장, 안국, 순화, 의통), 중부(정선, 장통, 경행, 서린, 수진, 건평,



1910년대의 경성부청. 1886년 현재의 충무로1가 신세계백화점 자리에 일본영사관 건물로 지어진 것을 1906년 경성이사청으로 전용하다가 1910년 경성부 지정과 함께 경성부청이 되었다.

정청)의 5부(35방)로 하였다.

도성 밖은 과거의 용산방을 용산면(31개 동·리)으로, 서강방을 서강면(10개 동·리)으로, 숭신방을 숭신면(40개 동·리)으로, 두모방을 두모면(11개 동·리)으로, 한강방과 둔지방을 합하여 한지면(9개 동·리)으로, 연은방과 상평방을 합하여 은평면(36개 동·리)으로, 인창방을 인창면(40개 동·리)으로, 연희방을 연희면(30개 동·리)으로 하여 8면 207동·리로 하였다.³⁾

서울에서 근대적 의미의 도시계획이 처음 수립된 것은 1930년의 일이다. 그러나 이 계획안은 실제로 시행되지 못했다. 근대적 의미의 진정한 도시계획은 1934년 조선 시가지계획령의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1936년에 수립된 경성시가지계획이 그것이다. 이 계획은 1959년을 목표로 하여 당시의 경성부 전역과 주변 지역을 포함한 총 108.8km²를 계획구역으로 설정하였으며, 계획인구를 70만 명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서울은 1939년 주거, 상업, 공업, 미지정지역 등과 같은 용도지역

을 지정하게 되었는데, 이때 형성된 공간구조의 기초가 현재까지도 도시구조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성의 경우에도 이를 토대로 새로운 행정구역 변경이 이루어졌다. 이때의 면적은 그 이전에 비해 4배나 늘어난 것이었고, 편입된 지역은 고양군에서 용강면, 연희면, 은평면, 숭인면, 한지면 등과 시흥군에서 북면, 동면, 영등포읍, 김포군의 양동면 등의 지역이었다. 영등포읍의 경우는 교통 요지로서 많은 공장이 들어서고, 일본인들의 유입이 특히 많았던 곳이다.⁴⁾

총독부는 관할구역 확장으로 인한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용산출장소(소재지: 경정 24), 동부출장소(소재지: 신설정 87), 영등포출장소(소재지: 영등포정 28)를 설치·운영하였다. 현대와 같은 구제도는 1943년 일제가 출장소 제도를 폐지하고 7개의 구를 두면서부터 실시되었다. 먼저 1943년 4월 1일에 경성부 전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곧 시행될 구제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구가 설치되었는데, 우선 성내를 종로와 중구의 둘로 나누고, 성 밖에 용산구, 동대문구, 성동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등 5개의 구를 설치하였다. 구에는 구역소를 설치하고 최고 책임자로 구장을 두었다. 직제에는 구장 밑에 총무과, 세무과, 호적병무과 등을 두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44년 10월 23일 총독부령 제350호로 서대문구의 인접 지역인 고양군 연희면의 일부와 서대문구 및 용산구 일부를 분할하여 마포구를 신설하여 경성부 하부조직으로 8개 자치구가 설치되었다.⁵⁾

광복 이후의 서울의 도시계획

1945년 8월 15일 광복 당시 서울은 8개 구(區)와 268개 정(町)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19일 미군에 의해 군정이 실시되었고, 군정기간인 1946년 9월 18일, 군정법령 제108호로 경기도 관할로부터 분리되어 서울특별자유시가 되었으며, 이어 동년 10월 1일을 기해 종전까지의 일본식 동명을 모두 변경하였다. 정(町)은 동(洞)으로, 정목(丁目)은 가(街)로, 통(通)은 로(路)로 바뀌었다. 이때 새로 제정된 중구 관내 동명은 다음 표와 같다.

195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1955년 4월 18일 공포)로 행정동 제도가 시행되면서 중구 관할의 65개 법정동은 32개 행정동의 관할구역으로 편제되었

1946년의 서울 중구의 동명 개정

일제 강점기 동명	현재의 동명(법정동)	일제 강점기 동명	현재의 동명(법정동)
태평통太平通1丁目	태평로1가	영락정永樂町1丁目	저동1가
태평통太平通2丁目	태평로2가	영락정永樂町2丁目	저동2가
남대문통南大門通1丁目	남대문로1가	황금정黃金町1丁目	을지로1가
남대문통南大門通2丁目	남대문로2가	황금정黃金町2丁目	을지로2가
남대문통南大門通3丁目	남대문로3가	황금정黃金町3丁目	을지로3가
남대문통南大門通4丁目	남대문로4가	황금정黃金町4丁目	을지로4가
남대문통南大門通5丁目	남대문로5가	황금정黃金町5丁目	을지로5가
어성정御成町	양동陽洞	황금정黃金町6丁目	을지로6가
길야정吉野町1정목	도동桃洞1가	황금정黃金町7丁目	을지로7가
길야정吉野町2정목	도동桃洞2가	장곡천정長谷川町	소공동
고시정古市町	동자동東子洞	일지출정日之出町	남학동
신정新町	묵정동	남미창정南米倉町	남창동
대화정大和町1丁目	필동1가	북미창정北米倉町	북창동
대화정大和町2丁目	필동2가	광희정光熙町1丁目	광희동1가
대화정大和町3丁目	필동3가	광희정光熙町2丁目	광희동2가
병목정竝木町	쌍림동	앵정정櫻井町1~2丁目	인현동1~2가
무교정武橋町	무교동	왜성대정倭城臺町	예장동
봉래정蓬萊町1丁目	봉래동1가	명치정明治町1丁目	명동1가
봉래정蓬萊町2丁目	봉래동2가	명치정明治町2丁目	명동2가
방산정芳山町	방산동	왜성대정倭城臺町	예장동
주교정舟橋町	주교동	육정旭町1丁目	회현동1가
임정林町	산림동	육정旭町2丁目	회현동2가
방산정芳山町	방산동	육정旭町3丁目	회현동3가
주교정舟橋町	주교동	약초정若草町	초동
임정林町	산림동	화원정花園町	예관동
입정정笠井町	입정동	본정本町1~5丁目	충무로1~5가
수표정水標町	수표동	서사헌정西四軒町	장충동1가
장교정長橋町	장교동	동사헌정東四軒町	장충동2가
수하정水下町	수하동	남산정南山町1~3丁目	남산동1~3가
삼각정三角町	삼각동	수정壽町	주자동
초음정初音町	삼각동	다옥정茶屋町	다동

다. 이후 1970년 5월 18일에는 서울특별시조례 제613호(1970년 5월 5일 공포) 동장정원 및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조례에 의해 행정동명과 관할구역의 동명이 일치하지 않은 동사무소와 법정동의 명칭을 일치시킴에 따라 32개의 관내 행정동은 21개 동으로 통합 조정되었다.

1975년 10월 1일에는 대통령령 제7816호(1975년 9월 23일 공포)로 중구의 관할구역에 대폭적인 변경이 있었다. 곧 서대문구의 중림동, 의주로2가 전역과 합동, 만리동1·2가, 충정로3가 일부 및 서소문동, 정동, 순화동 전역과 의주로1가, 충정로1가 일부, 성동구의 황학동, 무학동, 홍인동 전역과 신당동 상왕십리동 일부, 용산구 한남동 일부가 중구로 편입되고 중구 동자동, 도동1가, 도동2가 각 일부를 용산구로 편입시켰다. 새로운 편입지구 면적은 3,73km²으로 구역 경계 이전의 중구 면적 6.34km²의 59%였다. 편입지구에 대해서는 동일자로 시행된 서울특별시조례 제979호(1975년 9월 29일 공포)에 따라 동 명칭과 구역 획정이 이루어졌는데 상왕십리 일부는 황학동과 신당동으로, 충정로3가 일부는 중림동에 편입되고 한남동 일부는 신당동, 동자동 일부는 봉래동2가에 편입되고 도동1가 도동2가 일부는 양동에 편입되었다. 동일자로 시행된 서울특별시조례 제981호에 의해 동장정원 및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중구에는 22개 동이 있었다.

1977년 9월 1일에는 서울특별시조례 제1181호(1977년 8월 29일 공포)에 의해 행정동의 통합 및 분동(分洞)으로 서소문동이 폐동되어 소공동에 편입하였고, 을지로 4·5가동이 되었으며 1978년 10월 10일에는 서울특별시조례 제1286호(1978년 10월 10일 공포)에 의한 동 명칭 및 구역 획정으로 신당동 일부 지역이 황학동에 편입되었다. 1980년 7월 1일에는 서울특별시조례 제1412호(1980년 3월 31일 공포)에 의해 중구 양동(陽洞)이 남대문로5가에 편입된 후 폐지되었으며 동일자 서울특별시조례 제1413호 「동사무소 설치조례」에 의해 만리동이 폐동되어 중림동에 편입하였고, 신당제7동이 폐동되어 신당제5동과 신당제6동에 분리 편입됨으로써 중구의 행정구역은 18개 행정동으로 축소되었다. 또한 1985년 9월 1일에는 서울특별시조례 제2015호 서울특별시 동사무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에 의해 을지로3·4·5가동 중에서 오장동을 충무로4·5가동에 편입시켰다.



서울 중구의회의 제245회 정례회 모습(2018년 8월, 중구의회 제공)

1988년 5월 1일 지방자치제의 전격적인 실시로 서울시 중구의 자치구 시대가 열렸다. 1991년 3월 26일 지방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구를 대표하는 19명의 의원을 선출하였고 동년 4월 15일 중구의회를 개원하고 중구의회사무국을 설치하였다. 초대 민선구청장 선거는 1995년 6월 27에 실시되어 동년 7월 1일 취임하였다. 민선 2기 구청장 임기가 시작된 해인 1998년에는 구 조례 제389호로 행정기구 축소 및 동사무소 통폐합이 이루어졌다(18개 동 → 15개 동).

이후 2005년 3월 15일 구 조례 제631호로 동사무소의 명칭 변경이 이루어져 을지로3·4·5가동을 을지로동으로 개칭하였다. 2009년 12월 3일에는 규칙 제510호로 동주민센터 정원을 15명 증원하고(216명 → 231명), 본청 정원을 15명 감축(883명 → 868명)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환경위생과 녹색성장 담당을 신설하고 사회복지과 일자리창출 담당을 신설하는 등 시민의 복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노력하였다.

2013년 7월 20일 구 조례 제1179호로 5개 동의 명칭 변경이 이루어져 신당1동,

신당2동, 신당3동, 신당4동, 신당6동이 각각 신당동,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동화동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 2017년 7월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시행에 따라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황학동 4개 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을 ‘공공복지팀’과 ‘생활복지팀’으로 개편하고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은 아동친화도시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⁶⁾

2. 중구의 위치 및 환경

중구는 수도 서울의 심장부로서 경제, 문화, 언론 및 유통의 중추기능이 집중되어 있고 퇴계로, 을지로, 청계천로, 남대문로, 왕십리길 등의 간선도로가 관통하면서 지하철 1~6호선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주·야간 활동인구가 가장 많은 핵심 지역 중 하나이다. 620년 역사도시답게 재래식 가옥과 현대식 고층 빌딩이 혼재하는 독특한 매력이 있으나 도시의 기반시설이 노후되어 도심 재개발사업 등 지속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이다. 신당동 및 중림동 일대는 주택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서 아파트지구가 형성되었다.

또한 남대문·중부·평화시장 등의 대형 전통시장과 롯데·신세계 등의 대형 백화점, 명동과 충무로의 현대식 쇼핑가, 그리고 대형 쇼핑몰인 두산타워·밀리오레,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신규 유통시장이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서울의 대표적인 상업지역으로 발전하였다. 소공동과 북창동 등 중구의 핵심지대는 대기업, 은행 본점 등의 중추관리기능이 밀집됨으로써 중심업무지구의 특성을 보이며, 핵심 지역의 외곽에는 보험 및 증권회사 등 전문 서비스 지구가 형성되어 있다. 도서출판과 보도 기능을 하는 업종도 입지하고 있다. 이처럼 중구에는 중심지대에 중추관리기능이, 간선도로변에 도심성 소매 활동이, 간선도로 후면에는 서비스 활동이, 을지로와 청계천에는 기계, 기구, 부속품 등의 판매지역이 서로 연계하여 분포되어 있다.

한편 명동, 남산, 남대문시장, 동대문패션타운 등 관광 명소가 많아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즐겨 찾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광 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도 성업 중이다.⁷⁾

중구의 경계

중구는 서울의 25개 구 가운데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계천을 경계로 옛 서울 분지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중구의 위치를 살펴보면 북쪽으로는 청계천을 경계로 종로구와 접하고, 남쪽으로는 남산의 정상과 응봉의 분수령을 따라 용산구와 이어져 있다. 동쪽으로는 신설동로터리에서 매봉산과 응봉을 잇는 난계로를 경계로 성동구와 이웃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만리동, 중림동과 서대문로터리를 경계로 서대문구와 접하고 있다. 중구의 동단점의 위치는 신당동 679번지이고, 서단점의 위치는 만리동2가 200-4번지, 남단점의 위치는 신당동 산 54번지이며, 북단점의 위치는 황학동 2472-1번지이다.⁸⁾

조선시대에 중구 지역은 서울의 변두리에 지나지 않았다. 종로구와 함께 4대문 안의 도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계천의 남쪽에 있다 하여 남촌으로 불리기도 했고, 벼슬이 높지 않던 양반들 특히 군인계층이 많이 살고 있어서 ‘아래대’로 불렸으며 오늘



1910년대 명동. 일제 강점기 명동은 일본인들에 의해 변화한 상업지구로 변신했다.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날 종로구 지역에 살았던 북촌의 우대사람들에게 홀대를 받았다고 한다. 예로부터 햇빛이 잘 드는 남향집을 선호했던 사람들에게 남산의 북쪽 기슭은 집터로는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계급이 높은 양반들은 북악 아래 북촌에 모여 살고 남산이 앞을 가리는 현 중구 일대의 남촌에는 낮은 계급의 양반이나, 가난한 양반 혹은 중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되었다.

청일전쟁을 고비로 청나라의 중국세력과 그 뒤를 이어 들어온 일본 제국주의세력은 이미 시가(市街)가 짙은 종로보다 중구로 눈을 돌려 이 지역을 차지하고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소공동에는 화교촌이 생겨났으며, 남대문 주변과 명동과 충무로 일대에는 일본인 상가가 터를 잡았고 지금의 신세계백화점 자리에는 삼월백화점(미쓰코시백화점)이, 지금은 사라진 미도파백화점에는 정자옥백화점(丁字屋百貨店)이 자리 잡기도 하였다.

내무부 청사로 사용하다 헐어내고 대신 그 자리에 선 현재의 외환은행 본점 자리에는 일제의 식민지 약탈기관이었던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있었고, 지금의 한국은행은 조선은행이었는데 일본인과 한국인이 앞을 다투어 이 일대에 저마다 은행을 건축해 들어섬으로서 한국의 ‘돈고랑’이 종로에서 중구로 옮겨졌다. 1943년 구제 실시로 중구라는 명칭이 생겨난 것도 서울 중심부로서의 위상이 커졌기 때문이다.⁹⁾

대한민국 경제와 교통의 중심

중구는 도심의 기능분화에 따라 핵심지대, 중간지대, 주변지대로 나눌 수 있다. 핵심지대는 도심성이 가장 높으며 최대의 보행자와 최고의 지가를 자랑하는 고층 건물들이 밀집된 지역이다. 따라서 다양한 업종의 기업 본사와 무역상사, 은행본점 등이 위치하여 중심업무지구의 특성을 나타낸다. 좁은 공간에 이와 같은 중추관리기능이 집적하여 있어 상대적으로 서비스 기능은 적게 입지하고 있다. 핵심지대 내의 각 기능적 배열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은행 본점이 모여 있는 금융가를 사이에 두고 소공동과 북창동 일대는 경제적 관리기능을 위시하여 전문서비스의 혼합지대를 이룬 반면, 명동과 충무로 일대는 고급소매기능이 탁월하다. 소공동과 북창동 일대는 조선시대에 육의전과 시전이 입지하였던 곳이며, 일제 때는 최초로 은행가가 형성된 지구가



공시지가 기준 땅값이 가장 비싼 곳으로 조사된 네이처 리퍼블릭 명동 매장

기도 하다. 명동과 충무로 일대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상인들이 진출하여 근거지를 이루었던 곳이다. 이 지대는 백화점을 위시하여 고급의류점, 양품점, 구두점, 귀금속점, 오락실, 주점 등의 소매업이 입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중구 명동8길 네이처 리퍼블릭 명동 매장(169.3㎡)으로 제곱미터 당 가격이 913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 브랜드인 네이처 리퍼블릭의 서울 명동 매장 부지가 15년째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으로 뽑혔다. 그 이전인 1989~2003년까지는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가 가장 비싼 땅이었다. 현재 우리은행 부지의 제곱미터 당 가격은 8860만원으로 전국 땅값 순위 2위이다.¹⁰⁾

한편 중간지대는 핵심지대와 더불어 전문화된 업종중심지구로서 보험 및 증권회사가 입지하여 행정관리기능을 하는 전문서비스지구이다. 중간지대의 특징은 출판과 언론 같은 서비스 기능도 병행하여 입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교적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극장가도 집중되어 있으며 악기점, 전기-전자제품 대리점, 양복-양장점, 인



남산 자락에서 바라본 중구의 고층 빌딩들과 중간지대의 주택가

테리어점, 사진기점 및 안경점이 중간지대의 주요도로에 면하여 있다. 각 블록의 전면은 빌딩군을 이루어 상업 및 업무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뒷면에는 오래된 주택들도 남아 있다.

주변지구는 주택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경공업지대, 대규모시장, 가구점, 직물점, 자동차 대리점,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등이 집중된 곳이다. 1990년대부터 주변 지구는 중간지구에, 주택과 공장이 어우러져 있는 중간 지구는 핵심지구에 점차 흡수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구는 조선시대 이래로 서울의 심장부로서 도시생활의 중심권으로 발전해왔다. 2018년 현재 중구의 상주인구보다 20배나 되는 400만 명의 활동인구가 중구를 통과하기 때문에 교통상태는 그리 원활한 상태는 아니다. 중구는 주간에 모여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상업시설인 시장, 백화점, 호텔, 오락시설의 집중과 중심 업무시설인 사회, 문화, 산업, 금융, 언론 등의 각종 기관이 집중되어 있기에 이러한 여건들이 초래하는 교통체증으로 도로의 차량이 멈춘 듯한 모습을 수시로 볼 수 있다.

중구의 가로 현황을 보면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는 청계천로, 을지로, 퇴계로, 명동길, 마른내길, 왕십리길 등이고, 남북으로는 태평로, 남대문로, 삼일로, 돈화문로, 배오개길, 훈원로, 장충단로 등이 있다. 주요 가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¹⁾

태평로는 세종로 네거리에서 시청을 거쳐 남대문에 이르는 가로명이자 법정동 명칭도 된다. 이 길은 서울의 세종로, 종로와 같은 비중의 간선도로로 강북에서는 세종로 다음으로 넓은 길이다. 또한 세종로, 남대문로와 연결되는 것은 물론 종로, 새문안길, 소공로, 을지로, 서소문로, 청계천로 등과 접속되는 주요도로로서 정부기관, 금융기관, 언론기관, 호텔, 대기업 본사와 덕수궁 등이 좌우에 즐비하여 ‘서울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다. 세종문화회관 별관은 한때 국회에서 사용하였고 지금은 서울시의회 의사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태평로 하면 의회정치를 상징하는 대명사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찾는 국민이나 관광객이라면 이 길을 외면할 수 없다.

청계천로는 서울시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동대문구 답십리동 신답철교 북단까지 연결하는 도로이다. 총 연장 약 6km, 폭 25~30m(왕복 4~6차선)이며, 세종대로에서 분기하여 중점에서 천호대로와 연결된다.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2차로씩 분



송례문 문루에서 찍은 남대문로 일대의 전경(1910년)



‘서울로7017’(옛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바라본 남대문로

리되어 있다. 1960년대 청계천을 복개하고 지상도로와 고가도로를 설치하였다. 과거 고가도로가 있었던 시절 청계천로는 왕복 8~10차로였으나 고가도로의 노후화와 청계천 복원 사업을 위해 2003년 복개도로를 뜯어 양방향 각 2개 차로만 남기고 고가도로는 완전히 철거했다. 청계8가 근처에 고가도로 시절 교각이 한 개 남아 있다.

남대문로는 보신각에서 남대문을 거쳐 서울역에 이르는 가로명이자 법정동의 명칭도 된다. 이 길은 한양 천도 이후 500년간 종로 네거리에서 남대문으로 나가는 주요 간선도로였다. 조선말까지 광화문에서 남대문으로 가려면 세종로 네거리에서 종각으로 구부러진 다음, 이 길을 통해 남대문으로 가는 것이 상례였다. 오늘날에도 종로나 을지로에서 서울역을 가려면 이 길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많다. 서울에서 가장 변화한 을지로입구나 명동입구 등도 이 길을 거치는 도중에 있다.

퇴계로는 봉래동2가 84번지 서울역 광장에서 명동입구를 경유하여 광희동 226-3번지 광희문에 이르는 폭 35m 길이 3.5km의 도로이다. 이 길은 을지로, 청계로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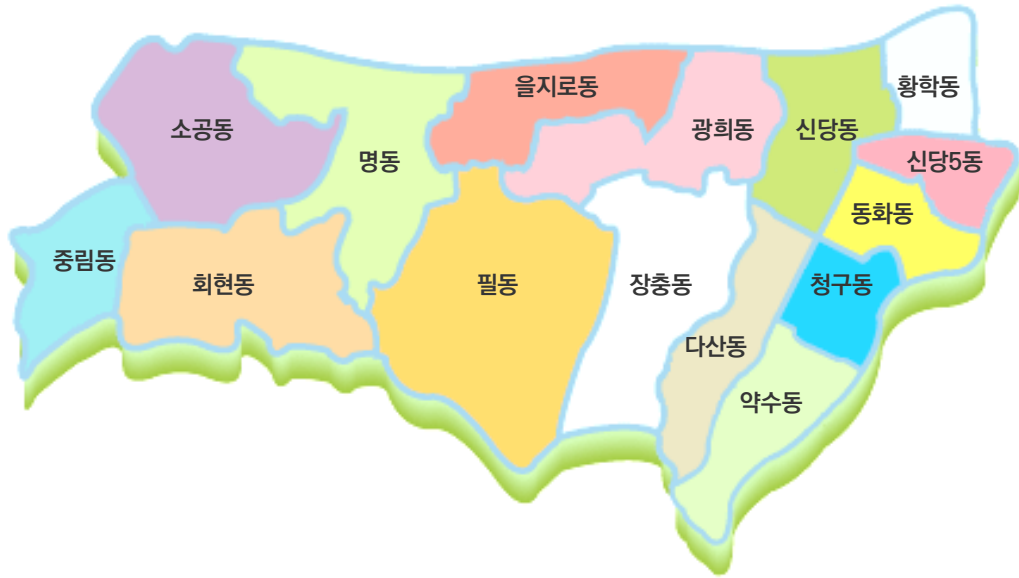
같이 서울의 도심부를 동서로 연결시키며 북쪽으로는 충무로와 인접해 있고, 남쪽은 남산 연변에 접해 있어서 남산과 회현동, 필동, 목정동, 쌍림동이 각각 위치한다.

을지로는 태평로1가 31번지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을지로7가 2번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앞까지의 폭 30m 길이 2,74km의 도로이다. 조선시대부터 동현(銅峴) 혹은 구리개라고 부르던 지금의 을지로입구에서 광희문까지 연결된다. 을지로는 을곡로, 종로, 청계로, 충무로, 퇴계로와 함께 도심의 동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이며 을지로 전 구간이 지하철 2호선의 통행노선이기도 하다.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던 1960년대 초에는 을지로 전 구간에 걸쳐 각종 사무실이 위치하여 도심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밀집되었다. 지금은 신설동, 논현동, 아현동 등지로 이전된 가구업체가 가정용품·사무용품 별로 이곳에 위치했던 이유도 많은 빌딩이 모여 있었고 그에 따른 인구 집중 때문이었다. 이곳은 은행 등 금융업체가 집중된 지역이기도 하다.¹²⁾

3. 중구의 행정동과 법정동

중구의 행정은 현재 15개의 행정동이 나누어 관할하고 있다. 행정동(行政洞)이란 주민들의 거주 지역을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설정한 행정 구역 단위로서 주로 인구가 많은 하나의 법정동에 여러 행정동을 설정하여 동 행정을 맡게 하거나, 인구가 적은 여러 법정동을 묶어 하나의 행정동을 두기도 한다. 이에 대비되는 법정동(法定洞)은 법률로 지정된 행정 구역으로서, 그 명칭은 전통적인 마을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대부분 1914년 행정 구역 통폐합 시 정해진 대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광복 직후의 과도기와 6·25전쟁으로 인한 혼란이 어느 정도 진정된 195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에 의해 행정동제가 실시되었다. 중구의 65개 법정동은 32개 행정동이 관할하게 되었다. 이때의 32개 행정동은 덕수동, 홍천동, 청계동, 대창동, 송남동, 도동, 동자동, 회현1가제1동, 회현1가제2동, 훈련동, 을지로6·7가동, 훈도동, 산림동, 회현2·3가동, 남산동, 남곡동, 동원동, 충무로1·2가동, 명동, 충인동, 야현동, 영희동, 인현1가동, 낙선동, 장충1가동, 장충2가동, 쌍림동, 광희1가동, 광희2가동, 을지로2·3가동, 을지로4가동, 주교동이었다.



중구 행정동 현황 및 관할구역

행정동	한자	면적 (km2)	세대	인구(명)
소공동	小公洞	0.95	1,072	2,936
회현동	會賢洞	0.84	3,273	5,952
명동	明洞	0.99	1,400	3,470
필동	筆洞	1.14	2,291	5,045
장충동	獎忠洞	1.36	2,662	5,653
광희동	光熙洞	0.74	2,906	6,057
을지로동	乙支路洞	0.60	1,269	1,901
신당동	新堂洞	0.55	4,430	9,419
다산동	茶山洞	0.51	6,922	15,113
약수동	藥水洞	0.48	7,768	17,973
청구동	靑丘洞	0.34	6,448	14,844
신당5동	新堂第5洞	0.39	4,500	9,691
동화동	東化洞	0.26	4,228	11,608
황학동	黃鶴洞	0.33	6,525	13,380
중림동	中林洞	0.48	5,808	12,980
중구	中區	9.97	61,502	135,633

출처: 서울특별시 중구청 홈페이지,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1970년 5월 18일에는 32개 행정동에서 태평로1가동, 소공동, 남대문로3·4가동, 남대문로5가동, 도동, 동지동, 회현1가동, 남산동, 명동, 충무로3가동, 초동, 충무로4가동, 필동2·3가동, 충무로5가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5가동, 을지로4가동, 예관동, 을지로3가동, 을지로2가동의 21개 행정동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75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대한 대폭적인 조정에 의해 22개 행정동 체제로 변경되었다. 이때의 행정동은 태평로1가동, 을지로4·5가동, 소공동, 남대문로5가동, 회현동, 명동, 충무로4·5가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3가동, 신당제1동, 신당제2동, 신당제3동, 신당제4동, 신당제5동, 신당제6동, 신당제7동, 신당제8동, 서소문동, 중림동, 만리동이었다.

1977년 9월 1일 서소문동이 소공동에 통합되고 을지로4·5가동이 을지로3가동에 편입되어 종래의 22개 동에서 20개 동으로 축소되었고, 1980년 7월 1일 만리동이 중림동에 통합되고 신당7동이 신당5동과 신당6동에 분리·편입됨으로서 중구의 행정구역은 18개 동으로 되었고 법정동인 양동이 남대문5가에 편입되어 폐지되었다.

1998년에는 상주인구 5천 명 미만인 동의 통폐합 정책에 의하여 남대문5가동이 회현동과 통합되고 태평로1가동이 명동에 통합되었을 뿐 아니라 충무로4·5가동이 광희동에 통합되어 현재와 같이 15개의 행정동 체제를 이루게 되었다. 이후 2013년 7월 행정동 명칭 변경에 따라 신당1동은 신당동, 신당2동은 다산동, 신당3동은 약수동, 신당4동은 청구동, 신당6동은 동화동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른다.

2018년 현재 중구의 기본 현황은 다음과 같다.¹³⁾

- 면적 9.97km²
- 행정동 15개 법정동 74개
- 세대 61,502가구
- 인구 135,633명
- 인구 밀도 13,604명 / km²

행정동	법정동
소공동	북창동, 소공동, 태평로2가, 의주로1가, 충정로1가, 서소문동, 정동 전 지역 남대문로2가(명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남대문로3·4가(회현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순화동(회현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봉래동1가 1-2호, 5-3, 25~30, 32, 47호, 21-1, 3~5호, 22-1, 7, 9, 14~16, 18호, 23, 23-1, 2호, 24, 24-3, 4호, 25, 26, 27-2, 9, 11, 13~17, 20, 21, 26, 31~33, 36, 37, 39~42, 44, 45, 47, 54, 55호, 28-1호 30, 31, 32, 34-1호, 35, 36-1호, 37-1, 3, 4호, 40, 41, 42-1, 3호, 43-2, 5호
회현동	남대문로5가, 봉래동2가, 남창동 전 지역 봉래동1가(소공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회현동1·2가(명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순화동 204-3, 5호, 205-1, 2호, 206-2, 3호, 207-23~27, 31호, 208-2, 4호 남대문로3가 17-2호, 23-2호, 24-4, 25-2, 26-4, 27-2, 30-1~21호 남대문로4가 3-1~5, 7, 8, 9, 10, 11~13호, 15, 16호, 18-1~12호, 20-1~11, 14~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40, 41, 42, 43, 44, 45, 46, 47~50, 51, 52, 54, 55, 58, 59, 60, 61호 충무로1가 51-27호, 52-5, 7~8, 41, 53-1, 3, 4, 5호
명동	장교동, 무교동, 다동, 삼각동, 태평로1가, 을지로1·2가, 남대문로1가, 수하동, 수표동, 저동1가, 충무로2가, 명동1·2가, 남산동1·2·3가, 회현동3가 전 지역 충무로1가(회현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예장동 8-8, 10~18, 21, 22, 37~39, 49~60, 66~92, 96~102, 104, 107~141, 144, 150, 151, 156, 170~177호 남대문로2가 1, 1-4, 6, 7호, 3, 3-1, 2호, 4-1, 2, 4~9호, 5, 5-3~5호, 8-1호, 9-1, 11, 13호, 10-1호, 11-1, 4호, 12-1, 3, 4호, 13, 14-1, 3~6호, 15-1, 3~6호, 55-6호, 60, 62-1호 회현동1가 144-24~43, 45~71, 288호, 산1-15, 16, 19, 28~32호 회현동2가 산1-1호, 1-1, 3, 16, 30, 32, 33호, 2-1호, 3, 3-1호, 4-2~7호, 5-2, 5호, 6-6, 11, 14, 21호, 8-3, 4, 5호, 9-2~7, 9, 13~18호, 10-1, 3, 6, 7, 8, 10~14, 24~28, 31~34, 37~47호, 11, 12, 15-1호, 16-1호, 18-1, 2호, 19-1, 2, 3, 5, 6호, 20-1~4호, 21-2, 23호, 23, 24-1, 2호, 26-1, 3~8호, 27, 27-3~9호, 28-1~4호, 30-1~8호, 31-1, 2, 5, 6, 7, 12, 14호, 2-1, 2, 5, 7~11호, 33-1, 3, 4, 7, 9, 34호, 34, 35-3호, 36-1, 2호, 37-2호, 39-1, 7, 24, 29호, 40-3, 4호, 41-2, 3, 4, 8, 9, 14, 16호, 42-1~10, 12, 13, 16~19, 21, 23, 24, 25, 27, 28호, 43, 43-1, 4, 10호, 44-2, 9호, 46-3호, 48-1, 2, 3, 5~13, 16, 19~22, 24, 27~32, 38, 39, 40, 44, 48, 53~57호, 49-2호
필동	필동1·2·3가, 주자동, 남학동, 충무로3가 전 지역 예장동 1-4, 5, 9~13, 15~17, 19~21, 33~36, 49, 51~54, 57~58, 65, 69, 72, 78, 91, 92, 94, 96, 97, 126~128, 130~132, 134, 137~155, 157~165, 170, 174호 2-2~8, 10, 11, 13~16, 19, 24, 27, 38, 41, 60, 63, 64, 73~75, 81, 86, 96, 97호, 6-18~21, 25호, 7-2, 3, 5, 6, 8, 11, 12, 19, 24, 29호, 8-6, 27~30, 32, 33, 44~46, 105호, 9, 산5-0, 6호 장충동2가 192-11, 15, 16, 22, 34, 45, 58, 59, 61~66, 71~73, 77, 79, 88, 92, 94, 106~119, 134, 135, 167호, 산14-48~51호 충무로4가 116-9~11, 13, 18호, 125-23, 24, 28, 36, 43, 45, 52, 53호 충무로5가 52-25호, 55-0, 1, 2, 18호, 73-1호, 74-1호, 76-2호, 77-2, 3호, 78-1~5호, 79-1, 2, 5, 81호, 81, 82-1~7, 9, 83호, 84-1, 3, 4호, 85-1, 2, 4호, 86-1~3호, 87-1~3호, 88-1~5호 목정동1-2, 17, 19, 21, 23~26, 28, 32, 33, 36~42호, 3-18, 19, 23, 24, 37, 40호, 11-2, 3, 6, 7, 8, 101호, 27-1~13, 17~19호, 28-1, 2, 3, 5~16, 20, 22, 24, 25, 27~33호 29-1, 2, 5~7, 9, 10, 13, 15~20, 22~28, 30~32, 36, 38, 41, 43, 45호, 30-1~6, 8~10, 12~15, 17, 20~25, 27, 29호, 31-1~7, 10, 21호, 32-1~8, 12~14호 목정동11-2(충무아파트), 목정동11-67(목정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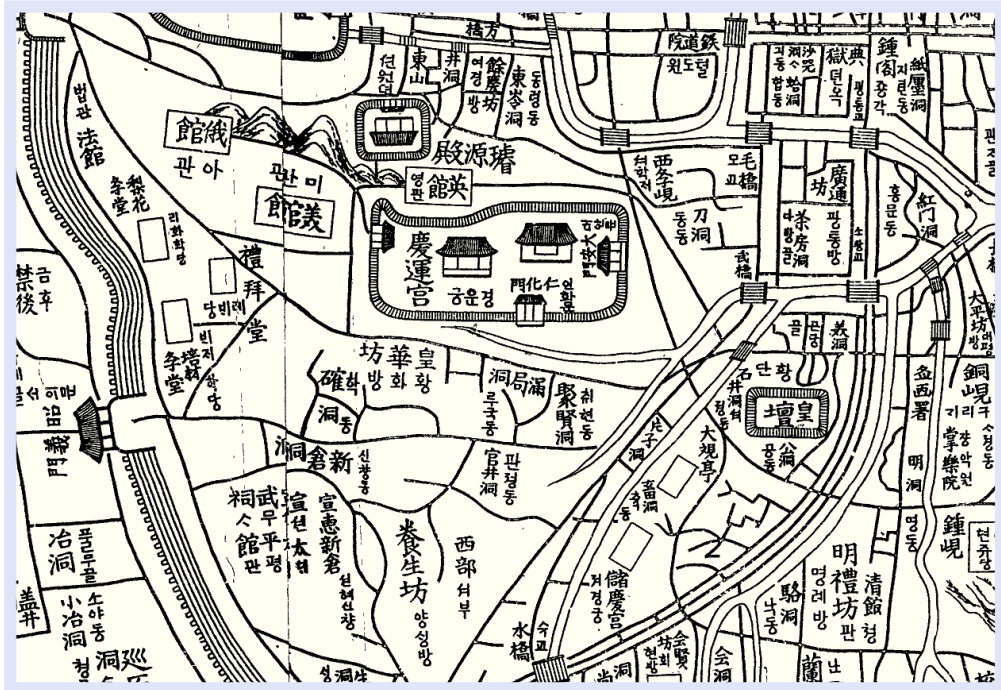
장충동	장충동1가 전 지역 목정동(필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장충동2가 1~191, 193, 197, 199~202, 205, 206, 208~209, 223~224, 226~227, 230 산4, 산5-19호, 산14-1, 3~11, 13~22, 67호
광희동	인현동2가, 예관동, 쌍림동, 오장동, 광희동1·2가, 을지로6·7가, 인현동2가 192~30(신성아파트) 전 지역 충무로 4·5가(필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충무로4가 120-3(진양아파트)
을지로동	을지로3·4·5가, 주교동, 방산동, 입정동, 산림동, 초동, 저동2가, 인현동1가
신당동	무학동, 흥인동 전 지역 신당동 193~253, 292~72~95, 112~114, 116~127, 134, 136~143, 164~180호, 295-16, 23~26, 34, 35, 41, 2, 45, 47호, 296-1~16, 23, 27, 33, 34, 297~300, 301-4~15호, 302~307, 387~392, 393-3~67, 70, 71호, 772~778
다산동	신당동 294~106호, 295-27, 36, 47, 50호 296-17~20, 24, 30~32호, 301-16~18호, 308, 309-3, 13, 15, 18, 35, 37, 45, 59, 245호, 336~338, 340~142, 143호, 353~355, 357~361, 363~365, 366~340, 440호 368-8, 16, 17, 19~21, 32, 94, 104, 105, 107호 369-7, 9, 11, 12, 73, 93호 370-1, 7, 46~53, 55, 56, 58~61, 69, 77, 78, 81, 88, 90, 91, 93, 95, 100, 101, 106, 107, 110, 113~116, 118, 120, 123, 132, 141, 142호 374~379, 381, 385~386, 393-1, 2, 68호, 394~395, 397~407, 409~431, 432-1~772, 776, 778~1096, 1099~1124, 1126~1314, 1315~1372, 1393~1402, 1426, 1448, 1449, 1460, 1480~1485, 1537, 1552, 1560, 1562, 1578, 1584, 1585, 1592, 1593, 1600~1610, 1612~1688, 1692~1705, 1735~1800, 1815, 1821, 1832, 1837, 1849, 1851, 1871, 1874~1876, 1879~1881, 1886, 1887, 1892~1902, 1905, 1906, 1908, 1909, 1911, 1912, 1916, 1924~1926, 1929, 1930, 1936, 1937, 1939, 1940, 1944~1947, 1951~1954, 1956~1960, 1966, 1967~1969, 1970~1972, 1974, 1975, 1980, 1990, 1999, 2000, 2013, 2023, 2026~2032, 2035, 2036, 2066, 2164~2166, 2169호 821~831, 산24
약수동	신당동 309-61, 63~66, 68~72, 75~77, 81, 84, 86, 98, 100~104, 106~108, 110, 112, 116, 120, 122~124, 127, 132~136, 140, 202~205, 208~210, 213~214, 216, 218, 220~222, 231, 232, 238, 241~244, 247, 248, 250~252, 254~256, 272~274, 287호 346~427, 432, 441~454, 456~457, 461~464, 466, 467, 469, 470, 474, 486, 490, 493, 494, 501, 502, 521, 566~568, 576, 617호 348-37, 43, 104호, 349-41, 56, 61, 63, 66, 68, 69, 73, 75, 78, 79, 83, 88~94, 100, 108, 109, 112~116, 118~121, 123, 127~132, 134~146, 151~153, 189, 191~192, 194, 204, 206~209, 210, 214~217, 220~237, 242~245, 251, 272, 274, 277~284, 286~294, 295~300, 302~339, 340~353, 356~359, 361, 384, 385, 397, 440, 488, 518호, 357-1호 366-1~5, 7, 9~12, 14~16, 18~20, 21~23, 32, 34, 37~42, 45, 54~56, 58~60, 64, 67~75, 77, 79, 82, 83, 85, 86, 88~90, 96, 97, 99~106, 108, 109, 111, 115~117, 119, 121, 124, 125, 127~130, 136, 138, 139, 144, 148, 154, 156~160, 179, 180, 183, 248~250, 253, 258, 263~268, 303, 304, 306, 311, 314, 324, 325, 331, 333, 338, 381~383, 388, 394, 420~422, 433, 443, 449, 450, 522~524, 543, 545, 548호 367-4, 6~17, 19~22, 26, 28, 29, 33, 34, 53, 62, 63, 73, 74호 368-1~3, 54~56, 58~60, 66~71, 77, 79~80, 82, 83, 86, 87, 89, 90, 96~100호 369-28, 29, 33, 35~37, 39, 47, 48, 50~53, 59, 64, 70, 71, 79, 83, 87, 101호, 372-13, 31, 36, 37, 39~42, 45, 47, 49, 53, 55, 58, 59, 65, 66, 68, 69, 71~73, 79~87, 92~96, 100, 102, 104, 106, 110, 129, 130, 367, 430, 434, 435, 438, 439, 441, 442, 444, 447, 449~455, 467, 478, 1382, 2796호 373-3, 4, 7~13, 15, 20, 21, 34, 35, 42, 52~54, 64~66, 69~72, 75, 112~115, 117, 125, 126, 129, 130, 252, 272, 317호 366-126(남산정은스카이), 844(남산타운아파트)
	신당동 산34-4, 133호, 36-0, 218호 40~94, 140, 211, 226, 245, 274, 280호, 289~155, 157호, 294-3, 18, 19, 21, 22, 26, 29, 31, 33, 40, 45, 47, 64, 66, 67, 68, 70, 72, 73, 75, 77, 78, 79, 80, 84, 92, 94~108, 114, 116, 117, 118, 120, 121, 122호 295-14, 30호, 309-6, 8, 9, 22, 24, 31, 41, 42, 50, 51, 53호, 310-1, 3, 5~12, 14, 15, 16, 19, 23, 24, 25호, 311-1, 3, 5, 10, 11, 12, 14, 15, 17, 20, 21, 22

청구동	호 313-8, 9, 17, 29, 31, 32, 33, 38, 39, 42, 43, 44, 46, 49, 53, 54, 55, 57~61, 63, 64, 65, 67~71, 82, 86, 90, 100, 105, 108호, 314-1, 2, 23, 24, 25, 26, 29~48, 50, 51, 58호 315-1~4호, 316-2, 4, 5, 7~10, 13, 14호 317-2, 6, 7, 9, 11호 318-2~4호 319-1호 320-2, 3, 5, 8, 12호 321-1, 4, 6, 8~12, 14, 16, 18, 19, 27, 32, 33, 37, 47, 48, 52~62, 64, 66, 70, 72, 77~80, 84, 86~90, 92, 94, 95, 98~102, 105, 106, 108, 111, 116, 121, 122호, 322-0~7, 9, 11~15, 18~21, 23, 25~27호 323-1, 2, 6, 8, 10~12, 14호, 324-1, 2, 5호, 325-1~2호 326-1~5, 7, 8, 10, 11, 21~23, 25호, 328~215~217호 329-25, 28, 29, 30, 32, 33, 35호 330-1, 3~8, 10, 11, 14~17, 19, 22, 28, 30, 31, 32, 34, 35, 38~42, 45, 47, 52, 53, 59, 60, 62~68, 73~75, 81, 82, 83, 86, 87, 90, 92, 95, 98, 100~103, 106, 108, 109, 111, 143~146, 149, 152, 154~156, 159, 160, 163, 173, 175~177, 184, 190, 202, 206~214, 216, 218, 221, 238, 245, 248, 277~280, 284, 286, 291, 292, 296, 298, 299, 301, 302, 312~315, 320, 324~326, 328~333, 339, 342~344, 356, 360, 366, 370, 372, 375, 376, 380, 381, 383, 389, 442호 331-0~12, 14, 15, 17, 20~22, 27, 65, 66, 69, 70호, 332-19~21, 23호 333-0~4, 7, 9~12, 15, 17, 18, 20~27, 29, 31~33, 35~38, 40~43, 45~47, 50, 52~54, 57, 59~63, 65, 66, 67, 69, 71, 74, 78~82, 84, 88, 89, 91, 93, 94, 96, 98, 110, 111, 121~123, 125, 128, 130, 132, 135, 139, 154, 156, 164, 171, 173~177, 179~185, 187, 189~193, 198, 199, 203~206, 212~214, 220, 229~232, 234~236, 238~241, 244~250, 253~271, 273~307, 309~312, 314, 316~324, 326~342, 344, 347, 350, 363, 369~374, 384~387, 389, 487~489, 499~501, 504, 537~539, 542, 548, 550, 551, 555, 556, 560, 563, 575, 576, 579, 584, 586, 595, 597~600, 602, 605~607, 610, 611, 613, 618, 624, 625, 628, 636, 638, 639, 642, 643, 650, 658, 690, 697, 699, 707, 709~715, 759~761, 764, 768, 770~773, 776, 791, 793, 799, 803호 334-1~7호 335-4, 5, 8, 9, 11호 340-1, 2, 7, 8, 10, 11, 15, 18, 22~24, 27~29, 31, 34, 35, 37, 38, 44, 45, 47, 52~59, 61, 62, 65~68, 73, 77, 80, 83, 88, 101, 104, 119, 121~123, 126~128, 131, 134, 137, 139, 147, 157, 160, 161, 166, 180, 184, 189, 191호 341-6, 10, 11, 16~18, 20호, 343-7호 344-2~4, 6~8호, 345-15~17호, 346-1, 5, 20, 225~227, 229, 234, 236, 238, 311~314, 326~330, 402, 407, 408, 413, 415, 417, 418, 420~422, 484, 485, 495, 620호 347-255, 256, 270, 271, 274, 275, 285, 288, 294, 297, 298, 326, 328, 329, 331, 332, 334, 335, 337~340, 352, 355, 359, 364, 366, 368호 369-19, 21~23, 26, 50, 74~76호 370-14, 17, 24, 27, 29, 30, 31, 32, 40, 64, 76, 116, 119, 120호 841(청구아파트), 842(약수하이츠), 843(삼성아파트)
신당제5동	신당동 34, 52-1, 74, 75, 78, 143, 146, 149, 151~152, 261호 58-1~3, 23, 38~39, 42~43, 46~47호, 59-1~14호, 61-3~7, 12~17, 22~29, 31, 34, 42호, 62~35호, 65, 67, 69-5, 7, 10, 14, 16호, 70-4, 6호, 72-3~7호, 73-2~4호, 74-4호, 75, 80, 85, 100-1~10호, 101-1~11호, 110~113, 120~123, 130~133, 140~171, 438, 444~770, 산2-6, 7호 산12-1, 31, 61~74호, 845(한진그랑빌)
동화동	신당동 36-6, 7호, 37~39, 40-1, 4~12, 15~26, 28, 30~32, 37, 38, 40, 42, 48~50, 52, 55, 56, 522, 523, 538, 595, 596, 598호, 41~50, 52-2~61, 94~139, 155~259, 262~326호 54~57, 58-2~22, 25~31, 33, 38, 41, 44호 61-10, 32, 33, 38, 39, 40~58호, 62-3, 6, 7, 9~12, 25~28, 34, 39~46, 56, 57, 61, 62, 65, 67~72, 73, 75, 80~83호 80-397, 399, 404, 500, 505, 506, 508, 510, 511, 518, 550호 267-1, 69호, 270, 271, 273, 276, 280, 281~288, 289-1~154, 162~193호, 290, 291, 292-10~65, 98, 100~111, 130, 134, 135, 141, 143, 146, 149, 150, 151, 152호, 293, 294-1, 4~8, 10~12, 15, 23, 24, 34, 36, 41~43, 50, 52, 54~56, 59, 61, 63, 65, 93, 109호 312, 313-1, 3, 9, 19, 20, 22, 24, 25호, 832~838, 840(현대아파트), 846(파라다이스), 849(삼성홈타운), 850(신당푸르지오)
황학동	황학동
중림동	중림동, 의주로2가, 만리동1·2가, 중림동200(삼성사이버빌리지), 중림동201(삼성래미안), 중림동355(브라운스톤), 만리동1가 62-7(서울역 대우디오빌), 만리동2가 11-1(kcc파크타운)

제1장 소공동 권역

소공동은 북창동, 태평로2가, 남대문로2~4가, 서소문동, 정동, 순화동, 의주로1가, 충정로1가, 소공동 등 11개 법정동과 봉래동1가 일부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관할 구역 명칭이다. 2018년 기준 행정동 소공동의 면적은 0.95km²이며 인구는 1,076세대에 2,865명이 거주하고 있다.¹⁴⁾ 소공동의 동명은 조선 태종의 둘째 딸인 경정공주(慶貞公主)의 궁이 있어 작은공주골이라 하던 곳을 한자로 소공주동(小公主洞)이라 하였고 이를 줄여 소공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북창동은 조선시대 선혜청의 북쪽 창고가 있어 붙여졌으며, 서소문동은 한양 도성 8문의 하나인 서소문에서 유래되었고, 덕수궁 북서쪽에 위치한 정동은 조선 태조 이성계의 계비인 신덕왕후의 정릉이 오늘날의 정동 4번지에 있었던 것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의주로 인근에 위치한 순화동은 광복 후에 순창동의 ‘순(巡)’자와 화천정의 ‘화(和)’자를 따서 순화동이라 하였다.

1970년 5월 18일 동장정원 및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13호)에 의해 소공동이 설치되면서 소공동, 북창동, 태평로2가, 남대문로2가를 관할구역으로 하였다. 1975년 10월 1일 관할구역 변경(서울특별시조례 제981호)으로 남



1902년 발행된 「서울 지도」의 소공동 부근

대문로3·4가 동사무소가 폐지되면서 소공동에 통합되었다. 1977년 9월1일(서울특별시조례 제1181호) 동장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서소문동사무소가 폐동되면서 그 관할구역은 소공동사무소에 통합되어 소공동, 북창동, 태평로2가, 남대문로2~4가, 서소문동, 정동, 순화동, 의주로1가, 충정로1가의 행정을 관할하였으며, 1992년 1월 3일 동 경계 조정(중구조례 제170호) 때 봉래동1가 지역 일부가 소공동사무소 관할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¹⁵⁾

01. 소공동小公洞

소공동은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을 마주보고 위치했던 까닭에 왕조의 운명과 흥망성쇠를 같이했다. 조선시대 남부 호현방의 일부 지역이었고, 영조 27년(1751)에 편

찬된 『수성책자(守城冊子)』의 「도성삼군문분계총록(都城三軍門分界總錄)」에 의하면 남부 호현방 송현계 궁내계에 속하였으며, 갑오개혁 당시 5부가 5서로 바뀔 때 남서(南署) 회현방 소공동계 소공동, 송현계 송현동, 저경궁계 저경궁동, 미동계 석정동 지역이었다. 이듬해 칙령 제36호로 5부로 환원됨에 따라 남부 회현방에 속하였다.

그 뒤 1914년 경기도고시 제7호에 의해 소공동은 남부 송현동 석정동 각 일부와 저경궁동을 합하여 장곡천정이라 하였는데, 이는 1904년 러일전쟁 때 대한제국의 영빈관인 대관정 터에 조선군사령관이었던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가 거주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943년 부령 제163호에 구제도를 실시하면서 중구 장곡천정이 되었다. 1946년 일제식 동명을 없앨 때 소공동으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소공동은 동쪽으로 남대문로2가, 남쪽은 남대문로3가 및 북창동과 접하고 서쪽은 태평로1가, 북쪽은 을지로1가와 연해 있다. 소공로와 북창길이 동의 서남부를 교차하며 지나는 소공동은 서울에서도 상업·업무중심지구로 노른자위에 해당되는 곳이지만 조선시대에는 궁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했던 까닭에 왕실 소유의 땅이 대부분이었다. 소공동 87번지 자리는 태종의 둘째 딸 경정공주와 부마 조대림(趙大臨)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공주대, 또는 소공주대이라 불렸다. 이후 선조 16년(1583)



소공동의 관할구역 경계와 소공동주민센터



2018년 소공동 마을축제 중 '마법놀이터' 공연 모습(중구문화원 사진공모전 입상작)

에 궁을 화려하게 지어 셋째 아들인 의안군(義安君)에게 주었으나 선조25년(1592) 임진왜란 때 왜군의 진지로 사용되었다. 이듬해 명나라 장군 이여송이 왜군을 쫓고 이곳에 거처하였고 또 이후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던 곳이 되어 남별궁이라 하였다.

조선시대 이곳 풍경을 알 수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자연부락 명칭에서 옛날을 추정해 볼 뿐이며 지금은 서울에서도 가장 도심 한가운데이고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져 자연부락의 위치 확인은 어렵다. 돌우물골은 소공동, 태평로2가, 을지로1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돌 틈에 나오는 우물이 있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인데 한자로는 석정동(石井洞)이라 하였다. 술고개는 소공동, 북창동, 남대문로2~3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소공동 111번지 부근의 고개에 소나무가 울창하게 들어서 있어 술고개 또는 송현(松峴), 송현동이라 하였다. 종로구에 있던 송현과 구별하여 남송현이라고도 불렀다.

저경궁골은 선조의 다섯째 아들 원종(元宗)의 잠저로 송현궁이라 하다가 영조 때 원종의 생모인 경혜유덕인빈(敬惠裕德仁嬪) 김씨의 신위를 봉안하여 사당을 이곳에

옮기고 저경궁(儲慶宮)으로 고치자 그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저경궁은 고종 7년(1868) 계동의 경우궁 별묘로 옮겨졌으며 경우궁과 함께 1883년에 옥인동으로 옮겨졌다가 1908년 7월 궁정동에 있는 육상궁(毓祥宮) 경내로 옮겼다. 남아 있던 송현의 저경궁 터는 국유화되면서 1927년까지 건물이 남아 있었는데 경성치과전문학교를 건축하면서 철거되었다.¹⁶⁾

소공동은 청일전쟁(1894)을 고비로 하여 청의 원세개(袁世凱)가 이끌고 온 중국인들에 의해 화교촌이 들어섰으며, 그 뒤 일본 제국주의 세력이 밀어닥친 1910년 이후부터는 이 마을에 조선히otel을 비롯해서 경성부립도서관, 경성상업회의소, 경성치과전문학교, 콜롬비아레코드회사, 빅타레코드회사 등이 들어서면서부터 산업과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아갔다. 1960년대 이후부터 소공동은 한국의 은행거리라 불릴 만큼 나라 안팎의 은행이 밀집되어 들어서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 이후부터는 은행을 중심으로 대기업 본사와 무역회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설계사 등의 사무실, 여행사, 호텔을 비롯하여 갖가지 협회가 이곳에 자리 잡았다.

소공동 87-1번지에는 사적 제157호로 지정되어 있는 환구단(圓丘壇) 터가 있다. 1897년(광무 원년),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한 고종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선포하고 환구단에 나아가 천지에 고하는 제사를 드린 후 황제에 즉위했다. 당시 환구단이 마련된 곳은 중국 사신들을 접대하던 남별궁(南別宮)이 있던 자리로, 이때 만들어진 환구단은 화강암으로 된 3층의 단이며, 중앙 상부는 금색으로 칠한 원추형(圓錐形)의 지붕이었다. 환구단에는 하늘과 땅, 별과 천지만물에 깃든 신의 신위(神位)를 모시고 동지나 새해 첫날에 제천 의식을 거행하였다. 그러나 1912년 일본은 환구단을 헐고 그 자리에 총독부 철도호텔을 세웠다.

황궁우(皇穹宇)는 화강암 기단 위에 세워진 3층의 팔각 정자로, 환구단이 조성된 2년 후인 1899년(광무 4년)에 환구단 북쪽에 건립하여 신위판(神位版)을 모셨다. 황궁우의 건물 내부는 통층(通層)으로, 3층은 각 면에 3개씩의 창을 냈으며, 천장의 칠조룡(七爪龍) 조각은 황제를 상징한다. 황궁우 앞에는 1902년에 고종의 즉위 40년을 기념하기 위한 돌로 만든 북(石鼓)을 세웠는데, 이 북은 제천을 위한 악기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몸체에는 화려하게 조각된 용(龍) 무늬가 있다.



소공동 87-1번지에 있던 환구단과 황궁우. 현재 이 자리에는 웨스틴조선호텔이 서 있다.

환구단과 황궁우는 당시 고종이 황제로서 제천 의례를 행하던 곳으로, 예로부터 천자라고 주장해 온 중국이나 천황이라고 주장해 온 일본과 대등한 자격으로 서기 위해 황제국의 위용을 과시하는 한편 서구 열강에 대해 독립적인 국가상을 보여주고자 했던 정치적·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는 황궁우와 3개의 돌북, 그리고 석조 대문만이 남아 있다. 한편, 1960년대 해체되어 없어진 것으로 알려진 환구단의 정문이 2007년 8월 강북구 우이동 옛 그린파크호텔 터에서 발견되어 복원 공사가 진행되어 2009년 12월에 복원 공사가 마무리되었다.¹⁷⁾

소공동에 위치한 웨스틴조선호텔은 1910년 이후 각 철도간선이 완공됨에 따라 외국인의 서울 통과가 많아지자 서양식 호텔의 필요성이 생겨 건설된 호텔로 1914년 9월 20일에 준공되어 같은 해 10월 10일 개관하였다. 인천의 대불호텔(1888), 정동의 손탁호텔(1902) 다음으로 한반도에서 세 번째로 세워진 서양식 호텔인 조선호텔은 처음에는 만철회사(滿鐵會社)가 건설했는데, 1920년대에 들어와서 철도국 직영이 되었다. 해방 후 조선호텔의 상황도 격변했다. 서울을 포함한 한반도 남부에 진주한



일제 강점기 철도호텔(위)과 현재의 웨스틴조선호텔(아래)

미군은 이 호텔에 군정청 사령부를 두었고, 귀국한 이승만 등의 집무실도 두었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에는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호텔로 군림하였다. 1967년 6월 한국관광공사와 미국항공사가 조선호텔 건설 계약을 체결한 후 신축하여 현재의 건물로 재개관하였다. 현재는 삼성그룹에서 독립한 신세계가 지분 100퍼센트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공동 관할 지역의 특성으로는 업무용 시설, 백화점, 음식점, 호텔 등 상업시설 밀집지역이면서 교통이 편리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의 중심지역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를 비롯하여 대한제국기, 일제 강점

기의 역사적 중심지로서 관련 문화재가 혼재하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지역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최초의 아이스크림’, ‘최초의 엘리베이터’, ‘최초의 댄스파티’ 등 한국 서구 문화의 근원일 뿐 아니라 수많은 ‘한국 최초’의 신화를 남기며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해 왔다.¹⁸⁾

02. 북창동北倉洞

남대문로 북쪽, 세종대로와 소공로 사이에 위치하는 북창동(北倉洞)은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호현방(好賢坊)과 서부 양생방(養生坊) 일부에 속했던 곳으로 일제 강점기에 북미창정(北米倉町)이라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1902년 발행된 「서울 지도」의 북창동 부근과 북창동의 관할구역 경계

바꾸면서 북창동이 되었다. 북창동의 동명은 이곳이 조선시대 선혜청(宣惠廳)의 창고가 있던 북쪽이라고 해서 유래되었다.

선혜청은 1608년(광해군 1)에 상평창(常平倉)을 개칭하여 대동법의 실시에 따라 대동미(大同米)·포(布)·전(錢)의 출납을 맡아보던 기관으로 1753년(영조 29)에 균역청을 병합하였다가 1894년(고종 31)에 폐지되었다.

북창동은 영조 때 한성부 남부 호현방 송현계·소공동계와 서부 양생방 태평관계·창동계·송현계 지역이었으며, 그 뒤 1894년 갑오개혁 뒤 전국의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남서(南署) 회현방 소공동계 소공동·사축동, 양동계 전교동, 예빈동계 예빈동, 송현계 송현동과 서서(西署) 양생방 창동계 창동, 상동계 상동, 태평동계 태평동·양동 전교로 나뉘어졌다.

1910년 조선총독부령 제7호로 한성부에서 경성부로 바뀌면서 경기도 관할이 되었으며 1914년 경기도고시 제7호로 사축동·공대동과 양동·송현동·태평동 일부를 합하여 북미창정이라 하였으며, 1943년 부령 제163호에 의한 구제도 실시에 따라 중구 북미창정이 되었다. 1946년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고칠 때 중구 북창동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¹⁹⁾

북창동은 동으로는 소공동, 남으로는 남대문로3가, 서로는 태평로2가, 북은 소공동과 접해 있다. 조선시대 북창동의 자연부락 명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빈텃골은 예빈시(禮賓寺)가 이 마을에 있다가 남별궁으로 옮겨가 터가 비었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으로 일명 공도동(空塗洞)이라고도 불렸다. 예빈시는 고려 초부터 있던 관청으로 주로 빈객의 접대 및 종실 대신의 공궤(供饋) 등을 맡아 하였는데 조선 초기에는 세종로 부근에 있다가 뒤에 북창동으로 옮겨졌다.

한편 예빈시 앞에는 큰 못이 있고 그 속에는 많은 물고기가 살았다고 한다. 예빈시에 근무하던 관원들이 묵은 쌀로 연못의 고기를 길렀는데 이 소문을 들은 태종은 쌀이 묵고 썩었다고 하여도 소채보다는 나을 것이며, 암만 사람들이 굶주려도 모두 구제하지 못하는데 어찌 쌀로 고기를 기를 수 있느냐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라 하여 그 뒤로는 고기를 기르지 못하였다고 한다.

사축섯골은 짐승 치는 일을 맡은 사축서(司畜署)가 있던 마을이라고 하여 이름이 붙여졌는데 일명 사축동(司畜洞) 또는 축동(畜洞)이라고도 하였다. 사축서는 태조 원년(1392)에 설치하여 처음엔 전구서(典廐署)라고 하다가 그 뒤 사축서라고 개칭했으며, 인조 15년(1637)에 일시 폐지했다가 복구하였는데 영조 43년(1767)에 이를 혁파하고 호조에 이관하였다.

한편 예전에는 북창동과 남창동에 걸친 지역을 창동(倉洞)이라 했는데 조선 후기에 우의정을 지낸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이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하다. 또한 북창동과 소공동의 경계지점에는 송현(松峴)이라 불리던 곳이 있었는데 조선 후기의 문신 심상규(沈象奎, 1766~1838)가 살았다.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고개라는 뜻과 소나무처럼 재주가 뛰어나고 곧은 청송(靑松) 심씨(沈氏)가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²⁰⁾



허목 초상 (보물 제1509호)



북창동 음식문화축제 행사 모습(서울 중구의회 제공)

오늘날 북창동 지역은 롯데호텔을 중심으로 하는 고급 숙박시설들과 각종 음식 및 서비스, 위락 등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주변 빌딩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 국내 미식가들이 자주 찾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 음식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한국의 맛’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명동, 남대문시장 등과 함께 2000년 3월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으며 매년 봄과 가을 음식문화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03. 태평로2가太平路二街

서울시청과 숭례문 사이의 세종대로(구 태평로) 양쪽에 위치한 태평로2가(太平路二街)는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서부 황화방(荒貨房), 양생방(養生坊), 반석방(盤石坊) 각 일부와 남부 호현방(好賢坊) 일부에 속했던 곳으로 일제 강점기에 태평통2정목(太平

通二丁目)으로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의 우리말 개정 원칙에 따라 태평로2가로 바뀌었다. 조선시대에 태평관(太平館)이 숭례문 근처에 있었던 데서 태평로라는 이름이 유래하였다.

조선시대 초기에 설치된 태평관은 중국 사신을 접대하고 그들이 유숙(留宿)하던 곳으로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북쪽 인근에 그 터가 남아 있다. 이 동의 남북을 관통하고 있는 세종대로(구 태평로)는 조선 후기까지도 없었던 길이다. 이 길은 1902년에 제작된 ‘서울 지도’에도 없었는데 1912년 경성시구개수예정계획에 따라 폭 27m로 정하여 시공하여 1914년에 개통되었다. 1936년에 노폭 34m, 길이 800m로 하여 황토현광장(현 광화문 주변)~남대문 구간으로 정해졌다. 1952년 3월 25일(내무부고시 제23호) 노폭이 50m로 확장되어 지금에 이른다.

태평로2가는 남북으로 한가운데를 세종대로(구 태평로)가 길게 지나 동 면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나마 거주 지역은 남대문구역으로 묶어 재개발됨으로써 옛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북창동에 면한 지역도 북창지구 재개발로 현대식 고층 건물들로 채워져 있다.

이러한 옛 태평로 변 서소문동 58-12번지 옛 선혜청 별창자리에는 원동에서 옮겨



태평로2가의 관할구역 경계. 태평로의 명칭은 조선 초기 중국 사신들이 유숙하던 태평관에서 유래하였다.

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건물인 전도국(典圖局)과 예빈시(禮賓寺), 전도감(錢都監)을 비롯하여 도성의 첫 번째 출입문인 남대문이 있어서 조선시대의 태평로2가는 매우 활기찬 곳이었다. 태평로2가의 옛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자연부락 명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관우물골은 태평로2가와 서소문동에 걸쳐 있던 마을로 관우물이 있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인데 한자로는 관정동(館井洞)이라 하였고 들우물골은 소공동, 태평로2가 밑을지로1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돌 틈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석정동(石井洞)이라고도 하였다.

대정동(大貞洞)은 현재 정동과 태평로2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덕수궁 남쪽 담을 경계로 서소문에 이르는 북동쪽인데 큰정동이라고도 하였다. 북초다릿골은 현 서울시청 서남쪽에 북초다리[伏車橋]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북차교동(伏車橋洞)이라고도 하였다.

상정승골은 남대문로3가, 태평로2가, 북창동과 남창동에 걸쳐 있던 마을로 인종 때 정승 상진(尙震, 1493~1564년)이 살았으므로 붙여진 이름으로 상동(尙洞)이라고도 하였다. 생사당골은 서소문동, 태평로2가, 남대문로4가에 걸쳐 있던 마을인데 생복당(生福堂)인 선무사(宣武祠)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칠간동(七間洞)은 남대문 서북쪽에 있던 마을로 골목이 일곱 개가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서울 지명을 숫자순으로 부를 때 일감정, 이뭇골, 삼청동, 사직골, 오궁터, 육조앞, 칠간안, 팔관동, 구리개, 십자각이라 하였는데 칠간동은 일명 칠간거동이라고 하였다. 태평동은 서소문동, 태평로2가, 북창동, 남대문로4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던 태평관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편자골은 태평로2가에서 북창동으로 들어가는 입구 부근에 있던 마을로 편자전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편자동(片子洞)이라고도 하였다.

현 태평로2가 57번지 서쪽에 전교(錢橋)라는 다리가 있었다. 이 다리는 전도감교(錢都監橋)라고도 불렀는데 전도감 앞이 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영조 27년(1751)에 편찬된 「도성삼군문분계총록」에는 태평로2가에 전도감의 자리를 표시하고 다리의 위치와 이름을 기록해 놓았는데, 1864년 제작된 『대동지지(大東地志)』에 지금의 신



태평로2가에서 바라본 송례문 주변 도로

당동 140번지와 261번지 부근에 교량을 표시하여 전도감교라 하였는바, 이로 보아 전도감이 광희문 밖으로 이전해 갔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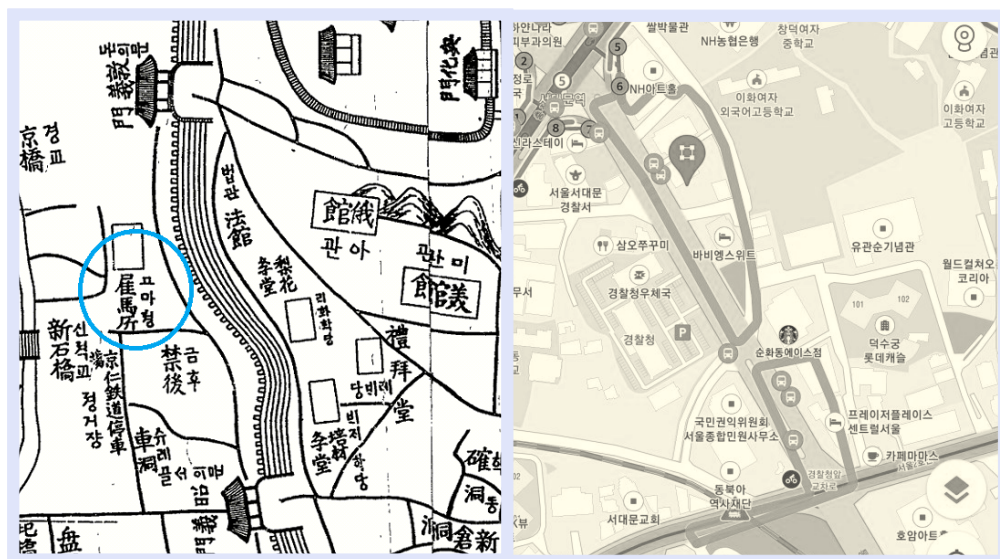
조선시대 빈객(賓客)의 연향(宴享), 종재(宗宰)의 공궤(供饋) 등의 일을 맡았던 예빈시가 한때 태평로2가에 있었다. 예빈시는 태조 원년(1392)에 설치하였으며 태종 3년(1403)에는 의순고(義順庫)를 병합하였다가 고종 31년(1894)에 폐지하였는데 처음에는 의정부 앞에 두었다가 이곳으로 옮겼고 그 뒤 남별관으로 옮겼다.

태평로2가 165번지에는 이문(里門)이 있었다. 이문은 세조 12년(1466) 1월에 설치하였으며 금도(禁盜), 포도(捕盜), 금화(禁火) 등 치안에 그 목적이 있었다. 이문은 보통 마을 앞 입구에 설치하고 교대로 숙직케 하였는데, 10호 이하의 마을은 2명이, 20호 이하는 3명, 30호 이하는 4명, 30호 이상의 마을은 5~6명이 차출되어 교대로 숙직하였다. 이문의 수리 및 중건 등 관리와 운영은 전부 동민이 부담하였는데, 당시 한성부민에 의한 말단 치안기구였으며 임진왜란 후 유명무실하게 되었다.²¹⁾

04. 의주로1가義州路一街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서쪽, 통일로(구 의주로)변에 위치한 의주로1가(義州路一街)는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서부 반석방(盤石坊)과 반송방(盤松坊)에 속했던 곳으로 일제 강점기에 의주통1정목(義州通一丁目)이라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서대문구 의주로1가로 되었다. 1975년 10월 1일(대통령령 제7816호) 관할구역이 변경되어 중구 의주로1가가 되었다.

의주로1가의 동명은 의주(義州)로 가는 길목이라는 뜻에서 온 것이다. 현재 통일로와 서소문로가 교차되는 지점에는 도성 8문 중 하나인 서소문(西小門)이 있었다. 이 문은 서소문동 큰길에 위치하였던 문으로 일반적인 통행로였고, 광희문과 함께 시신(屍身)을 성밖으로 운반하던 통로 구실을 하였다. 태조 5년(1396) 9월에 다른 성문과 함께 지어졌을 때는 소덕문(昭德門)이라고도 하였다. 이 부근은 지대가 낮아서 태조 때 토성을 쌓았던 곳이며, 1422년(세종 4)에 이것을 석성(石城)으로 개축한 것으로 미루어 소덕문으로 고쳐서 지었으리라 믿어지나 확실한 기록이 없다. 조선 순조



조선 후기 고마청의 위치와 의주로1가의 관할구역 경계

이후에는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면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서소문 밖에서 처형되기도 하였다. 이 문은 1908년 철거되었고 주변 성벽도 1914년에 도시계획이라는 명목으로 헐리게 되었다.

의주로1가와 충정로1가에 걸쳐서는 조선시대에 고마동(雇馬洞)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역마(驛馬)를 빌려주던 고마청(雇馬廳)이라는 관아가 있어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이 동의 명칭이 된 의주로(현 통일로)는 조선시대 사신들이 의주를 거쳐 중국으로 가던 주요 통행로였으므로 역마를 담당하는 고마청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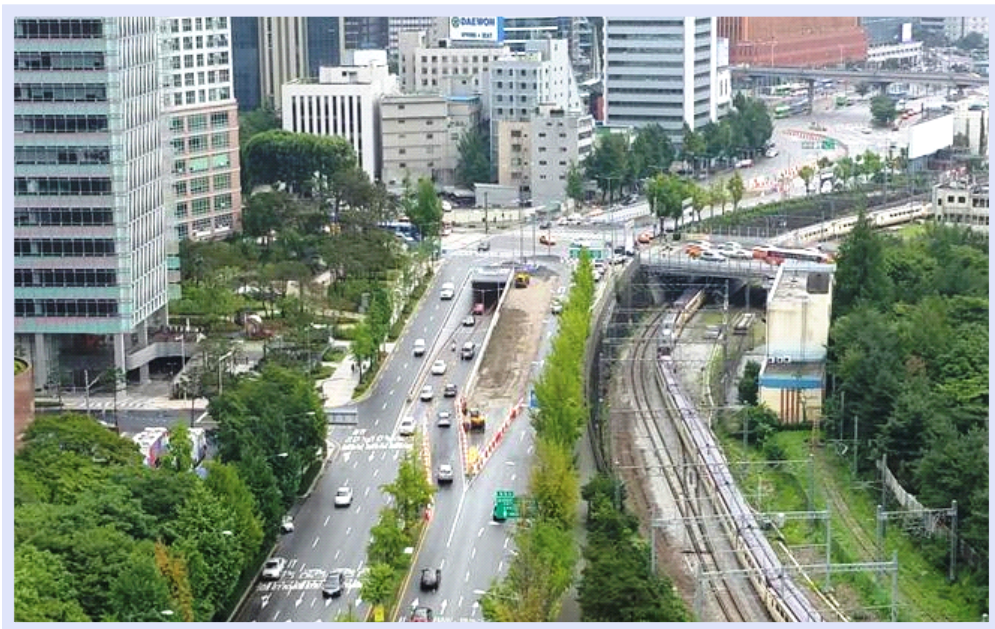
이 지역은 순청(巡廳)이 있어서 순라꾼들이 많이 모여 살았고, 서울에서도 살기 좋은 곳으로 유명하였다. 『한경지략(漢京識略)』에 의하면 무학대사가 이 일대를 복택(福宅)이라 한 이래, 조선의 내로라하는 사대부들은 자손이 길이 번성할 수 있는 길지(吉地)라 하여 이곳을 택지로 정하여 살았다. 조선 세종 때 6진 개척으로 유명한 김종서 등이 이 일대에서 살았다.

의주로1가의 현 위치는 동쪽은 순화동과 접해 있고, 서쪽은 서대문구, 남쪽은 의주로2가, 북쪽은 충정로1가와 이웃하고 있다. 의주로1가에 남아 있는 조선시대 자연마을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경곶다리는 충정로1가와 의주로1가에 걸쳐 있었는데 경교다리가 있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으로 경교라고도 하였다. 미나릿골은 미근동, 합동, 의주로1가, 충정로2~3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한자로는 근동(芹洞)이라고도 하였다.

초리우물골은 미근동, 충정로2가, 의주로1~2가에 걸쳐 있었는데 초리우물이 있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한자로는 미정동(尾井洞)에서 미동(尾洞)으로, 다시 미동(泔洞)으로 바뀌었다. 사거리는 의주로1~2가에 걸쳐 있었는데 네 갈래 길로 나뉘어 있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며, 새다릿골은 신교(新橋)라고도 하였다. 새말은 싸전[米廩] 아래 새로 생긴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신동(新洞)이라고도 하였다.

장골은 장전(醬廩)이 있다고 하여 유래되었는데 서장동(西醬洞)이라고도 했으며, 수렛골은 서소문 서북쪽 마을로 차동(車洞)이라고도 불렀는데 영조 37년(1761) 숙종의 계비 인현왕후 민씨의 탄생지에 비를 세우고 난 뒤부터 추모동이라고도 불렀다. 양태전골은 갯양태전이 있어 유래되었으며 양대동(涼臺洞)이라고도 하였다.

조선시대 의주로1가 일대는 싸전으로 유명하였다.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攷)』에



통일로(옛 의주로) 중 의주로1가 구역

의하면 싸전은 여러 가지 곡식을 파는데 모두 다섯 곳이 있다. “상·하 싸전이 있는데 상전(上廩)은 의금부 서쪽에 있고 하전(下廩)이 이현시장(梨峴市場)에 있는데 이들은 국역삼분(國役三分)에 응하며 도성문 밖의 싸전은 소의문(昭義門) 밖에 있어서 국역이 분에 응하였으며 서강 싸전과 마포 싸전은 모두 분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이 기록을 보아 소의문(‘서소문’) 밖에는 서울의 5대 미전 가운데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싸전의 윗부분(문 안쪽)이 미전상계가 되었을 것이고 아래쪽이 미전하계일 것이다.

미나리광으로 부르던 지역은 미근동 서울경찰청 일대와 농협중앙회 본부 건물에서 이화여고 뒷담을 연결하던 천변에 넓게 분포되어 있었는데 개천이 복개되고 의주로가 확장됨에 따라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곳에서 나오던 미나리는 연하고 깨끗해서 궁중에도 진상되었던 최상품으로 대한제국 때까지 유명하였으며, 사신들의 행차가 평원처럼 넓게 전개되었던 미나리 밭 한가운대를 달려 의주까지 가는 풍광을 노래한 시(詩)가 여러 편 전한다.

의주로는 조선시대 중국 사신이 홍제원과 모화관을 거쳐 남대문을 통과하여 태평관에 이르는 길목이었으며 중국과 만주에서 서울에 오는 간선도로로 전쟁과 피난 등 민족의 애환을 간직한 길이다. 도로명은 서울에서 의주까지의 일반국도 1번 도로의 일부라는 점에서 유래되었고, 중구 봉래동2가 43번지(서울역)에서 독립문을 거쳐 서대문구 홍은동 450번지(홍은사거리)에 이르는 폭 35~40m, 길이 4,750m의 8차선 도로이다. 2010년 5월 19일 통일로에 통합되었다.

05. 충정로1가 忠正路一街

서대문역교차로와 정동사거리 사이의 새문안로 남동쪽에 위치한 충정로1가(忠正路一街)는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서부 반송방(盤松坊)에 속했던 곳으로 일제 강점기 죽첨정1정목(竹添町一丁目)이라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서대문구 충정로1가가 되었다. 이후 1975년 10월 1일(대통령령 제7516호) 관할구역이 변경되어 중구 충정로1가로 되었다. 충정로1가의 동명은 1905년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체결된 데 항의하여 순국 자결한 충정공(忠正公) 민영환(閔泳煥, 1861~1905)의 시호인 ‘충장’에서 유래되었다.

민영환은 1878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며, 이후 세도를 구가하던 민씨 척족의 충아로서 1881년 동부승지, 1882년 성균관 대사성에 오르는 등 승진을 거듭하며 요직을 거쳤다. 임오군란 때 생부 민겸호가 살해되자 사직하였다가 1886년 이조참의로 제수되면서 정계로 복귀하였고, 이후 도승지, 이조참판, 예조판서, 형조판서, 한성부윤, 독판내무부사 등의 관직을 지냈다.

1896년 특명전권공사로 러시아 제국의 황제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참석했는데, 이때 일본, 미국, 영국 등지를 거치면서 서구 문명을 처음 접한다. 귀국 후 의정부찬정, 군부대신을 지낸 다음, 1897년(광무 1년) 또다시 영국·독일·프랑스·러시아·이탈리아·오스트리아-헝가리 6개국에 대한 특명전권공사로 발령을 받고 외유하였다. 이를 계기로 서양 문물에 눈을 뜬 민영환은 유럽 열강의 제도를 모방하여 정치제



충정로1가의 관할구역 경계. 충정로1가의 동명은 충정공 민영환의 시호를 딴 것이다.

도를 개혁하고 민권 신장을 꾀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받았다.

충정로1가는 동쪽이 정동과 접해 있고, 서쪽은 충정로3가와 연해 있으며, 남쪽은 충정로3가 및 합동과 이웃하고, 북쪽은 충정로2가 및 냉천동과 경계를 마주보고 있다. 조선시대 충정로1가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자연마을 이름으로는 경곶다리와 고마 청골 등이 있다. 경곶다리는 충정로1가와 의주로1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경교다리가 있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경교다리는 충정로1가 90번지 동남쪽에 있었는데 경기감영 창고의 앞쪽이 되므로 경곶다리 또는 경고교(京庫橋), 경구교(京口橋) 등으로 불렸으며 이를 줄여 경교라고 하였다.

새문밖은 돈의문을 새로 세워 새문이라고도 하였는데 새문의 바깥이 되어 새문밖, 한자명으로 신문외(新聞外)라고 한 데서 유래되었다. 충정로1가 90번지 일대는 옛날 돈의문 밖에 해당되며 이곳에 세운 경기감영은 태조2년(1393)에 건립하였다. 지금의 경기도청에 해당한다. 조선시대 외관(外官)의 하나로서 경기감사, 또는 경기관찰사가 있던 관아였다. 관찰사는 예하의 부윤(府尹), 목사(牧使),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도



1899년부터 운행되기 시작한 전차는 서대문 인근 경교(京橋)에서 청량리까지 8.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호부사(都護府使), 군수(郡守), 현령(縣令), 현감(縣監) 등 지방관을 감독하는 한편 감영(監營)에는 이방, 호방, 예방, 병방, 형방, 공방 등 6방이 있고 도사(都事), 판관(判官), 막비(幕費) 등의 기관을 두어서 일반 행정과 군정, 사법, 경찰 등의 정사를 보았다. 경기감영은 속칭 포정사(布政司)라고도 하였는데, 1896년에 수원으로 옮겼고, 그 후 감영의 건물은 군영(軍營)으로 되었다가 광무 7년(1903)에 한성부가 이전해 와 사용되었다.

고마창골은 충정로1가와 의주로1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고마청이 있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고마청은 조선 숙종 때 고마법(雇馬法)의 시행으로 사신이나 지방관의 교체에 따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고가청(雇價廳)이나 고마고(雇馬庫) 등으로도 불렸다. 『한경지략』에 의하면 고마청 근처에 김종서(金宗瑞, 1390~1453)의 집이 있었다고 한다. 김종서는 문과에 급제한 후 세종 때 함길도도관찰사(咸吉道都觀察使)가 되어 변경에서 외적의 침입을 격퇴하고 6진(六鎭)을 설치하여 두만강을 국경선으로 확정한 공을 세운 인물이다.



충무로1가에 위치한 농업박물관. 이곳은 김중서의 집터이기도 하다. (출처: 한국관광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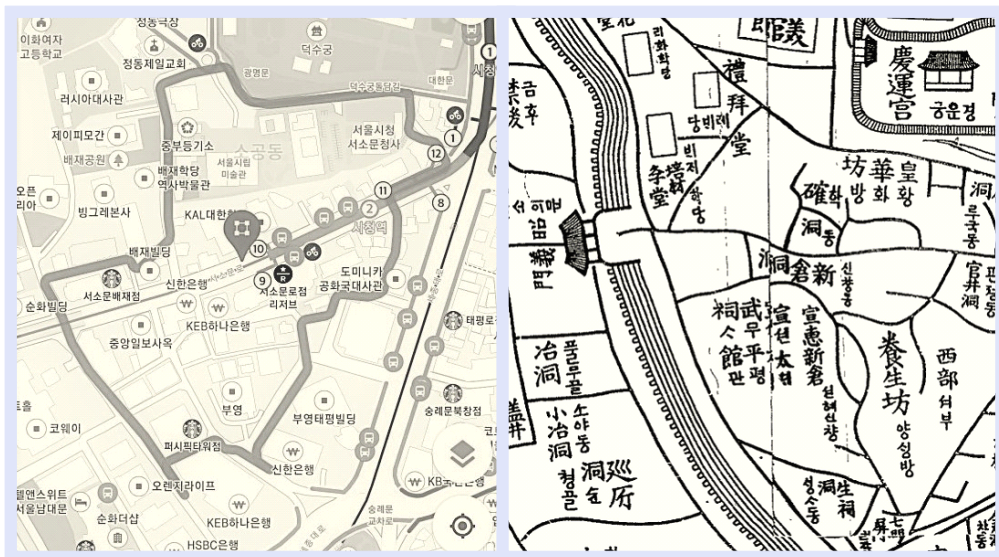
한편, 현재 충정로1가에는 농업박물관, 쌀박물관 등이 위치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세운 농업박물관과 쌀박물관은 이 지역의 빼놓을 수 없는 문화시설 중 하나이다. 농업박물관은 우리나라 최대의 농업 전문 박물관으로 1987년 11월 건립되었다. 이 박물관은 지상 2층, 지하 1층 구조이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장하며, 입장료는 무료다. 연면적은 약 3,461㎡이고, 5,000여종의 유물을 소장 중이며 그중 2,0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충정로1가를 통과하는 주요 도로로 충정로(忠正路)가 있다. 서대문구 충정로삼거리에서 서대문역을 잇는 0.8km의 왕복 8차선으로 동의 북서쪽 사면을 지난다. 이 도로는 서쪽은 서대문구, 동쪽은 중구로 나누는 기준선이며, 국도 제6호선이 이 도로와 함께 지나가고 있다. 이 도로는 서대문역교차로를 출발하여 충정로1~3가를 지나고 충정로사거리에서 신촌로에 이어지는 광화문에서 신촌 방향을 잇는 간선도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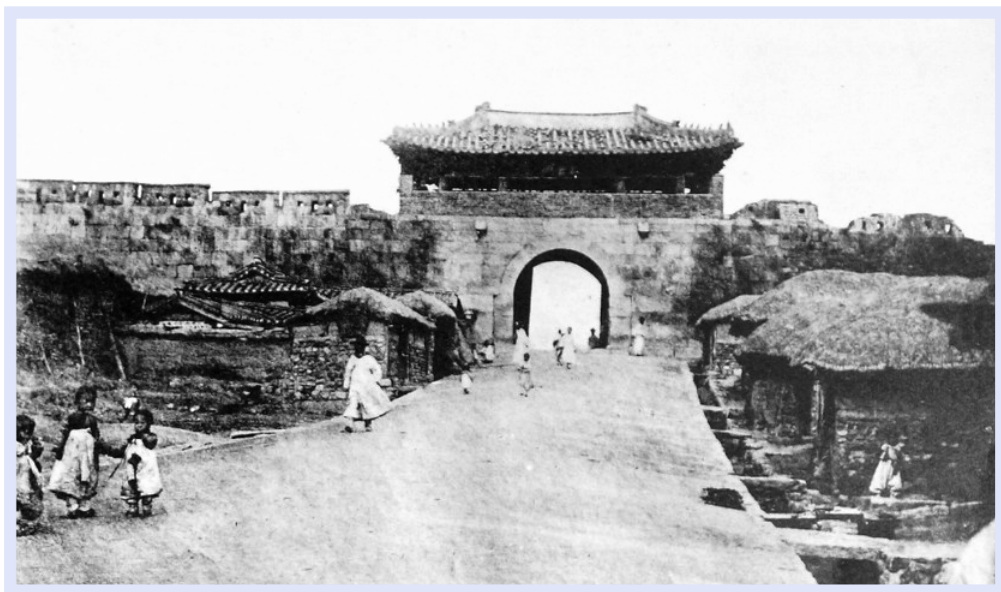
06. 서소문동西小門洞

지하철 2호선 시청역 동쪽 출구에서 서소문 고가차도 입구까지의 서소문로 남북 방향에 위치한 서소문동(西小門洞)은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서부 황화방(荒貨房)의 일부에 속했던 곳으로 일제 강점기에 서소문정(西小門町)이라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서대문구 서소문동이 되었다. 1975년 10월 1일(대통령령 제7816호) 관할구역이 변경되어 중구 서소문동이 되었다.

서소문동의 동명은 이곳에 도성8문의 하나인 서소문이 있어서 그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이곳 동명의 유래가 된 서소문의 원래 이름은 소덕문(昭德門)으로 서울성곽의 숭례문과 돈의문의 중간지점에 있었다. 이 문은 1396년에 다른 성문과 함께 건축되었으며 1472년에 소의문(昭義門)으로 개칭되었다. 일제 강점기인 1914년 일제가 시행한 도시계획에 따라 주변의 성곽과 함께 철거되었다. 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바로 소덕문은 성보다 약간 높게 돌을 쌓은 뒤 가운데 홍예문(虹霓門) 하나를 만들어 통로를 냈고, 그 위에는 정면 3칸 측면 2칸 구조의 문루가 있었다. 1985년에 설치한 소덕문 터 표지석이 중앙일보사와 대한통운 건물 사이의 철탑주차장 안에 있다.



서소문동의 관할구역 경계와 「서울 지도」(1902) 중 서소문 부근



조선 후기 서소문(소의문) 바깥 풍경

서소문동의 현 위치는 동쪽은 태평로2가와 접해 있고 서쪽은 순화동과 연해 있다. 남쪽은 남대문로4가와 북쪽은 정동과 이웃하고 있다. 오늘날의 서소문동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여 업무지역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서울에서도 금싸라기 땅으로 주목받는 곳이다. 동 면적의 대부분이 도심재개발로 인해 지번이 병합되어 조선시대의 흔적을 찾기가 매우 어렵지만 문헌상 남아 있는 지명으로 몇 군데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안우물골은 학다리골 동쪽에 있었으며 안 우물[內泉]이 있어서 명칭이 유래되었고 내천동으로도 불렸다. 관우물골은 서소문동과 태평로2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관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일명 관정동이라고도 하였는데 태평관에 속했던 우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학다리골, 새창골, 생사당골, 왜솔모루 등의 자연마을이 있었다. 학다리골은 학 다리가 있었다는 데서 유래하였으며 학교동 또는 줄여서 학동이라고도 하였다. 새창골은 선혜청의 새 창고가 있었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인데 순조 34년(1834)에 제작된 「수선전도(首善全圖)」에 이 마을 이름이 보인다. 생사당골은 명나라 장수들을 위한 사당인 선무사(宣武祠)가 있었다는 데서 명칭이 유래되었다. 서소문동, 태

평로2가, 남대문로4가에 걸쳐 있었다. 왜솔모루는 서소문동 북쪽에 있던 마을이다. 임진왜란 때 왜병들이 성을 쌓고 머물러 왜성목·왜성항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왜성모루·왜솔모루·왜성동·왜송동이 되었다.

한편 선무사 터는 조선시대 선무사가 있던 곳으로, 지금의 서소문로 106 일대에 해당한다. 1598년에 세워진 선무사는 임진왜란 때 원군(援軍)으로 출병한 명나라 장수 형개(荊芥)와 양호(楊鎬)를 배향했던 사당이다. 선무사가 세워진 것은 1598년(선조 31)이었다. 처음에는 형개의 위패만을 봉안했으나, 같은 해 8월에 양호거사비(楊鎬去思碑)를 함께 세웠다. 이어 1604년(선조 37)에 양호의 위패를 선무사에 추가로 배향하고 매년 음력 3월과 9월 두 번째 정일(丁日)에 제사를 지냈다. 선무사는 형개와 양호라는 살아 있는 사람을 모셨기 때문에 생사당(生祠堂)으로도 불렸다. 명나라 사람과 이순신(李舜臣) 장군의 자손을 임명해 사당을 관리하도록 했다. 선무사 건물은 일제 강점기에 모두 철거됐고, 1970년대 초 주차장 건설로 사라지고 말았다.

서소문동과 그 주변 일대는 조선시대 이황(李滉, 1501~1570)을 비롯하여 김장생(金長生, 1548~1631), 김집(金集), 박돈(朴惇), 이산해(李山海) 등 많은 명인들이 살았던 곳이기도 하다. 이황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로 조선 성리학의 기초를 닦아 퇴계학과를 형성한 인물이다. 이황 집터는 젊은 시절 서울에서 관직생활을 할 때 그가 살던 집이 있던 곳이다. 지금의 중구 덕수궁길 15에 해당한다. 그는 생의 대부분을 고향인 안동에서 제자들을 양성하며 보냈지만 젊은 시절에는 과거에 급제해 중앙 관직을 역임하기도 했는데, 그때 살던 집이 바로 서소문동에 있었다. 덕수궁 돌담길에서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올라가다 보면 화단 안에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다.

김장생은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문신으로, 중구 정동(貞洞) 부근에서 출생하였으며, 자는 희원(希元), 호는 사계(沙溪),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김장생은 관직보다는 학문에 힘을 쏟아 조선시대 예학(禮學)의 체계를 잡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기호학과를 이룩하여 많은 후학을 양성하였다. 그의 문하로는 아들 김집을 비롯하여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 이유태(李惟泰) 등이 있었고, 서인을 중심으로 한 기호학과를 이룩하여 조선 유학계에 있어서 영남학과와 쌍벽을 이루었다. 중구 덕수궁길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올라가는 길에 ‘김장생, 김집선생 생가터’ 표지석이 있다.



옛 대법원 건물의 아치형 현관을 남긴 채 2005년 신축된 서울시립미술관 전경

현재 덕수궁돌담길 남쪽인 서소문동 37번지 일대는 1897년 고종이 러시아공사관 으로부터 덕수궁으로 이어(移御, 임금이 거쳐하는 곳을 옮김)한 후에 의정부를 설치 했던 곳으로 이곳에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있었다. 그리고 38번지 일대에는 대검 찰청, 서울지방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등이 있었다. 지금은 이 일대에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등이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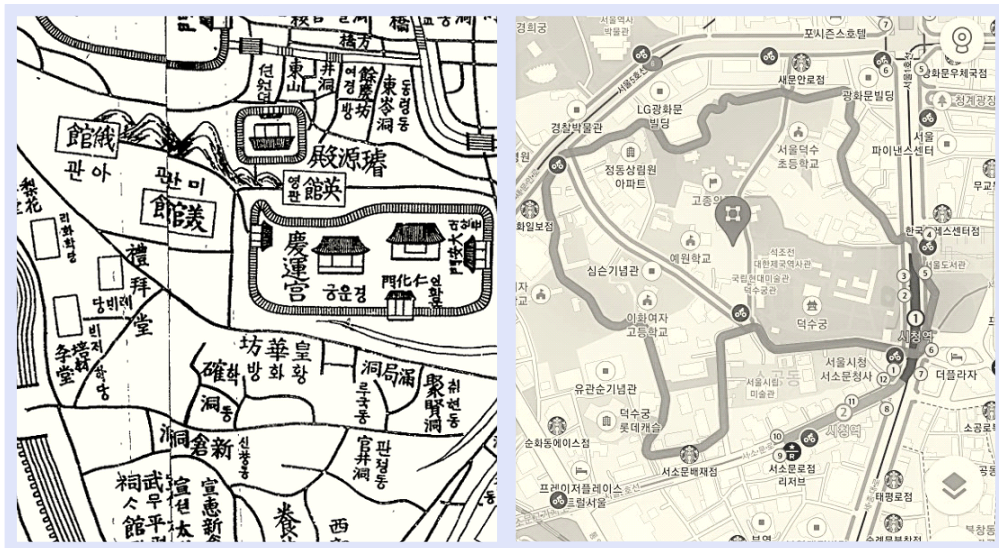
서울시립미술관은 1988년 8월 19일 종로구 신문로 경희궁지 내 서울고등학교 건 물을 보수하여 개관했다가 2005년 5월 17일 옛 대법원 자리인 지금의 자리로 이전 하여 재개관했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은 르네상스식 건물인 옛 대법원 건물 의 전면부와 현대식 건물의 후면부가 조화를 이룬 건물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재판소 인 평리원(한성재판소)이 있던 자리에 1928년 일제가 경성재판소를 지었는데 이 건 물은 광복 후 대법원으로 사용되었으며, 1995년 서초동으로 옮겨갔다. 옛 건물의 아 치형 현관(2006년 3월 등록문화재 제237호) 일부만 남기고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신축되어 재탄생한 미술관은 서울 도심 한복판인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정동길에 위 치하여 정동 지역 문화의 거리 형성에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²²⁾

07. 정동貞洞

덕수궁과 그 북서쪽 일대에 위치한 정동(貞洞)은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서부 황화방(皇華坊)에 속했던 곳으로 일제 강점기에 정동정(貞洞町)이라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서대문구 정동이 되었다. 이후 1975년 10월 1일(대통령령 제7816호) 관할구역이 변경되어 중구 정동으로 되었다.

정동의 동명은 조선 태조 이성계의 계비 신덕왕후의 정릉(貞陵)이 이곳에 있었기에 ‘정(貞)’자를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릉은 현 정동 4번지 주한영국대사관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사당이 위치한 곳에 있었다. 이후 1408년(태종 8) 5월에 동소문 밖 사을한리(沙乙閑里, 현 성북구 정릉동)에 이장하였다. 정동 5번지에는 사적 제124호로 지정된 덕수궁이 있다. 덕수궁은 조선 선조 때 정릉동행궁(貞陵洞行宮), 광해군 때 경운궁으로 불리던 궁으로, 1907년 고종의 장수(長壽)를 빈다는 의미로 경운궁에 ‘덕수(德壽)’라는 궁호를 붙여 덕수궁이 되었다.

정동의 현 위치는 동쪽은 태평로1가와 접하고 서쪽은 순화동과 연해 있으며, 남쪽은 서소문동, 그리고 북쪽은 신문로와 접해 있다. 조선말 격동기의 주무대가 되었던



「서울 지도」(1902)의 정동 부근과 정동의 관할구역 경계



덕수궁과 러시아공사관을 연결하는 구름다리(1902년경)

정동에는 덕수궁을 비롯하여 영국 및 러시아공사관과 외국 어학교들이 있었다.

정동의 조선시대 자연마을 명칭으로 소대정동은 정동, 태평로1가, 태평로2가, 무교동에 걸쳐 있던 마을로 큰정동이라고도 하였고, 소정동은 정동과 서소문동에 걸쳐 있던 마을로 정동의 작은 마을이 되므로 작은정동이라고도 하였다.

덕수궁에서 구 러시아공사관을 연결하는 곳에 구름다리가 있었다. 아관파천(俄館播遷)으로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 있을 때 경운궁과 러시아공사관을 편리하게 오가기 위해 놓은 다리다. 모양이 공중에 떠 있는 구름 또는 무지개와 같으므로 구름다리로 불렀고 한자명으로 운교(雲橋), 무지개다리의 뜻으로 홍교(虹橋)라고 하였다. 또한 덕수궁에서 옛 서울지방법원 쪽으로 걸쳐 있던 공중 다리가 있었는데, 이 다리는 러시아공사관과 연결한 구름다리를 모방하였다 하여 새구름다리로 불렀다.

덕수궁 자리는 원래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사가(私家)였다. 임진왜란으로 한양이 황폐화되고 궁궐이 소실되자, 피난을 갔다 온 선조는 월산대군의 증손인 양천도정(陽川都正) 이성(李誠)이 살던 이곳을 시어소(時御所)로 정하고 주변지역을 편입시켜 행궁의 위상에 걸맞은 궁역을 확보했다. 1611년 창덕궁을 보수공사한 후에 광해군은 창덕궁과 경운궁을 오가며 지냈는데, 1618년 인목대비를 폐위시켜 이곳에 유폐시켰다. 그러다가 1623년 반정으로 즉위한 인조는 경운궁에서 즉위식을 치른 후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고, 경운궁으로 편입된 주변지역은 원래 주인들에게 되돌려주었다. 그리하여 경운궁은 이전의 궁궐의 면모를 잃고 한적한 별궁 정도로 축소되었다.

경운궁이 다시 역사의 주 무대로 등장한 것은 1897년부터이다. 고종이 정동에 있던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했다가 당시 정궁이었던 경복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경운궁



덕수궁과 정동 전경(중구문화원 사진공모전 입상작)

으로 거처를 옮긴 것이다. 고종은 서구 열강들의 공사관, 영사관들과 가까이 있던 경운궁에 전각 등을 건립한 후 현재 덕수궁과 인접한 곳에 환구단을 세우고 대한제국 황제 즉위식을 가졌다. 하지만 대한제국의 정궁이 된 경운궁은 1904년 화재로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되고 말았다. 1906년까지 대대적인 중건공사를 시행한 후 1907년 고종은 순종에게 제위를 물려주고 새로 즉위한 순종은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리고 고종은 경운궁에 계속 머물면서 궁호를 경운궁에서 덕수궁으로 바꾸었다.

덕수궁은 조선시대 전통적인 궁궐양식에서 벗어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애초에 월산대군의 사가였던 것을 궁으로 사용하게 된 점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1880년대 경운궁 터에 각국의 공사관이 들어서고 1897년 고종이 거처를 경운궁으로 옮기면서 비로소 경운궁에는 정궁에 걸맞은 건물들이 들어섰다. 또한 일부는 서구양식으로 지어지기도 한 것이 또 다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현재 6만 1,500㎡의 면적에 중

화전(中和殿), 석어당(昔御堂), 준명당(浚明堂), 즉조당(卽祚堂), 함녕전(咸寧殿), 덕홍전(德弘殿), 석조전(石造殿) 등의 전각이 있다. 특이한 것은 석조전, 정관헌(靜觀軒) 등 서양식 건물이 궁궐 내부에 건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덕수궁은 전통양식과 서구양식의 건축물이 혼재되어 있어 외세의 물결이 강하게 유입되었던 격동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덕수궁은 1963년에 사적 제124호로 지정되었다.

구 러시아공사관은 1885년 러시아와 조선의 국교 체결 이후 1890년에 이곳에 건립되었다. 원래 건물은 벽돌로 된 2층 구조로 한쪽으로 탑을 세웠으며 입구에는 개선문 형식의 아치가 있었다. 러시아 건축가 사바틴(A. I. Sabatin, 1860~1921)이 설계를 맡았는데, 그는 1883년부터 조선정부에 고용되어 독립문, 덕수궁 중명전 등 다수의 근대 서양식 건축물을 설계한 인물이다. 높은 언덕에 르네상스식으로 건축된 러시아공사관은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을 정도로 전망이 좋았으며, 당초 부속건물이 추가로 4채 건축되었다. 1904년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함에 따라 외교관

계가 단절, 공사관도 철수하게 된다. 이후 1906년 외교공관이 다시 개설되었으나, 이때는 외교권이 박탈된 시기였으므로 공사(公使)가 아닌 러시아 영사(領事)가 체류했다. 1917년 러시아혁명으로 제정 러시아가 붕괴됨에 따라 유명무실해지게 되었으나, 1925년 일본과 소비에트 러시아가 국교를 맺음에 따라 다시 소비에트 총영사관을 개관했다.

해방 후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 북한에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소련 영사관은 북한으로 추방되고 이곳은 폐쇄되었다. 1950년 6·25 전쟁의 여파로 외벽 일부와 3층 전망탑을 제외한 건물 대부분이 파괴되는 시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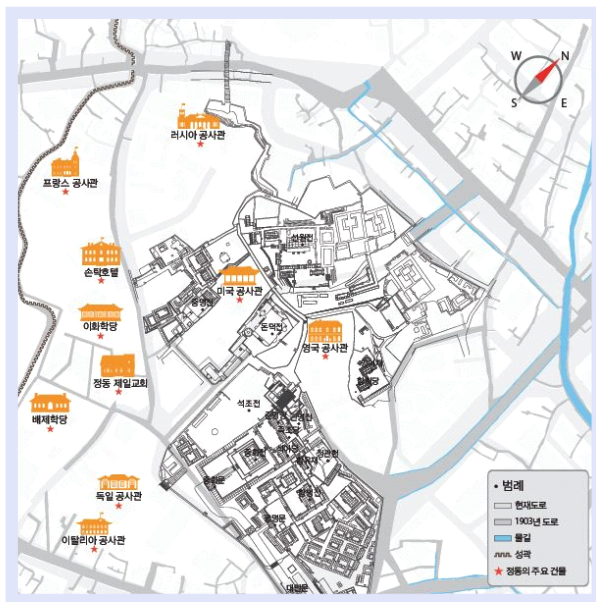
구 러시아 공사관의 어제와 오늘

겪었다. 이후 전망탑만 반파된 채로 명맥을 유지해오던 구 러시아공사관은 1969년 ‘양관(洋館)’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 향토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고, 1973년에는 전망탑 부분에 대한 보존처리가 진행되었으며, 1977년 ‘구 러시아 공사관’이라는 명칭으로 사적 제253호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른다.

한편 정동에는 어서각이 있었다. 어서각(御書閣)은 왕의 친필을 보관하던 곳으로, 전각(殿閣) 또는 어필각(御筆閣)이라고도 한다. 서울 중구 정동길에 있던 어서각은 본래 최규서(崔奎瑞, 1650~1736)의 집터 안에 있던 것으로 영조의 어필을 보관하던 곳이다. 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자리이다. 어서각은 1900년대에 접어들 무렵, 최규서의 묘가 있는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로 이전되었다. 원래 어서각이 있던 서울 중구 정동길에는 어서각 터 표지석만 남아 있다.

정동 28번지, 지금의 창덕여자중학교에는 프랑스공사관이 있었다. 건립 당시에는 프렌치 르네상스 양식의 붉은 벽돌로 지어진 화려한 건물이었다. 1910년 국권피탈 이후 일제에 의해 프랑스공사관이 영사관으로 격하되어 서대문구 합동으로 이전하면서 총독부 산하기관 건물이 되었다가, 1939년 심상소학교를 세우면서 철거됐다.

정동에는 구한말 역사와 관련된 건물이 매우 많다. 정동제일교회는 미국인 선교사 아펜젤러(H. G. Appenzeller)가 세운 개신교 교회이다. 1897년 19세기 전원풍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교회 건물은 초기 개신교 교회당의 모델이 되었으며, 1977년 그 역사적·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사적 제256호로 지정되었다. 정동제일교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로서 교회사업으로 의료·교육·사회사업을 벌여 우리나라 근대화에 공헌을 하였다. 정동 32번지에 위치한 이화여자고등학교는 1886년 5월



정동에 산재한 구한말 역사 유적



서울특별시 기념물로 지정된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전경

에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턴(M. F. Scranton)이 설립하였다. 스크랜턴은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보다 훌륭한 한국 여성이 되게 할 것을 목적으로 여성교육기관을 설립하여 학당장에 취임하였으며, 1887년에는 명성황후가 이화학당이라는 교명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화학당(梨花學堂)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여성교육기관으로 이화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이다.

배재학당(培材學堂) 터는 배재학당이 위치하고 있던 장소로, 지금의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1길 19에 해당한다. 배재학당은 1885년(고종 22) 미국의 북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H. G. Appenzeller)가 설립한 근대식 중등학교로, 외국인이 설립한 최초의 사학이었다. 배재학당은 아펜젤러가 자신의 집에서 두 명의 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듬해 6월 정식으로 학교를 개설하여 여섯 명의 학생으로 첫 학기를 시작하였고 이에 고종이 1887년(고종 24) 이 학교에 ‘배재학당’이라는 교명을 내려주었다. 1886년 11월 재적학생수가 32명에 이를 정도로 학생이 늘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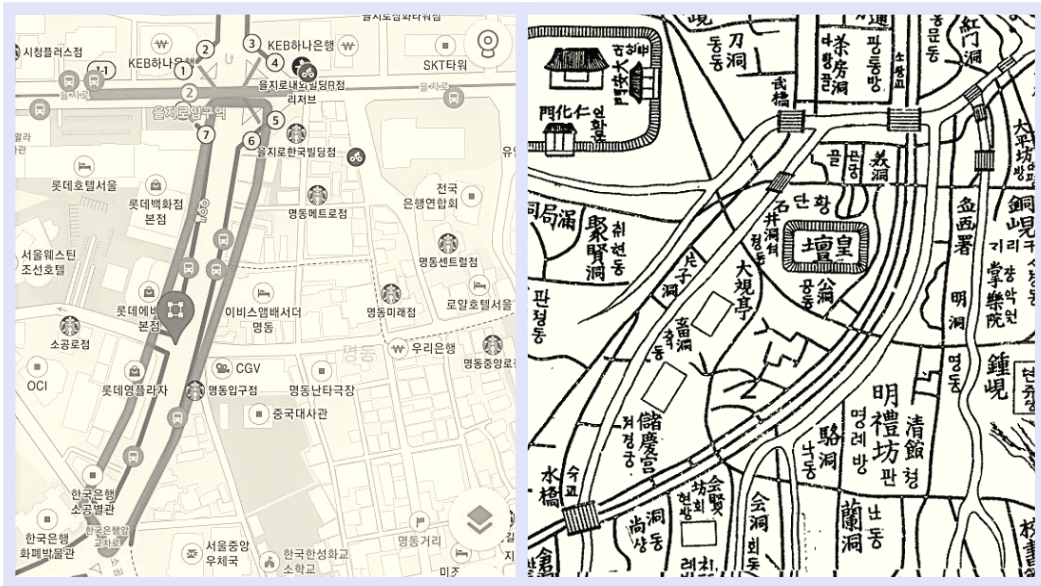
자, 새 교사의 신축에 들어가 9월 준공식을 거행하고 11월 1일 입주를 마쳤다. 새 교사는 지상 1층 반지하 1층 아담한 르네상스식 벽돌건물이었다. 이 건물은 1932년 9월 대강당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 헐렸다. 이어 남관(南館) 자리에 40명가량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330㎡ 규모의 한옥 기숙사를 마련하였으며, 영어, 한문, 언문 등의 기본교과목에 수학, 과학, 역사, 음악, 미술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원형이 대체로 잘 보존되어 있는 동관(현 배재학당역사박물관)은 2001년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16호로 지정되었다. 1984년 3월 학교가 강동구 명일동으로 이전하면서 동문회관 등으로 사용되던 교사 대부분은 철거되어 없어지고, 그 앞 운동장 터였던 배재공원 옆에는 미국계 투자회사 JP모건 체이스사가 들어서 있다.

그밖에도 정동에는 구한말의 역사를 증언하는 터와 건물들이 다수 있다. 손탁호텔 터, 관립법어학교 터, 주한영국대사관, 서울주교좌성당, 미국대사관저 등이 대표적인 곳이다. 이외에도 주한러시아대사관·주한캐나다대사관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대사관, 이화여자고등학교·덕수초등학교 등 역사가 깊은 학교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정동극장 등 문화시설이 정동에 위치하고 있다.

08. 남대문로2가南大門路二街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한국은행 앞 교차로까지 남대문로 양쪽에 위치한 남대문로2가(南大門路二街)는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호현방(好賢坊)과 명례방(明禮坊)에 속하는 지역이었다. 일제 강점기 남대문통2정목(南大門通二丁目)이라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지금의 남대문로2가가 되었다. 남대문로2가의 동명은 국보 제1호 숭례문(崇禮門)의 별칭인 남대문의 이름을 붙인 데서 유래되었다.

남대문로2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남대문로는 조선시대 한양천도 이후 500년간 종로에서 남대문으로 나가는 주요 간선도로로 조선시대에는 광화문에서 숭례문으로 가려면 세종로 사거리에서 종각으로 구부러진 다음 이 길을 통해 숭례문으로 가



남대문로2가의 관할구역 경계와 「서울 지도」(1902)의 남대문로 부근

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겸재(謙齋) 정선(鄭敼)이 18세기경에 그린 「도성대지도(都城大地圖)」와 1902년 발행된 「서울 지도」 등을 보면 지금의 태평로(세종대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남대문로와 종로는 큰 길로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대문로2가는 동쪽으로 명동과 을지로2가, 남쪽으로 남대문로3가, 서쪽에 소공동, 북쪽에는 을지로1가와 접해 있다. 이러한 남대문로2가의 자연마을 이름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구리개는 을지로2가, 명동1~2가, 충무로1가, 남대문로2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구리개가 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며 동현동(銅峴洞)이라고도 하였다. 대룡동(大龍洞)은 남대문로2가, 명동1~2가, 충무로1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용골의 큰 마을이 되므로 붙여진 이름이며 큰용골이라고 하였다. 소룡동은 명동1가, 충무로1가, 을지로2가, 남대문로2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용골의 작은 마을이 되므로 작은용골이라고 하였다.

분호조(分戶曹: 호조의 일을 나누어 맡아보던 임시 관청) 다리는 소공동에 있던 분호조 앞에 있는 다리이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그 밖에 도둑 예방과 화재 예방 등 치안에 목적을 둔 이문(里門)이 현 남대문로2가에서 조선헤로 들어가는 입구 모퉁이에

있었다고 한다.

남대문로는 국보 제1호인 숭례문에서 시작하여 청계천 광교에 이르는 왕복 8차선 도로이다. 서울특별시의 중심부를 지나며, 을지로, 소공로, 세종대로, 한강대로, 칠패로 등 도심부의 주요도로와 연결된다. 중간에 경유하는 교차로가 한국은행 사거리와 을지로입구 사거리 둘뿐인 짧은 구간이지만, 남대문시장, 명동, 소공동을 끼고 있어 언제나 교통량이 많다. 서울의 대표적인 금융·상업지구를 지나는 남대문로는 도로 주변의 가치를 경제적으로만 환산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 나오는 길로 꼽힐 만하다. 롯데·신세계 등 초특급 백화점이 남대문로를 지켜보고 있으며, 한국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등 대표적인 은행의 본점들이 대부분 이 거리에 몰려 있어 한국 금융산업의 중심지를 이룬다.

남대문로는 역사적으로도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도로 가운데 하나이다. 한양 천도 때부터 가장 먼저 만들어진 주요 간선도로다. 도성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는 도성을 드나드는 성문을 중심으로 형성되게 마련이다. 초기 한양의 도로가 그러하였다. 돈의문(敦義門, 서대문)에서 황토현(黃土峴, 현재의 광화문사거리)에 이르는 새문안로와 황토현에서 흥인지문(興仁之門, 동대문)에 이르는 종로가 수도 한양을 동서로 가로지르고, 경복궁 광화문에서 황토현에 이르는 주작대로(朱雀大路)인 육조(六曹)거리와 창덕궁에서 종로까지 뻗은 주작대로, 종로4가에서 혜화문(惠化門, 동소문)으로 빠지는 배오개(梨峴)길이 당시의 주요 간선도로였다. 그리고 숭례문을 향해 뚫린 남대문로가 남쪽으로 뻗은 유일한 간선도로였다. ‘임금님 행차’가 대부분 이들 간선도로를 따라 이루어졌다.



일제 강점기 조지아백화점과 현재의 롯데영플라자 명동점

남대문로2가 123번지에는 1921년 4월 조지야[丁子屋]백화점(현 롯데영플라자 명동점)이 세워졌으나 현재의 건물은 1935년에 건축되었다. 이 백화점은 양복점으로 첫 영업을 시작한 관계로 ‘양복 잘하는 곳’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이 때문에 광복 전후 종로에 들어선 양복점, 특히 광고 방면의 양복점 주인은 모두 조지야백화점 출신이었다. 1945년 광복 후 이 건물은 적산(敵産)으로 분류되어 미 군정청에서 미군전용 PX로 사용되었으며 1948년 한국무역협회에 불하되었다. 1969년 5월 20일 미도파백화점으로 상호가 변경되어 직영체제로 되었으며, 현재는 롯데영플라자 명동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외에도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SK네트워크 본사, 롯데백화점, 한국은행 소공별관 등이 위치하고 있다.

09. 남대문로3가南大門路三街

한국은행에서 서쪽으로 남대문로를 따라 위치한 남대문로3가는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호현방과 서부 양생방에 속했던 곳으로 일제 강점기에 남대문통3정목이라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지금의 남대문로3가가 되었다. 남대문로3가의 동명은 국보 제1호 숭례문(崇禮門)의 별칭인 남대문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이다.

현재 한국은행이 위치한 곳에는 조선시대에 저경궁(儲慶宮)이 있었다. 1755년(영조 31)에 인조(仁祖)의 생부인 원종(元宗)의 생모 인빈(仁嬪) 김씨의 신위를 모시면서 저경궁이라 부르게 되었다. 저경궁은 1927년까지 남아 있다가 지금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의 전신인 경성치과 의학전문학교를 건축하면서 철거되었다. 현재 2001년에 설치된 저경궁 터 표지석이 한국은행 후문 부근에 있다.

남대문로3가는 동쪽으로는 충무로1가 및 명동2가와 접해 있고, 서쪽은 북창동과 연해 있으며, 남쪽은 남대문로4가 및 회현동, 북쪽은 남대문로2가 및 소공동과 이웃하고 있다. 남대문로3가에 있었던 조선시대 자연마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정승골은 남대문로3가 태평로2가, 북창동, 남창동에 걸쳐 있던 마을로 조선 인

종 때 정승 상진(尙震)이 살던 마을인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일명 상동(尙洞)이라고도 하였다. 술고개는 소공동, 북창동, 남대문로2가, 남대문로3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술고개가 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일명 송현(松峴), 송현동(松峴洞) 또는 남송현(南松峴)으로 불렸다.

수교동은 남대문로3가와 남대문로4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남대문로4가 1번지에 수각다리가 있으므로 붙여진 이름으로 일명 수각다리라고도 불렸다. 장흥곳골은 충무로1가, 남대문로3가, 회현동1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궁중이나 각 관서에서 소요되는 창호지 및 유지(油紙)와 기타 종이 종류 등 일체와 돛자리 등을 보관 조달하는 관아인 장흥고가 있는 데서 명칭이 유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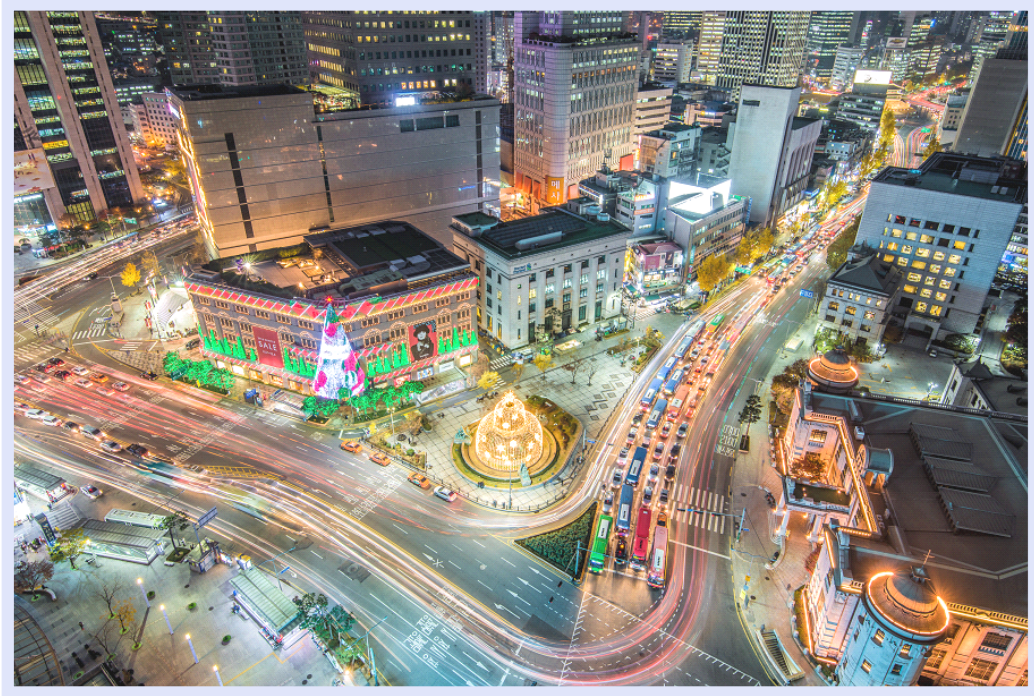
조선시대 남대문로3가 지역에는 학자이자 시인인 읍취헌(挾翠軒) 박은(朴聞, 1479~1504), 광해군 때 좌의정을 지낸 일송(一松) 심희수(沈喜壽, 1548~1622) 등이 살았다. 숙종 때 문신으로 황주목사, 도승지, 병조참판을 지낸 김광국(金光國, 1685~?)도 상동에서 살았던 인물이다.

남대문로3가도 남대문로2가처럼 변화한 곳이다. 한국은행 앞 교차로 남쪽에는 신세계백화점, SC제일은행, 의류도매상가 등이 들어서 남대문시장으로 이어져 있으며, 북쪽으로는 남대문로3가 110번지의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북창동으로 이어지는 곳으로 크고 작은 건물들이 꼭 들어차 있다.

남대문로3가 110번지에는 사적 제280호로 지정된 구 한국은행 본관(현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건물이 있다. 처음에는 1908년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 다치노 긴교[辰野金吾]가 설계한 일본 제일은행(第一銀行) 경성지점 건물로 지어졌다.



일제 강점기 조선은행과 남대문로3가 관할구역 경계



남대문로3가의 야경(중구문화원 사진공모전 입상작)

그로부터 1년 후인 1909년에 창설된 한국은행이 일본 제일은행 경성지점의 업무를 인수하면서 한국은행 본관 건물이 되었다. 이후 1911년 조선은행으로 개칭되고 1912년 1월에 건물이 준공되자 조선은행 본점으로 사용되었다. 광복 후 1950년에 설립된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본관으로 다시 활용되었다. 1950년 6·25 전쟁 때 내부가 소실되었으나 1956년에 원상태로 복구하여 현재에 이른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화강석 석조건물로서 연면적 약 8,677㎡이다. 외벽은 화강석, 지붕은 철 골조, 바닥판은 철골·철근 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다. 외형은 H자형 평면의 좌우대칭 구조로 중앙 현관에는 화강석 원주를 세운 캐노피(canopy)가, 현관 상부 지붕에는 반원아치의 도머(Dormer)가, 좌우 모서리에는 원형의 돌이 위치한 프랑스 성관(Chateau) 풍의 르네상스식 외관을 이루고 있다. 1981년 사적 제280호로 지정되었고 1987년에 건물을 복원하는 동시에 신관을 건립했다. 남은 구 본관에는 2001년 6월 한국은행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화폐금융박물관(현 한국은

행 화폐박물관)이 개장되었다. 이 박물관에서는 시대별 화폐를 비롯하여 동·서양의 옛 화폐와 현용화폐, 각종 기념화폐 등 4,5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중앙은행의 역할과 한국 경제 발전 및 한국은행의 역할 등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다.

10. 남대문로4가南大門路四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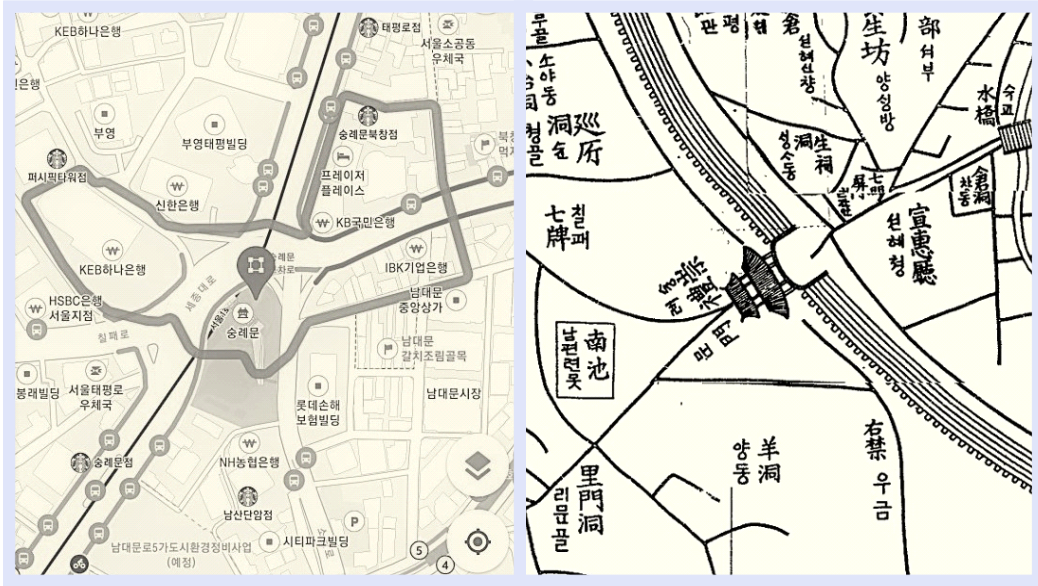
승례문의 동·서쪽 일대에 위치한 남대문로4가는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호현방과 서부 양생방, 반석방의 일부였던 곳으로 일제 강점기에 남대문통4정목이라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지금의 남대문로4가가 되었다. 남대문로4가의 동명은 국보 제1호 승례문(崇禮門)의 별칭인 남대문의 이름을 딴 것이다.

남대문로4가는 오늘날 서울역과 승례문 부근에 많은 상가가 형성되어 있듯이 조선 시대에도 시전(市廛)이 많기로 유명하였다. 현재 남대문로4가 서쪽인 중구 세종대로 39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의 상공업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재계 단체로, 그 기원은 1884년 설립된 한성상업회의소이다. 이곳은 과거 남대문국민학교가 있던 자리로 학교는 1979년 폐교되었고, 1984년에 지상 20층 지하 6층 규모의 사옥이 들어섰다.

남대문로4가는 동쪽으로 남대문로3가 및 북창동과, 남쪽으로는 남창동 및 남대문로5가, 서쪽은 봉래동1가, 순화동, 서소문동과 접하고 있으며 북쪽은 태평로2가와 이웃하고 있다. 남대문로4가에 남아 있는 자연부락명은 다음과 같다.

생사당골은 서소문동, 태평로2가, 남대문로4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임진왜란 때 원군으로 온 명나라 장수인 형개와 정유재란 때 명나라 장수인 양호를 기리기 위해 선무사를 세우고 제사를 지냈는데 이들이 생존해 있었으므로 생사당이라 불렀으며 이 마을을 생사동 또는 생사당골이라 하였다.

수교동은 남대문로3가와 남대문로4가 사이에 걸쳐 있던 마을로 현재 남대문로4가 1번지 북쪽 다리 위에 누각을 지어 수각다리라 부르는 다리가 있었던 데서 붙여졌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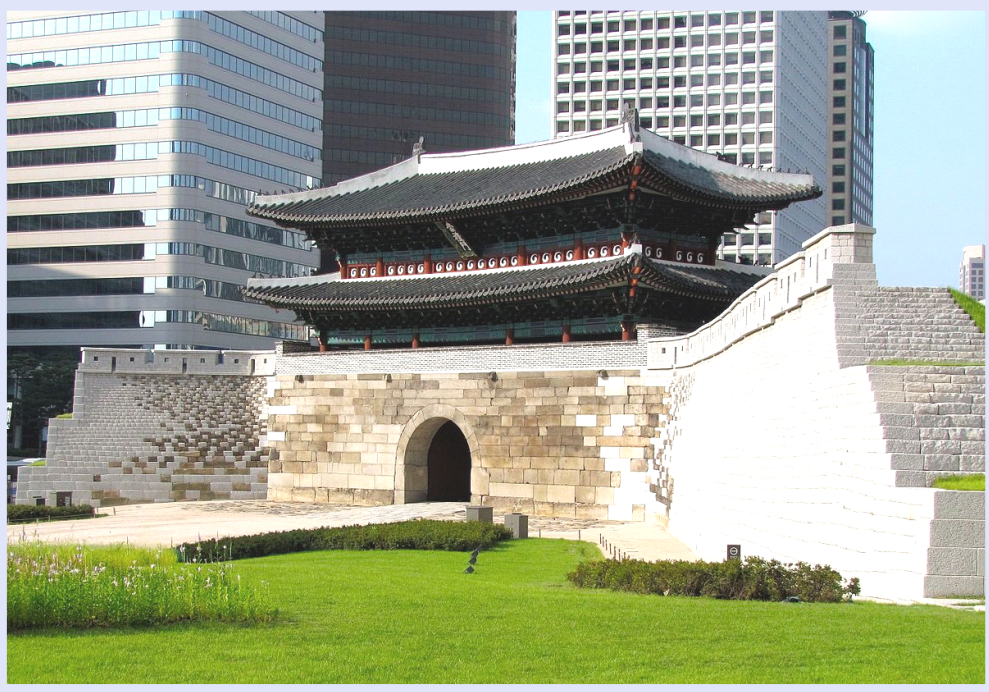
남대문로5가의 관할구역 경계와 「서울 지도」(1902)의 남대문 부근

며 수각다리 혹은 수각다리골이라고도 하였다.

창골은 남창동, 회현동1가, 남대문로4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선혜청의 창고가 있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창동이라고도 하였다. 태평관골은 서소문동, 태평로2가, 북창동, 남대문로4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던 태평관이 서소문동 120번지에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일명 태평동이라고도 하였다.

한편 송례문 밖 남쪽에는 남대문로4가와 5가, 그리도 봉래동1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연못골 또는 연지동(蓮池洞)이 있었다. 현재 남대문로5가 1번지 근방으로 추정되는 연지는 일명 남지(南池)라고도 하였다. 정조 연간(1776~1800)에 남지가 폐기되고 물이 말라 터만 남아 있었는데 순조 23년(1823)에 송례문 밖에 사는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짚을 거두어 말라붙은 못의 흙을 쳐내고 물을 채워 옛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고 한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조선 후기 문신이자 유학자이며 남인(南人)에 속했던 허목(許穆, 1595~1682)이 고관이 되었을 때 이 못을 쳐냈다고 하며, 그 뒤에 또 못을 쳐냈는데 공교롭게도 못을 쳐내는 그날에 남인 채제공이 복직되었을 뿐 아니라 남인으로



2008년 대화재를 겪은 후 복구공사를 마친 송례문

서 급제한 사람이 네 사람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남지의 연꽃이 무성하면 남인이 흥해진다는 속설이 생겼다. 반면 서편 연못골의 연꽃이 무성하면 서인이 흥해진다는 말도 있다.

남대문로4가 29번지에는 우리나라 국보 제1호인 송례문이 있다. 속칭 남대문이라고도 하는데 서울의 정문으로 도성 8문 가운데 첫 번째 관문일 뿐 아니라 교통상으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 건물은 전형적인 다포양식의 건물로 창건 연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실한 목조건축물의 수법을 보이고 있는 한국 건축사상 중요한 건물의 하나다. 태조 5년(1396)에 창건하였으며 2년 뒤인 7년(1398)에 다시 지었으며, 또한 세종 30년(1448)에 개축하였고 그 뒤 성종 10년(1479)에 조금 기울어져 다시 개축하였다.

건물의 구조를 보면 정면 5칸, 측면 2칸의 중층 건물이며, 화강암으로 구축한 홍예형(虹霓形: 무지개 모양)의 누기(樓基)와 마름석축으로 이루어진 기층의 중앙에 홍예

문이 있으며 판문에 철갑을 씌운 두 짝의 문이 달려 있다. 석축기단 윗면에는 전돌로 쌓은 여장(女牆: 성 위에 낮게 쌓은 담)을 돌리고 동서 양쪽에 협문을 한 개씩 두어 계단을 통하여 오르내릴 수 있게 하였으며, 문의 앞뒤 여장 밑에는 석루조(石漏槽)를 4개씩 설치하였다. 기단의 양측에는 원래 성벽이 연결되어 있었으나, 1908년 길을 내기 위하여 헐어내어 현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한편 편액의 필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었으나, 『지봉유설(芝峰類說)』에 양녕대군(讓寧大君)이 썼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양녕대군의 친필임이 확실해 보인다. 그리고 다른 문의 편액이 가로쓰임인데, 숭례문만 특이하게 세로쓰임으로 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숭례의 두 글자가 불꽃 염(炎)을 의미하여 경복궁을 마주보는 관악산의 화산(火山)을 억누르고자 한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숭례문은 서울에 남아 있는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08년 2월 10일 오후 8시 40분쯤에 발생한 화재로 숭례문의 2층 누각의 90%가 전소되고, 1층 누각의 10% 미만이 소실되고 만다. 다행히도 기반 석축만큼은 화재사고로부터 안전하였다. 화재 이후 2010년 2월 착공식을 거행하고 숭례문 복구공사 작업을 시작하였다. 약 3년 후인 2013년 5월 4일 복구기념식을 거행하고 다시 시민에게 그 모습이 공개되었다.²³⁾

11. 순화동巡和洞

염천교 교차로에서 서대문역 교차로에 이르는 통일로 동쪽에 위치하는 순화동(巡和洞)은 조선 초기 서부 반석방에 속했고 1751년 편찬된 「도성삼군문분계총록」에 의하면 서부 반석방 달지계 고순청계 미전하계에 속했으며, 1894년 갑오개혁에 의한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한성부 서서(西署) 반석방 미전하계 차동·치동, 연지계 간동, 구순청계 순동·자암동(紫岩洞)으로 되었다. 이듬해 8월 4월 칙령 제36호로 한성부 서부 반석방 미전하계·연지계·구순청계 일대가 되었다.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7호로 한성부가 경성부로 바뀌면서 경기도 관할지역이 되었으며, 1913년 4

월 1일에는 경성부 서부 반석방 미전하계 차동·치동, 연지계 간동·구순청계 순동·자암동이 되었고 이듬해 4월 서부 차동·치동·순동·자암동의 각 일부와 구순청동·간동을 병합하여 화천정(和泉町)이라 하였다. 1914년 9월 27일 경성부조례 제8호로 서부출장소 화천정이 되었다가 이듬해 서부출장소가 폐지되어 경성부 화천정이 되었고 1943년 6월 10일 부령 제163호로 서대문구 화천정이 되었다. 1946년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변경할 때 순화동과 봉래동1가에 걸쳐 있던 마을인 순청동(巡廳洞)의 ‘순’자와 화천정의 ‘화’자를 따서 순화동이라 하였다. 197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7816호에 따라 중구 순화동으로 바뀌었다. 1977년 9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1181호에 의해 정동, 서소문동 등과 함께 소공동 관할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른다.

서대문역이 있던 동쪽, 즉 호암아트홀 앞 순화빌딩 일대는 조선시대에 수렛골이라 하였다. 1902년에 그려진 서울 지도에 보면 서소문밖의 이 지역을 수레골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수렛골은 한자로 차동(車洞), 또는 추모동(追慕洞)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수렛골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이곳에 숙박시설이 몰려 있어서 수레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경지략』에 의하면 수렛골에는 선조 때 대사헌을 지낸 모당(慕堂) 홍리상(洪履祥, 1753~1827)의 후손이 대대로 살았다.

조선시대 순화동의 자연마을의 명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구순청골은 순청골 남쪽에 있던 마을로 순청(巡廳)이 있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순청동이라고도 했는데 유관순기념관, 호암아트홀, 대한민국 임시정부 서울연통부 터 등이 있는 곳이다. 작은풀못골은 풀못골 남쪽의 작은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소야동(小冶洞)이라고도 했다. 풀못골은 순화동과 의주로2가에 있던 마을로 풀무간이 있어 붙은 이름으로 야동(冶洞)이라고도 불렀다.



순화동의 관할구역 경계



영화 '마부'(강대진 감독, 1961)는 순화동을 비롯하여 서울역 인근에서 촬영되었다.

순화동 1번지 서쪽에 있던 새다리는 신교(新橋) 혹은 신석교(新石橋)라고도 불렀는데 새로 돌다리를 놓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새다리 옆에 있던 큰 우물은 경의선 서소문역이 순화동 149번지에 있을 때 기차에 쓰이는 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순화동 193·212번지 일대로 추정되는 곳은 성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강희맹(姜希孟)의 집터이고 이곳에 있던 소나무는 대부송(大夫松) 혹은 금띠솔로 불렸다. 정3품의 당상품계를 수여받은 이 소나무 앞을 지날 때면 당상관을 만났을 때와 똑같이 말에서 내려 길에서 예를 갖추고 지나야 하기 때문이었다.

순화동에 살았던 인물로는 강희맹 이외에도 팔홍문(八紅門)의 주인공인 이지남(李至男, 1529~1577) 일가를 들 수 있다. 이지남과 그 부인 등 3대에 걸쳐 8명의 자손이 효자·충신·열녀가 된 것을 기리기 위해 세운 8개의 정문(旌門)인 팔홍문이 위치했던 곳은 중구 순화동 207-1번지 일대이다. 일제 강점기에 정려각 자리가 서울역 철도부지로 지정되면서 이전되었는데, 1984년 김포시 감정동에 13정려각으로 확장·복원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화여자고등학교 교내에 세워진 유관순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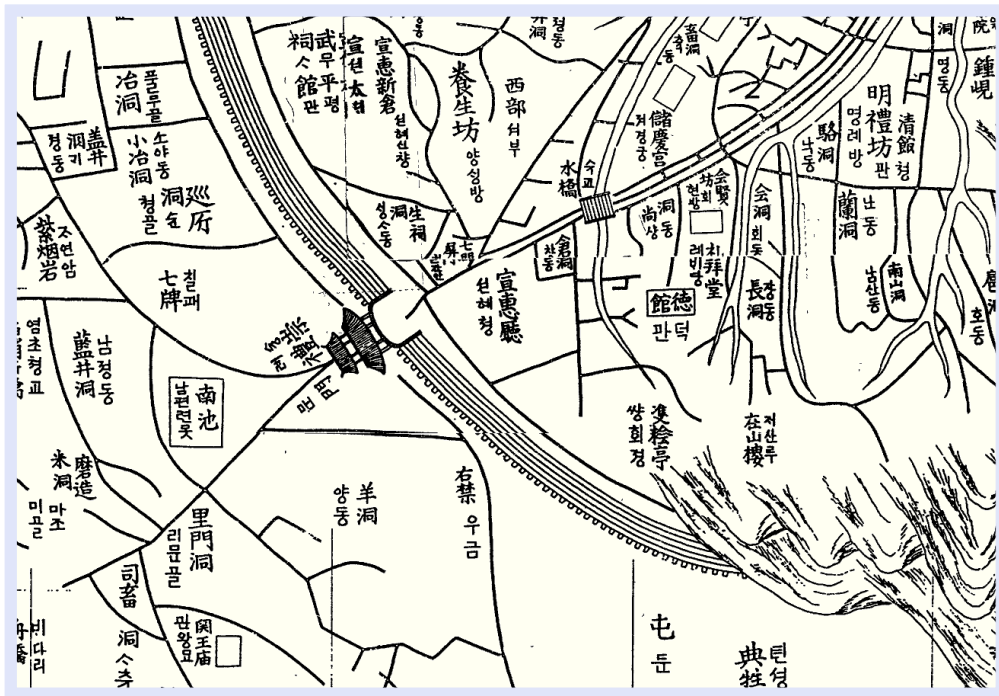
한편 유관순기념관은 유관순 열사의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1974년 이화여자고등학교 내에 세운 전시관이다. 1919년 3월 1일 유관순을 비롯한 이화학당의 학생들이 이 교정의 기숙사 뒷담을 넘어 남대문 쪽으로 달려가 만세를 불렀던 역사의 현장이라는 점에서 역사성이 살아있는 곳이다. 유관순(柳寬順, 1902~1920)은 1902년 충남 천안 출신으로 미국인 선교사의 소개로 이화학당 교비생으로 입학하였다. 재학 중 3·1운동으로 학교가 폐쇄되자 고향으로 돌아와 독립만세 시위를 계획하고 천안·연기·청주·진천 등지의 학교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시위를 협의하였다. 1919년 음력 3월 1일 천안의 아우내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지휘하다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1920년 옥사하였다. 유관순기념관은 현재 1층은 1,700석 규모의 강당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화여고의 입학식과 졸업식 및 예배·음악회·연극발표회 등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학교 내에는 유관순 동상과 유관순 열사가 빨래했던 우물터가 남아 있다.

제2장 회현동 권역

회현동은 회현동1~3가, 남대문로5가, 남창동, 봉래동1~2가 등 7개 법정동과 남대문로3~4가, 순화동 일부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동장 관할구역 명칭이다. 2018년 기준 동 면적은 0.84㎢이며 인구는 3,244세대에 5,879명이 거주하고 있다.²⁴⁾

회현동의 동명은 이 일대에 어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한데서 유래 되었으며, 회현·회동으로 약칭되기도 하였다. 1947년 말 조사된 회현동 사무소 관할구역 내의 각동의 행정을 살펴보면, 회현동1가 지역은 회현동1가 동부동회와 서부동회, 회현동2가와 3가 지역은 회현동2·3가 동회, 남창동 지역은 남대문로3·4가 동회에서 행정을 담당했다. 1955년 4월 18일 행정동제 실시에 따라 회현1가 제1동과 회현1가 제2동이 설치되었고, 1970년 5월 18일 회현동1가 지역을 관할하는 회현1가동 사무소가 설치되었다. 주민수의 감소로 1975년 10월 1일 남산동사무소의 관할 일부 지역인 회현동2가, 회현동3가가 편입되어 회현동사무소가 되었다.

1980년 7월1일 소공동사무소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1992년 1월 3일 동 경계 조정으로 남대문로3·4가동 일부 지역이 회현동 사무소 관



1902년 발행된 「서울 지도」의 회현동 부근

할구역에 편입되었다. 1998년 9월 14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구 남대문로5가동과 통폐합되어 남대문로5가, 봉래동1~2가, 순화동 일부가 회현동에 편입되었다. 현재 회현동주민센터는 회현동 1가 164번지에 위치하고 있다.²⁵⁾

01. 회현동1가會賢洞一街

퇴계로와 지하철 4호선 회현역 남쪽에서 남산3호터널 입구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위치한 회현동1가(會賢洞一街)는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호현방(好賢坊) 지역으로 일제 강점기 육정1정목(旭町一丁目)이라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회현동1가로 되었다. 예로부터 이 일대에 어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한 데서 회현동의 동명이 유래하였다.

회현동1가는 동쪽으로 회현동2가·예장동과 남쪽으로 용산구 후암동과 서로 이웃하며 서쪽은 남창동, 북쪽은 남대문로3가와 충무로1가와 마주보고 있다. 퇴계로가 동·북부지역을 관통하고 소파길이 남부지역을 동서로 횡단하는 회현동1가의 절반가량은 남산공원이 차지하고 있다.

회현동1가에 있던 마을로는 장동과 창동, 회현동을 들 수 있다. 우선 장동(長洞)은 충무로1가, 남대문로3가, 회현동1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장흥고(長興庫)가 있다가 내자동(內資洞)으로 옮겨갔으므로 장흥곶골 또는 한자명으로 장동이라 하였다. 장흥고는 궁중이나 관아에 종이·유지(油紙)·돛자리 등을 공급하던 관아였다. 이 지역은 옛날부터 남주북병(南酒北餅, 남촌에는 술이 좋고 북촌은 떡이 좋다)이라 표현할 정도로 술이 유명하며 주점이 많았는데 특히 남촌인 장동 일대가 유명하였다. 현재 남대문시장의 초입 부근인 이 일대는 옛날의 명성과 걸맞을 만큼 각종 음식점이 즐비해 여전히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창골 또는 창동(倉洞)이라 불리는 마을은 회현동1가, 남창동, 남대문로4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선혜청의 창고가 있었으므로 이름이 붙여졌다. 선혜청은 선조 41년(1608)에 설치하였다가 순종 초에 폐지되었는데 대동미와 포전의 출납사무를 맡아 보던 곳이다.



회현동1가의 관할구역 경계

1876년 개항 후에도 한동안 일본인들이 도성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은 허용되지 않다가 1885년에야 일본인들의 입경과 거주가 정식으로 허가되었다. 일본인 거류지역은 남산 기슭 녹천정(綠泉亭)이 있던 곳, 즉 일본공사관 인근의 중구 예장동과 주자동, 충무로1가에 이르는 진고개[泥岬] 일대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서울에 거주하는 일본인 인구는 빠르게 늘었고, 이에 따라 일본인 거류지도 점차 확대되었다. 1896년(고종 33)에 일본공사관은 지금의 충무

로1가 입구로 확장해 옮겨갔고, 일본인 거류지의 중심지도 외진 남산 밑에서 도심으로 옮겨가 회현동 동부까지 확대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일본인 거류지의 확장이 아니라 신시가지 혹은 신도시가 확장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1910년 일본인은 서울 인구의 14%를 차지할 만큼 급격한 증가를 보였는데, 그들 대부분은 남촌에 살았다. 따라서 남촌은 일제 강점기 식민지 지배층이 사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대한제국 말기 일본인들은 숭례문에서 남산 식물원까지에 이르는 남산 지역 30만평을 무상 대여 받아 1910년 5월 29일에 한양공원(漢陽公園)을 조성하였다. 한양공원은 1900년대 초반



남산순환도로 변의 한양공원 기념비

한국에 일본인 이주자가 늘어나면서 그들을 위한 위락시설의 하나로 조성되었다. 당시 이 공원을 기념하는 비석을 세웠는데, 현재 남산3호터널 위 남산순환도로변에 있으며 비석의 앞면에 새겨진 글씨는 고종의 친필이라고 한다.

이런 연유로 회현동1가의 남쪽은 현재도 대부분 공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백범광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백범(白凡) 김구(金九, 1876~1949) 선생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공원이다. 남산공원으로 올라가는 산중턱에 자리 잡은 이곳은 원래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이 있던 자리였으나, 4·19혁명 이후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허물고 1968년 8월 백범광장을 조성했다. 이듬해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에 의해 높이 10m에 이르는 동상도 제작·건립되었다.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인 김구 선생의 본명은 창수(昌洙)이다. 그는 청년시절부터 동학농민운동을 지휘하다가 일본군에 쫓겨 만주로 피신하여 의병단에 가입하였고, 3·1운동 후에는 중국 상하이의 임시정부에 참여하였다. 1928년 이시영(李始榮) 등과 함께 한국독립당을 조직하여 이봉창(李奉昌)·윤봉길(尹奉吉) 등의 의거를 지휘하였다. 1944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으로 선임되었고, 광복 이후에는 신탁통치와 남한 단독 총선을 반대하며 남북협상을 촉



백범광장에 세워진 김구 선생 동상

구하다가 1949년 안두희(安斗熙)에게 암살당하였다. 백범광장에는 이외에도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 장군의 기마상이 있고 이시영 선생의 동상이 있다. 그리고 동상 앞으로 넓은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으며 남산으로 오르는 길이 시원하게 열려 있다.

한편 중구 퇴계로12길 일대에는 오늘날까지 이른바 문화주택이라 불리는 일제 강점기 한옥들이 남아 있다. 고층 건물들이 즐비한 한편에 아직도 낮은 층수의 옛 건축물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주로 1960년대 이후 건축물들이고 연대가 더 올라가는 것들은 대개 일제 시기의 문화주택들이다. 근대적 주택과 현대적 주택이 공존하는 곳에서 전근대적 주거건축으로서 남은 회현동 한옥은 희귀한 존재라 하겠다.

회현동에서는 매년 10월 ‘회현동 은행나무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 축제는 중구 소공로51 우리은행 본점 앞에 있는 지정보호수인 수령 500년이 넘는 은행나무에 얽힌 전설을 되새기고 기념하는 행사로, 신령이 깃든 영험한 나무에 마을의 안녕과 뛰어난 인재 배출을 기원하는 지역 축제이다. 이 나무가 서 있는 곳은 회동 정씨로 불렸



2018년 개최된 회현동 은행나무 축제(중구문화원 사진공모전 입상작)

던 정광필(鄭光弼, 1462~1538)의 집터인데, 정광필은 조선 중종(中宗) 때 11년간 영의정을 지낸 정치가로 본관은 동래(東萊)이다. 어느 날 정광필의 꿈에 흰 수염을 길게 드리우고 도포를 입은 선인이 나타나 이 터의 은행나무에 대대로 정승의 허리띠가 걸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뒤 홀연히 사라졌다고 한다. 실제로 정광필의 집터에서 12명의 정승이 배출되었다고 한다.

2012년 1회를 시작으로 매년 10월에 열리는 ‘회현동 은행나무축제’는 축제 당일 정오에 풍물패의 길놀이 공연이 시작되면서 민요한마당·부채춤·모듬북 난타 등이 펼쳐진다. 이어지는 기념식과 함께 각 해마다 정하는 표어에 따라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데, 기념식 후에는 주민들의 무병장수(無病長壽)와 평온무사(平穩無事)를 비는 은행나무 신목제(神木祭)를 지낸다. 공식행사 후에는 주민노래자랑과 공연도 이어진다. 전설이 깃든 은행나무를 바라보며 전통의식과 현대문화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이 축제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신선한 볼거리로 사랑받고 있다.

02. 회현동2가會賢洞二街

회현사거리에서 남산3호터널 입구에 이르는 소공로 좌우에 위치한 회현동2가(會賢洞二街)는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호현방(好賢坊)과 명례방(明禮坊)에 속했던 지역으로 일제 강점기 옥정2정목(旭町二丁目)으로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회현동2가로 되었다. 예로부터 이 일대에 어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한데서 회현동의 동명이 유래하였다.

회현동2가에 있던 조선시대 자연마을로는 난정이문골, 장흥곶골, 회동, 남산동을 들 수 있다. 난정이문골은 타락골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선조 때 상당부원군 한준겸(韓浚謙)이 이곳에 살면서 일가와 더불어 난정수계회(蘭亭修契會)를 자주 열었으므로 난정이문골 또는 한자로 난정이문동(蘭亭里門洞), 난정동, 난동이라고도 하였다. 또한 회현동2가에 있던 박우물은 우물이 얹어서 바가지로 물을 길 수 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며 박정(朴井)이라고도 하였다. 이 우물은 물맛이 차고 맑아서 약수로도 쓰였으나 지금은 매립되어 찾아볼 수 없다.

회현동2가와 3가·남산동1가·남산동3가가 걸쳐 있는 마을이 남산 북쪽 기슭에



회현동2가의 관찰구역 경계

위치한다고 하여 남산골 또는 한자명으로 남산동(南山洞)이라 하였다. 이 마을에는 가난한 선비와 청렴한 관원들이 많이 살았다. ‘남산골선남’이란 말이 있는데 선남은 생원님의 준말로 과거에 낙방하고 가난에 오기만 남은 생원(선비)을 비꼬는 의미로 생긴 말이다.

이곳에는 풍수(風水)에서 말하는 복구형(伏龜形) 터와 재산루(在山樓) 터가 있었다. 복구형은 타락동(회현동 일대의 옛 이름)에 있었던 집으로 남산 줄기가 내려와 거북이가 엮드린 것과 같

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조선 중기 영의정을 지낸 김육(金堉)의 손자 김석주(金錫冑)가 출생한 재산루는 집터 모양이 범과 같고 범은 산에 있는 것이라 하여 그 집을 재산루라 하였다.

조선시대 회현동2가에는 명사들이 많이 살았다. 김석주(金錫冑, 1634~1684)는 조선 중기의 정치가로서 서인 산당(山黨)과 남인을 축출하고 집권한 뒤 이조판서와 우의정을 지낸 인물이다. 영의정 김육(金堉)의 손자이자 병조판서 김좌명(金佐明)의 아들로 지금의 중구 회현동에 해당하는 남산 북쪽 기슭의 회동에서 출생하였다. 본관은 청풍(淸風)이며, 자는 사백(斯百), 호는 식암(息庵)이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조부 김육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당색으로는 서인이었으며, 조부 김육이 중심이 된 한당(漢黨)에 속했다. 당시 주류인 산당과의 갈등으로 요직에 중용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선조 때 호조판서를 지낸 한준겸(韓濬謙, 1557~1627)은 1579년(선조 12)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1586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검열(檢閱)이 되었다. 선조가 출제한 시제(試題)에서 장원을 하여 선조로부터 총애를 받아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1589년 금천현감(衿川縣監)으로 있을 때 정여립(鄭汝立)의 반란이 일어나자 정여립의 생질이었던 이진길(李震吉)을 천거한 일로 연좌되어 여러 달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 원주로 이사하였다. 1592년(선조 25) 다시 복직된 한준겸은 임진왜란 중 명나라 마귀(麻貴)를 도와 식량·마초(馬草) 수집과 저장을 담당하였다. 왜란이 끝난 뒤 우승지(右承旨)에 책봉되어 변방의 소식을 빨리 전달할 수 있는 파발(擺撥)의 설치를 건의하였다. 이후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할 때 문홍도(文弘道)의 무고로 파직되었다. 이듬해 병조참판으로 임용되었고 이덕형(李德馨)의 추천으로 사도도원수(四道都元帥)에 올랐다. 이후에도 여러 요직을 역임하였다.

조말생(趙末生, 1370~1447)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양주(楊洲), 자는 근초(謹初), 호는 화산(華山)·사곡(社谷)이며 시호는 문강(文剛)이다. 지금의 회현동2가에 살았다. 1401년(태종 1)에 증광문과(贈廣文科)에 장원하고 감찰(監察)·정언(正言)·헌납(獻納)을 역임한 다음 1407년 문과중시(文科重試)에 급제하여 전농시부정(典農寺副正)이 되었다. 이후 병조판서까지 승진을 거듭하였다. 태종의 총애를 받아 측근에



남산3호터널 공사 모습(1978년경, 서울역사아카이브 소장)

서 보좌하였고 세종이 즉위할 때 태종으로부터 중용해도 될 인물로 추천받았다. 인물됨이 후덕하고 기개가 있다고 평가받았으며 태종·세종 2대에 거쳐 중용되었지만, 뇌물 수수 사건이 걸림돌이 되어 정승의 반열까지 오르지 못했다.

회현동2가에는 사적 제254호로 지정된 구 벨기에영사관 건물(1905년 준공)이 있었으나 1982년 관악구 남현동으로 이전했다. 또한 회현동2가 동남쪽 끝에는 남산3호터널이 자리하고 있다. 이 터널은 남산을 뚫고 나가 용산동·이태원과 만나는 왕복 4차로의 쌍굴형 터널로 너비 9.0m, 높이 4.7m, 길이 1,270m로 녹사평대로의 북쪽 삼분의 일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1970년대 들어 강남권이 빠르게 개발되면서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여 강남과 강북을 잇는 새로운 터널의 개통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어 1976년 5월 14일부터 1978년 3월 31일까지 23개월에 걸쳐 완공되었다.

03. 남대문로5가南大門路五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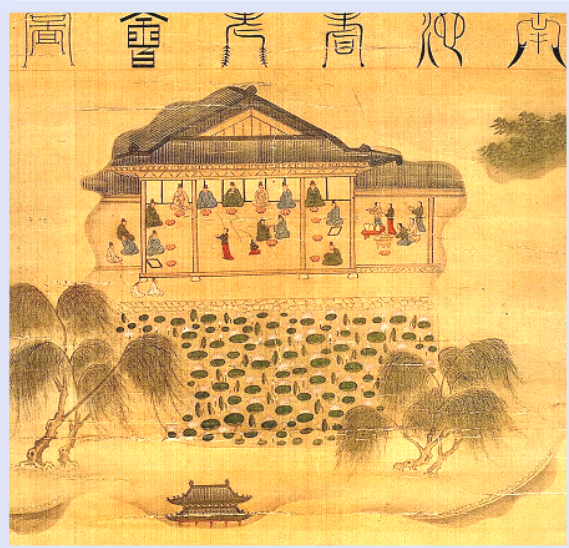
남대문로5가의 동명은 국보 제1호 숭례문의 별칭인 남대문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현재 남대문로5가 지역은 남대문경찰서, 서울스퀘어, 대우재단빌딩, 연세세브란스빌딩 등 업무 및 상업용 빌딩들이 밀집해 있다. 숭례문과 서울역 사이의 세종대로 동남쪽 일대에 위치한 남대문로5가는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서부 반석방에 속했던 지역으로 남대문통5정목·어성정(御威町)이라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남대문로5가와 양동(陽洞)으로 되었다. 1980년 7월 1일(서울특별시조례 제1412호) 양동은 남대문로5가에 편입되어 폐지되었다.

남대문로5가는 북으로 남대문을 사이에 두고 남대문로4가와 접해 있으며 지하철 1호선이 동의 서북부를 관통하고 있다. 또 동쪽으로는 남창동 및 회현동과 이웃하여 남산공원까지 이르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봉래동2가와 접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용산구 동자동과 후암동과 이웃하고 있다.

남대문로5가와 봉래동1가에 걸친 지역은 동이[盆, 물 길는 데 쓰는 질그릇]를 취급하는 시전이 있었으므로 동이전골 혹은 분동(盆洞)이라 하였는데 지금의 남대문로 일대에 해당되고 동정골은 힐튼호텔 중간쯤이 된다. 옛 양동(陽洞) 지역에 있는 힐튼호텔 일대는 소이문동(小里門洞)이라고 했는데 이문골의 작은 마을이 되므로 작은이문골 또는 작은이문골이라고 하였고, 대우빌딩 근방을 이문골 혹은 대이문동(大里門洞)이라 하였다. 남관왕묘(南關王廟) 부근에 있던 이문은 신통한 무당이 살고 있었다고 하여 명소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남대문로5가·봉래동1가에 걸쳐 쪽우물골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이는 우물가에 쪽풀이 많이 자라고 있어 쪽우물이라고 불리던 우물이 있어서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한자로는 남정동(藍井洞)이라고 하였다.5>

조선시대에 숭례문 밖에는 남지(南池)가 있었다. 한성부의 동·서·남에 연못이 각각 있어서 장원서(掌苑署)에서 관리하는 연꽃에서 나온 연자(蓮子)를 왕실에서 사용하였다. 연지에는 연꽃이 많이 피어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꽃송이가 크고 탐스러워 보는 사람마다 감탄하였는데 특히 남대문 문루에서 내려다보는 연꽃은 장관을 이루었



남대문로5가의 관할구역 경계와 송례문 남쪽에 있던 연못(이기룡, 남지기로회도, 1629년)

고 마치 아름다운 여인의 자태와도 같아 과수를 보는 문지기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였다. 때문에 연못가에 조그맣게 지어놓은 정자에서는 시인 문사들의 발걸음이 줄을 이었다. 이항복(李恒福, 1556~1618)은 어느 달 밝은 밤 연꽃 구경을 하다가 성위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를 듣고 다음과 같은 시를 읊기도 하였다.

연못에 춘풍(春風) 불어 땅 위로 퍼지는데
층층 성벽엔 나무 그림자 어른거리네.
노랫소리 분침을 울리고 여인 더욱 고운데
물 건너 저 남자는 밤 가는 줄도 모르고 섰네.²⁶⁾

서울스퀘어 빌딩이 위치한 곳에 조선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 1561~1613)의 집터가 있었다. 이덕형은 1580년(선조 13)에 문과에 급제하여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 원병을 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임진왜란이 끝난 뒤 영의정에 올랐다. 이덕형은 이항복과의 아름다운 우정으로도 유명한 인물이다.



일제 강점기의 남대문로5가. 전차가 지나는 오른쪽에 세브란스 병원이 보인다.

한편 서울역을 마주보고 우뚝 서 있는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의 자리는 원래 세종 원 터였다. 후일 세브란스병원이 설립되었으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모체가 되었다.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은 1993년 12월 완공된 인텔리전트 빌딩이다. 원래 세브란스로부터 자금을 받아 세브란스병원이 1905년에 건립된 바 있으나 이후 신촌으로 옮겨졌고, 그 터에 새롭게 지상 24층 지하 6층 규모의 빌딩을 짓게 되었다.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교육 재원을 위해 운영하는 이 건물은, 1994년 한국건축문화대상에 입선하였고, 1995년 서울특별시건축상에 장려 부문에 입상하였다.²⁷⁾

남대문로5가에서 남산 쪽으로 우뚝 솟은 건물이 힐튼호텔이다. 남대문로5가 395번지의 이 호텔은 남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어 전망이 좋고 공기가 맑아 복잡한 도심 속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경영은 영국에 본사를 둔 힐튼체인에서 하고 있다.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최대의 목표로 한다는 힐튼호텔의 종업원 수는 총 800여명, 객실은 총 700여개 정도이다. 현재 각종 세미나와 행사 등의 장소로 많이 이용된다.



서울로7017에서 바라본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과 서울스퀘어빌딩

남대문교회는 남대문로5가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노회 소속의 교회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제중원(濟衆院)에 부설된 제중원교회가 그 전신이다. 1885년 6월 21일 주일 저녁, 선교사 알렌(Allen, H. N.)과 헤론(Heron, J. W.) 부부, 스크랜턴 대부인이 알렌의 집에 모여 처음 예배를 드렸다. 이후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외교관 포크 등이 참석하는 정기적인 주일 예배로 자리를 잡게 된다. 이처럼 제중원은 비록 외형적으로는 병원이었지만 공식 선교가 허락되지 않았던 조선 선교의 초기에 주일예배와 성찬식 및 세례식이 베풀어지는 완전한 신앙공동체였다.

1894년 제중원교회는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새문안교회를,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정동교회를 조직하여 떠난 후 정부로부터 제중원을 인수하여 완전한 선교기관이 되었으며, 이후 장로교공의회의 장소 등으로 사용되는 등 ‘중앙 교회’라 불리며 그 사명을 감당하였다. 처음에는 구리개[지금의 을지로1가]에 있었으나 1904년 9월 제중원이 남대문밖 복숭아골(지금의 중구 양동)로 이전되면서 교회도 따라서 옮기게 되었고, 이름도 ‘남대문밖’ 혹은 ‘남문밖교회’로 불렸다. 1910년 12월에는 세브란

스(Severance, L. H.)의 기부금으로 새 교회당을 준공하였고, 1912년에는 초대 담임목사로 박정찬이 부임하였다. 남대문교회에서는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되었는데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된 박서양과 김필순 등 세브란스 의학교 학생들이 있다. 또 1919년 3·1운동에 참여한 집사였던 이갑성, 조사(助師)였던 함태영 등이 옥고를 치렀는데, 특히 이갑성은 청년대표로 33인에 참가하였다. 그 밖에 이용설 장로,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 등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출석하였다.²⁸⁾ 남대문교회 건물은 건축사적으로도 보존가치가 높음을 인정받아 2013년 서울 미래유산으로 등재되었다.²⁹⁾

04. 남창동南倉洞

남창동(南倉洞)은 조선 선조 때 설치된 선혜청 창고가 있던 곳의 남쪽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시대에는 서부 양생방에 속했으며 영조 때에는 서부 양생방 창동계였고, 1894년 갑오개혁 때 서서(西署) 양생방 창동계 창동·상동계 상동이였다. 그 뒤 1914년 경기도고시 제7호로 양생방의 창동 일부와 상동 일부를 병합하여 남창미정이라 했으며, 1943년 부령 제163호에 의한 구제도 실시에 따라 중구 남창미정이라 하였다. 1946년 일제식 동명을 모두 없앨 때 중구 남창동이 되었다.

남창동은 동쪽으로 회현동1가, 서쪽과 남쪽은 남대문로5가, 북쪽은 남대문로3가와 남대문로4가에 둘러싸인 지역으로 퇴계로가 동의 한가운데를 동서로 횡단함으로써 남창동을 남북으로 양분해 놓고 있다. 남창동에 있던 자연마을로는 상정승골과 창동을 들 수 있다. 상정승골은 남창동, 북창동, 남대문로3가, 태평로2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상(尙) 정승이 살았다고 하여 일대를 상정



남창동의 관할구역 경계



남대문시장의 기원인 선혜청 창내장(1900년경)

승골 혹은 상동(尙洞)이라 하였다. 창동은 남창동, 회현동1가, 남대문로4가에 걸쳐 있던 마을이다. 선혜청의 창고가 있으므로 창골 또는 창동(倉洞)이라 하였다. 한편 남창동에서 발원하여 수각다리를 지나 서울시청 앞으로 흘러 무교(武橋)를 지나 소광교(小廣橋)를 거쳐 청계천으로 들어가는 내를 창동천이라 하였는데 지금은 모두 복개되어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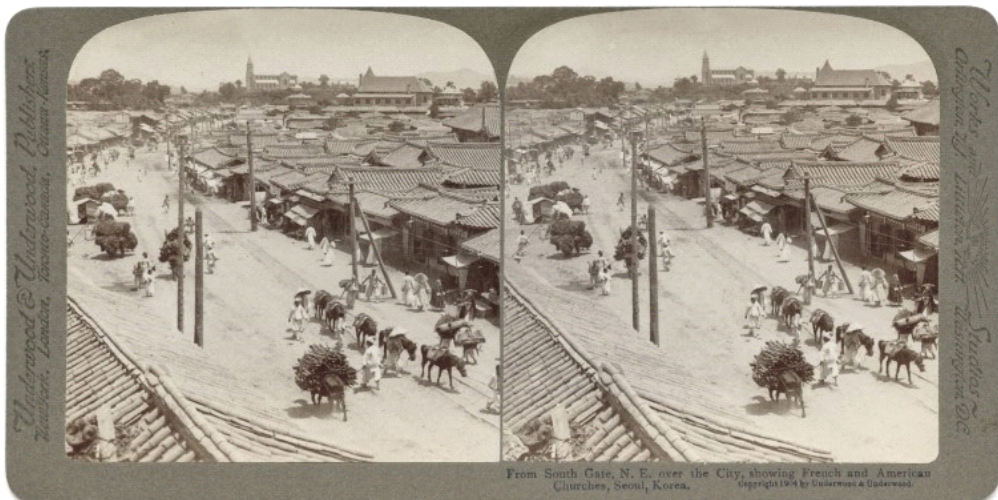
남창동에는 선혜청 터, 홍엽정 터 등이 남아 있다. 선혜청은 숭례문과 남대문시장 중간 높은 지대에 있었는데, 선조 41년(1608) 상평창(常平倉)을 개칭한 기관으로 대동법(大同法)의 실시에 따라 대동미·포(布)·전(錢) 등의 출납을 맡아보던 곳이다. 선혜청은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대동미의 출납을 위하여 용산강에 별창(別倉)을 두었고, 북창은 삼정동에, 동창은 옛 장용영(壯勇營)에 두었다. 영조 29년(1753)에 균역청을 병합하였다가 고종 31년에 폐지하였다.

홍엽정(紅葉亭) 터는 남창동 202번지에 있던 정자 터인데 쌍회정(雙檜亭) 터라고도 한다. 이 터는 원래 오성대감 이항복이 살던 집이었다. 이항복은 이곳에 이사한 후 손

수 전나무[檜] 두 그루를 심었다. 매우 협소한 마당에 두 그루씩이나 심은 전나무로 집 안은 더욱 좁아 보였으나 넓힐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는데 주변에서 집이 좁으니 옮기라고 여러 번 권하자 “이곳에서 보면 장안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데 어찌 이 좋은 정자를 두고 다른 곳으로 가라 하느냐. 이곳보다 더 경치 좋은 곳의 정자가 있으면 그리 옮기겠다”며 듣지 않았다고 한다. 돌 틈 사이로 샘물이 솟고 형형색색의 나무들로 가득한 가운데 푸른 전나무 두 그루가 어우러져 절경으로 소문이 났다.

개항 후 남창동에는 독일공사관이 들어섰다. 1884년 처음 개설되었을 때는 한옥으로 뮐렌도르프의 집을 영사관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 정동의 손탁호텔 부근으로 옮겼다가 1901년 남창동에 2층 벽돌건물을 지어 옮겼는데 총 252평 규모로 주택풍이었다. 영사관이 평동 26번지로 옮긴 1906년부터는 이 건물을 경성구락부에서 사용하였고 광복 후에는 남산세무서로 사용하다가 1970년에 민간인에게 불하되었는데 지금은 재개발사업으로 없어졌다.

남창동 1-2번지 남대문시장 도로변에는 상동교회(尙洞敎會)가 자리하고 있다. 상동교회는 1888년(고종 25) 한국 감리교 최초의 의료선교사인 스크랜턴이 설립한 교회다. 스크랜턴은 1885년 정동감리교병원을 세우고, 1888년 이곳에 상동약국을 세워 의료선교에 나섰던 인물이다. 1889년 상동약국은 상동병원으로 전환하였고, 이



1900년대의 남대문로5가. 사진 상단 오른쪽에 상동교회의 모습이 보인다.

병원의 교회는 1893년 상동교회로 승격되었다. 스크랜틴이 첫 담임목사를 맡았다. 1901년 의료선교와 분리해 교회 본연의 사역에 전념하고자 상동병원이 있던 자리에 벽돌식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1907년 전도사로 활동해온 전덕기가 담임목사가 되었는데, 그는 1904년 청년 교육기관인 상동청년학원을 설립한 인물이다. 이곳에서 교인이었던 주시경(周時經)의 한글강습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전덕기를 중심으로 조약무효투쟁을 벌이게 되고, 이를 계기로 상동교회에 이른바 ‘상동파’라 불리는 민족주의자들이 모여들게 되었다. 1907년 상동교회 지하실에서 이준(李儺) 등에 의해 헤이그 특사 사건의 모의가 이루어졌으며, 그해 상동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 비밀결사단체인 신민회(新民會)가 조직되었다. 국권피탈 후 일제는 데라우치 총독 암살미수 사건을 꾸며 이른바 ‘105인 사건’을 조작하고 신민회 회원들을 탄압하였다. 상동교회는 명맥만 유지하다가 1944년 폐쇄되었다. 광복을 맞으면서 상동교회는 재설립되었으며, 1976년 교회는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였다.

한편 중구 남창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남대문시장은 우리나라 최대의 상설 종합재래시장이다. 다른 이름으로는 남문(南門)안장, 신창(新倉)안장이라고도 불렸다. 신창이라는 말은 ‘선혜청 창고 안쪽에 새로 들어선 시장’이라는 뜻이다. 1921년 송병준(宋秉峻)에 의해 조선농업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그러나 기원은 훨씬 오래되어, 1414년(태종 14) 조정에서 남대문 부근에 가게를 지어 지정된 상인들에게 빌려준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후 1608년(선조 41) 선혜청이 부근에 설치됨에 따라 남대문 밖 칠패(七牌)에는 자연스레 객사와 주막이 생기고 시장이 형성됐다. 초기 주거래 품목은 미곡·어류·과물·잡화 등이었는데, 1922년 총독부 조사에 따르면 남대문시장 거래액 중 77%는 농산물, 5%는 수산물, 기타 17%였다.

광복 이후에는 남대문상인연합회가 구성되어 시장을 운영하였으나, 6·25전쟁이 일어나 폐허가 되었다. 서울 수복 후 다시 노점 형태의 시장이 형성되어 당시 피난민들의 생활터전으로 큰 구실을 했지만, 다시 1953년 화재로 시장이 전소됐다. 1954년 서울남대문시장주식회사가 설립되었지만, 재정난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해산되고 다시 남대문상인연합변영회가 시장을 관리했다. 1958년 대지 약 1만 2,000평, 건평



남창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남대문시장(중구문화원 사진공모전 입상작)

약 2,000평 규모의 건물이 세워지고, 1963년 건물주·땅주인·상인들이 공동출자한 남대문시장주식회사가 발족되었다.

2014년 기준 남대문시장은 대지 약 2만 2,000평, 건물 연면적 약 6만 8,000평에 시장 종사자수가 약 5만 명으로 서울 최대의 서민시장이다. 노점상에서부터 현대식 백화점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갖추고 있으며, 점포수만 1만여 개이고 시장노점상 또한 다수 들어서 있다. 업종도 의류·청과·식품·잡화 등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다. 예전에는 주업종이 농산물이었지만, 지금은 의류취급점포가 다수이다. 특히 의류의 경우에는 전국 기성복의 50%를 공급할 정도로 국내 최대의 의류도매상가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농수산물과 축산물 등 주로 생식품류 취급상가, 일명 ‘도깨비시장’이라고 불리는 외래품취급상가·공예품전문상가·액세서리전문상가 등이 있다.

05. 봉래동1가蓬萊洞一街

봉래동1가는 숭례문 남서쪽, 세종대로와 칠패로 사이에 위치한다. 봉래동1가의 동명은 이곳 일대에 있었던 봉래교(蓬萊橋)라는 다리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서부 반석방에 속했던 지역으로 일제 강점기에 봉래정1정목이라 불리다가 해방 후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봉래동1가로 되었다.

조선 초 한성부를 5부 52방으로 나눌 때 서부 반석방에 속하였으며, 1751년 편찬된 「도성삼군문분계총록」에 의하면 서부 반석방 고순청계·연지계였고, 갑오개혁으로 행정구역의 변화가 있을 때 한성부 서서 반석방 고순청계 순동·자암동, 연지계 매동·분동·남정동·연지동이였다.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로 서부 반석방 일원이 되었다가 1913년 4월 1일 경성부 서부 반석방 순동·자암동·분동·연지동·남정동·은행동·매월동이 되었고, 이듬해 4월 1일 경기도고시 제7호로 경성부 서부 순동·자암동·분동·연지동·남정동 각 일부와 은행동·매월동을 합하여 근처에 있던 봉래교의 이름을 따서 봉래정1정목으로 하였다. 1943년 6월 10일 부령 제163호로 중구 봉래정1정목이 되었다.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의 우리말 개정 원칙에 따라 중구 봉래동1가로 개칭되었다.

봉래동1가는 북으로 남대문로4가, 서소문동, 순화동과 접해 있고, 서쪽과 남쪽으로는 봉래동2가와 접하고, 동쪽으로 남대문로5가와 이웃하고 있다. 근세 이후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에 가까운 곳인데다 일찍부터 형성된 칠패시장이 인근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이에 따라 옛 지명도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남정동(藍井洞)은 남대문로5가와 접한 곳인데 쪽풀이 많이 심어져 있는 우물이 있으므로 쪽우물골이라 부른 데서 비롯되었으며, 매동(梅洞)은 매화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다 해서 붙여진 지명인데 매월동(梅月洞)이라고도 하며 강희맹(姜希孟)의 집터 근방에 있었다. 은행동(銀杏洞)은 은행나무골이라고도 불렀는데 아름다리 은행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동명이다. 이 나무에서는 수십 가마의 은행이 열렸는데 특히 은행나무 밑을 신부 가마가 지나면 마을에 길운이 찾아온다고 하였으며 신부 행렬이 잠시 멈추어서 준비해간 떡과 과일을 나무 아래 두고 제사를 올려야만 부부화합이 잘된다고 하



서울로7017에서 바라본 통일로(봉래동1가 지역)

이른다. 대체적으로 내어물전이 봉건 말기의 변혁기에 사양길에 접어든 데 반해 외어물전은 진취적이고 활기 있는 신진 상업 세력과 결합하여 이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한편 봉래동1가·순화동·의주로2가에 걸쳐서 자암동(紫岩洞)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의 이름은 염천교 동쪽 철도 근방의 바위가 자색 빛이 나기 때문에 자연(紫烟)바위·자색바위·자암·잼배라고 부르는 데서 유래하였다. 자암동에는 조선시대에 객주(客主)가 많이 모여 있었다. 자암동의 객주가 취급했던 물품은 주로 건어물과 생선·과일·젓갈 등이었다. 이 가운데 거래량이 가장 많은 품목은 북어와 젓갈류인데 새우·조개·꿀뚜기·밴댕이·황석어 등으로 만든 젓갈류가 주종을 이루었다.

자암동은 한음 이덕형이 출생한 곳이기도 하다. 어려서 장난이 매우 심했던 그는 백사 이항복과 함께 곤잘 어울리기도 하였다. 이덕형은 임진왜란 때 이항복과 함께 쌍벽을 이룬 인물로 군사와 외교에 눈부신 활약을 하여 전쟁이 끝난 후 선무공신(宣武功臣)의 호를 받았다.

한편 봉래동1가와 봉래동2가 일대는 1904년 이후 일본인이 날로 증가하여 회현동, 남산동, 명동 일대와 같이 일본인들의 마을로서 피혁·제화거리 촌이 형성되었다. 특히 수제화거리는 염천교 옆 철패로 일대에 수제화 전문업체 50여 개가 모여 있는 곳으로 1925년 일제 강점기 시절 경성역에 생긴 화물창고에서 출발하였다. 창고로 들어갈 피혁(皮革)들이 밀거래되면서 잡화상과 피혁점, 구두수선점이 하나둘 생겨난 것이다. 해방 후에는 미군들의 중고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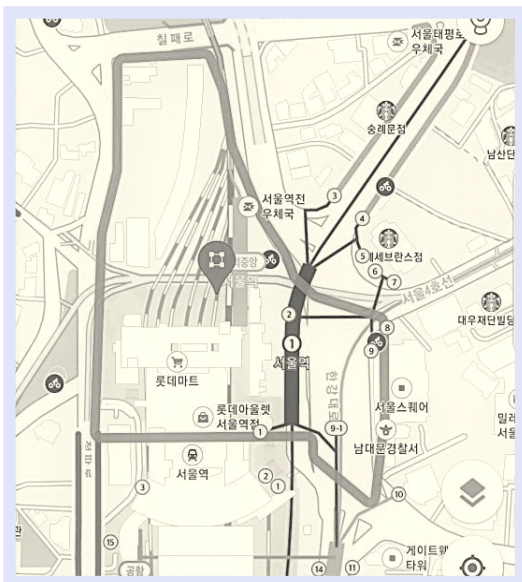
염천교 수제화거리

화를 재활용해 신사화를 만드는 가게도 문을 열었다. 그리하여 1950년대부터 1층에는 상점, 2층에는 공장이 위치하는 형태로 구두거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염천교 수제화거리의 수제화는 값이 싸고 품질이 좋아 큰 인기를 누렸고, 서울역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도매시장으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대형 제화업체와 값싼 중국산 구두에 밀려 점차 상권이 힘을 잃기 시작했다. 2014년에는 재개발계획이 세워져 수제화거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기도 했으나, 현재는 90년 역사의 구두전문거리로서 한국 구두산업의 살아 있는 역사로 보존할 가치가 인정되어 재개발 사업이 재검토된 상태이다.

06. 봉래동2가蓬萊洞二街

봉래동2가는 서울역 북쪽, 염천교 남쪽 일대에 위치하여 서울역과 철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서부 반석방 일부에 속하였고 일제 강점기에 봉래정2정목이라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봉래동2가의 관할구역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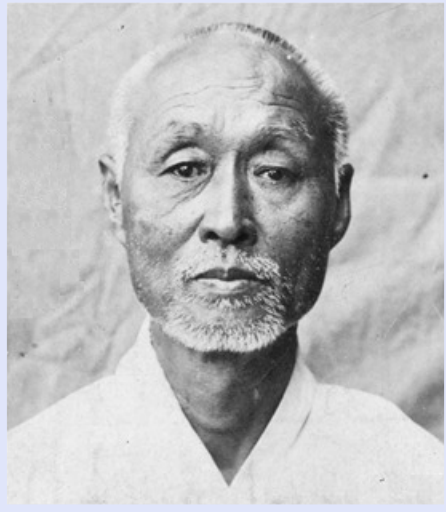
바꾸면서 봉래동2가로 되었다. 봉래동2가의 동명은 이곳 일대에 있었던 봉래교라는 다리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서울역과 철도가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봉래동2가는 동쪽으로 남대문로5가, 북쪽은 봉래동1가 및 의주로2가와 접하며, 남쪽은 동자동, 서쪽은 중림동 및 만리동1가와 서로 맞닿아 있다. 만리동1~2가 및 봉래동2가와 서로 접한 곳에는 가운뎃말 혹은 약전중동(藥田中洞)이라 부르는 지역이 있었는데 약현으로 가는 가운데 동네라는 뜻이며, 마조미동(磨造米洞)

은 매조미를 만드는 마을로 매조미골이라고도 하였다. 약현(藥峴)은 약봉(藥峰) 서성(徐省)이 살았던 곳으로 약밥과 약주의 어원이 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봉래동2가 122번지에는 남대문역이 있었다. 1904년 11월 서울~부산 간 철도가 개통되면서 이듬해 5월 25일 지금의 역보다 약간 남쪽 지점으로 옮겨서 개통식을 하고 남대문정거장이라 했는데 건평은 15평에 불과하였다. 이곳은 1919년 9월 2일 강우규(姜宇奎, 1885~1920) 의사가 사이토 마코토[齊藤實] 총독을 저격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강우규는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찬구(燦九)·호는 왈우(曰愚)로 평안남도 덕천군 무릉면 제남리 출신의 독립운동가이다. 30세 때 함경남도 흥원으로 이사하여, 한의술로 환자를 치료하면서 기독교에 입교하여 장로가 되었고, 학교를 설립하여 청년들에게 신학문을 가르쳤다.

1910년 국권피탈 후 만주로 건너가 지린성[吉林省] 라오허현[饒河縣]에 정착하여 신흥촌(新興村)을 건설하고 동광학교(東光學校)를 세워 교육 사업에 진력하였다. 3·1 운동이 일어나자 박은식(朴殷植)·김치보(金致寶) 등과 상의하여 조국에 돌아가 거사할 것을 자원, 영국제 폭탄을 가지고 서울에 잠입하여 제3대 조선총독으로 부임하는 사이토 마코토를 폭살하기로 계획하였다.



거사 직후의 강익규 의사

1919년 9월 2일 남대문역을 비롯하여 남대문에서 용산에 이르는 연도에는 많은 사람과 함께 무장 군인과 경찰로 엄중한 경계가 이루어졌다. 오후 5시 도착한 사이토 총독의 환영인사와 함께 21발의 예포소리가 끝나고 일행이 마차에 오를 때 강우규 의사는 들고 있던 폭탄을 던졌다. 사이토를 맞히지는 못했지만 무라다 육군소장, 고무다 혼마치[本町] 경찰서장, 구보 만주철도 이사 등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수수한 시골 노인 차림의 강우규는 숙소인 안국동으로

돌아온 후 2차 거사를 준비하면서 경찰과 헌병의 눈을 피해 가회동의 장익규, 사직동의 임승화 집으로 숙소를 옮기던 중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듬해 4월 사형 언도를 받고 복심법원과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사형이 확정되었고 동년 11월 29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어 순국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현재 옛 서울역사 앞에 동상과 기념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한편 옛 서울역사는 일제 강점기인 1922년 6월에 착공하여 1925년 9월에 준공되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연면적은 6,836㎡, 대지면적은 23만여㎡이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서 부분적으로는 화강석을 사용하였는데, 시공은 조선포텔을 지은 아오미 하지메가 맡았다. 서울역사는 현재 남아 있는 일제 강점기의 건축물 중 가장 뛰어난 외관을 갖추고 있어 1981년 9월에 사적 제284호로 지정되었다. 가장 큰 특징은 중앙의 돔이다. 르네상스 건축양식에서 이용되는 펜던티브(pendentive)를 이용하여 사각형의 평면에 돔을 올려놓았는데, 펜던티브와 돔을 결합시켜 높이를 낮춤으로써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었다.

광복 후 서울역사는 늘어나는 수송량을 감당하기 위하여 1960년대에 남부 및 서부 역사를 신설해 원래 역사와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2004년 1월 서울역(신청사)이 신축되면서 구 역사는 폐쇄되었다가 2011년 8월 원형복원공사를 마친 후 ‘문화역서울



옛 서울역사는 문화역서울284로 재탄생하여 문화공연 및 전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284'라는 이름으로 개관했다. 현재는 주로 공연·전시·세미나·회의 등을 위한 다목적홀로 이용된다.

서울역 신철거는 1925년 건설된 옛 서울역사를 대신하여 2004년 KTX열차 개통과 함께 서울통합민자역사로 새롭게 신축한 것이다. 신축된 역사는 지하 2층 지상 5층의 건물로, 아울렛·대형할인점 등이 입주해 있으며, 경부고속철도·공항철도·경부선·경의선 등의 시발역이자 중착역이다.

한편 남대문시장의 퇴계로와 지하철 1호선이 관통하는 봉래동2가 84번지는 제증원이 있던 자리로 후일 세브란스병원 및 부속의과대학 자리였으나 연희전문학교와 병합하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되면서 신촌캠퍼스로 이전하였고 지금은 세브란스빌딩이 서 있다. 서울역 앞은 대부분 불량주택지구였는데 1970년대부터 시작한 도심재개발로 대부분 정비되어 산뜻하게 단장되어 있다.

제3장 명동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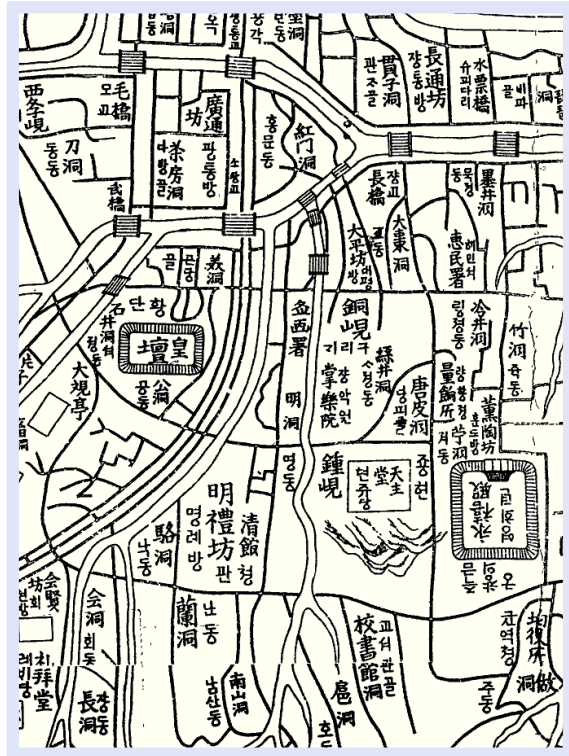
명동(明洞)은 장교동, 무교동, 다동, 태평로1가, 을지로1~2가, 남대문로1~2가 일부, 삼각동, 수하동, 수표동, 명동1~2가, 충무로1~2가, 저동1가, 남산동1~3가, 예장동 일부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관할구역 명칭이다. 2018년 기준 명동의 면적은 0.99km²이며 인구는 1,400세대에 3,416명이 거주하고 있다.³⁰⁾

명동의 동명은 조선 초기 한성부의 5부 52방 중 남부(南部) 명례방(明禮坊)의 ‘명(明)’자를 딴 것으로, 원래 ‘명례방’ 또는 ‘명례방골’이라고 하다가 줄여서 명동이라고 하였다. 장교동은 청계천 위의 다리인 장교(長橋)의 이름에서 유래되었고, 무교동은 조선시대 이 부근에 무기의 제조 관리를 맡아 보던 군기시(軍器寺)가 있어 모전다리 부근에 있던 모교동(毛橋洞)과 구별하기 위해서 무교동으로 불렸다.

다동은 조선시대 다도와 차례를 주관하던 사옹원(司饔院)에 속한 다방(茶房)이 있던 데서 유래되었고, 삼각동은 지세가 서쪽은 좁고 동쪽으로 갈수록 좁아져 삼각형 모양을 이루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수하동은 남산에서 발원한 창동천(倉洞川)이 흘러가는 물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점에서 유래되었고, 수표동은 청계천의 수위를 측

정하는 수표(水標)가 있던 데서 유래되었다. 저동은 모시를 취급하는 상점인 저포전(苧布廐)이 있었기 때문에 유래되었고, 남산동은 남산 북쪽 기슭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남산골이라고 불리던 동명에서 유래된 것이다.

명동은 일제 강점기 정회(町會)를 설치할 때 명치정(明治町) 1정목·2정목회가 설치되었다. 1946년 10월 명동1·2가동회로 바뀌어 명동1·2가와 충무로1·2가 지역의 행정을 담당했다. 1947년 말에 조사된 명동사무소 관내의 각 동을 살펴보면 저동1가는 저동



1902년 발행된 「서울 지도」의 명동 부근

1가동회, 남산동1·2·3가 지역은 남산동회가 설치되어 행정을 담당했다. 195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에 의한 행정동제 실시로 명동1가는 명동사무소의 관할구역이 되었고, 1970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13호에 의하여 명동1·2가, 충무로1·2가와 함께 남산동사무소의 관할구역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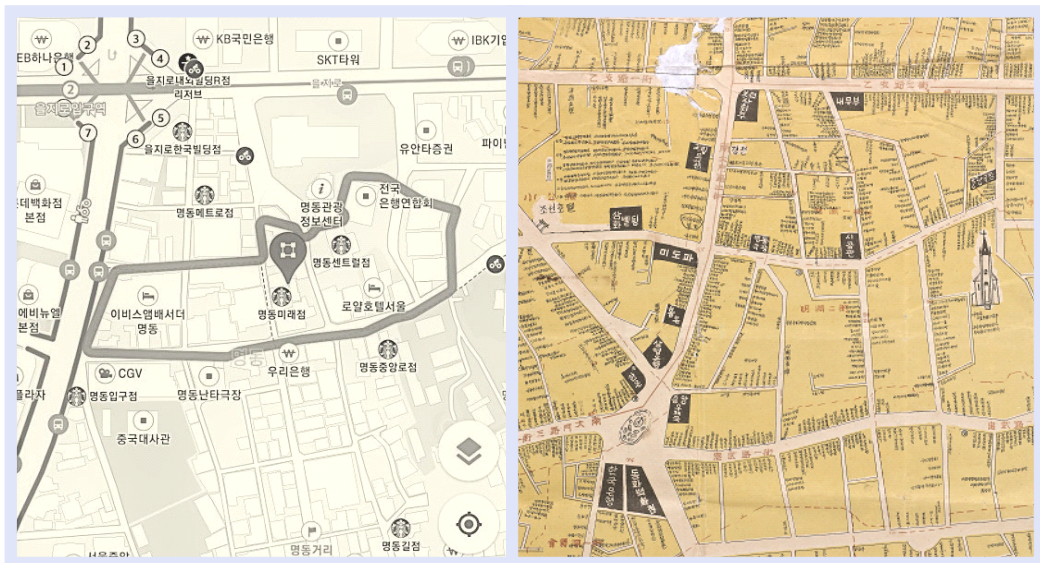
1975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981호에 의해 동의 통폐합이 실시되면서 명동사무소의 관할 아래 있던 명동1·2가, 충무로1·2가와 함께 남산동사무소의 관할 구역이던 남산동1·2·3가와 초동(草洞) 관할의 저동1가가 명동사무소 관할구역으로 통합되었다. 1985년 9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2015호에 의하여 예장동 일부 지역도 명동사무소 관할구역으로 통합되었다. 이후 1998년 9월 14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장교동, 무교동, 다동, 태평로1가, 을지로1·2가, 남대문로1·2가 일부, 삼각동, 수하동, 수표동을 통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명동주민센터는 중구 퇴계로20길 3(남산동2가 9-6)에 위치하고 있다.³¹⁾

01. 명동1가明洞一街

명동길 북쪽에 위치한 명동1가(明洞一街)는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명례방(明禮坊)에 속한 지역으로 일제 강점기 명치정1정목(明治町一丁目)으로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중구 명동1가가 되었다. 명동의 동명은 조선시대 이곳의 행정 구역명인 남부 명례방의 ‘명(明)’자를 딴 것으로 원래 명례방 또는 명례방골이라 부르다가 줄여서 ‘명동’이라고 한 것이다.

명동1가는 동쪽으로 저동1가와 접하고 남으로는 명동길을 사이에 두고 명동2가와 마주한다. 서쪽은 남대문로를 사이에 두고 남대문로2가와, 북쪽은 을지로2가에 접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지역이며 쇼핑과 유행의 본거지로 손꼽힌다.

조선시대 명동은 민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남아 있는 옛 자연마을의 이름을 살펴볼 수 있다. 명동을 일컬어 구남부동(舊南部洞) 혹은 구남북골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명동1~2가, 충무로1가, 을지로2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5부(部)의 하나인 남부가 있었기에 붙여졌다. 당피동(唐皮洞)은 물감과 중국과실을 파는 가게로 당화피(唐嬋皮)로 물건을 싸주는 집이 있다 하여 불렸던 이름으로 당피골이라고도 하



명동1가의 관할구역 경계와 「서울 상계약도」(1955)의 명동 부분

였다. 대룡동은 큰용골이라고도 불렀으며 마을 생김새가 용처럼 생겼으므로 붙여진 명칭이고, 작은용골은 소룡동으로도 불렀는데 작은 용처럼 생겨서 붙여진 명칭이다.

장악원동은 을지로2가 198-199번지에 장악원이 있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으로 장악원골이라고도 하였다. 종현은 명동성당 부근 고갯마루에 원각사에 있던 종을 갖다가 걸었으므로 붙여진 명칭이고, 모시전골은 저동1가와 명동1가에 걸쳐 모시를 파는 모시전이 있었으므로 붙여진 명칭이다.

명동은 대한제국과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인들이 충무로와 퇴계로 일대에 자리 잡게 되면서 광복 전까지 기생집과 요릿집이 즐비했던 거리가 되었고, 퇴계로가 건설되면서 상가지구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1930년대 말부터 근대적인 도시풍의 그릴과 다실이 들어서면서 글과 그림, 사진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광복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집회소 역할을 하였다. 6·25전쟁으로 명동도 전화(戰火)를 입었으나 곧 전쟁의 상처가 복구되고 다방과 술집을 중심으로 문인·예술인들이 또다시 모여들었다. 1970년대에는 통기타와 청바지문화를 창출하고 1980년대에는 명동성당을 중심으로 민주화를 위한 열망으로 가득한 시위대가 점령함으로써 최루탄 가스가 사라질 날이 없었다.

1990년대부터 명동상가변영회가 평화의 거리로 선포하고 매년 상인들과 시민들의 한판 마당인 명동축제를 벌인다. 최근에는 명동 일대는 대형상가와 고급 의류·화장품점들로 가득하여 쇼핑을 즐기는 중국인·일본인 등 외국 관광객들과 청춘남녀의 만남의 장소로 항상 인파가 넘치고 있다.

명동1가 54번지에는 명동예술극장 자리하고 있다. 명동예술극장의 역사는 1936년 일본인 이시바시 료스케[石橋良祐]가 명동에 명치좌(明治座)라는 극장을 설립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명치좌는 광복 전까지는 일본인을 위한 위락시설로 활용되었으며, 주로 일본 영화를 상영하였다. 광복이 되자 한국인이 명치좌를 접수하고 미 군정청 시기에 국제극장으로 재개관하였으나, 1947년 서울시가 인수해 시공관(市公館)으로 전환하였다. 시공관 시기에는 주로 집회시설로 이용되거나 연극 등의 공연 장소로 활용되었다. 시공관은 6·25전쟁으로 크게 파손되었는데, 1952년에 이를 개수하였다. 이후 1957년부터 시공관은 국립극장과 공동으로 건물을 사용하다가, 1961년 시공관



명동예술극장 앞 거리 풍경(중구문화원 사진공모전 입상작)

이 시민회관으로 이전해 가면서 명동 국립극장이 되었다. 1973년 국립극장이 장충동에 새로 지은 건물로 이전해 가면서 국립극장 산하 예술극장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공연예술의 선구자 역할을 자임하던 명동예술극장은 1975년 정부가 국립극장 신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한투자금융에 건물을 매각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매각 이후 금융기관으로 활용되던 중 건물 철거소식이 알려지고, 1995년 문화예술계 및 지역인사를 중심으로 ‘건물 되찾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에 2003년 문화관광부에서 400억 원에 땅과 건물을 매입하고, 2004년 복원공사를 시작해 2009년 6월 5일 국립 명동예술극장으로 재개관하게 되었다.

명동1가 1-1번지에는 1922년에 한국여성의 계몽을 위해 세운 기독교여자청년회(서울YWCA)가 있다. 창설 당시 서울YWCA는 성경 연구와 금주 계몽, 공창제 폐지 운동을 과제로 삼았고 1920~1930년대의 국산품 장려운동과 농촌계몽, 1950년대 전쟁미망인을 위한 사회사업, 1953년부터 친족상속법에서 남녀평등 노력, 1960년대

부터는 소비자운동과 여성기술훈련, 1980년대에는 호화혼수 배격운동과 시범택아소 운영, 1990년대에는 바른 삶 실천운동 등을 전개해 왔다.

오늘날 명동1가에는 서울YWCA, 명동예술극장, 서울로얄호텔, 이비스엠베서더 명동점, 전국은행연합회, 명동증권빌딩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명동성당으로 이어지는 명동길은 국내외를 막론한 관광객과 쇼핑객들로 연일 변화가를 이루고 있다.

02. 명동2가明洞二街

명동길 남쪽에 위치한 명동2가(明洞二街)는 조선시대 한성부 남부 명례방에 속한 지역으로 일제 강점기 명치정2정목으로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명동2가가 되었다. 명동의 동명은 조선시대 행정구역명인 명례방의 ‘명(明)’자를 딴 것으로 명례방 또는 명례방골이라 하다가 줄여서 명동이 되었다.

명동2가는 동쪽으로 저동1가, 남쪽으로 충무로1가 및 충무로2가와 접한다. 서쪽은 남대문로2가와, 북쪽으로는 명동길을 사이에 두고 명동1가와 마주본다. 명동1가

와 함께 전형적인 상업지역인 명동2가에는 우리나라 천주교 본산인 명동성당이 자리 잡고 있으며, 개항과 함께 자리 잡았던 중국대사관이 들어서 있다. 또한 도심 중에서도 으뜸으로 치는 이곳에 계성여중고와 한성화교학교 등 교육기관도 자리 잡고 있다.

예전부터 명동성당이 위치한 고개 일대를 북달재[鐘岬]이라고 했는데 그 까닭은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 양호(楊鎬)가 이곳에 진을 치고 시각을 알리기 위해 남대문에 있던 종을 옮겨 달아서



명동2가의 관할구역 경계

이처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북달재에는 조선시대에 시조작가로 유명한 윤선도(尹善道, 1587~1671)가 살았던 집터가 있다. 윤선도의 집은 제비 형국의 명당으로 유명했는데, 영조 때에는 허목(許穆)의 집이 되어 그가 직접 쓴 ‘여산부동(如山不動)’이라는 네 글자를 써서 기둥에 걸었는데 비바람을 맞아도 지워지지 않았다고 한다.

명동성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으로 고딕양식의 대표적인 교회당 건물이다. 명동성당이 소재한 종현 일대는 이조판서를 지낸 윤정현(尹定鉉, 1793~1874)의 저택이 있던 곳이다. 원래는 조선인 최초의 순교자 김범우(金範禹, 1751~1787)의 집이 있던 곳을 조선교구장 블랑(Marie J. G. Blanc) 주교가 김기밀로라는 이름으로 사들이고 종현성당을 설립하였다. 이후 조선 정부와 토지분쟁이 있었으나 1890년(고종 27)에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으로 성당 건립이 추진되었다. 1892년 8월 5일 블랑 주교의 뒤를 이은 제8대 조선교구장 뮈텔(Gustav C. M. Mütel) 주교가 정초식을 거행하였으며, 성당의 설계와 공사 감독은 코스트(Eugene J. G. Coste) 신부가 맡아 진행하였다. 그러나 1896년 2월 코스트 신부가 사망함에 따라 프와넬(Victor L. Poisnel) 신부가 업무를 이어받아 1898년 완공하였다.

명동성당의 전체적 형태는 라틴 십자형 삼랑식(三廊式)이다. 성당 내부 왼쪽에



1900년경의 명동성당과 명동길



명동성당과 가톨릭회관 전경(중구문화원 사진공모전 입상작)

1952년 설치한 79위(位)의 복자(福者) 제대(祭臺)와 상본(像本) 및 김대건(金大建, 1821~1846) 신부상이 있으며, 오른쪽에는 세례를 위한 세두대(洗頭臺) 대리석과 성 베네딕토상이 있다. 뒷면 성가대석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파이프오르간이 설치되었다. 1945년 광복을 기점으로 이름이 종현성당에서 명동대성당으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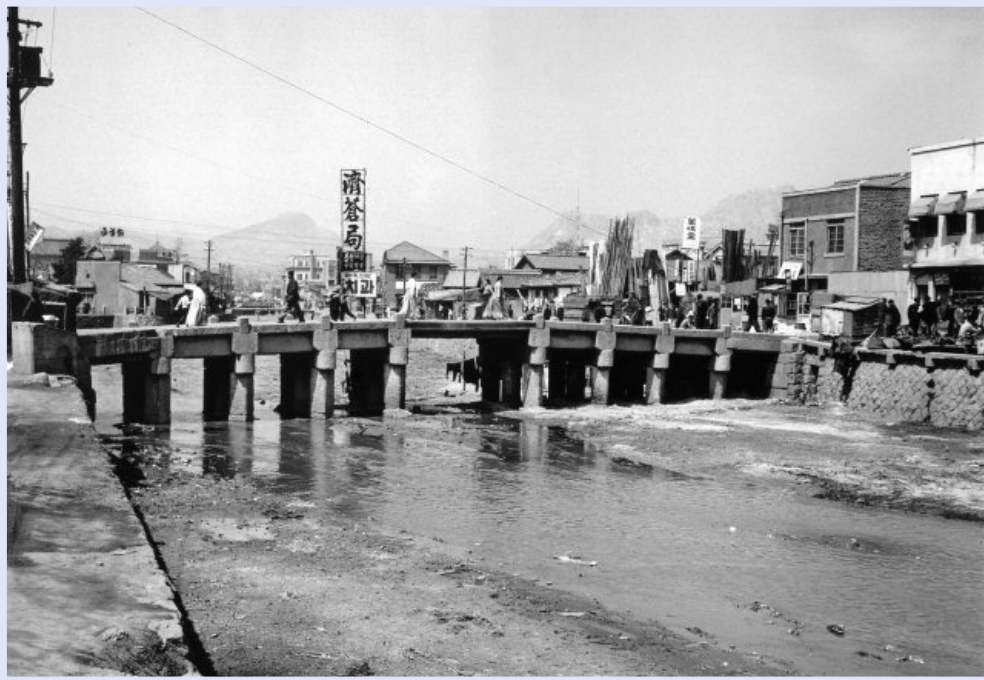
명동성당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서슬 퍼런 유신 시대인 1975년 2월 정의구현사제단의 ‘인권회복 및 국민투표 거부운동’과 이듬해 3월 ‘민주구국선언’은 당시로써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특히 1987년 6월 ‘박종철(朴鍾哲) 고문치사은폐조작사건규탄 범국민대회’로 시작된 명동성당 사태는 학생·시민 등 600여 명의 6일 단식농성으로 이어졌다. 민주화운동의 절정인 1987년에는 총 127차례, 연인원 6만 1,000명이 명동성당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처럼 명동성당은 천주교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에서도 커다란 의미를 지닌 곳이다. 명동성당은 1977년 11월 22일에 사적 제258호로 지정되었다.



인파로 가득한 명동 거리(중구문화원 사진공모전 입상작)

한편 명동2가 83번지에는 주한중국대사관이 위치하고 있다. 1992년 8월까지의 중화민국(대만)대사관이었으나 중국과 국교를 체결하면서 대만대사관은 철폐되었다. 이 터는 흥선대원군 집권 때 천주교를 박해했던 포도대장 이경하(李景夏)가 살던 낙동 집터였다. 그는 어쩌나 혹독하게 천주교인을 고문하고 살육하였던지 울던 아이도 ‘낙동대감’ 하면 울음을 멈추었다고 한다. 이곳에 중국대사관이 자리하게 된 것은 임오군란 후 서울에 청나라군이 주둔하면서 청국상무총판 진수당(陳樹堂)이 일대를 점유하게 되면서부터이다. 후임으로 위안스카이[袁世凱]가 총리아문이 되면서 집을 개축하고 10여 년간 내정에 간섭하였다.

조선시대에 명동은 4대문 안에 속하였음에도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경희궁, 창경궁 등 궁궐을 중심으로 발전하거나 종로 방면에 비중을 두고 커 나갔으므로 별다른 발전이 없었던 지역이었다. 남산의 북쪽 기슭인데다가 청계천을 건너야 궁궐로 통할 수 있었던 만큼 남촌에는 벼슬이 낮은 양반이나 군인 등 중인계층들이 많이 살았다.



1950년경의 장통교(서울역사박물관 소장)

1943년 6월 10일에 구제 시행으로 장교정은 중구의 관할구역이 되었다. 그 후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장교동이 되었다.

장교동의 동명은 청계천에 놓여 있던 장통교(長通橋)의 줄임말인 장교(長橋)에서 유래되었다. 장통교는 장교동 51번지와 종로구 관철동 11번지 사이에 있던 다리로 이 근처에 ‘장чат골’로 불리는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장чат골 다리’라고도 불렸다. 또는 이 다리 부근에 긴 창고가 늘어서 있어 장창교(長倉橋)라고도 하였다. 장통교는 백악산과 인왕산 방향의 물이 우회하고 꺾여 지나오다가 이 다리를 지나면서 남대문과 남산 방향에서 흘러 내려오는 개천까지 합하여 비로소 일직선으로 오간수문(五間水門)을 지나 영미교(永尾橋) 방향까지 물 흐름이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길게 통한다는 뜻의 장통교가 되었고 줄여서 장교라고 하였다. 다리 서쪽 기둥에 ‘신미개조(辛未改造) 기해개조(己亥改造)’라는 여덟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장교동의 위치를 살펴보면 북쪽으로는 청계천로를 사이에 두고 종로구 관철동과

마주보는 구 경계를 이루며, 남쪽으로는 을지로2가와 접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수표동과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수하동과 이웃하고 있다. 장교동의 전체적인 지형은 사각형을 이루고 있으며 남북으로 삼일대로가 통과한다. 삼일대로는 용산구 한남동 726-110에서 종로구 재동 99-1까지를 잇는 왕복 6~8차선 도로로 3·1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1966년 11월 26일 삼일로라 칭하였다가 2010년 4월 22일 남산1호터널 구간을 편입하면서 현재의 도로명으로 바뀌었다.³²⁾

장교동에 있던 자연마을 가운데 대추나무골은 을지로2가와 장교동에 걸쳐 있던 마을로 대추나무가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한자명으로는 대조동(大棗洞) 혹은 조동(棗洞)이라고도 하였다. 먹우물골은 수표동, 장교동, 을지로2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우물이 깊어 물이 검게 보이므로 먹우물이라 불렀던 것이 인근 부락 이름이 되었으며 한자로 묵정동(墨井洞)이라 하였다.

모시전골은 저동1가, 충무로2가, 명동1~2가, 을지로2가와 장교동에 걸쳐 있던 마을인데 이름 그대로 모시를 파는 시전이 있었으므로 유래되었고 한자명으로는 저동(苧洞)이라 하였다. 수하동, 장교동, 을지로2가에 걸쳐 있던 아래보습곶이는 삼각동의 지형이 농기구의 보습과 같다고 하여 생겨난 마을 이름으로 보습곶이의 아래쪽이 되므로 아래보습곶이라 하였고 한자명으로 하리동(下犁洞)이라 하였다. 헤민서골은 을지로2가, 수표동, 장교동에 걸쳐 있던 마을로서 헤민서가 있어 헤민서골이라 하였으며, 한자명으로는 헤민동(惠民洞)이라 하였다. 헤민서는 을지로2가 192번지에 있던 의료기관으로 서민의 병을 치료해 주고 여의(女醫)를 교육하고 양성하던 일을 맡았던 관청이다.³³⁾

장통교가 있던 남쪽의 장교동 일대와 북쪽의 관철동 일대는 지금도 많은 상가들이 들어서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다. 부근에는 갯전, 관자전(貫子廩), 소금전, 신전을 비롯해서 모자, 양털, 베 등을 파는 청포전(靑布廩), 모시전 등이 있어 많은 상인들과 사람들의 왕래로 바쁜 지역이었다.

한편 장교동 63-1번지에는 지방민속자료 7호로 지정된 한규설(韓圭晄, 1848~1930) 가옥이 있었다. 이 집은 을사늑약 체결 때 끝까지 반대하여 파직당한 한규설 대감이 1890년 무렵 살았던 집으로, 1980년경 장교동 일대가 재개발되어 철거되자

국민대학교에서 매입하여 대학교 내로 이진(移建)하고 본래의 모습을 보완한 후에 현재 명원민속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장교동에 있을 당시 한규설 가옥은 새로운 추세에 따라 절충식으로 지은 한옥으로 서양식 난방법을 이용하였는데 이진하기 전 모습을 살펴보면 대로에서 서북



한규설 대감 가옥. 현재 국민대 명원민속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방으로 들어선 좁은 가로에 면하여 동남향의 솟을대문이 있었다. 이 솟을대문을 들어서면 행랑마당이 되고 서쪽에 사랑채, 북쪽에 안채, 사당간, 광채 등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본래는 중문간 행랑채와 사잇담돌이 있었다고 생각되나 후일 철거된 듯하다. 장교지구 재개발사업으로 성북구 정릉동 국민대학교 구내로 이진하면서 건축 이래 개작된 부분과 철거된 사랑채와 안채 사이의 사잇담, 대문간채 등도 모두 복원하였다.

장교지구 재개발사업은 노후된 건축물과 불량주택 상태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면서도 토지 이용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한 정비 방안으로서 시행된 것이다. 1962년 1월 20일 공포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서울 도심재개발사업의 시초격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까지 서울 시내에서 인쇄소가 가장 밀집된 지역은 을지로 1·2가의 장교동 일대였으나, 1983년 장교동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되면서 장교동에서 철수하는 업체들이 인현동 일대로 이전하여 새로운 인쇄골목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재개발사업으로 장교동 일대는 노후한 건물 대신 현대식의 고층 건물이 들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였다.³⁴⁾

현재 장교동에는 한화빌딩, 장교빌딩, 서울고용노동청, 그리스대사관, 우리은행한화금융센터, 롯데시티호텔 명동점 등이 위치해 있으며, 청계천 주변으로 광장이 조성되어 있어 직장인·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04. 무교동武橋洞

청계천 모전교 남쪽, 무교로 좌우 지역인 무교동(武橋洞)은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서부 여경방·황화방과 남부 광통방, 중부 서린방 각 일부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무교정(武橋町)이라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중구 무교동으로 개칭되었다.

‘무교동’이라는 명칭은 조선시대 이 부근에 무기 제조 및 관리를 맡아보던 군기시(軍器寺)라는 관아가 있었는데 이를 모전교 부근의 모교동(毛橋洞)과 구별하기 위해 붙여진 것이라 한다. 군기시는 서울특별시청과 한국프레스센터 자리에 있었다. 조선 태조 때 고려시대의 제도를 따라서 한성부 서부 황화방에 군기감(軍器監)을 두었는데, 1466년(세조 12)에 군기시라 개칭하였다.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 말에 화약·화포를 제조하여 왜구 소탕에 공이 컸던 최무선(崔茂宣)이 판군기감사(判軍器監事)로, 그의 아들 최해산(崔海山)이 부정(副正)으로 있었다. 화약을 취급하던 군기시는 1884년(고종 21)에 기기국(機器局)에 합쳐졌고,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무교동의 위치는 북쪽으로는 청계천로를 경계로 종로구 서린동과 마주보는 구 경계지역이며 남쪽으로는 을지로1가와 연결되어 있으며 서쪽으로는 태평로1가와, 동쪽



무교동의 관할구역 경계

으로는 다동과 접하고 있다. 지금의 무교동 지역에 있던 옛 자연마을을 살펴보면 국수집이 많았다는 국숫골[麵洞]이 있었고 팔죽골이라 해서 팔죽을 파는 두죽동(豆粥洞)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오늘날 이 지역에 대중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까닭도 옛날부터 이어져온 전통이 아닌가 한다.

한편 큰정동이라 불린 대정동(大貞洞)은 태평로1가와 정동 사이에 걸쳐 있었고, 도동(刀洞) 또는 도자전(刀子麿)골이라 불리던 도자동(刀子洞)은 태평로1가와 무교동



서울특별시청 지하에서 발굴·전시되고 있는 군기시 유적

에 걸쳐 있었는데 방물전(方物廩)인 도자전(刀子廩)이 있으므로 근방의 마을 이름이 되었다. 모교(毛橋)는 무교동 3번지 효령빌딩과 서린동 149번지 서린호텔 사이를 이어주는 청계천 위에 놓였던 다리로 토산과일을 팔던 모전(毛廩)이 근방에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모교 주변에 형성된 마을을 모전다리·모교동이라 불렀는데 무교동과 다동 일대에 걸쳐 있던 마을로 모동(毛洞)이라고도 하였다.

모전을 중심으로 무교동과 서린동 쪽을 이어주던 다리는 웃모전다리, 무교동 24-2번지와 다동의 체육회관 앞을 연결하던 다리는 아래모전다리라 불렀는데 웃모전다리는 모교, 아래모전다리는 무교로 불렸다. 모교는 원래 나무로 만든 다리였는데 태종 12년(1412) 종묘동구(宗廟洞口) 서쪽의 개천을 석축(石築)으로 쌓고 동쪽은 목축(木築)으로 할 때 석교(石橋)로 바꾸었다. 개축 당시에는 신화방동(神化坊洞) 입구교(入口橋)라 하였으나 영조 때 만든 「도성대지도」에 모전교로 되어 있다.³⁵⁾ 무교는 부근에 군기시가 있었기 때문에 군기시교, 군기시전교, 군섯다리, 군기섯다리라고도 불렀다. 군기시는 병기 등 군대의 소용물을 관장하던 관아였다. 『동국여지비고』에 의하면 군기시 안에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1580년(선조 13) 5월 어느 날, 이 연못에서 갑자기

물줄기가 하늘 높이 솟구치더니 그로부터 14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사동(篩洞)은 태평로1가와 무교동에 걸쳐 있던 마을로 체를 만드는 집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으로 찻골이라고도 하였다. 웃다방골 혹은 상다동(上茶洞)이라 불렀던 곳은 다동과 무교동에 걸쳐 있었는데 다동 가운데 가장 서쪽에 위치했으므로 붙여진 명칭이다. 이 일대에는 찻집[茶房]이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지금도 옛 지명을 그대로 이어주고 있다.

무교동의 동명 유래가 된 병기의 제조 관리를 맡아보던 군기시는 태평로1가 31번지 서울특별시청과 동 30번지 서울신문사 자리에 있었다. 고종 21년(1884)에 기기국(機器局)에 합쳐졌고 고종 31년에 폐지되었다. 광무 8년(1904)에 군기감의 후신으로 군기창을 설치하고 군기와 탄약을 만들었으나 1907년 일제의 탄압으로 이것마저 폐지되었다. 군기시에 예속되었던 화약고는 소격서 자리와 궁권 안의 자문감(紫門監)에 있었다. 군기시 앞에서는 반국가 행위를 하거나 이에 관계한 중죄인의 공개 처형을 함으로써 군율과 국가기밀 보전을 유지하고자 하였다.³⁶⁾

현재 청계천과 청계광장 주변으로 각종 음식점과 카페가 들어서 있고, 해마다 다동과의 인접지점인 전통음식 관광특구 문화거리에서 다동·무교동 음식문화 가을대축제가 열리고 있다. 널리 알려진 무교동 낙지 이외에도 맥주와 골뱅이, 전통 냉면집 등 1960년대부터 인근 직장인들이 회식을 위해 찾았던 많은 식당들이 작은 골목 사이로 들어서 있다. 오늘날에는 사무직 회사원들이 근무하던 대표적인 지역이라는 명성은 다소 없어졌지만, 청계천이 복원되면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는 먹거리촌으로 변모해가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05. 다동茶洞

청계천 광통교 남쪽, 청계천로와 남대문로 주변에 위치한 다동(茶洞)은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광통방의 일부였다. 일제 강점기에는 다옥정(茶屋町)으로 불리다가,



매년 가을 펼쳐지는 다동·무교동 음식문화축제(서울 중구의회 제공)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중구 다동으로 개칭되었다.

다동은 조선시대에는 궁중의 다례(茶禮)를 주관하던 사옹원(司饔院) 소속의 다방(茶房)이란 관아가 이곳에 있어서 ‘다방골’이라 하던 것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³⁷⁾ 신라시대 때부터 승려들이 차를 마시던 풍습이 있었고, 고려시대에는 무역이나 외국 사신 접대로 차를 마시는 객다(喫茶)의 풍습이 있었는데, 이 풍습이 조선시대에도 계승되어 왕이 중국사신을 창덕궁 인정전(仁政殿)에서 접견할 때 인사말이 있은 후 곧 다례가 있었다.

조선 고종 때 국가에 진연(進宴)이 있을 때 평양·진주·대구·해주에서 기생들이 서울로 뿔뿔히 와 이곳 다동에 모여 살았다. 이후 1909년 관기제도가 폐지되자 남도와 서도 기생들도 대거 상경하여 조합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당시 이곳 다동에 살던 기생들은 시조와 가사(歌辭)에도 뛰어나기로 유명해져서 ‘다방골 기생’이라는 애칭이 생겨나기도 했다.

다동과 무교동에는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유명한 ‘낙지골목’이 있었으나 재개발사업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1980년대에는 극장식 술집과 여러 오락장, 대중음식점 등이 성행하였으나 이 역시 강남이 개발되면서 옮겨갔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많은 금융기관들이 밀집해 있었다. 현재는 예금보험공사·한국씨티은행·한국관광공사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해마다 무교동과의 인접지점인 전통음식 관광특구 문화거리에서 ‘다동·무교동 음식문화 가을대축제’가 열리고 있다.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다동의 지형은 거북이 모양으로 옛날부터 전쟁 중에도 재해를 입거나 파괴, 화재 등이 일어난 적이 없으며 변란도 피해가는 지형이라 한다. 현재 다동의 위치는 북쪽으로는 청계천로를 경계로 종로구 서린동과 마주보는 구 경계지역이고, 남쪽으로는 작은 길을 사이에 두고 을지로1가와 접하며 동쪽으로는 남대문로1가와 접하고 서쪽으로는 무교동과 인접하고 있다.

다동은 과거 대다방과 소다방이 있었으므로 다방골 또는 다동이라 하다가 갈라서 웃다방골, 가운데다방골, 아랫다방골이라 하였다. 웃다방골인 상다동(上茶洞)은 지금의 다동과 무교동에 걸쳐 있었으며, 가운데다방골인 중다동(中茶洞)은 지금의 다동 지역이고, 아랫다방골인 하다동(下茶洞)은 다동과 남대문로1가에 걸쳐 있었다.

다동은 그 동명에서 알 수 있듯 예부터 사옹원에 속한 다방이 있었다. 우리나라에



다동의 관할구역 경계

서 차를 마시는 풍습은 이미 신라시대부터 승려들 사이에서 성행하였으며 고려시대와서는 중국과의 빈번한 외교·무역관계로 궁중 관리들 간에도 차를 마시는 풍습이 조성되고 국가의식이나 외빈접대 등이 있을 때에는 진다(進茶)의 의식이 정해져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사헌부에서 ‘다시(茶時)’라 하여 사람들이 일시 모이는 일이 있었는데 언관(言官)들은 서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모여 차를 마시고 헤어지는 풍습이었다. 그러나 조선 초



평양 기생학교의 수업. 관기제도가 폐지되자 서울에 몰려든 기생들은 조합을 만들었다.

기 중국에서 사신이 올 때만 그들에게 차를 대접하는 것으로 바뀐 데다가 국가에서 차의 공상(供上)을 각 지방민에게 요구하자 이를 감당기 어려웠던 백성들이 차나무를 베어내는 바람에 점차 나무의 숫자가 줄어들었고 또 차를 건조하는 과정이 복잡하여 계승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 마시는 풍속은 물론 사헌부의 ‘다시’도 없어졌다. 광해군 5년(1613)에 동래 왜관에서 전파된 담배가 차를 대신하면서 차 마시는 풍습은 현격하게 줄었다.³⁸⁾

한편 고종 말년에 국가에 행사가 많았고 그때마다 진연이 행해지면서 많은 기생들이 뿔뿔히 서울로 왔다. 평양 기생이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진주, 대구, 해주에서 온 기생이 많았는데, 이들은 진연이 끝난 후에도 서울에 머물며 영업을 하였으며 주로 다동에 모여 살았다. 1909년 관기제도가 폐지되어 남도와 서도 기생들도 대거 상경하여 합세하자 1913년 서도 출신 기생을 모아 다동조합을 구성했는데 약 30명 정도의 기생들이 모였다. 이 무렵 서울과 남도 출신 기생들도 모여 광고기생조합을 구성하였다. 광고기생조합은 뒤에 한성조합으로 바뀌었다가 1914년에 일본식 이름을 모방하여 한성권번(漢城券番)으로 바뀌었는데 등록된 기생의 수가 약 200명에 달했다.³⁹⁾

오늘날 다동·무교동 일대는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을지로, 태평로, 남대문로 대로에 들어선 빌딩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골목으로 전통적인 맛집들이 많이 들어선 명소이다. 1996년부터 매년 ‘다동·무교동 음식문화 가을대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다동·무교동 전통음식 관광특구는 2000년 신설된 명동관광특구가 확장되면서 2012년 지정된 음식문화의 거리이다. 다동과 무교동을 포함해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은 명동 세종호텔 옆 도로(삼일대로)에서부터 시작해 퇴계로를 따라 신세계백화점을 지나 남대문시장, 프라자호텔, 시청 앞, 청계광장, 광통교, 장교빌딩에서 다시 세종호텔까지다. 이곳은 서울시의 중심지로서 지명도가 매우 높고 교통이 편리하여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 관광특구로서의 기반여건이 충족되어 있는 관광쇼핑의 명소지역이다.

06. 삼각동三角洞

청계천 광교와 장통교 남쪽의 삼각형 모양의 삼각동(三角洞)은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대평방(太平坊) 일부에 속했던 지역이다. 이 지역은 일제 강점기에 삼각정(三角町)으로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중구 삼각동이 되었다.⁴⁰⁾ 삼각동의 동명은 남대문로와 청계천을 끼고 있는 지형이 서쪽은 넓고 동쪽으로 가면서 좁아지는 삼각형으로 생겨서, 일제 강점기에 지형의 특성에 따라 삼각정이라고 명명한데서 유래 되었다.

예전에 경기빌딩(삼각동 104) 남동쪽에 곡교(曲橋)가 있었는데, 굽어진 목에 다리가 있어서 ‘굽은 다리’ 혹은 ‘굽은 다리’로 불렸으며 광교와 청계천의 이름을 따서 광청교(廣淸橋)라고도 하였다. 또한 구 조흥은행 본점(삼각동 66-1, 현 신한금융그룹) 뒤쪽에는 조선시대 관아인 사자청(寫字廳)이 있어서 사자청동이라고 불렸다. 사자청은 규장각(奎章閣)과 숭문원(崇文院)에 속한 관아로 외교문서와 국가문서를 정서(正書)하던 사자관(寫字官)이 근무하던 곳이다.

삼각동의 위치를 살펴보면 북쪽으로는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종로구 관철동과 마

주 보는 구 경계지역이며, 남쪽으로는 무교(武橋)에서 흘러내린 청계천의 지천을 복개한 도로를 경계로 하여 수하동과 접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청계천로에서 종로구 관철동과 장교동, 수하동과 마주치는 꼭짓점을 이루며, 서쪽으로는 남대문로1가와 접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서쪽은 넓고 동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삼각형의 지형이다.

삼각동이라 불리기 전에 이곳에 있었던 마을인 큰광고골은 삼각동과 남대문로1가에 걸쳐 있었으며 큰 광고가 있으므로 붙여진 이름인데 한자로는 대광고동(大廣橋洞)이라 했다. 작은광고골 역시 삼각동과 남대문로1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작은 광고가 있었기 때문이며 한자로 소광고동(小廣橋洞)이라 하였다.

홍문(紅門)이 있던 마을은 홍문섯골 또는 홍문선골이라고도 하였으며 한자명으로 홍문동(紅門洞 또는 弘門洞)이라고도 불렀다. 이 홍문은 조선 중종 때 김처선(金處善)이라는 이가 양부모에게 한 효행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었다. 그는 본래 지체 있는 양반 가문이었으나 거듭된 흉년과 질병으로 부모를 일찍 여의고 유모의 손에서 자라다 열다섯 살 나던 해 유모마저 돌림병으로 죽자 다동에 있는 육의전 상인의 심부름꾼이 되었다. 그는 남달리 총명하면서도 부지런하고 어딘지 모르게 위엄과 귀티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마음에 두었다. 주인 안씨(安氏)는 고심 끝에 김처선을 사위로 삼기로 결정하였다. 상인의 사위가 된 김처선은 뛰어난 사업 수단을 발휘하여 육의전 상인 가운데서도 으뜸이 되었다. 그는 자신을 키워준 데 대한 고마움으로 유모의 제사를 모셨는데 그가 죽은 후 아내 또한 남편 젓어미의 제사를 지극한 정성으로 받들었다. 후일 반정으로 중종이 왕위에 오른 후 이 이야기가 조정에게까지 들어가자 길러준 어미에 대한 효심을 기리기 위해 홍문을 세워주었다.⁴¹⁾

광통교는 조선 태조가 한양에 도성을 건설하면서 나온 흙으로 청계천에 다리를 놓



삼각동의 관할구역 경계

은 데서 비롯되었다. 그 후 1410년(태종 10)의 홍수로 다리가 유실되자 현재 정동의 미국공사관과 영국공사관 일대에 있던 태조 이성계의 왕비 신덕왕후 강씨의 능인 정릉(貞陵)을 허물어 그곳에서 나온 병풍석을 다리벽 및 기둥으로 사용하여 보수했다. 이 과정에서 광통교는 길이 12m, 폭 15m의 돌다리가 되었다. 아울러 광통교는 일반 민간이 사용하는 다리로서는 이례적으로 석축 난간이 설치되었는데, 이것 또한 정릉에서 허물어 가져온 것이었다.

광복 이후인 1958년 청계천 복개공사 때 광통교는 난간 석축만 창경궁·창덕궁 등으로 이전되고 본체는 그대로 묻히게 되었다. 다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2005년 청계천 복원공사가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광통교는 비로소 온전한 옛 모습을 되찾았다. 현재 광통교는 길이보다 폭이 더 넓은 구조적 특성을 활용하여 많은 문화행사가 이 다리 위에서 펼쳐지기도 한다.

삼각동 36-2번지에는 현재 남산골한옥마을로 이진된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 20호 삼각동 도편수 이승업 가옥(三角洞 都片手 李承業 家屋)이 있었다. 이승업 가옥은 1867년 경복궁 중건공사에 참여했던 도편수(목수의 우두머리) 이승업이 1860년



남산골한옥마을에 이진되어 있는 삼각동 이승업 가옥

대 중구 삼각동에 지은 중인계층의 가옥이다. 1970년 ‘조흥은행관리가’라는 명칭으로 조흥은행 사료관이 되었으며, 1998년 남산골한옥마을로 이전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공개되었다. 건축 기술과 장식 면에서 뛰어난 면모를 보이며, 조선 말기 중인계층 주택의 시대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건축사적으로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다. 1889년 이후 경주 이씨 집안의 사람들이 거주해 오다가 1970년부터 조흥은행 사료관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1998년 남산골한옥마을이 조성되면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 개장하였다.

삼각동에는 일제 강점기에 한국 고전 20여 종을 간행한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터를 알리는 표지석이 있다. 조선광문회는 일제에 의한 국권피탈 직후 정치적으로 다 난했던 시기에 한국 고전의 간행과 보급, 민족문화 및 민족사상의 기원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최남선(崔南善)이 중심이 되어 1910년에 설립한 연구단체이다. 조선광문회는 애국적인 견지에서 독립정신을 불어일으키고 새로운 지식을 전하고자 노력한 단체 가운데 하나였다. 단체의 활동도 민족적인 기개와 자존심을 양양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조선광문회는 우선 한국의 고전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재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고전의 간행과 보급에 힘썼다. 또한 일제의 진서(珍書) 유출과 국보급 문화재 반출에 위기의식을 갖고, 귀중 문서의 수집과 편찬에 노력하는 한편,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과란 2층 목조의 조선광문회 건물은 1969년 도로 확장으로 철거되었다.

07. 태평로1가太平路一街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서울특별시청까지 세종대로 양쪽에 위치하는 태평로1가(太平路一街)는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서부 여경방(餘慶坊)과 황화방(皇華坊) 지역으로 일제 강점기 태평통1정목(太平通一丁目)으로 불렸다. 이후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의 우리말 개정 원칙에 따라 태평로1가로 바뀌었다. 태평로라는 이름은 조선시대 중국 사신을 접대하던 태평관이 남대문 근처에 있었던 데서 유래하였다. 조선 초 설



치된 태평관은 중국 사신을 접대하고 유숙
하게 하던 곳으로 현재 서소문동 대한상공
회의소 건물 북쪽 인근에 터가 남아 있다.

태평로1가는 북으로는 종로구 세종로동과 마주보며, 남으로는 을지로1가와 소공동과 접하고, 동으로는 무교동과, 서로는 정동과 접해 있다. 태평로1가를 이루는 구 서부동(舊西部洞)은 지금의 태평로1가와 세종로에 걸쳐 있던 마을로서 5부(部)의 하나인 서부 청사가 있었으므로 명칭이 유래되었고 구서북골이라고도 불렸다.

태평로1가의 관할구역 경계

군섯다리는 태평로1가 30번지 군기시 앞에 있던 다리였는데 군기식다리, 군기섯다리로도 불렸으며, 태평로1가와 무교동에 걸친 지역은 도자(刀子)를 파는 전(塵)이 있었으므로 도자동(刀子洞), 도동(刀洞), 도자전(刀子塵)골로도 불렸고, 서학현(西學峴)은 서울시청 북쪽에 있던 고개로 부근에 서학이 있었기 때문에 서학재 혹은 서학고개라고도 하였다.

태평로1가는 조선시대의 여러 기관들이 있던 곳이다. 대표적으로 태평로1가 25번지 서울도서관(구 서울특별시청사) 근처에 조선시대 군기시 터가 있고, 태평로1가 76-3 오양수산빌딩 앞에는 조선시대 중등교육기관인 사학(四學) 가운데 하나인 서학당(西學堂) 터가 있다. 태평로1가와 무교동에 걸쳐 있던 사동(篩洞)은 체를 만드는 집이 많았으므로 첻골이라고도 불렀고, 종로구 세종로와 태평로1가에 걸쳐 있던 언덕은 황토가 많아 황토현(黃土峴) 혹은 황토마루라고 불렸다.⁴²⁾

태평관은 승례문 안 서부 양생방(養生坊)에 있었는데, 이는 현재 중구 서소문동 120-127번지 일대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북쪽이다. 태평관 뒤에는 높은 누각이 있어서 중국 사신들이 이곳에 올라 시를 짓기도 했다. 또한 중종 12년(1517)에는 이곳에서 문정왕후 윤씨가, 선조 35년(1602)에는 인목왕후 김씨의 가례가 행해진 일이 있다. 한편 김정호는 『대동지지(大東地志)』에서 태평관을 인조 때 월어 홍제원(弘濟院)

보수에 사용한 것으로 기록하였다.⁴³⁾

태평로1가 60~61번지에는 조선시대 중등교육기관인 사학(四學) 가운데 서학(西學)이 있었다. 사학은 처음에 동·서·남·중부학당이라 불렀는데 유학을 강의하던 곳이라 하여 사부유학이라고도 하였다. 고려의 제도를 본받아 태조 때 동·서부학당 2개만 설치되었는데 1411년 남·중·북부학당이 설치되어 오부학당으로 되었다. 1466년에 북부학당을 폐지하면서 사부학당으로 다시 합쳐졌다. 4부 학당은 독립적인 기관이라기보다는 성균관에 소속된 학교였으므로 성균관 관원이 교관으로 파견되었으며 학당의 잡무를 처리하는 서리는 물론 노비까지도 성균관 소속이었다.

4학은 유학의 기초교육을 받은 소년들이 입학하여 교육을 받는 중등 과정의 유학 교육기관으로 사대부의 자제는 물론 일반 서민의 자제도 입학할 수 있었다. 입학 연령은 15세 전후의 연령층이 많았고 지역적으로는 한성부 내의 자제들이 많이 입학하였지만 한성부 주변지역이나 지방의 자제들도 입학한 것으로 보인다. 4학은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으나 재정상 복구가 쉽지 않아 선조 34년(1601)에야 중학(中學)이 먼저 중건되고 이어서 서학이 선조 40년(1607) 9월 이전에 중건되었으며, 동학·남학은 광해군 2년(1610) 이후에 중건된 것으로 보인다. 서학은 서부 여경방, 지금의 태



1920년대 말의 태평로1가 풍경



서울도서관으로 재탄생한 옛 청사와 2012년 신축된 서울특별시청사

평로1가에 있었으며 고종 31년(1894)까지 존속하였다.⁴⁴⁾

1930년대 들어 경성에는 경성부청(京城府廳)을 중심으로 반경 1km 내에 근대적 건물이 대거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경성이 근대 도시로 변모해가는 가운데, 경성에도 대극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건립된 것이 부민관(府民館)이었다. 이 건물은 경성전기주식회사로부터 100만원에 달하는 시설비를 기탁받아 1934년 7월에 착공하여 1935년 12월 10일에 준공되었다.

부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다목적 회관으로서 1,800석의 관람석과 냉난방 시설을 갖춘 대강당과 중강당, 소강당 등에서 연극·음악·무용·영화 등을 공연할 수 있었다. 부민관은 경성부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친일단체의 선전장으로 주로 활용되었다. 1945년 7월 24일에 조문기(趙文紀) 등의 부민관 폭파의거는 이에 대한 항거였다. 광복 이후 이 건물은 1950년 4월에 국립극단이 창단되면서 국립극장이 되었다가 6·25전쟁 이후 3대 국회부터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었다. 1991년부터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청사로 사용하고 있다.



서울도서관의 내부 모습(출처: 서울도서관)

구 서울특별시청사(현 서울도서관)는 일제 강점기인 1926년에 경성부청사로 건축된 것이다. 경성부 청사 위치를 이곳에 정한 것은 다른 지역보다 지반이 약간 높은 곳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을지로와 남대문로 및 태평로를 잇는 삼각지대로서 일본인의 주요 상업 지역인 동시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소공동과도 연결되는 요충지였기 때문이었다. 광복 이후 1946년 이 건물은 서울시청으로 인수되었으며, 1949년에 서울특별시청으로 승격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증축을 거쳐, 2007년부터 전면 재건축 논의가 시작되었다. 여러 논의 끝에 기존 청사의 중앙돔홀은 원형대로 두고, 본관의 외관 역시 원형대로 보존하며, 태평홀을 이전·복원하기로 결정하였다. 2012년에 지하 5층 지상 13층의 신청사가 완공되었으며, 구 청사는 구조변경을 거쳐 서울도서관으로 재개관하였다. 구 서울특별시청사는 우리나라 행정의 중심이 된 공간으로 건축학적·역사적 가치가 높다. 이 건물은 2003년 6월 30일에 대한민국 등록문화재 제52호로 지정되었다.

08. 을지로1가乙支路一街

서울광장과 을지로1가 교차로에 이르는 을지로 남북 양쪽에 위치한 을지로1가(乙支路一街)는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광통방(廣通坊)과 호현방(好賢坊)의 일부 지역으로 일제 강점기 황금정1정목(黃金町一丁目)으로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을지로1가가 되었다. 을지로의 동명은 세종로나 충무로 등과 같이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위인 가운데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乙支文德)의 성(姓)을 따온 것이다. 을지문덕 장군은 고구려의 명장으로 수나라가 침입했을 때 군사를 지휘하여 살수대첩으로 수의 대군을 격파했고 침착하며 대담하고 지략과 무용이 뛰어났으며 시문에도 능했던 인물이다. 1914년 지금의 을지로입구에 해당되는 부근을 구리개 또는 동현(銅峴)이라 불렀는데 이 뜻을 연유로 한자로 다시 옮긴 것이 황금정1정목이었고 1946년에 을지로1가로 개칭되었다. 을지로1가의 중심부를 동서로 지나는 을지로(서울광장앞~한양공고앞교차로)는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조선시대에는 구리개에서 광화문까지 연결되던 길이었다. 이 길은 일제 강점기에 황금정통(黃金町通)이라는 이름으로 확장 건설되었다. 광복 후 몇 차례 개수되어 1954년 폭 30m로 되었으며 1980년 초에 이 길의 지하로 지하철 2호선이 놓이게 되었다.



을지로1가의 관할구역 경계

을지로1가는 북쪽으로 무교동·다동과 접하고 남쪽으로는 소공동와 접하며, 동쪽으로는 을지로2가와, 서쪽으로는 시청 앞 광장에서 태평로1가 및 태평로2가와 동 경계를 이루고 있다. 북악 방향에서 흘러 내린 물은 중학천으로 유입되어 그 지류가 무교쪽으로 흐르고 나머지는 청계천으로 흘러들어 간다. 이 때문에 청계천 남쪽에 위치한 이 지역의 지하로 수맥이 통과하여 관내 곳곳에 우물이 많이 있었다. 지금은 대부분 매워지고 도심 재개발사업이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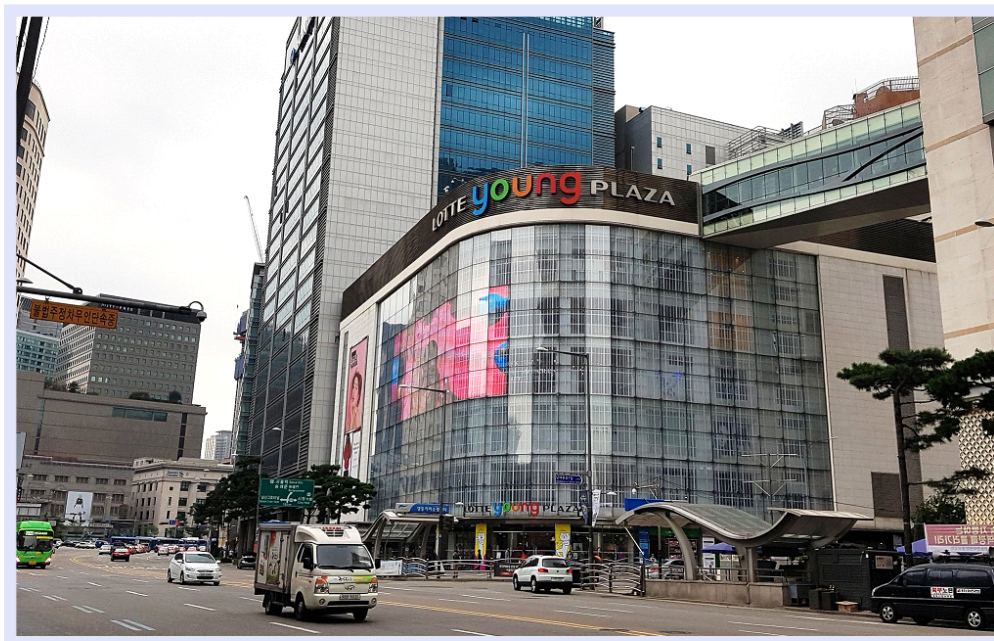
되어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더 이상 우물물을 사용하는 곳도 없다. 하지만 을지로 1가의 옛 모습을 이 지역에 있었던 자연마을의 이름에서 추측해볼 수 있다.

건정동(堅井洞)은 굶우물골이라고도 하였는데 마을 한가운데 우물이 있고 이 우물가에서 굶을 하면 소원이 성취한다 하여 굶우물이라 불렀으며, 이 주변에 형성된 마을을 굶우물골이라 하였다. 궁내정동(宮內井洞)은 궁안우물골이라 불렀는데 남별궁(현 조선폭텔 일대) 안에 있던 우물을 궁내정(宮內井)이라 하였으며 그 주변의 마을을 궁내정동이라 하였다. 또한 태평로2가와 을지로1가에 걸쳐 있던 마을을 돌우물골이라 하였는데 돌 틈에서 솟는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돌우물 또는 석정(石井)이라 하고 주변 마을을 석정동이라 불렀다. 기름전이 있던 마을은 기름전골 혹은 유동(油洞)이라 했는데 음이 같은 유동(由洞)으로도 불렀다. 남천변동(南川邊洞)은 무교의 남쪽 개천가에 있는 마을인데 을지로1가와 다동의 경계지점 근방이다. 이곳을 남편내깨라고도 불렀는데 다동에 기방이 많이 있고 다옥에 얹혀사는 기동서방들이 주로 모여 있는 곳이라 하여 다방 기생 남편 집회소라는 뜻이 함축된 지명이라고도 한다.

향목동(香木洞)은 향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 동네 전체의 향기가 그윽하였다고 하여 향나뭇골이라고도 불렀고 향나무의 사투리인 상나뭇골로도 불렀다. 휴지전골은 휴지전(休紙塵)이 있던 마을로 휴지전골, 휴지동(休紙洞), 휴지전동(休紙塵洞)으로도 불렀다. 숙수방동(熟手房洞)은 요리사인 숙수(熟手)를 관장하는 숙수방이 있으므로 붙여진 명칭이며 숙수방골이라고도 하였다. 고종이 덕수궁에 거처하고 부근에 외국공관이 들어서면서 서양 요리사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 되었다.

현재 롯데호텔 앞쪽은 조선시대 역관(譯官)인 홍순언(洪純彦, 1518~1608)이 살았던 곳이다. 이 일대의 마을을 곤담골·보은담골·고운담골·미장동(美牆洞)·미동(美洞)으로 불렀다. 홍순언은 선조 때 역관으로 사신을 따라 명나라에 가서 남경으로 가는 중 통주(通州)에서 목계 되었을 때, 부모의 시신을 고향에 모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홍등가에 나온 규수를 300냥이란 거액을 주고 구해 주었다. 그 후 이 여인은 명나라 예부시랑(禮部侍郎) 석성(石星)의 후실이 되어 홍순언이 파견되기를 기다리며 그에게 줄 비단에 ‘보은단(報恩緞)’이라는 글자를 수놓았다.

1584년(선조 17) 홍순언이 역관으로 명나라에 다시 파견되자 석성의 부인이 그를



1980년대부터 재개발되기 시작한 을지로1가는 고층 빌딩이 많이 들어서 있다.

환대하고 도움을 주어 일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홍순언이 귀국할 때 석성의 부인이 금은보화와 오색비단 100필을 선물로 주려고 하자 이를 사양하고 ‘보은단’이란 수를 놓은 비단만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선조는 크게 기뻐해서 홍순언을 광릉군(廣陵君)으로 봉했다. 이 ‘보은단’에 얹힌 사연이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홍순언의 집이 있던 동네를 보은단골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후에 와전이 되어 고운담골로, 다시 곤담골이 되었다. 이것이 한문으로 의역되어 미장동(美牆洞)이 되었다가 대한제국 말에는 보은단과는 관계없는 미동(美洞)이라는 엉뚱한 지명이 되었다.

을지로는 1973년 건설부고시 제386호로 7개 지구로 구분한 도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978년 건설부고시 제382호로 재개발사업이 본격 시행되어 1980년대 초부터 옛 건물들이 사라지고 많은 빌딩들이 새로 세워졌다. 이로써 반도호텔은 롯데 호텔로 바뀌고 산업은행은 롯데백화점 본점으로 되었으며, 그 밖에 현재 삼성빌딩, KEB하나은행 본점, 삼성화재빌딩, 프레지던트호텔 등이 자리하게 되었다.

09. 을지로2가乙支路二街

을지로2가(乙支路二街)는 조선시대에는 한성부 남부 호현방(好賢坊)·대평방(大平坊)·훈도방(薰陶坊)·명례방(明禮坊) 일원이었다. 일제 강점기인 1914년 4월 1일 경성부 남부 죽동, 저동, 조동, 상리동 등의 일부를 합치고 동현(洞峴)의 이름을 따서 황금정2정목(黃金町二丁目)으로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기로 하면서 지금의 을지로2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을지로1가와 마찬가지로 고구려의 명장인 을지문덕 장군의 성을 동명으로 하여 붙인 것이다.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을지로3가역 사이 도로변 양쪽을 차지하는 이 지역은 장교 구역과 을지로2가 구역으로 구분된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비교적 녹지조성과 구획정리가 잘되어 있는 도심 지역이다. 북쪽으로는 수하동, 장교동, 수표동을 접하고 동쪽은 수표로를 경계로 을지로3가와 마주하며, 남쪽으로는 저동1~2가, 명동1가와 접하고 동쪽은 남대문로2가, 남대문로1가, 을지로1가로 에워싸여 있다.

을지로2가 지역에 있던 조선시대 자연마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구남부동은 명동1가, 충무로1가, 을지로2가에 걸쳐 있던 마을인데 한성부 5부 중 하나인 남부 청사가 있었으므로 지명이 유래되었고 구남부골이라고도 불렸다. 체부청동은 체부청골로도 불렸는데 체부청이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헤민섯골은 을지로2가, 수표동, 장교동에 걸쳐 있었는데 헤민서가 있었으므로 지명이 유래되었다. 장악원골은 을지로2가 195번지에 장악원이 있었으므로 유래되었고, 199번지 일대에 있던 마을은 골목 모양이 육모방망이와 비슷하므로 방망잇골 혹은 추동(椎洞)으로 불렸다.

동현동(銅峴洞)은 을지로2가, 명동1가, 명동2가, 충무로1가, 남대문로2가 일대에



을지로2가의 관할구역 경계

걸쳐 있던 마을로 을지로2가 부근에 진흙으로 된 야트막한 언덕이 있었는데 매우 질었다. 「도성삼군문분계총록」이나 『육전조례』에는 구리개(仇里介)라고 표현하였으며 갑오개혁 무렵에 동현이란 명칭이 사용되었다. 구리개를 한자로 음역한 것이 동현인데 운현(雲峴)이라고도 하였다. 대추나뭇골은 을지로2가와 장교동에 걸쳐 있던 마을인데 대추나무가 유난히 많이 있으므로 마을 이름이 연유되었는데 한자로는 대조동(大棗洞) 또는 조동(棗洞)이라 하였다.

대전골은 수표동, 을지로2가, 장교동에 걸쳐 있던 마을로 대나무와 대그릇을 판매하는 죽전(竹廛)이 있었으므로 명칭이 유래되었으며 한자로는 죽동(竹洞)이라 불렀고, 모시전골은 저동1가, 충무로2가, 명동1~2가, 을지로2가 및 장교동에 걸쳐 있던 마을로 모시전이 있어 이름이 유래하였는데 한자로는 저동(苧洞)이라 하였다. 냉정동(冷井洞)은 저동2가와 을지로2가에 걸쳐 있었는데 물맛이 매우 차서 찬우물이라 불렀던 우물이 있었으므로 찬우물골 혹은 냉정동이라 하였다.

물아랫골은 을지로2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서 창동천의 아래쪽이 되므로 물아랫골 또는 한자명으로 수하동(水下洞)이라 하였다. 아래보습곶이는 수하동, 장교동, 을지로2가에 걸쳐 있던 마을인데 보습곶이[犁洞] 아래쪽이 되어 아래보습곶이, 한자로는 하리동(下犁洞)이라 하였으며, 웃보습곶이는 보습곶이 위쪽이 되므로 웃보습곶이 또는 한자명으로 상리동(上犁洞)이라 불렀다.

을지로2가 88-6번지에는 혜민서(惠民署)가 있었다. 혜민서는 조선시대 가난한 백성들의 병을 무료로 치료하고 의녀들에게 침술을 가르치던 기관이다. 고려의 혜민국(惠民局)을 계승하여 혜민고국(惠民庫局)을 설치한 것에서 비롯된다. 혜민고국은 1414년(태종 14) 혜민국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1460년(세조 6) 제생원(濟生院)을 통합 흡수하였다. 1466년 혜민서로 개칭하였다. 1637년(인조 15)에 조직 개편으로 혜민서는 전의감(典醫監)에 병합되어 사라졌다가 얼마 후 재설치되었다. 혜민서는 내의원(內醫院)·전의감과 함께 삼의사(三醫司)로 불렸으며, 활인서(活人署)와 함께 양의사(兩醫司)로 불리기도 하였다. 내의원과 전의감이 왕족과 신료들의 치료를 담당하는 것에 비하여, 혜민서는 백성들의 치료가 주요한 임무였다. 개항 이후 전의감에 병합되면서 폐지되었으나, 민간의료 기능은 이후 제중원(濟衆院)으로 이어졌다.



을지로2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삼일대로 주변의 빌딩가 풍경

을지로2가 181번지에는 장악원(掌樂院)이 있었다. 장악원은 조선시대 궁중과 국가 행사에서 음악과 무용에 관한 일을 담당한 관청이다. 조선 초기에는 국가 및 왕실 행사에서 행해지는 무용 및 연주활동은 전악서(典樂署), 아악서(雅樂署), 관습도감(慣習都監), 악학(樂學) 등의 여러 기관에서 나누어 관장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을 1457년(세조 3)에 전악서와 아악서가 장악서(掌樂署)로, 악학과 관습도감이 악학도감(樂學都監)으로 각각 통합되었다. 이후 1466년(세조 12)에 악학도감의 일부를 장악서가 흡수하면서 궁중의 음악과 무용, 연주를 담당하는 기관이 장악서로 통합되었다. 1470년(성종 1)에는 장악서의 명칭이 장악원으로 바뀌었다. 1895년(고종 32) 갑오개혁 이후 장악원은 궁내부의 장례원(掌隸院)에 소속되었다가 1897년 교방사(敎坊司)로 명칭이 바뀌었다. 을사늑약 이후인 1907년에는 장악과(掌樂課)로 축소 개편되었으며, 국권피탈 이후에 아악대(雅樂隊)로 개편되어 명맥을 이어갔다. 이후 1913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이왕직아악부(李王職雅樂部)로 다시 축소 개편되었으며 인원도 절반 이

하로 줄었다. 광복 직후에는 구왕궁아악부(舊王宮雅樂部)로 개칭되었다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인 1950년 1월 18일 국립국악원이 설립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일제 강점기 장악원 터 자리에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가 설립되었다. 1908년 조선 및 대만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하고 경제권 이득 착취를 위해 설립된 일제의 국책 회사인 동척(東拓)은 조선의 식산(殖産)을 진흥한다는 명분으로 설립하였지만 실제로는 경제권 이득 착취와 농광산물 등의 풍부한 자원을 수탈하는 역할을 했다.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지속된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를 직접 관리하거나 싼 값에 지주들에게 팔기도 하였다. 직접 관리하는 토지의 소작인에게는 50%가 넘는 소작료를 부여했다. 1922년 황해도 재령군의 동척 소유의 농장에서 조선인 소작농을 중심으로 생존권 투쟁이 일어났을 때 동척은 일본인들을 동원하고 총을 지급하여 진압하기도 했다. 1926년 나석주 의사(義士)가 경성부에 있는 동양척식주식회사 경성 지사와 조선 식산은행 사옥에 폭탄을 투척하여 의거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1977년 6월 29일에 을지로2가를 포함한 이 지역 일대를 도심 재개발지구로 지정하면서 1981년 1월 31일 정비된 도심지역으로 변모하였다. 현재는 명동주민센터 관할지역인 을지로2가는 을지로1가와 함께 많은 고층빌딩들이 들어선 곳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대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다.

10. 남대문로1가南大門路一街

청계천 광교에서 을지로입구까지의 남대문로 동쪽 지역인 남대문로1가(南大門路1街)는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광통방(廣通坊)·호현방(好賢坊)·태평방(太平坊)과 중부 장통방(長通坊)·서린방(瑞麟坊) 일원이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이곳이 종로에서 남대문을 향한 첫 번째가 된다는 뜻으로 남대문통1정목(南大門通一丁目)이라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지금의 남대문로1가가 되었다. 남대문로1가의 동명은 국보 제1호 숭례문(崇禮門)의 별칭인 남대문의 이름을 붙인 데서 유래되었다.

남대문로1가의 서쪽을 지나는 폭 40m, 연장 2km의 남대문로는 서울의 주요 간선 도로로 조선시대에 광화문에서 숭례문으로 가려면 세종로사거리에서 종각으로 구부러진 다음 이 길을 통해 숭례문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조선시대 제작된 고지도와 1902년 발행된 지도를 보면 지금의 태평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남대문로와 종로는 큰 길로 표시되어 있다.



남대문로1가의 관할구역 경계

남대문로1가 북쪽 청계천에는 흔히 광교(廣橋)라고 불리는 광통교(廣通橋)가 있었는데 이는 광통방에 있는 큰 다리였으므로 처음에는 대광통교라고도 하였다. 특히 예로부터 서울에서는 큰 다리로 알려져 정월 대보름이 되면 도성의 많은 남녀가 이곳에 모여 답교(踏橋) 놀이를 하던 곳으로 유명하였다. 다리를 밟는 풍습인 답교놀이는 원래 중국 연경(燕京)의 풍속으로 우리나라는 중종 말부터 시작되었다. 서울의 여인들이 보름날 밤 종루(鐘樓)의 통행금지를 알리는 인경소리에 맞추어 열두 다리를 지나다니면 그 해 열두 달 내내 다리가 아프지 않고 액도 면하면서 봄이 온다 하여, 보름날만 되면 달밤에 여인들이 다리로 물려들었던 것이다. 서울의 다리는 청계천에 많이 있었으므로 모두 청계천의 다리로 모여들었는데 그중에 이 광통교가 소광통교·수표교(水標橋)와 함께 답교놀이로 유명하였다.

남대문로1가는 북쪽으로는 청계천로를 경계로 종로구 서린동, 관철동과 마주보며, 남쪽으로는 을지로1가의 을지로를 경계로 남대문로2가와 마주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삼각동, 수하동과 접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다동과 접해 있다. 남대문로1가 지역에서 남대문로가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지금의 남대문로1가 지역에 있던 옛 마을인 고운담골은 을지로1가와 남대문로1가에 걸쳐 있었는데 선조 때의 역관 홍순언의 미담에서 유래한 마을 이름이다. 장자우물골은 서린동과 남대문로1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장자우물이 있어 장자우물골, 한자

명으로 부정동(富井洞)이라 했다. 사자청골은 남대문로1가와 삼각동에 걸쳐 있던 마을로 사자청(寫字廳)이 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며 한자명으로는 사자청동이라 했다. 아래다방골은 다동과 남대문로1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다방골의 아래쪽이 되므로 마을 이름이 비롯되었고 한자명으로 하다동(下茶洞)이라 하였다. 남대문로1가와 수하동에 걸쳐 있는 마을은 자리를 파는 자리전[席塵]이 있었으므로 자리전골 혹은 석동(席洞)으로 불렸다. 또 서린동과 남대문로1가 사이의 마을은 백목(白木)을 취급하는 전이 있었으므로 백목전골(白木塵洞)으로 불렸다.

남대문로는 역사적으로도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도로 가운데 하나이다. 한양 천도 때부터 가장 먼저 만들어진 주요 간선도로다. 도성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는 도성을 드나드는 성문을 중심으로 형성되게 마련이다. 돈의문(敦義門, 서대문)에서 황토현(黃土峴, 현재의 광화문사거리)에 이르는 새문안로와 황토현에서 흥인지문(興仁之門, 동대문)에 이르는 종로가 수도 한양을 동서로 가로지르고, 경복궁 광화문에서 황토현에 이르는 주작대로(朱雀大路)인 육조(六曹)거리와 창덕궁에서 종로까지 뻗은 주



일제 강점기 남대문로1가는 경성의 대표적인 은행가였다. 맨 앞부터 차례로 동일은행, 한성은행, 대동생명, 대한천일은행

작대로, 종로4가에서 혜화문(惠化門, 동소문)으로 빠지는 배오개(梨峴)길이 당시의 주요 간선도로였다. 그리고 숭례문을 향해 뚫린 남대문로가 남쪽으로 뻗은 유일한 간선도로였다. ‘임금님 행차’가 대부분 이들 간선도로를 따라 이루어졌다.

남대문로1가는 우리나라 금융가의 산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일찍부터 여러 은행이 들어서 있던 곳이기도 하다. 한성은행은 1897년 2월 김종한(金宗漢) 등에 의해 순수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근대적인 상업 은행으로 조흥은행(朝興銀行)의 전신이다. 1943년 한성은행이 동일은행(東一銀行)과 합병하면서 조흥은행이 탄생하였다. 조흥은행은 2006년 4월 신한은행(新韓銀行)과 통합되어, 현재 조흥은행 본점 건물은 신한은행 광고기업영업부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남대문로1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남대문로는 숭례문에서 시작하여 한국은행 앞 교차로와 을지로1가교차로를 거쳐 청계천 광교에 이르는 폭 40m, 총 길이 1.3km의 왕복 8차선 도로이다. 서울특별시의 중심부를 지나며 대표적인 금융·상업 지구가 이 도로를 따라 형성되어 있다. 중간에 경유하는 교차로가 한국은행 사거리와 을지로입구 사거리 둘뿐인 짧은 구간이지만, 남대문시장·명동·소공동을 끼고 있어 언제나 교통량이 많다. 롯데·신세계 등 초특급 백화점이 남대문로를 지켜보고 있으며, 한국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등 대표적인 은행의 본점들이 대부분 이 거리에 몰려 있어 한국 금융 산업의 중심지를 이룬다.

11. 수하동水下洞

삼각동 남동쪽, 남대문로10길과 을지로7길 사이에 위치한 수하동(水下洞)은 조선 시대 초기 한성부 대평방에 속하던 곳이다. 일제 강점기 수하정(水下町)이라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중구 수하동이 되었다. 수하동이라는 동명은 지금의 을지로2가와 이곳에 걸쳐 있었던 옛 마을 이름에서 유래하였는데, 남산에서 발원한 창동천(倉洞川) 아래쪽에 있어 ‘물아랫골’로 불리던 것을 한자로 고친 이름이 수하동이다.



수하동의 관할구역 경계

수하동은 북쪽으로는 종로구 관철동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남대문로1가로 빠지는 개천을 복개한 소로를 경계로 삼각동과 마주보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을지로2가와 접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장교동과 접하며, 서쪽으로는 삼각동, 남대문로1가와 접한다. 수하동의 전체적인 지형은 삼각동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8자형의 모습을 하고 있다.

수하동 북쪽 청계천 주변에 조선 광해군 때 실학자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의 집인 대은암(大隱庵)이 있었다. 이 집은 이수광의 아들 이민구(李敏求)에서 다시 외손 신필화(申弼華)에게로 이어졌는데, 역대 소유주가 모두 조선시대 문장가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수하동에 있었던 옛 마을 이름으로 반우물은 우물이 커서 반은 집 안에 들어 있고 반은 문 밖에 있어 반우물이라 했으며 반우물이 있는 마을을 반우물골이라 하였다. 자리전골은 남대문로1가와 수하동 일대에 걸쳐 있던 마을인데 청계천에서 남대문로1가 방면으로 흘러내린 개천변에 각종 자리를 전문으로 팔고 사는 자리전이 있었으므로 명칭이 유래되었으며 한자로 석동(席洞)이라고도 한다. 이곳에서 거래되었던 자리는 강화도에서 만든 화문석뿐만 아니라 광희문 밖에서 만들었던 짚자리와 짚방석까지도 취급하였다.

수하동과 삼각동에 걸쳐서 있는 마을을 ‘보습곶이[犁洞]’라 하였는데, ‘보습곶이’라는 말은 이곳 지형이 농기구의 보습[犁, 쟁기나 가래 등의 술 바닥에 덧대는 삼모양의 쇠조각]과 같아서 붙여진 것으로 웃보습곶이, 아래보습곶이가 있었다. 이중 상리동은 수하동과 을지로2가에, 하리동은 수하동, 장교동, 을지로2가에 걸쳐 있던 마을이다.

보습곶이는 조선 말엽 개화사상의 선구적 인물인 오경석(吳慶錫, 1831~1879)이 말년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난 곳이기도 하다. 오경석은 중인 출신의 역관으로 장교동

에서 태어나 살다가 결혼 후 분가하면서 수표동으로 옮긴 뒤 다시 보습곳이로 이사를 하였다. 이상박(李尙迫)의 문하에서 공부하고 가학(家學)으로 박제가(朴齊家)의 실학을 탐구하였는데 16세 때 역과(譯科)에 합격하여 22세 때 역관으로 북경에 다녀온 후 모두 13차례에 걸쳐 중국을 내왕하였다. 재동의 박규수 집 사랑방에서 1870년 초부터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유길준, 서광범 등 양반자제에게 개화사상을 교육하여 1874년에는 이들을 중심으로 한 개화당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오경석이 살았던 집은 청계천변 아래보습곳이로 수하동 11번지(현 중소기업은행 부근)가 된다.

한편 수하동에는 도화서(圖畫署)가 있었다. 도화서는 조선시대 그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던 관청으로, 궁중과 정부가 필요로 하는 그림을 제작하거나 화원의 양성을 맡아보던 기관이다. 예조(禮曹)에 소속된 기관으로, 원래 한성부 중부 건평방(堅平坊)에 위치하고 있었다. 도화서의 화원들은 조선시대 화풍을 주도하고 새로운 화풍을 개발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표적인 화원으로는 김홍도(金弘道), 신윤복(申潤福) 등이 있다. 도화서의 도(圖)는 도해(圖解) 등에 사용하는 그림으로, 관원들의 복식(服飾)이나 도량형기와 각종 물품의 실물 그림, 조하도(朝賀圖) 등 의례와 관련된 그림을 뜻하고, 화(畵)는 왕과 대신들의 초상화나 풍경을 그린 산수화 등의 회화를 의미한다. 이중 특히 의궤(儀軌)에 사용된 그림은 조선시대의 문물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당시의 의례의 연구에 중요하게 활용된다. 현재 중구 을지로 51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4번 출구 측면에 도화서 터 표지석이 있다.

12. 수표동水標洞

청계천 수표교 남쪽, 수표로 동·서쪽에 위치한 수표동(水標洞)은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훈도방(薰陶坊) 일부였던 지역으로 일제 강점기 수표정(水標町)이라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수표동이 되었다. 수표동의 동명은 조선시대에 청계천의 수위를 재는 ‘수표’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곳 동명의 유래가 된 수표는 수표동 43번지와 종로구 관수동 20번지에 놓였던 수표교 옆 서쪽



수표동의 관할구역 경계

일대에 갯[筍]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고 그 언저리에 있던 갑동(甲洞)에는 갯을 취급하는 갯전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일대의 지명을 갯전동네, 갯동네라 부르던 것을 줄여서 갯동으로 불렀고 다시 음이 변하여 갑동이 되었다. 갑(甲)을 갯으로 읽는 것은 이두식 표현이다.

대전골은 수표동, 을지로2가, 장교동에 걸쳐 있던 마을로서 대나무와 대그릇을 파는 죽전(竹麿)이 있어서 대전골이라 했고, 한자명으로 죽동(竹洞)이라 하였다. 먹우물골은 수표동, 장교동, 을지로2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서 깊은 우물이 있으므로 먹우물골이라 했고 이를 한자로 고친 것이 묵정동(墨井洞)이다. 시궁골은 수표동, 입정동, 을지로3가에 걸쳐 있던 마을인데 영조 때 학자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이 벗을 모아 풍류를 즐기면서 시금(詩琴)을 자주 하였으므로 시금골이라 부른 데서 연유된다. 후일 음이 변해서 시궁골이 되었으며, 한자로 시금동(詩琴洞) 또는 줄여서 시동(詩洞)이라 하였다.

조선 초기 한양은 하수시설의 미비로 장마 때마다 홍수의 피해를 입었다. 이를 막기 위해 1411년(세종 23)부터 2년에 걸쳐 한양의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청계천을 준설하고 주변의 물길을 하나로 모아 동대문 밖으로 흐르도록 하였다. 수표교는 이 과정에서 청계천 위에 만들어진 많은 다리들 가운데 하나였다. 원래는 다리 근처에 우

개천 바닥에 설치되어 있었다.

수표동의 위치를 보면 북으로는 청계천을 경계로 종로구 관수동과 마주보는 구 경계지역이며, 남쪽으로는 을지로2~3가와 인접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입정동과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장교동과 접하고 있다.

수표동에 있었던 자연마을로는 입정동과 수표동에 걸쳐 있던 갑동(甲洞)이 있다. 갯방우물이 있으므로 동명이 유래된 입정동과 바로 이웃하였으며 이



수표교의 옛 모습(일제 강점기)

마시전(牛馬市塵)이 있었기 때문에 마전교라고 불렸다. 청계천의 수위계(水位計)였던 수표는 조선시대 홍수 조절기능을 담당했는데 물이 불어나는 상태를 수표석의 눈금을 보고 측정하여 장부에 기록한 후 호조를 통해 국왕에게 보고하는 한편 한성판윤(漢城判尹)에게도 알려 홍수에 대비하는 중요한 기구였다.

수표는 1441년(세종 23)에 처음에는 나무로 만들었으나, 1760년(영조 36) 다리를 수리하면서 다리 앞쪽 하천 바닥에 돌기둥을 세우고 눈금을 새겨 수표석으로 하였다. 이 수표석은 1959년 청계천을 복개하면서 수표교와 함께 장충단공원으로 옮겨졌다가, 1973년 10월 동대문구 청량리동 세종대왕기념관 뜰로 옮겨져 보존되고 있다. 1985년 보물 제838호로 지정되었다. 2005년 청계천 복원공사가 시작되면서 수표교를 원래의 자리로 옮겨오려고 하였으나, 훼손이 우려되어 옮겨오지 못하고 청계2가 교차로와 청계3가 교차로 사이에 나무로 만든 다리를 가설하고 수표교라고 이름을

붙였다. 수표교가 있던 곳임을 나타내는 수표교 터는 2005년 광통교(廣通橋) 터, 오간수문(五間水門) 터와 함께 사적 제461호로 지정되었다.

수표교에 얹힌 풍속으로 정월 대보름날 서울사람들이 밤을 새워 즐겼던 답교놀이(答橋놀이)가 있다. 사람들은 다리[橋, 교]와 다리[脚, 각]가 같은 발음이라서 다리를 밟으면 일 년 동안 다리에 병이 나지 않는다고 믿었다 한다. 이날 부녀자들은 음식을 냇물에 던져 복을 빌고, 남자들은 농악대를 앞세우고 무동을 태워 다니거나 다리 근처에서 술자리를 열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연날리기도 하였는데, 유득공(柳得恭)의 『경도잡지(京都雜誌)』에 매년 정월 대보름 전 하루 이틀은 수표교 주변에서 연싸움을 구경하는 이들이 담을 쌓듯이 모여 선다고 하였다. 수표동에는 현재 청계천복원공사로 새롭게 놓인 수표교가 있고 그 주변으로 각종 공구상가들이 늘어서 있다.

수표동에 살았던 인물 중 한국천주교회의 선구자 이벽(李穡, 1754~1786)이 있다. 이벽은 무인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순수 학문에 뜻을 두었던 그는 정약전·정약용 형제 및 이승훈 등과 함께 천진암에서 강학 모임을 가지며 학문을 연구했다. 모임을 주도하던 이벽은 천주교 교리에 매료되어 체계적으로 종교활동을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 무렵 이승훈이 북경에 가게 되자 이벽은 그에게 세례를 받고 올 것을 권유했다. 1784년 봄, 북경에 도착한 이승훈은 프랑스 출신 예수회 신부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조선으로 돌아온 이승훈은 이벽을 비롯한 권일신, 정약용에게도 세례를 주었다. 이것은 조선에서 최초로 거행된 세례식으로 한국 천주교회의 시초이자, 자발적인 신앙공동체의 출범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1785년(정조 9), 이벽의 주도로 김범우의 집에서 신앙 모임을 가졌다가 적발되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형조로 압송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임은 즉시 중단되었고 이벽은 동료들과의 접촉이 차단된 채 자택에 감금당해 있다가 사망하였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최초의 신앙공동체가 평신도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기념하여 2011년 8월 이벽의 집터에 표지석을 세웠다.

13. 충무로1가忠武路一街

한국은행 앞 교차로와 회현사거리 사이의 소공로 좌우에 위치한 충무로1가(忠武路一街)는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명례방(明禮坊)과 호현방(好賢坊)에 속했던 지역이다. 일제 강점기 본정1정목(本町一丁目)으로 불리다가 1946년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충무로1가로 되었다. 충무로의 동명은 일제 강점기 진고개 일대에 놓여 있던 길을 본정통(本町通)이라 불렀던 것을 임진왜란 당시 왜적을 물리치고 우리 국가와 민족을 구한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 1545~1598) 장군의 시호를 따라 충무로라 한 데서 비롯되었다.

충무로1가는 동쪽으로 충무로2가와 경계를 마주하며, 남쪽은 회현동2~3가 및 남산동과 퇴계로를 경계로 마주보고 있다. 서쪽은 회현동1가 및 남대문로3가와 경계점을 이루며, 북쪽은 남대문로2가 및 명동2가로 에워싸인 곳으로 일찍부터 상업지역으로 발전한 곳이다. 개항 이후 일본인들의 진출이 두드러져 그들이 주도하는 상권이 가장 먼저 형성된 지역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여느 곳과 달리 비교적 구획정리가 잘 되어 있는 특성도 지닌다.

충무로1가에 있던 자연 마을로는 대룡동(大龍洞)이 있는데, 남대문로2가, 명동1가, 명동2가, 충무로1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생김새가 마치 용이 여의주를 품은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동명이다. 용 두 마리가 서로 꼬리를 튼 것처럼 몸을 붙여 있는데 그 중 큰 용에 해당되므로 큰용골이라 하였다. 명동은 조선 초기부터 명례방이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며 명례방골이라고도 하였다. 낙동(駱洞)은 타락동(駱酪洞)을 줄여서 부른 것인데 타락(駱酪, 우유)을 파는 곳이 있으므로 연유된 이름이고 회동은 회현방이 있었으므로 동명이 유래되었다.



총무로1가의 관할구역 경계



1930년대 충무로1가. 중앙우체국 오른쪽으로 본정1정목이 시작되는 골목이 보인다.

충무로1가·회현동1가·남대문로3가 접경 지역에는 장흥고(長興庫)가 있어서, 예전부터 이 일대의 마을을 장동, 장흥곶골이라 했는데 『한경지략』에 보면 이곳에 심희수(沈喜壽)·박은(朴聞)·김광국(金光園) 등 많은 문인과 학자가 살았다고 한다. 이유원(李裕元)의 『임하필기(林下筆記)』에는 장흥고 옆 일송(一松) 심희수의 고택 곁에 한그루의 소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를 그의 아호를 따서 일송이라고 하였으며 나중에 는 여기에 양연산방(養研山房)이 세워졌다고 한다. 그리고 상취헌(相翠軒) 박은의 고택에도 큰 은행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또 이곳에서는 선조 때의 시인 고옥(古玉) 정작(鄭澈)이 살면서 여러 일화를 남기기도 하였다.

충무로1가 52번지 일대, 현재 신세계백화점 자리는 원래 일본영사관 건물이 있었다. 일본영사관은 관훈동의 일본공사관 건물을 사용했으나 갑신정변 때 소실되어 용산으로 일시 옮겨다가 현 충무로1가와 회현동1가 사이에 있는 한옥을 임시로 빌려 일본영사관 청사로 사용하였다. 1893년 이후 일본공사관이 남산 기슭에 새로이 신축되자 공사관과 경복궁 사이 일직선이 되는 지점인 현 충무로1가 52번지 일대를 일본



충무로1가에 위치한 서울중앙우체국

영사관 부지로 책정하고 이를 매입하여 벽돌과 목조 2층으로 된 청사를 신축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로 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이 설치되면서 이 건물을 사용하다가 1910년 한일병합 후에 경성부청사로 되어 1926년에 태평로1가로 이전해갔다.

그 후 빈터로 남아 있던 이 자리는 1929년 9월 충무로의 삼월오복점(三月吳服店)이 불하받아 1930년 10월 서구식 백화점 형태를 갖춘 미쓰코시백화점[三月百貨店]을 준공하였다. 당시로서는 종업원이 360여 명이 근무하는 한국과 만주 지역을 통틀어 최고의 백화점으로 출발했다. 광복과 함께 적산(敵産)으로 분류된 미쓰코시백화점은 동화백화점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관리인은 미 군정청에서 임명하였다. 1954년 11월 29일 관재청에서 이전 받은 후 동화백화점은 민간 경영으로 본격적인 발전을 해오다가 1962년 9월 동방생명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 이듬해 삼성이 동방생명을 인수하면서 동화백화점도 흡수되어 신세계백화점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자리에는 히라타백화점[平田百貨店]이 있었고 17번지에는 중앙우체국이 있었다. 중앙우체국은 고딕식과 르네상스식이 혼합된 석조 건축물로 외관이 매우 아름다웠는데, 6·25전쟁으로 파괴되었다. 이후 복구와 철거를 거듭하다가 현재 21번지 일대에 서울중앙우체국이 자리 잡게 되었다. 오늘날 이 지역에는 한국은행 앞 광장을 바라보는 곳에 신세계백화점 본점 및 신관이, 21번지에는 전국의 모든 우편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서울중앙우체국을 비롯하여 서울채신청 빌딩이, 신세계백화점 뒤에는 중앙전화국 등이 있어서 서울의 통신사업 핵심지구이면서 상업 중심지임을 알려준다. 그밖에도 SC제일은행, 우표박물관 등이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

14. 충무로2가忠武路二街

지하철 4호선 명동역 북쪽 일대에 위치한 충무로2가(忠武路二街)는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명례방(明禮坊)과 훈도방(薰陶坊) 일원이었던 지역으로 일제 강점기 본정2정목(本町二丁目)으로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충무로2가로 되었다. 충무로의 동명은 일제 강점기 진고개 일대에 놓여 있던 길을

본정통(本町通)이라 불렀던 것을 임진왜란 당시 왜적을 물리치고 우리 국가와 민족을 구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시호를 따라 충무로라 한데서 비롯되었다.

충무로2가는 동쪽으로 충무로3가와 접하며 남쪽은 퇴계로를 사이에 두고 주자동, 남산동1~3가와 마주보고 있다. 서쪽은 충무로1가와 경계를 마주하고 있으며 북쪽은 명동2가, 저동1~2가와 접한다. 일찍부터 일본상권이 형성되었던 지역이기도 한 충무로2가는 퇴계로가 개설된 이후 차량



충무로2가의 관할구역 경계



퇴계로에서 바라본 충무로2가

통행이 가장 많은 곳으로 부상되었으며 명동과 접한 까닭에 수많은 인파가 언제나 북적거리는 지역이기도 하다. 비교적 구획정리가 잘되어 있는 곳으로 동서남북으로 바둑판 형식의 가로가 형성된 근대적 도시 형태를 갖추고 있다.

현재 세종호텔 북쪽의 충무로를 예전에는 진고개라고 하였다. 이 고개는 배수시설이 잘되지 않는데다가 고개에 있는 흙이 몹시 질어서 비가 오면 사람들의 왕래가 끊어질 정도로 통행이 곤란했던 곳으로 유명하였다. 이에 1906년(광무 10) 진고개 일대에 현대식 도로를 만들면서 하수도를 묻어 이 지역의 하수를 통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서울 시내 하수 시설의 시초가 되었다.

충무로2가에 있었던 조선시대의 자연 마을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명례방골 혹은 명동이라 부르던 곳은 명례방이 있었기 때문에 유래되었고 충무로1~2가와 명동1가에 걸쳐 있었다. 저동(荳洞)은 모시전골이라고도 하는데 저동1가와 충무로2가에 걸쳐 형성된 마을이며 모시를 취급하는 모시전이 있었기 때문에 유래되었다. 이곳에서 취

급하던 모시는 종로 육의전에서 취급되는 것보다는 한 등급 아래로 발이 굵은 것을 주로 판매하였다. 종현은 종현동(鍾峴洞) 혹은 북달재라고도 하는데 명동2가 1번지로 넘어가는 고개를 일컫는다. 주잣골 혹은 주동(鑄洞)이라 부르던 곳은 충무로2가와 주자동이 경계하고 있는 지점으로 지금의 퇴계로로 편입된 곳인데 주자소(鑄字所)가 있는 곳이라는 뜻에서 명칭이 유래되었다.

한편 진고개에는 굴우물이 있었는데, 우물이 깊고 또 우물 안에 굴이 있다고 하여 한자로 굴정(窟井)이라 하였다. 『한경지략』에도 “굴정은 남부 이현에 있는데 우물이 깊고 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명칭이 유래되었다”라고 하였다. 굴정은 처음부터 우물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노출된 샘물 같은 곳이었다. 이를 처음 발견하여 만든 이가 이수광(李睟光)의 아들인 동주(東州) 이민구(李敏求, 1589~1670)로 그가 13세 때인 1601년(선조 30) 진고개에서 놀다가 돌 밑에 샘물이 솟아나오는 것을 보고 아이들을 모아 이 돌을 치우고 샘을 만들었다. 그 뒤부터 길을 가던 나그네들도 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는데 언제나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던 물구멍이 점점 더 크게 파여 굴같이 되었다고 한다. 훗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양난을 치른 후 잠시 관직에서 물러나 있던 이민구는 어느 날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 어린 시절 아이들과 함께 파 놓았던 우물을 보고 감개무량하여 발걸음을 멈추고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다.

손으로 뚫을 때는 한줄기 샘물이었는데
 어느덧 오십년의 세월이 지나갔네.
 돌 속의 한줄기 샘물은 줄지 않았는데도
 그 속에서 늙고 죽은 사람 누구누구던가.⁴⁵⁾

조선시대 충무로 일대는 남산골이라고도 불렸으며 주로 하급관료인 아전들이 많이 살았다. 갑신정변 이후부터 이곳에 일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일본인들의 집단 거류지를 형성하였고 자국에서 가져온 신문물을 진열하여 개화가 늦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현재 충무로2가에는 해외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호텔·게스트하우스·쇼핑상가·음식점 등이 다수 위치하고 있다.

15. 저동1가 茱洞一街

명동성당교차로를 중심으로 삼일대로를 따라 위치한 저동1가(茱洞一街)는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훈도방(薰陶坊)에 속했던 곳으로 일제 강점기 영락정1정목(永樂町一丁目)으로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저동1가로 되었다. 동명은 이곳에 모시를 취급하는 상점인 저포전(苧布廐)이 있었기 때문에 유래되었다. 저전골·저전동(苧廐洞)으로 불리던 것이 저동으로 약칭되었다.

저동1가는 동으로는 저동2가, 서쪽으로는 명동1~2가와 접해 있고, 남으로는 충무로2가, 북쪽으로 을지로2~3가에 둘러싸여 있다. 이 지역의 동서로는 명동길과 마른내길이, 남북으로는 삼일대로가 지나고 있어 교통이 사통팔달한 지역이다. 일제 때 이 지역은 일본인이 특히 많이 거주하던 곳으로 한국인과의 상권 다툼이 종종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저동에 흔적을 남기고 있는 조선시대의 자연마을로는 저동의 지명 유래가 된 모시전골을 들 수 있다. 모시를 취급하던 모시전을 한자로 옮긴 것이 저포전이고 이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으므로 저포전동 혹은 모시전골이라 불렸으며 줄여서 저전동이라 하였고 다시 저동으로 약칭되었다. 모시전은 조선 정조 때 서울에 설치되었던 37개의 상설시장인 시전 가운데 하나로 모시를 전문으로 취급하였는데 궁중 및 각 관청의 수리용이었다.

저동1가와 을지로2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실우물골이 있었다. 깊지 않은 우물로 바가지로 물을 퍼낼 수 있지만 물줄기가 실날같이 흘러나오므로 한참을 기다려야 물이 고였으므로 실우물 혹은 사정(絲井)이라 했는데, 실우물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사정동(絲井洞)이라 하였다.

한편 현재 남대문세무서 자리에는 양향



저동1가의 관할경계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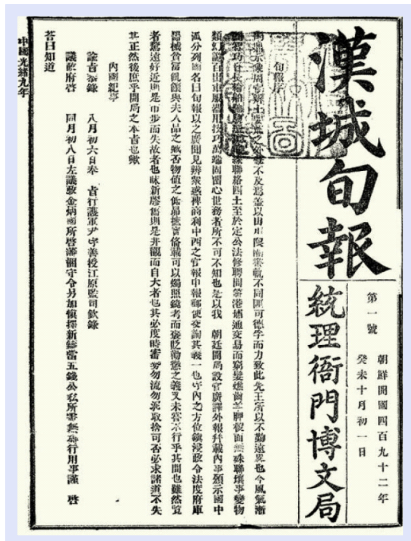
청(糧餉廳)이 있었다. 양향청은 1594년(선조 27)에 설치되었는데 훈련도감에 조달되는 군량·군복·무기·깃발 등의 각종물품을 공급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곳이었다. 양향청은 1884년에 폐지된 후 이 자리는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전매국(專賣局) 인쇄부(印刷部)로 사용되었다가, 다시 경성세무서(京城稅務署)에서 사용하면서 이후로 세무서 자리로 이어지고 있다.

저동1가는 예전에 죽동(竹洞)과 더불어 남촌에 있는 좋은 집터라는 의미로 ‘저동죽서(苧東竹西, 저동의 동쪽과 죽동의 서쪽)’라는 말이 전해올 만큼 명문고관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정충헌(鄭忠憲) 형제, 이순무(李巡撫), 박지수(朴支壽)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이웃하여 살면서 오랫동안 부귀를 누려왔던 사람들이며 왕실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으므로 세력 또한 대단하였다.

한때 저동이 영락(永樂)이라고 불렸음을 영락교회와 1946년 6월에 설치한 영락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때 영락이란 명칭의 근원이 되었던 영희전(永禧殿)은 오늘날의 중부경찰서와 영락교회·영락병원의 일부 지역에 해당되는데 조선시대 역대 군주들의 어진(御眞)을 모셨던 곳이다. 영희전은 조선의 역대 임금 가운데 태조(太祖)·세조(世祖)·숙종(肅宗)·영조(英祖)·순조(純祖)의 어진을 봉안하여 제사를 지내던 건물로 1690년(숙종 16)에 남별전(南別殿)을 개칭한 것이다. 어진은 과거에 여러 이

름으로 불리다가 1713년(숙종 39)에 그 명칭을 지금과 같이 통일하였다.

한편 저동에는 한국 최초의 근대적 인쇄 출판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박문국(博文局)도 있었다. 박문국은 1883년 음력 7월 15일 박영효의 건의에 의하여 당시 통리아문(統理衙門)의 산하기구로 신식 인쇄기를 설치하면서 출발하였다. 한성부 남부 훈도방 저동의 영희전 자리에 있었으며, 처음 『한성순보(漢城旬報)』는 한성부에서 주관·발행하기로 하였으나, 박영효가 한성판윤을 물러남으로써 동문학으로 이관되어 1883년



박문국에서 발행한 한성순보 1호

10월 이곳에서 발간하였다.

그러나 1884년 12월 갑신정변으로 불타버려 이듬해 중부 경행방(慶幸坊) 교동으로 옮겨 『한성주보』로 복간되었다. 이때 총재는 김윤식(金允植)이 맡았다. 발행 경비는 특별 세수권(稅收權)을 부여받아 충당되었고, 각 지방관아에 배부되어 그 수익금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수금



재개관한 삼일로 창고극장

이 제대로 되지 않아 관세를 차용하기도 하다가 1888년 7월 재정문제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 부속됨으로써 문을 닫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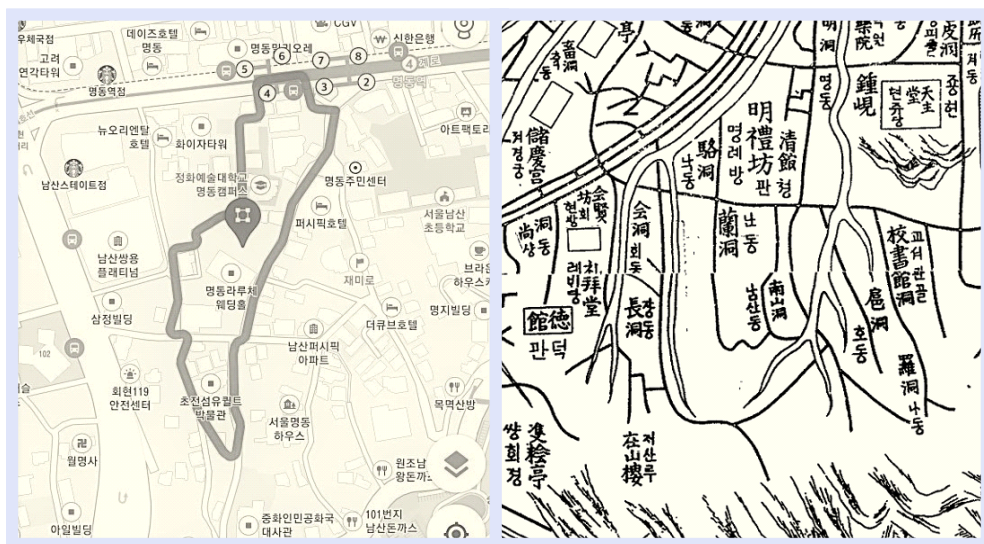
한편 근현대 속에서 저동1가는 삼일로 창고극장이 있어서 1970년대 암울했던 시대를 비추는 연극 무대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일대는 1972년 10월 유신 이후 폭압적 정치 환경 속에서도 조금씩 싹 터 나온 민주화의 열망이 명동성당을 중심으로 명동길 이곳저곳에서 표출되면서 학생과 시민이 전경과 최루탄으로 한테 뒤엉키던 지역이었다.

현재 이곳에는 남대문세무서, 평화빌딩, 중앙빌딩, 명동성당 부속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다.

16. 남산동1가南山洞一街

퇴계로 남쪽,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서쪽 4번 출구에서 남산 케이블카 매표소까지를 아우르는 남산 기슭에 위치하는 남산동1가(南山洞一街)는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명례방에 속했던 곳으로 일제 강점기 남산정1정목(南山町一丁目)이라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남산동1가로 되었다.

남산동이라는 동명은 이곳 일대가 남산 북쪽의 기슭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남산동1가의 관찰구역 경계와 「서울 지도」(1902)의 남산동 부근

예부터 남산골이라고 불리던 데에서 유래하였다. 남산동의 유래가 된 남산은 조선 개국 후 한양으로 천도하면서부터 도성의 남쪽에 있는 산이라는 의미에서 부르게 된 것으로, 그 이전에는 이 산을 인경산(引慶山)이라고 불렀다. 남산은 서울 내사산의 하나로 조선시대에는 서울 남쪽을 수비하기 위한 요충지로 능선에 성을 쌓았다.

남산동1가는 북쪽으로 퇴계로를 사이에 두고 충무로1가와 마주 보며, 동쪽은 남산동2가와 접하고 있다. 남쪽은 회현동1가, 서쪽은 회현동2가로 에워싸인 전형적인 주택지구이다. 도심에 위치하면서도 퇴계로 북쪽이 상업·업무중심지구로 발전한 데 비해 그 남쪽인 남산동1가가 주택지구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남산 자락에 위치한 까닭에 경사가 진 데다 동서남북으로 통할 수 있는 도로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심지역의 대부분이 재개발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고층빌딩이 들어서고 구획정리로 지반이 통합되는 등 변화를 겪었으나 이 지역은 거의 옛 지반을 간직하고 있다. 한편 남산동에서 발원하여 구리개를 거쳐 지금의 청계천으로 유입하던 시내를 남산동천(南山洞川)이라 하였는데, 지금은 복개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조선 후기 이래 청계천 북쪽은 북촌, 남쪽은 남촌으로 불렸는데 북촌이 권세 있는 양반들이 모여 살았던 데 비해 남촌은 관직에 오르지 못한 가난한 선비들이주로 살았

다. 특히 남촌 중에서 남산 계곡에 위치한 남산동에는 가난한 선비와 청렴결백을 자부하던 양반들이 살았으며 이들을 남산골샌님 또는 남산골 딸각발이로 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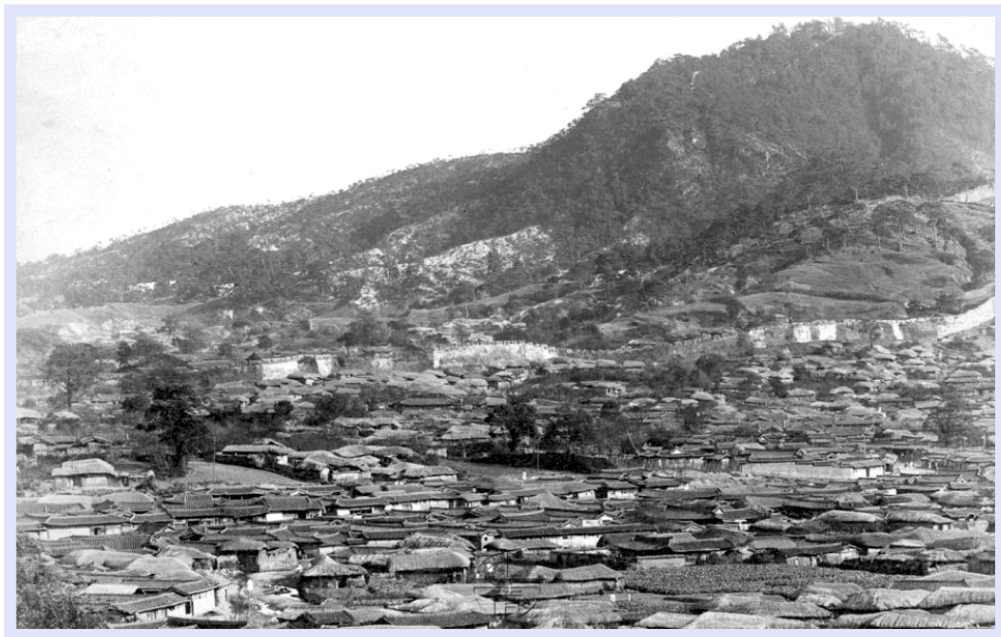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남산골샌님이 원 하나 내지 못해도 땀 권리는 있다”는 속담이 전한다. 유사한 뜻으로 “남산골샌님이 신청안 고직(庫直)이 시킬 재주는 없어도 땀 재주는 있다”는 속담도 전하는데, 아무 세력 없는 남산골샌님이 고직이를 시켜 줄 수는 없어도 여론을 일으켜 못 하게 할 수는 있다는 뜻으로, 무슨 일을 해 줄 수는 없어도 방해하여 못 하게 할 수는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그밖에도 남산골샌님을 주제로 한 속담으로 “남산골샌님이 역적 바라듯 한다”, “남산골샌님이 망해도 걸음 걷는 보수는 남는다” 등도 있는데, 앞의 속담은 가난한 사람이 엉뚱한 일을 바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 뒤의 속담은 남산골 선비가 망하여 아무것도 없어도 그 특이한 걸음걸이만은 남는다는 뜻으로, 몸에 뻗 버릇은 없어지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⁴⁶⁾

남산동1~3가가 북쪽 자락에 자리한 남산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서울의 녹지공간으로서 큰 몫을 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서울 남쪽 수비의 요새로 만들기 위하여 능선에 성을 쌓았는데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해발 265미터의 남산은 현재 중구 남산동을 위시하여 예장동, 필동, 회현동, 장충동과 용산구 도동, 후암동, 이태원동, 한남동 등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옛날에는 서울의 남산 쪽이었지만 구역이 훨씬 확장된 오늘날은 서울의 중앙 산이라 할 수 있다.

예부터 남산은 서울 사람들의 행락지로 사랑을 받아왔는데 조선시대에도 지금의 자연보호운동과 같이 남산에 성곽을 쌓아 입산을 금지시키고 나무를 베거나 흙과 돌을 파가지 못하게 하는 한편 묘를 쓰지 못하게 하였다. 순조 32년(1832)에 오위장(五衛將)을 지낸 장제급(張濟汲)이라는 자가 모친의 시신을 몰래 남산에 묻고 묘를 만들었던 일이 발각되었다. 조정에서는 즉각 묘를 파내고 이를 명당이라 가르쳐준 지관과 장제급을 귀양 보냈으며 그의 가족들은 노비가 되는 중벌을 받기도 하였다.

실제로 도성을 둘러싼 4개의 산 중에서 남산은 비교적 정상으로 오르는 길이 완만하고 주위가 수목으로 둘러싸여 사계절의 풍경이 아름답기 그지없다. 이 때문에 풍류를 즐기던 옛 사람들이 남산을 소재로 하여 읊은 시가 매우 많다. 고려 말과 조선 초



1890년대 남산동 부근. 남산 자락을 따라 이어진 성곽이 보인다.

에 활동한 시인인 교은(郊隱) 정이오(鄭以吾)는 「남산팔영(南山八詠)」을 지어 남산의 그림같은 풍경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북악 아래 안개구름 속에 펼친 궁궐이 보기 좋고
 멀리 펼쳐진 한강물 더욱이 볼만하네.
 봄이 다 지나도 아직 피어있는 바위 밑의 꽃과
 산마루에 우뚝 선 낙낙장송의 의젓한 모습이 좋구나.
 춘삼월 달청놀이와 중양절 높은 산 오를 때도 좋고
 관등놀이로 산언덕 환하고 계곡에 발 담그는 멋 또한 있구나.

현재 서울남산초등학교가 위치한 자리에 나홍좌(羅弘佐) 장군이 살았기 때문에 나대장골 혹은 나동(羅洞)이라 불렀다. 나홍좌는 조선 후기의 무신으로 1699년(숙종 25) 어영대장을 거쳐 한성부좌윤, 포도대장, 3도통제사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또한

나대장골과 이어진 남산동2가 2번지에 호위청(扈衛廳)이 있었으므로 이 일대를 호위청동, 호위청골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조선 실학가로 『해동역사(海東繹史)』를 편찬한 한치윤(韓致淵)도 나동에 살았다.

남산동1가는 일제 강점기에 회현동, 필동, 충무로 등과 같이 일본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지역이었다. 현재 정화예술대학교, 쿨트박물관 등이 자리하고 있다.

17. 남산동2가 南山洞二街

퇴계로 남쪽, 지하철 4호선 명동역 2번과 3번 출구에서 소월길까지를 아우르는 남산기슭에 위치하는 남산동2가(南山洞二街)는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명례방에 속했던 곳으로 일제 강점기에 남산정2정목(南山町二丁目)으로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남산동2가로 되었다. 남산동이라는 동명은 이곳 일대가 남산 북쪽의 기슭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예부터 남산골이라고 불리던 데에서 유래하였다. 남산동에서 시작하여 구리개를 지나 청계천으로 들어가는 남산동천이 있었다.

남산동2가는 남산으로 오르는 진입로이며 동으로 남산동3가와 접하고 남쪽으로는 예장동과 인접한 지역이다. 서쪽은 회현동1가와 남산동1가로 에워싸여 있고 북쪽은 퇴계로를 사이에 두고 충무로1가와 마주보고 있다. 남산의 북쪽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남산동2가는 퇴계로를 중심으로 일본인들이 일찍부터 근거지로 만들었던 까닭에 남산동 일대에서는 가장 번잡한 지역이었다.

필동과 경계가 되는 소파길이 개통되기 전만 해도 퇴계로로 통하는 길이 유일한 통로였으나 지금은 비교적 사통팔달한 교통망을 보유하고 있다. 더구나 남산에 주요 국가기관이 자리하면서 만들어진 외교구락부는 이 나라 정치외교 부문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오게 하는 만남의 장소였다. 명승으로 꼽는 남산 경관 아래 위치한 까닭에 예부터 시인 묵객들의 사랑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현대사를 장식하는 많은 외국인이 이 일대를 찾았다.



남산동2가의 관할구역 경계와 명동주민센터

남산동2가 40번지 일대를 옛날에는 삼아동(三丫洞)이라고 불렀는데, 이 마을의 바위에 ‘삼아동’이란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던 데서 유래한 것이다. 삼아동 아래에는 물이 달고 찬 ‘암천(岩泉)’이라는 샘이 있었는데, 이 샘가의 암벽에도 ‘아계(丫溪)’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남산에는 특히 많은 약수가 있었다. 그중 와룡암(臥龍庵) 아래에 있는 속칭 부엉바위약물이라고 불리는 휴암약수는 절벽 사이를 흘러내리는 약수터로 여름철에는 피서를 하거나 산책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인근에 세워져 있던 천석각(泉石閣)이라는 누각은 피서하기에 아주 좋은 곳으로 이름나 있었다. 옛 문헌에도 이러한 사실들을 기록하여 “휴암천은 목멱산 아래 있고 삼아동의 물맛도 달고 차다”고 하였다. 곧 삼아동의 물맛이 가장 품격이 높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휴암천과 가까이 있음을 암시해 주었던 것이다.⁴⁷⁾

또 허정(許井)이라 불리는 우물이 있었는데, 이는 옛날 남산 위에 있던 목멱신사(木覓神祠)에 제사 드릴 때 쓰던 우물이라고 한다. 이곳에는 묘소에 세우는 것과 같은 석인상(石人象)이 있었다고도 한다. 남산동 2가 49번지에는 ‘복천암(福泉岩)’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바위가 있었다. 이 일대 또한 옛날부터 명승지로 유명하던 곳으로 조

선 말기의 덕망 있는 대신 경산(經山) 정원용(鄭元容)이 정계의 여러 명사들을 초청하여 하루를 즐기면서 이곳의 풍경을 시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윤달이 낀 어느 봄날 북천암에 모여 무르익은 봄날의 흥취를 그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남산 밑 우리 집엔 봄만 되면 경치도 좋아.
마음 내키면 술 한 잔 들고 승경 찾아 산책도 하네.
숲속을 거닐다 흥 절로 나면 노래 부르고 시로 읊는데
 시내 따라 방초로(芳草路) 거닐면 어느 사이 삼차동(三叉洞) 지난다네.

삼차동(三叉洞)은 곧 삼아동(三丫洞)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산동2가 2번지에는 옛 호위청(扈衛廳) 터가 있었다. 호위청은 인조반정(仁祖反正) 후의 흥흥한 민심에 대비하여 궁궐을 경호하던 기관으로, 훈신(勳臣)이 대장으로 임명되었다. 소파길 아래 남산동 2가 26번지에 있는 외교구락부는 지난날 정치·외교계의 인물들이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한편 지금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길 56(남산동2가 26-8)에는 교서관이 있었다. 교서관(校書館)은 조선시대 경서(經書)의 인쇄나, 제사 때 쓰이는 향(香)·축문(祝文)·인장(印章) 등을 담당하던 관청이다. 조선의 건국과 함께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교서감(校書監)을 설치하고 서적과 축문 관련 업무를 관장하게 한 것이 교서관의 시작이다. 일명 운각(芸閣), 내서(內書), 외각(外閣) 등으로 불리었다. 교서관은 설치 당시에 교서감이라 불리었고, 태종 때에 명칭이 교서관으로 바뀌었다. 세조 때에는 전교서(典校署)로 불리다가 1484년(성종 15)에 교서관으로 개칭되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등재되었다. 원래 교서관은 남부 훈도방(薰陶坊)에 위치해 있었는데, 지금의 중구 남산동2가 전 외교구락부 인근에 해당한다. 병자호란 뒤에 중부 정선방(貞善坊)으로 옮겼다가 후기에는 남부 낙선방(樂善坊)으로 이전하였다.

교서관의 관원들은 모두 문관이었으며, 전서체에 익숙한 3인을 품계에 따라 겸임하도록 하였다. 교서관의 판교(判校) 1인은 타관이 겸하고, 교리(校理) 1인과 별좌(別坐) 2인을 비롯 각급 직제에 걸쳐 모두 20여 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1777년(정조 1)



남산 자락에서 바라본 남대문2가 전경

에 규장각 제학 서명응(徐命膺)의 건의에 따라 교서관은 규장각에 편입되었다. 이에 규장각을 내각(內閣)이라 하고, 속사(屬司)가 된 교서관을 외각(外閣)이라 하였다. 위치도 창덕궁 돈화문 밖으로 옮기게 되었다. 현재 중구 퇴계로20길 56에 해당하는 교서관 터는 조선 초기부터 병자호란 이전까지 교서관이 있던 자리이다. 위치는 숭의여자대학교 맞은편으로 지금의 숭의여자대학교 제1별관이 위치한 부근에 해당한다.

18. 남산동3가南山洞三街

퇴계로 남쪽, 명동역 동쪽 출구에서 옛 영화진흥공사까지를 아우르는 남산 기슭에 위치하는 남산동3가(南山洞三街)는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명례방에 속했던 곳으로 일제 강점기에 남산정3정목(南山町三丁目)이라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

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남산동3가로 되었다. 남산동이라는 동명은 이곳 일대가 남산 북쪽의 기슭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예부터 남산골이라고 불리던 데서 유래하였다.

남산동3가는 동쪽으로 주자동과 예장동의 일부 지역과 마주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남산동2가와 접한다. 남쪽은 예장동으로 남산 기슭에까지 뻗어 올라가 있고 북쪽으로는 충무로2가와 퇴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다.



남산동3가의 관할구역 경계

남산동3가는 남산동1가나 남산동2가와와는 달리 소파로, 퇴계로, 삼일대로 등이 서로 교차하는 인근에 위치하므로 비교적 일찍부터 상업지역으로 발달하였다. 동의 남동쪽과 북쪽은 상가지구이고 남산동2가와 접한 도로 안쪽 깊숙한 곳은 주택지구로 구성되어 있다. 남산 KBS-TV 시절 스튜디오로 쓰였던 KBS 옛 사옥은 이후 영화진흥공사로 쓰이다 현재는 케이블 방송 사무실로 쓰이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가 소파길 연변에 위치하고 있어 이 일대가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각광받는 지역이었음을 알게 해준다.

구 영화진흥공사는 1973년에 설립되어 종로구 내자동에서 이곳으로 이전하였는데, 지금은 영화진흥위원회로 개편되어 동대문구 홍릉으로 다시 옮겨갔다. 원래 이 건물은 한때 KBS-TV 스튜디오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TV를 선보인 것은 1956년 5월 12일 첫 시험방송을 한 HLKZ-TV였지만, 본격적인 한국 TV의 역사는 1961년 KBS-TV(당시 ‘서울텔레비전방송국’)의 개국으로 시작되었다. 1976년 여의도에 있는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기까지 남산 KBS 사옥은 한국 TV 방송의 산실이었다. 1976년 9월 영화진흥공사에서 이 건물을 인수하여 1977년 1월부터 1995년까지 영화진흥공사 사옥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케이블 방송국 및 각종 사무실로 활용되고 있다.



1960년대 중반의 남산 KBS 사옥

조선시대 옛 영화진흥공사 부근에는 이경여(李敬輿)가 살았다. 그는 1644년(인조 22)에 사신으로 심양(瀋陽)에 갔다가 돌아온 후 강빈(姜嬪)의 옥사에 관련되어 삼수(三水)에 유배되기도 하였다. 1645년 소현세자(昭顯世子)가 죽자 인조는 세손이 있었음에도 소현세자의 동생 봉림대군(鳳林大君, 효

종)을 세자로 정하였는데, 이때 이경여는 불가하다는 의사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1646년에는 소현세자의 부인인 민회빈(愍懷嬪) 강씨(姜氏)의 사사(賜死)를 반대하다가 귀양을 갔으며, 효종이 즉위하자 특사로 풀려나 다시 등용되었다. 1657년(효종 8) 지병으로 자택에서 숨을 거두었다.

한편 남산동3가 32번지의 남산 서북쪽 기슭에는 대한적십자사(大韓赤十字社) 본부가 위치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 1905년 고종의 칙령으로 대한적십자사 규칙을 제정하면서 조직되었다. 6·25전쟁 때에는 피난민의 구호사업과 군병의 간호를 지원하였고, 휴전 직후에는 포로교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1960년대에는 헌혈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72년 이후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지원을 위해 남북적십자회담을 여러 차례 가졌다.

한편 소파로 한쪽에 위치한 서울애니메이션센터는 서울특별시가 국내 만화 및 애니메이션 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1999년 5월 설립한 기관이다. 개관 후 ‘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 영화제’를 개최하였고, 약 1,200종의 한국만화가협회 출판만화 자료를 위탁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신진작가 발굴 및 성공 사례 창출을 위한 제작지원,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서울애니시네마 및 정보실 운영하고 그 밖의 다채로운 전시회 및 영화제



서울애니메이션센터가 운영하는 '카툰뮤지엄(만화의 집)'

를 개최하는 등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련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내의 관람시설로는 2005년 개관한 국내 최초의 애니메이션 전용 상영관인 '서울애니시네마'와 '카툰뮤지엄(만화의 집)', 기획·테마전시실, 도서·영상정보실이 있고, 교육시설로는 체험관, 세미나실, 원동화실, 디지털교육실, 캐릭터체험전시실 등이 있다. 전문시설로 영상편집실, 녹음편집실, 캐릭터원형제작실이 있으며 그 밖에 지원시설로는 창작지원실, 관련 협회·단체 사무실이 있다.

19. 회현동3가會賢洞三街

회현동3가(會賢洞三街)는 퇴계로 남쪽, 지하철 4호선 명동역 4번 출구 근방에 위치하는 곳으로, 조선시대 초기에는 한성부 남부 호현방(好賢坊, 고종 때 회현방(會賢坊)으로 바뀜)에 속했던 지역이다. 이 지역은 일제 강점기에 옥정3정목(旭町三丁目)이

라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회현동3가로 되었다. ‘회현(會賢)’이라는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로부터 이 일대에 어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한 데서 회현동의 동명이 유래하였다.

회현동3가는 동쪽으로 남산동1가와 접하고 있으며 북으로는 충무로1가와 퇴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서쪽은 회현동2가, 남쪽은 회현동1가로 둘러싸였는데 퇴계로가 개설되기 전만 해도 이른바 ‘남촌’으로 한갓 남산골샌님들이 거주하는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었다. 퇴계로가 개설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금의 노퍽에 이르는 확장이 되면서부터 회현동3가는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회현동3가에 있었던 자연 마을로는 낙동(駱洞)과 남산골을 들 수 있다. 낙동은 충무로1가, 명동2가, 회현동3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예로부터 타락골(駱酪谷)·타락동(駱酪洞)이라고도 불렸는데, ‘타락동’은 남산 골짜기 곳곳에서 흘러내리는 계곡물이 지금의 퇴계로 근방에서 합쳐져서 건천동(乾川洞) 방면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를 타락(駱酪, 소의 젖이나 그것을 살균하여 만든 음료로 보통 우유를 말함)에 빗대서 붙여진 동명이다. 옛날에 우유는 손님을 위한 접대용이나 왕실에나 진상하던 귀한 음식이었기에 남산 계곡의 물을 곧잘 우유에 비유하였다.

남산골은 남산동이라고도 불렀는데 남산동1~3가부터 회현동2~3가에 걸쳐 있던



회현동3가의 관할구역 경계

마을로 남산 북쪽 기슭에 있으므로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예부터 가난한 선비와 청렴한 관원들이 살았는데, 조선 후기 왕의 잠행(潛行, 왕이 비밀리에 나들이하던 일)으로 종종 남산골 선비촌을 다녀오는 일들이 『조선왕조실록』이나 각종 문집에 기록되어 있다. 남산골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멀리 경복궁에까지 들릴 정도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옛날부터 이 일대에는 많은 서생들이 모여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선조 때 문장가 고옥(古玉) 정석(鄭碩), 인조 때 영의정을 역임한 이경여(李敬輿) 등이 이 지역에 살았으며, 남산골에 사는 허생이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아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쓴 『허생전(許生傳)』은 중세 국문학의 백미로 꼽힌다.

『허생전』을 지은 연대는 분명하지 않다. 박지원이 중국에 다녀온 것이 1780년(정조 4)이고, 『열하일기』를 다시 기술한 것이 1793년이므로 그 사이에 쓴 것으로 추정된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허생은 남산 아래 묵적골의 오막살이집에 살고 있었다. 그는 독서를 좋아하였으나 몹시 가난하였다. 아내가 싹바느질을 하여 살림을 꾸려나갔다. 굶주리다 못한 아내가 푸념을 하며 과거도 보지 않으면서 책은 무엇 때문에 읽으며, 장사 밑천이 없으면 도둑질이라도 못하느냐고 대든다. 허생은 책을 덮고 탄식하며 문을 나선다.

허생은 한양에서 제일 부자라는 변씨를 찾아가 돈 만 냥을 꾸어 가지고 안성에 내려가 과일장사를 하여 폭리를 얻는다. 그리고 제주도에 들어가 말총장사를 하여 많은 돈을 번다. 그 뒤에 어느 사공의 안내를 받아 무인도 하나를 얻었다.

허생은 변산에 있는 도둑들을 설득하여 각기 소 한 필, 여자 한 사람씩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무인도에 들어가 농사를 짓는다. 3년 동안 거두어들인 농산물을 흉년이 든 나가사키(長崎 장기)에 팔아 백만금을 얻게 된다.

그는 외부로 통행할 배를 불태우고 50만금은 바다에 던져버린 뒤 글 아는 사람을 가려 함께 본토로 돌아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남은 돈 십만금을 변씨에게 갚는다.

변씨로부터 허생의 이야기를 들은 이완(李浣)대장이 변씨를 데리고 허생을 찾는다. 이완이 나라에서 인재를 구하는 뜻을 이야기하자 허생은 “내가 와룡선생을 천거할 테니 임금께 아뢰어 삼고초려를 하게 할 수 있



연암 박지원의 허생전이 실려 있는 연암집

겠느냐?”, “종실의 딸들을 명나라 후손에게 시집보내고 훈척(勳戚) 귀가의 세력을 빼앗겠느냐?”, “우수한 자제들을 가려 머리를 깎고 호복을 입혀, 선비들은 유학하게 하고 소인들은 강남에 장사하게 하여 그들의 허실을 정탐하고 그곳의 호걸들과 결탁하여 천하를 뒤엎고 국치를 설욕할 계책을 꾸미겠느냐?”고 묻는다.

이완은 이 세 가지 물음에 모두 어렵다고 한다. 허생은 “나라의 신신(信臣)이라는 게 고작 이 꼴이냐!”고 분을 참지 못하여 칼을 찾아 찌르려 하니 이완은 달아난다. 이튿날에 이완이 다시 그를 찾아갔으나 이미 자취를 감추고 집은 비어 있었다.⁴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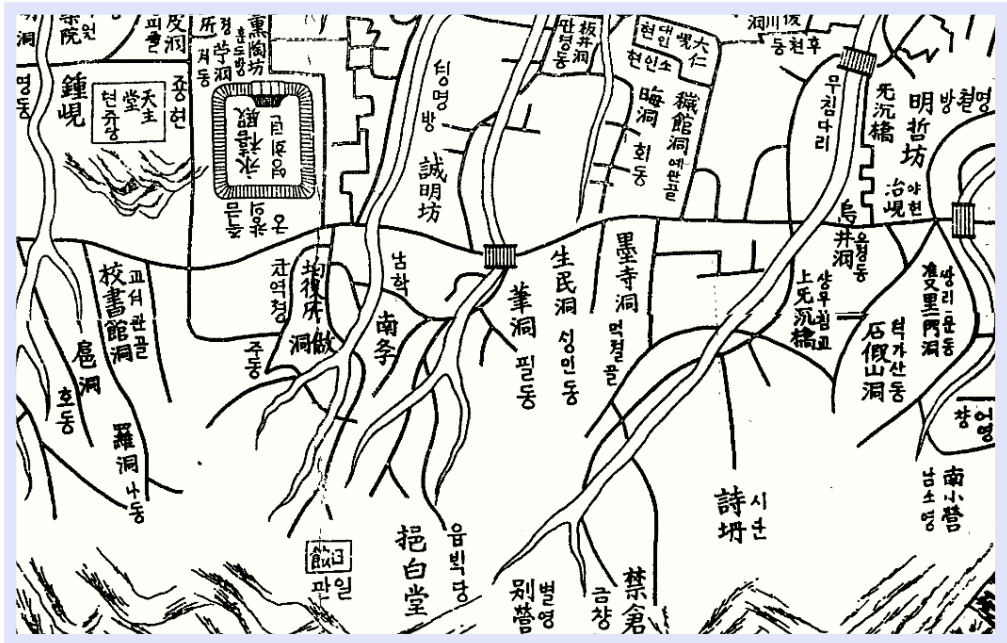
『허생전』은 지난날의 전기소설(傳奇小說)과는 달리 사회의 병리를 통찰하고 그 개혁안을 제시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을 실천할 열정을 지닌 이상주의자 허생을 창조하였다는 점에서 한국 소설사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제4장 필동 권역

중구의 15개 행정동 중 하나인 필동은 필동1~3가, 남학동, 주자동, 예장동, 충무로3가 등 법정동 7개 동과 장충동2가와 충무로4~5가 및 목정동 일부의 행정을 담당하는 관할구역 명칭이다. 2018년 기준 필동의 면적은 1.14km²이며 인구는 2,281세대 4,922명이 거주하고 있다.⁴⁹⁾

조선시대 필동은 한성부 5부 중 남부(南部) 사무소가 있어 부동(部洞)이라 하였는데 부동이 와전되어 붓골이라 했으며 붓골을 한자로 표기하여 필동(筆洞)이 되었다. 남학동은 조선 초 태조 때부터 설치된 사부학당의 하나인 남부학당, 즉 남학당이 있어서 남학골이라고도 한다. 주자동은 조선시대에 활자를 만들었던 관아인 주자소가 있었기에 유래된 것으로 효자·열녀가 많았던 곳으로 전해진다. 예장동은 조선시대 5군영 군사들이 무예를 연습하던 훈련장을 예장이라고 불렀던 것에 근거하였으며 무예장이 줄어서 예장이 된 것이다. 향간에는 이것이 왜장터·왜장(倭將)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나 왜장의 의미와는 관계없는 예장에서 따온 것이다.

195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 동 설치 조례에 의해 필동1가는 남학



1902년 발행된 「서울 지도」의 필동 부근

동, 주자동, 예장동, 충무로3가 지역과 함께 남산골의 이름을 따서 신설된 남곡동사무소의 관할로, 필동2가는 필동3가와 함께 동산골의 이름에서 나온 동원동의 관할이 되었다. 1975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981호에 의하여 필동1가, 필동2가, 필동3가, 주자동, 예장동을 통합하여 행정동인 필동을 신설하였고, 1977년 9월 1일에는 서울특별시조례 제1181호와 제1185호에 의하여 을지로3가동에 속해 있던 충무로3가를 필동으로 편입하였다. 1985년 9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2015호에 의해 장충동2가 192번지 일부를 필동으로 편입하였고, 1992년 1월 1일 중구 동사무소설치조례 제170호에 의하여 충무로4가 116, 125번지를 필동으로 편입하여 9개 법정동(필동1·2·3가동, 주자동, 남학동, 예장동, 충무로3가동, 장충동2가 일부, 충무로4가 일부)으로 구성하였다. 2001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조례 제548호에 따라 광희동 지역인 충무로4가와 5가, 장충동 지역인 묵정동 일부가 각각 필동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⁵⁰⁾

01. 필동1가筆洞一街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 서쪽 입구의 퇴계로 남북쪽에 위치한 필동1가(筆洞一街)는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훈도방(薰陶坊)에 속했던 곳이다. 일제 강점기 대화정1정목(大和町一丁目)으로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필동1가로 되었다.

필동의 명칭은 조선시대 한성부 5부 중 하나인 남부(南部) 사무소가 이곳에 있었으므로 부동(部洞)이라 했는데, 이와 발음이 같은 음을 빌려와 붓골이라 하였다. 그 후 부(部)의 음과 필(筆)의 훈이 같기 때문에 붓골을 필동으로 표기하였다. 예전에는 이곳 필동1가에서 시작하여 충무로3가를 지나 청계천으로 들어가는 필동천(筆洞川)이라는 개천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복개되어 찾아볼 수 없다.

필동1가는 동쪽으로 필동2가와 접하고 서쪽은 남학동에 접한다. 남쪽은 예장동과 마주하고 북쪽은 충무로3가와 접한 지역으로 동의 중앙으로 퇴계로가 관통하고 있다.

필동1가 21번지 영희초등학교 자리와 남학동 12~14번지 일대 전 남산세무서 자리에는 지금의 중등교육과정에 해당하는 4학의 하나인 남학당(南學堂)이 있었다. 남학당은 조선시대 한성에 설치된 사학(四學)의 하나로, 남부 성명방(誠明坊)에 있었던 중등교육기관이다. 조선시대 한성에는 고려시대의 학당제도를 계승하여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 등 각부마다 학당을 하나씩 두었는데, 남학당은 지금의 중구 필동1가에 설립된 남부의 학당이었다. 남학당 터는 그 남학당이 있던 곳으로 지금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88 일대에 해당한다.

조선 초기에는 한동안 5부 학당을 두었다가 1445년(세종 27) 북부학당이 폐지되어 4부학당이라 하였다. 4부학당은 독립



필동1가의 관찰구역 경계



김홍도의 「서당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적인 학교가 아니라 성균관에 예속된 부속 학교의 성격을 띤 학교로 성균관에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예비학교였다. 따라서 4부학당은 성균관에 비해 규모가 작고 교육 정도가 낮았으나 방법이나 내용은 유사하였다. 4부학당 초기에는 사찰을 빌려 쓰기도 했는데, 허조(許樞, 1369~1439)의 건의에 따라 남학당이 가장 먼저 자체 건물을 세웠고 이어 다른 학당들도 자체 건물을 갖게 되었다. 4부학당은 성균관에서 교관을 파견하고 학당의 잡무를 맡아보는 서리는 물론 노비까지도 배속해 주었다.

학생들의 성적은 학당에서 5일마다 시험을 치르고, 예조에서는 매월 학습한 내용을 평가하여 1년의 성적을 왕에게 보고하였다. 국가에서는 학생 교육을 위해 밭과 노비, 각종 물품 등을 내리고 서해안 여러 섬들의 어장(漁場)을 주어 그 세(稅)로 비용을 충당하게 하였다. 또한 기숙사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수용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였다. 4부학당에는 양인(良人) 이상의 8세 학동이면 입학할 수 있었고, 각 학당의 정원은 100명이었다. 학생들이 주로 배우는 교재는 소학(小學)과 사서(四書)였다. 학당제도는 유학을 진흥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고안된 독자적인 제도였다.

현재 중구 충무로역 4번 출구 앞에 1989년에 설치한 남학당 터 표지석이 있다. 일제 강점기에도 남학의 흔적은 남아 있어 깨진 기와조각이나 주춧돌을 발견할 수가 있었으나 1939년 조선총독부 고시 제757호로 소화통(昭和通, 퇴계로의 일제 강점기 명칭)이 개설되면서 일대가 정비되었고 6·25전쟁을 거치는 동안 충무로·명동 일대의 폭격으로 인해 폐허가 되다시피 하였다. 1952년에 퇴계로가 확장되면서 남학당의 흔적은 더는 찾기 어렵게 되었다.

도로변에 형성된 상가지구와 일반 주택가가 적절하게 배치된 필동1가 충무로역교차로 한편에는 매일경제(每日經濟) 신문사가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대한민국 서울에



충무로역교차로에 위치한 매일경제신문사

서 발행되는 종합경제지로 1966년 3월 24일 정진기(鄭進基) 사장이 창간하였다. 종합경제 일간지로는 한국경제와 아시아경제 등이 있다. 약칭으로 매경이라고 불린다. 사시(社是)는 “신의성실한 보도, 부의 균형화 실현, 기술개발의 선봉, 기업육성의 지침”이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0번에 소재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사는 신문업뿐만 아니라 자회사 등을 통해 유선방송 사업, 인터넷 사업, 출판업 등에 진출해 있다. 종합편성채널인 MBN 매일방송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가공인 경영경제 이해력시험인 ‘매경Test’를 주관한다. 자매지로서 경제 주간지인 매경이코노미 및 생활 정보지 시티 라이프가 있다.

한편 매일경제신문 창업주인 고(故) 정진기 언론인의 유지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1981년 9월 25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정진기언론문화재단에서 창의적인 과학기술연구와 경제·경영 관련 저술로 국민경제·산업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다. 시상식은 매년 7월 초에 있다.



필동2가의 관할구역 경계와 필동주민센터

02. 필동2가筆洞二街

지하철 3·4호선 충무로역 남동쪽, 퇴계로 남쪽 남산기슭에 위치한 필동2가(筆洞二街)는 조선 초기 한성부 남부 훈도방에 속했던 곳이다. 일제 강점기 대화정2정목(大和町二丁目)으로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필동2가로 되었다. 필동의 명칭은 조선시대 한성부 5부 중 하나인 남부 사무소가 이곳에 있었으므로 부동(部洞)이라 하였는데, 이와 발음이 같은 음을 빌려와 붓골이라 하였다. 부(部)의 음과 필(筆)의 훈이 서로 같기 때문에 붓골을 필동으로 표기하였다.

필동2가는 동쪽으로는 충무로5가와 필동3가에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예장동에 접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장충동2가와, 북쪽으로는 퇴계로를 사이에 두고 충무로4가와 필동1가에 접하며, 필동 지역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남산 자락에 위치한 까닭에 자연마을의 명칭도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이 많다.

먹절골은 필동2가 3번지에 묵사(墨寺)라는 절터가 있었기에 붙여진 지명으로 먹절골, 묵절골, 묵사동(墨寺洞), 묵동(墨洞)이라고도 불렸으며 묵정동(墨井洞)의 유래가

되었다. 동산말은 동산골이라고도 하며 먹절골 부근에 있던 마을로 동산이 있었으므로 동산말이라 하였다. 한자명으로 동산동(東山洞)이라 한다. 1955년 4월 18일 동제 실시 때 필동2가와 필동3가를 합하여 동원동(東園洞)이라 한 것도 이것에서 연유한 것이다. 찬샘골은 먹절골에 있던 마을로 매우 차가운 우물이 있어서 찬우물이라 했는데 한자명으로 찬신정동(巔新井洞)이라고도 한다. 팽나뭇골은 팽나무가 있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인데 한자명으로 팽목동(彭木洞)이라고 한다.

피란골은 이 지역 남쪽 골짜기에 피란사(披蘭寺)가 있었으므로 불렀던 지명으로 피란동(披蘭洞)이라 하기도 하였다. 피란사는 규모는 작지만 경치가 아름답고 신비하기 그지없어 마치 인간 세상이 아닌 곳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주는 곳이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피란사를 피안사(彼岸寺)라고도 불렀는데 인간이 사는 세상의 온갖 먼지와 잡다한 것에서부터 벗어난 절이라는 뜻이다. 뛰어난 승경(勝景)으로 인해 봄부터 겨울까지 철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⁵¹⁾

또한 필동2가는 귀록정(歸塵亭) 터·남별영(南別營) 터·노인정(老人亭) 터·팔송정(八松井) 등 남산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적지가 많은 곳이기도 하다.

귀록정 터는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조현명(趙顯命)의 정자가 있던 곳이다. 그는 평소 전원생활을 동경하면서 관직생활을 하였으므로 집 근처에 정자를 짓고 자신의 호를 따라 귀록정이라 했는데 옛글에 ‘사슴 수레를 함께 잡고 시골로 들어간다’는 뜻에서 인용한 것이라고 하며, 정자 밑에 푸른 끈으로 사슴을 매어 놓아 언제든 사슴이 끄는 수레를 타고 향리로 돌아갈 마음의 준비를 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남별영 터는 남산 아래 남부 낙선방에 있다고 했으니 이는 현재 ‘한국의 집’ 남쪽 필동2가 103번지에 해당되며 금위영(禁衛營)의 분영으로 군사 주둔지였다. 금위영은 어영청 등과 함께 궁성과 서울 수비를 위한 군영으로 경기 이남 수비병의 본영이었다. 남별영이 처음 설치된 것은 영조 때로 139칸 규모였다. 또 남별영 남쪽에 남창(南倉)이 있었는데 101칸이었고 북쪽에는 하남창(下南倉)이 104칸 있었다고 한다.

노인정은 남산 북쪽 기슭인 국립극장과 동국대학교 사이 주택가 134-2번지에 있었다. 정면 1칸, 측면 1칸으로 초석 위에 기둥과 낮은 마루를 설치하고 기둥 사이로 간단한 난간을 돌리고 사모지붕 위에 절병통을 올려놓은 소박한 정자였다. 노인정은



1900년경의 남산 노인정(국사편찬위원회 소장)

풍은부원군(豐恩府院君) 조만영(越萬永)이 세웠다. 그가 만년에 지었던 까닭에 교유하던 많은 사람들은 관직을 떠난 노인들로 이곳에 모여 한가한 시간을 보냈으므로 이러한 명칭이 생겼다. 정자 뒤 바위에는 ‘조씨노기(越氏老基)’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계곡과 숲이 좋아서 당시 명문가였던 풍양 조씨 고관들을 비롯하여 안동 김씨, 동래 정씨 문인 대관들이 모여 여가를 즐겼다. 철종, 고종 때 영의정을 지낸 경산(經山) 정원용(鄭元容)은 어느 여름날 여러 명사들과 함께 노인정에 초대받았는데 대접을 잘 받고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수목 푸른 그 사이 시냇물 잔잔한데
 공가(公暇) 틈탄 오늘 모임 운석옹(雲石翁)의 약속일세.
 아름다운 열매로 살구 매실 익었고
 화창한 음악소리 저 생황 어울리네.
 녹음 아래 바둑판에서 낙자(落子) 소리만 들리면
 흐뭇한 마음 피로를 잊고 좋은 인연 기뻐하네.⁵²⁾



남산골한옥마을의 가을 풍경(중구문화원 사진공모전 입상작)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원로들로 하여금 이 정자에서 한가한 모임만을 갖게 하지 않았다.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고종 31년(1894) 일제의 야욕은 조선에 대한 무력 간섭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일본 정부의 훈령을 받은 일본공사 오토리[大鳥圭介]는 5개 조항의 내정개혁안을 제시하고 만일 조선정부가 거부할 때는 대병력을 출동시켜 왕궁을 포위한 후 강제로 관철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 5개 조항이란 ① 중앙 및 지방제도를 개정하고 새로운 인물을 등용할 것 ② 재정을 정리하고 부원(富源)을 개발할 것 ③ 법률을 정돈하고 재판법을 개정할 것 ④ 민란을 진정시키고 안녕 유지에 필요한 병제를 설치할 것 ⑤ 교육제도를 확립할 것 등이었다. 6월 8일 오토리 공사는 신정희(申正熙), 김가진(金嘉鎭), 조인승(曹寅承) 등과 노인정에서 회담을 열고 개혁안을 강제로 관철시켰으므로 이를 ‘노인정 회담’이라 한다. 그러나 이 개혁안은 일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위하여 제시된 것이었기에 오히려 거센 저항을 받게 되었다. 이 정자는 일제 때에도 남아 있었으며 주인이 몇 번이나 바뀌어 총독부 소유가 되었고 그 후 불교부인회에서 사용하였으나 현존하지 않는다.

오늘날 필동2가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생활문화를 한 자리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한국의 집과 남산골한옥마을·서울남산국악당·서울천년타임캡슐광장 등을 아우르고 있는 남산골공원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이다. 남산골한옥마을은 서울시내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남산의 북동쪽 기슭에 전통문화 보존 및 체험공간으로 1998년 개관하였다. 전통가옥, 전통정원, 타임캡슐광장, 서울남산국악당 등이 조성된 이곳은 조선 후기 서울의 주거문화 및 전통예술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한국의 집’은 한국의 전통생활과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조성된 전통문화 체험공간 겸 복합문화공간으로서 한국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1957년 정부 공보실에서 개관했으며, 1981년 경복궁 자경전(慈慶殿)의 모습을 본떠 만든 전통 건축양식으로 전면 개축한 후 재개관했다. 주요 건물로는 해린관, 문향루, 녹음정, 청우정 등의 한옥 건축물이 있으며, 한국의 궁중문화를 체험하는 데 적절한 아름다운 한국미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03. 필동3가筆洞三街

퇴계로 남쪽, 동국대학교 서북쪽의 서애로와 필동로를 따라 위치한 필동3가(筆洞三街)는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훈도방에 속했던 곳으로 일제 강점기 대화정3정목(大和町三丁目)으로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필동3가로 되었다. 필동의 명칭은 조선시대 한성부 5부 중 하나인 남부 사무소가 이곳에 있었으므로 부동(部洞)이라 하였는데, 이와 발음이 같은 음을 빌려와 붓골이라 하였다. 부(部)의 음과 필(筆)의 훈이 서로 같기 때문에 붓골을 필동으로 표기하였다.

필동3가는 동남쪽은 장충동2가와, 서쪽은 필동2가와 접해 있으며 북쪽은 충무로5가와 묵정동에 접해 있는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지형이다. 전형적인 주택지구인 필동3가는 남산 중턱에서부터 시작한 경사면과 장충단공원의 서쪽에 위치하므로 도심이면서도 공기가 매우 깨끗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예전에 이곳 주변에 묵사(墨寺)라는

절이 있어서 필동2가·묵정동·충무로4~5가 등과 더불어 이 일대를 먹적골·먹절골·묵사동(墨寺洞)·묵동(墨洞) 등으로도 불렸다. 묵사에서 먹을 만들어 시전에 내다 팔았기 때문에 먹절이라 한데서 그 연유를 찾을 수 있다.

필동3가 동남쪽으로는 동국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1906년 불교계에서 동대문 밖 원흥사(元興寺)에 세운 명진학교(明進學校)가 전신으로, 교육을 통해 나라를 구하는 목표로 세워졌다. 1910년 불교사범학교, 1914년 불교고등학교, 1915년 중앙학림(中央學林)으로 개칭했으며, 1922년 3·1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일제에 의해 강제로 폐교되었다. 1922년 전국의 불교사찰에서 재산을 출자하여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을 설립하고, 1928년 불교전수학교로 다시 개교하여 1930년 중앙불교전문학교로 승격하였다. 이어 1940년 혜화(惠化)전문학교로 개칭했다가 1946년 동국대학으로 승격했다. 1953년 종합대학으로 개편하고 대학원과정을 신설했다.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6번 출구 방향의 중구 필동로1길 30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동국대학교 북문 부근 벽면에는 조선 중기의 관료이자 시인인 이안눌(李安訥, 1571~1637)의 집터임을 알리는 ‘동악선생시단(東岳先生詩壇)’ 마애각자가 있었다. 이곳은 동악(東岳) 이안눌(李安訥, 1571~1637)을 주축으로 당대의 문인들이 모여 시를 지으며 놀던 모임, 또는 그 장소를 말한다. 이안눌의 4대손인 이주진(李周鎭)이 동악선생시단을 기리기 위하여 모임이 열렸던 동원(東園) 마루턱 바위에 ‘동악선생시단(東岳先生詩壇)’이라는 글씨를 새겼다. 바위가 있던 곳은 중구 필동로 동국대학교 경내였다. 동원이 위치한 남산 자락은 서울을 내려다보는 신선의 고장으로 낙선방(樂善坊) 청학동(靑鶴洞)이라 불렸다. 이곳에 위치한 이안눌의 집에 당대의 문장가들이 드나들며 시를 통해 교류를 나누었던 것이다.



필동3가의 관할구역 경계



동악 이안눌 영정과 동악선생시단 표지석

이안눌과 더불어 시단에 참여한 인물은, 정철(鄭澈)의 제자였던 권필(權輶)을 비롯하여 이호민(李好閔), 홍서봉(洪瑞鳳), 이정구(李廷龜) 등 후대에 이름을 떨친 당대 최고의 문인이자 관료들이었다. 이들은 동원에서 시를 짓고 풍악을 즐겼는데, 그들이 모임을 가던 동원의 다락을 시루(詩樓)라 하고 그 단을 시단(詩壇)이라 불렀다. 동악선생시단에 관한 기록은 이안눌의 후손인 이석의 문집 『동강유고(桐江遺稿)』에 실린 ‘동원기(東園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원기는 남산 자락에 위치한 동원의 형세와 연혁 등에 대해 기술한 것으로 옛 선인들이 풍류를 즐기던 방식을 보여준다.

본래 동악선생시단 각자는 동국대학교 구내 계산관 앞 계산고시학사 뒤에 있었다. 1984년 동국대학교에서 고시학관을 지을 때 그대로 떠다가 학생회관 옆으로 옮기려 하였으나 심한 풍화로 쪼개지는 바람에 그 조각을 모아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다. 대신 바위글씨가 있던 곳에는 1987년 8월 표지석을 세워 기념하고 있다.

한편 동국대학교 내에는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된 숭정전(崇政殿)이 자리하고 있다. 1926년과 1976년 두 차례에 걸친 이진 과정을 거쳐 현재 동국대



동국대학교 내 정각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희궁 송정전

학교 정각원(正覺院)으로 사용되고 있는 송정전은 광해군 때 지어진 경희궁의 정전(正殿)으로서 왕이 대소 신료들의 하례를 받던 곳이다. 경희궁이 철거되던 1926년에 남산 기슭의 조계사로 이전하였다. 이때 현재와 같은 사찰 형태로 변형되었으며, 광복 후 동국대학교가 들어서자 1976년 9월 현재의 위치로 다시 옮기게 되었다.

건물은 팔작지붕 겹처마 형식으로 이건 과정 중 어좌(御座)를 없애고 대신 불단을 설치하였다. 내부 천장은 우물반자(가로세로 정사각형의 나무틀)를 꾸며 화려한 용(龍)무늬 단청을 그렸고, 건물 정면의 내부 천장에는 송정전 현판이 걸려 있다. 건물 앞에 놓인 계단 역시 다른 궁의 정전과 같이 삼도(三道)로 꾸며 중앙에는 봉황 1쌍을 양각하여 장식했다. 팔작지붕의 용마루에는 양쪽에서 회반죽을 발라 양성을 했다. 지붕 용마루의 양쪽 끝에 취두(鷲頭)를, 내림마루 끝에는 용두(龍頭)를, 추녀마루에는 잡상(雜像)들을 얹어 이 건물이 궁궐 건물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하였다. 경희궁의 100여 채 건물들은 일제 강점기 이후 훼손과 이전을 거치며 여러 차례 개조되었다. 조선 중기 궁궐 건축양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04. 남학동南學洞

지하철 4호선 명동역 방향의 퇴계로 지하차도 입구 남쪽에 위치한 남학동(南學洞)은 조선시대 초기부터 한성부 남부 성명방(誠明坊)과 훈도방(薰陶坊)에 속했던 지역이다. 일제 강점기에 일지출정(日之出町)으로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남학동이 되었다.

남학동은 동쪽으로 필동1가, 남쪽으로 예장동에 접해 있으며, 서쪽은 퇴계로26길을 사이에 두고 주자동과 마주보며, 북쪽으로는 퇴계로를 가운데 두고 충무로3가와 잇닿아 있다. 인근에 조선시대 개국 이념인 유학을 교육시키기 위해 설치된 사부학당(四部學堂)의 하나인 남부학당, 즉 남학당(南學堂)이 있었기 때문에 남학동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남학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 남학당은 성균관에 예속된 부속학교로 성균관에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준비학교였다. 초기에는 건물이 없어 사찰의 방을 빌려 썼다가 1411년(태종 11) 처음으로 한성부 남부 성명방에 남부학당을 건립했다. 그 후 1418년(세종 1) 개성에 있던 폐사의 목재와 기와를 뜯어와 남부학당의 동서재(東西齋)를 증축하고, 1422년(세종 4)에 중부학당(종로구 중학동), 1424년에 동부학당(동대문 인근)과 서부학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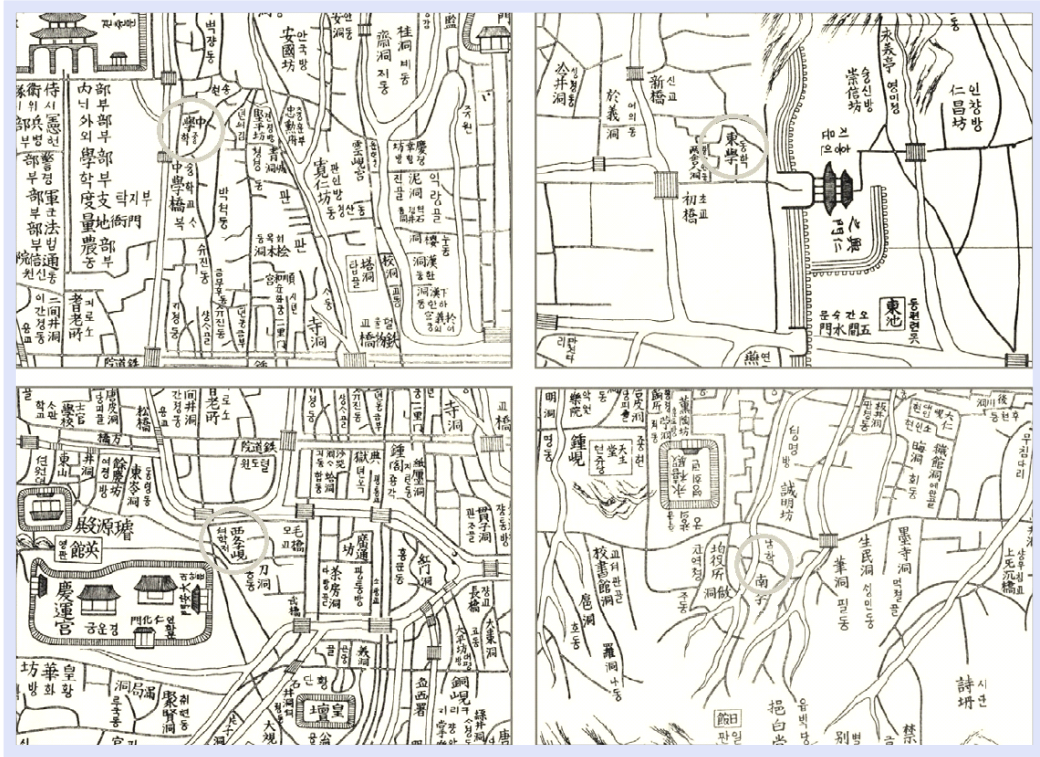
(종로구 신문로)을 차례로 지었다.

남학당은 성균관을 축소한 형태로 명륜당(明倫堂)이 있고 좌우에 동서재가 있었으나 문묘(文廟)만은 없었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전란이 끝난 후 재건되었다. 그러나 쇠퇴일로로 걸어 정원이 5명으로 격감되었다고 전해진다.

균역청(均役廳) 터는 조선 후기 균역법 실시에 따른 제반 업무를 맡아보던 균역청이 있던 곳으로, 지금의 중구 퇴계로 173 일대에 해당한다. 1751년(영조 27) 균역



남학동의 관할구역 경계



1902년 발행된 「서울 지도」에 표시된 사부학당의 위치

법을 시행하게 되면서 매년 2필씩 내던 베가 1필로 줄어들어 부족해지는 재정을 어염세(魚鹽稅)·선세(船稅)를 비롯하여 군역(軍役) 대상자들로부터 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를 거둬 충당하게 하고, 또 토지대장에서 누락된 은루결(隱漏結)에 세금을 부과하여 보충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확보된 세금을 각급 관청에 지급하게 하였는데, 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설립한 관청이 군역청이었다. 군역청은 줄여서 군청(均廳)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군역법을 실시함으로써 영조는 양민들의 부담이 반감되어 종래까지 왕권(王權)을 견제하던 신권(臣權)을 억누르는 계기를 만들고 국가 재정의 균형을 바로잡게 되었다. 그러나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1753년(영조 29) 군역청은 선혜청(宣惠廳)에 통합되었다.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 당시 급료를 받지 못한 구식 군인들이 선혜청 당상 민겸호(閔謙鎬)의 집을 습격하고, 선혜청 창고로 사용되던 옛 군역청에 몰려들어 쌀

여 있던 곡식을 나누어 가지기도 하였다. 균역청이 있던 곳에 이후 일본인 거류지가 형성되면서, 일본인 학교인 일출소학교(日出小學校)가 국유지에 세워졌다. 이 학교는 광복 후 일신국민학교로 변경되었다가, 1973년 학생 수의 감소로 폐교하였다. 일신국민학교가 있던 곳에는 현재 남산스퀘어빌딩이 서 있는데, 빌딩 앞 화단에 1986년에 설치한 균역청 터 표지석이 있다. 한편 현재 남학동 13-2번지에는 호텔이 서 있는데 일제 강점기에 한국에 살았던 일본인 거류민이나 그들의 2세가 방한하면 즐겨 투숙하는 곳이다. 구 일신초등학교 부지에는 현재 중부세무서가 위치하고 있다.

균역청과 남학당이 있었던 역사적인 장소로 기억되는 남학동은 북쪽으로 퇴계로, 서쪽에 퇴계로26길, 서남쪽으로 남산1호터널이 지나가는 사통팔달한 교통망을 갖고 있지만 도로변의 대부분은 상업·업무중심지를 형성하고 주택가는 대로에서 들어간 안쪽에 자리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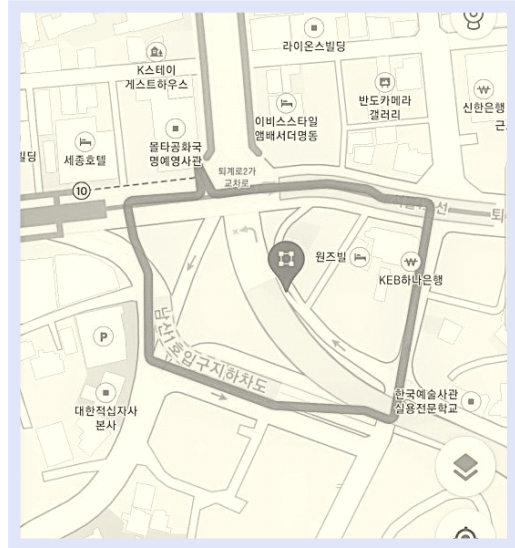
05. 주자동鑄字洞

퇴계로 지하철도 남쪽, 삼일대로 좌우에 위치한 주자동(鑄字洞)은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훈도방에 속하는 곳이었다. 일제 강점기 주정(鑄町)으로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중구 주자동이 되었다.

주자동은 북으로 퇴계로를 사이에 두고 충무로2가와 마주보며, 동쪽은 남학동과 접해 있다. 남쪽은 예장동, 서쪽은 남산동3가와 접해 있는데 삼일대로, 퇴계로, 소파로가 서로 만나서 교차로를 형성하는 지역이므로 동 면적의 대부분이 도로와 녹지공간, 주차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주 면적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처럼 동의 거주면적이 축소된 것은 퇴계로의 확장을 비롯하여 여러 곳으로 진출입하는 도로들이 생겨났기 때문인데 서울 시내 전역에서 도로 면적에 비해 가장 복잡하고 차량의 유동량이 많은 곳 중 하나이기도 하다.

주자동의 동명은 이곳에 조선시대에 주자소(鑄字所)라는 관아가 있어서 주자골이라 부른 데서 유래되었다. 주자소는 조선시대에 활자를 만들던 관아였는데 1403년

(태종 3) 왕명에 의하여 주자소를 설치하고 승정원(承政院,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던 관청)에 소속시켰다. 1405년(태종 5)에 한양으로 다시 천도하면서 이곳 주자동에 주자소를 두었는데 1435년(세종17)에는 주자소를 경복궁 안으로 옮겼다가 궁중에서 활자 주조가 어려우므로 1460년(세조 6)에 교서관(校書館)에 병합시켰다. 그 뒤 1794년(정조 18)에 다시 설치되어 교서관과 분리되어 규장각과 함께 활자 간행기관으로 존속하였다.



주자동의 관할구역 경계

주자동에는 교서관과 주자소가 있었으므로 이와 관련한 지명이 남아 있다. 지금은 도로로 편입된 옛 주자동 5번지에 다리가 있었는데, 주자교(鑄字橋), 주자골다리 혹은 주자동교(鑄字洞橋)라 불렀는데 바로 앞에 주자소가 있었으므로 이름이 붙여졌다.

1621년(광해군 13)에 권희(權喜)가 편찬한 한성부 남부 훈도방(薰陶坊) 주자동의 지지(地志)인 『훈도방주자동지(薰陶坊鑄字洞志)』에 의하면 주자동은 기묘·을사사화 때 충절이 높았던 인물들이 많았고, 여씨향약(呂氏鄉約, 중국 북송 때 향촌을 교화선도하기 위해 만들었던 자치 규약)이 두루 행해졌던 곳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밀창부원군(密昌府院君) 박승종(朴承宗)의 서문으로 시작하는데, 이 지역에 예부터 공명을 탐하거나 이익을 쫓는 사람들이 살지 않고 서책을 인쇄하는 공인들과 독서를 업으로 하는 사대부들이 살아온 곳이라는 자부심이 담겨 있다. 또한 어려울 때 서로 돕고 부자와 빈자가 서로 위하는 기풍이 서려 있어서 효자와 충신을 배출한 곳으로, 기묘사화(己卯士禍)와 을사사화(乙巳士禍)에 걸쳐 충효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음을 칭송하였다.

본문은 공관(公館)·고적(古跡)·풍속(風俗)·효자(孝子)·절부(節婦)·명환(名宦)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관」은 교서관의 업무와 관원의 구성을 적은 것인데, 주자동이라는 이름이 교서관이 자리한 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연혁 대신 서두에 들어간

것이다. 「고적」에는 국사당 근처 암석 밑에 있는 성재정(聖齋井), 매년 봄·가을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 강신하는 강신대(講信臺), 탑현(塔峴), 어수정(御水井), 폭포(瀑布)가 기록되어 있다. 「풍속」에는 풍속이 순하고 두터워 혼례나 상례시에는 서로 돕는데, 이는 계현에 따른다고 기록되어 있다. 「효자」에는 편자의 부친인 권상(權常) 관련 내용이 3장에 걸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뒤이어 순천군(順川君) 관(琯), 이영운(李榮胤), 서상남(徐尙男)과 천민인 조명중(趙命仲)의 전기가 소개되어 있다. 「절부」에는 사인 권규(權規)의 아내 유씨, 그리고 말금, 의정부에 소속된 계집종이었던 세옥이 소개되어 있다.

본문의 중심인 「명환」은 주자동에 살았던 주요 인물들의 약력을 정리하였으며, 구택의 소재를 아는 경우 이를 말미에 부기하였다. 명환에 소개된 인물은 문성공 안유(安裕)의 6대손인 안종약(安從約)과 그의 증손인 안호(安瑚)·안침(安琛) 형제, 영의정을 지낸 창녕부원군 조석문(曹錫文), 양촌 권근(權近)의 손자인 권람(權覽)과 권람의 아들 권건(權健), 기묘명현(己卯名賢)인 중남수(終南守), 기준(奇遵), 박세희(朴世熹), 정응(鄭應), 조우(趙佑), 안향의 후손인 안정(安珽), 김익(金弼), 채세영(蔡世英) 등 8인, 이현보(李賢輔), 정황(丁煥), 권응창(權應昌), 퇴계 이황의 형인 이해(李滢), 유진동(柳辰全), 정세호(鄭世虎), 이지번(李之蕃)과 그의 아들 이산해(李山海), 박충원(朴忠

元), 박계현(朴啓賢), 황림(黃琳), 김충갑(金忠甲), 권준(權準), 권수(權燧), 정숙하(鄭淑夏), 권협(權俠), 김시민(金時敏), 경섬(慶暹), 권흔(權昕) 등 도합 42명이다.

책의 말미에는 편찬 목적을 따로 기록한 김치(金緻)의 발문이 실려 있다.⁵³⁾



1621년 권희가 편찬한 『훈도방주자동지』

06. 예장동藝場洞

소파로와 남산1호터널 진입로 사이에서 남산 정상에 이르는 넓은 지역인 예장동(藝場洞)은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훈도방(薰陶坊)과 성명방(誠明坊) 일부에 속했던 곳이다. 일제 강점기 왜성대정(倭城臺町)이라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예장동이 되었다.

예장동이란 동명은 이곳에 조선시대 5군영 군사들이 무예를 연습하는 훈련장인 ‘예장(藝場)’이 있었고 예전 이 일대를 예장골이라 부른 데서 유래되었다. 일설에는 이곳을 임진왜란 당시 왜장터·왜장(倭將)이라고 불려왔기 때문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나, 사실 왜장의 의미와는 관계없는 예장에서 따온 것이다.

예장동은 동으로 필동2가 및 장충동2가와 접하며 남쪽은 중구와 경계선을 마주하는 용산구와 접해 있다. 서쪽은 회현동1가, 남산동2~3가와 맞닿아 있고 북쪽은 주자동, 남학동, 필동1가로 에워싸여 있으며 남산공원이 대부분 동 면적을 차지한다.

서울의 중심인 남산 정상에서 북쪽 능선으로 이어지는 지점에 위치한 예장동은 조선시대에는 자연 경관이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찾던 곳이고 지금은 자연학습장으로 단장되어 서울 시가지 안에서도 야생 조류가 서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동한가운데를 동서로 남산공원길이 지나고 서쪽 남산동2가 및 남산동3가의 경계지점으로는 소파길이 지나기도 하며 서울에서 가장 표고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시대 남산 북쪽 계곡은 특히 붉은 복사꽃과 푸른 숲으로 어우러져 경치가 아름다웠는데, 이 때문에 무릉도원(武陵桃源)으로 부르는 사람이 많았으며 이곳으로 찾아와 시를 읊고 야유회를 즐겼던 장소로도 유명하다. 더구나 계곡을 끼고 굽이쳐 흐르는 개울은 차고 거울같이 맑아서 신선이



예장동의 관할구역 경계



남산 팔각정 앞에서 펼쳐지는 전통 무예 공연(중구문화원 사진공모전 입상작)

목욕하는 곳이라 하였으며 신선을 태운 푸른 학이 찾아온다 하여 청학동(靑鶴洞)이라 부르기도 했다. 한양의 경치 좋은 곳으로 첫째 삼청동, 둘째 인왕동, 셋째 쌍계동, 넷째 백운동, 다섯째 청학동을 꼽았다고 한다.

개항 이후 일본인들이 들어와 남산 아래에 많이 정착하였다. 현재 예장동 2-1번지 남산1호터널 입구 근처가 구 일본공사관이 있었던 터이다. 당시 일본공사관 건물은 통감관저·총독관저로도 사용되었다. 또한 남산 팔각정이 위치한 곳에는 본래 국사당(國師堂)이 있었다. 이곳은 매년 봄과 가을에 초제(醺祭)를 지내던 곳이었으나, 일제강점기인 1925년 조선신궁(朝鮮神宮)이 세워지면서 헐려 버렸다. 그 현판과 사당의 일부는 인왕산 서쪽 기슭 선바위 아래로 옮겨졌다.

국사당 북쪽 골짜기 예장동 산 5-6번지에는 서울시 민속자료 제5호로 지정된 와룡묘(臥龍廟)가 있다. 이곳에는 중국 삼국시대에 유비 현덕을 도와 촉한(蜀漢)을 세운 제갈공명(諸葛孔明)을 봉안하였다. 남산의 동서 능선 위에는 사적 제10호로 지정된

서울성곽이 쌓아져 있다. 또 남산공원 정상의 한복판에는 N서울타워가 있다. 이 타워는 남산의 본래 높이인 해발 243m에 탑의 높이 236.7m가 더해져 총 479.7m의 높이를 자랑하는데, 1969년 12월 착공하여 6년 만에 완공하였다. N서울타워 아래 광장에는 중앙일보 창간 20주년 기념사업으로 묻은 ‘85 타임캡슐’이 있다. 1985년 9월 22일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릴 수 있는 물건과 기록 등 466점을 캡슐에 담아 500년 후인 2485년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남산1호터널(위)과 소파로에 위치한 숭의여자대학교(아래)

예장동의 대부분 지역은 남산공원의 일부이다. 남산공원에는 남산 팔각정을 비롯하여 남산봉수대·와룡묘·서울성곽 등의 문화유적과, N서울타워·85 타임캡슐·남산케이블카 등의 관광 명소가 있다. 남산의 정상 부근에는 5개의 봉수대가 있었다. 봉수대는 불이나 연기로 먼 곳에 신호를 보냄으로써 변경의 긴급한 상태를 중앙이나 변경의 기지에 알리는 군사 목적의 통신시설이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 정도 600년을 맞아 1993년 9월, 32평 면적의 단에 연기와 불을 올리는 3.2m 높이 연두 5개의 남산봉수대를 복원하였다.

한편 남산1호터널은 예장동에서 용산구 한남동을 관통하는 길이 1,530m, 너비 10.8m의 터널로서 충무로 및 을지로와 용산구 한남동, 제3한강교, 강남대로,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이다. 1994년에 쌍굴 터널 공사가 완공되었다. 이밖에도 예장동에는 서울소방재난본부, tbs교통방송, 숭의여자대학교,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등이 위치하고 있다.

07. 충무로3가忠武路三街

남산스퀘어빌딩(구 극동빌딩) 북쪽, 수표로와 충무로 사이에 위치한 충무로3가(忠武路三街)는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훈도방(薰陶坊)에 속했던 곳이다. 일제 강점기 본정3정목(本町三丁目)으로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충무로3가로 되었다. 충무로의 동명은 임진왜란 당시 왜적을 물리치고 우리 국가와 민족을 구한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 장군의 시호를 따른 데서 비롯되었다.

충무로3가는 동쪽으로 인현동1가와 충무로4가와 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퇴계로를 사이에 두고 남학동, 필동1가와 마주보고 있다. 서쪽은 수표로를 경계로 하여 충무로2가와 마주 보며, 북쪽에는 초동 및 저동2가가 위치해 있다.

충무로3가 지역에 있던 자연마을 명칭으로는 궁텃골과 초전골이 있다. 궁텃골은 초동, 충무로3가, 저동2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저동2가에 영희전(永禧殿)이 있었으므로 그 이름이 유래되었고 한자명으로는 궁기동(宮基洞)이라고 하였다. 초전(草廛)골은 초동, 충무로3가, 을지로3가에 걸쳐 있던 마을인데 이곳에 있는 우물의 물맛이 맵고 톡 쏘는 것이 마치 후추를 탄 것 같다 하여 후추우물이라 불렀으며 이를 한자로 표기



충무로3가의 관할구역 경계

하면 초정(椒井)이었으므로 초정골, 초정우물골이라 했는데 나중에 음이 변하여 초전골이 되었다. 한자로는 초동(草洞)이라 하는데 후추우물은 위장병에 특효라 하여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우물을 애용해 왔으나 1906년 충무로2가의 이현(泥岬, 진고개)을 8척 가량 파내고 높이 5척이나 되는 방주형 수명(독이나 방축 따위의 밑으로 뚫어 놓은 구멍)을 묻고 난 다음부터는 물빛이 흐려지고 맛도 보통 물처럼 되어 효능이 없어졌다 한다.

조선 후기 충무로3가 지역에는 균역청(均役廳)이 있었다. 1750년(영조 26)에 창설된 균역청은 병역세(兵役稅)를 관장하던 관청이었다. 영조는 균역청을 설치하여 양민들이 군포 2필을 세금으로 바치던 것을 1필로 감해 그 부담을 덜어주었다.

균역청 자리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거류민 집단지역이었다가 국유지로 편입되면서 그들의 2세 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일출소학교(日出小學校)가 설립되었다. 학교는 광복 후 일신국민학교로 교명이 개칭되었는데 학생 수의 감소와 퇴계로 일대의 확장 등으로 인해 폐교되면서 재개발되어 업무용 빌딩이 건립되었다. 충무로3가 지역의 대표적인 건물로는 옛 극동빌딩 자리에 들어선 남산스퀘어빌딩을 들 수 있다. 이 일대는 본래 남학동 지역이었으나 동 경계의 조정으로 충무로3가에 편입되었다.

한편 충무로2가를 관통하는 지천으로 주자동천(鑄字洞川)이 있었다. 예장동 남산1호터널 부근에서 발원하여 청계천으로 흘러드는 지천인 주자동천은 발원지에서부터 북쪽으로 흘러 남산스퀘어빌딩 동쪽을 따라 흐르다가 을지로3가역을 지나 세운상가 부근에서 청계천과 합류하였다. 주자동교(鑄字洞橋)는 주자동천에 놓였던 다리이다.



균역청 터에 자리한 남산스퀘어 빌딩(옛 극동빌딩)

지금은 모두 복개되어 그 흔적을 찾기 어렵다. 주자동은 퇴계로 남쪽의 남산으로 오르는 갈래 길에 있으며, 예장동·남산동 등과 접한 지역이다. 조선시대에 활자를 만들고 서적을 찍어내던 주자소(鑄字所)가 있던 곳이어서 주자동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때문에 주자동교(鑄字洞橋)는 주자골다리라고도 불렸으며, 인근에 남부 관아가 있다고 하여 붓동교라고도 하였다. 주자동천은 주자동하류(鑄字洞下流), 주자동천수(鑄字洞川水) 등으로도 불렸다.

충무로3가를 비롯한 이 일대는 개항 이후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곳으로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충무로를 중심으로 명동과 진고개 일대에 일본인 상권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 일본인들이 물러간 이후에도 여전히 상업 중심지가 되었고 광복과 함께 문인·영화인의 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일제 때부터 일본인을 위한 영화관이 설립되어 있었던 까닭에 광복 이후에도 이곳은 영화의 거리로 한동안 명맥이 지속되었다. 특히 2000년대 초까지 많은 영화사가 운집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에게 충무로가 ‘영화제작의 중심지’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충무로 일대는 영화산업의 변화 등으로 침체기에 들어섰다. 이에 서울시 중구에서는 충무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영화축제 이벤트와 중구의 관광 명소를 잇는 관광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충무로 영화의 거리 축제’와 ‘충무로 국제영화제’이다. 충무로 영화거리는 충무로를 중심으로 한 영화의 거리, 한류스타의 거리를 이어 명동까지 연결하는 루트의 시작점이다. ‘충무로 영화의 거리 축제’는 2004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한국영화 테마전시회 및 축하공연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진행되었다.

제5장 장충동 권역

장충동은 장충동1가, 장충동2가, 묵정동 일부 등 3개 법정동의 행정을 담당하는 관할구역 명칭이다. 2018년 기준 장충동의 면적은 1.36㎢이며 인구는 2,661세대에 5,606명이 거주하고 있다.⁵⁴⁾ 동의 이름은 부근에 있던 장충단에서 따온 것이다.

1900년 설치된 장충단은 을미사변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 열사를 기리는 제를 지내던 곳으로 오늘날의 국립 현충원과 같은 성격을 지닌 곳이다. 1946년 10월 1일 일본식 동 이름을 유서 깊은 우리 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 지역 일대가 장충동으로 이름 지어졌다. 묵정동은 먹절골이라는 마을 이름에서 비롯되는데 이 먹절골은 지금의 묵정동, 충무로4~5가, 필동2~3가에 걸쳐 있던 지역이다. 오래 전 이 일대는 먹절 혹은 묵사로 부르던 절이 있어서 먹절골 혹은 먹적골, 묵동(墨洞), 묵사동 등으로 불렸다. 먹절골에는 또 매우 깊어 늘 시커멓게 보이는 우물이 있었는데 먹절골의 감정우물이 있는 곳이라는 뜻에서 묵정동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

현재의 장충동 일대는 조선 초기에는 한성부 5부 52방 중 남부 명철방이 있던 곳이다. 그러다가 일제 강점기 때 장충동1가 지역은 동사현정(東四輯町), 장충동2가 지



장충동1가의 관할구역 경계와 장충동주민센터

역은 서사현정(西四軒町)이 설치되었고, 광복 후 1946년 10월 장충동1가동회와 장충동2가동회로 바뀌어 각각 장충동1가·2가 지역의 행정을, 묵정동은 1947년 말에 묵정동회가 설치되어 각각 그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였다.

195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 동설치조례에 의한 행정동제 실시로 각각 장충동1가동, 장충동2가동이 되었고, 묵정동은 충무로5가와 함께 야현동의 관할에 편입되었다. 1980년 7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1413호 동사무소설치조례에 의해 충무로4·5가동의 관할구역 일부가 장충동으로 편입 조정될 때 묵정동 일부가 장충동 관할이 되었고, 1985년 9월 1일 장충동 관할에 묵정동이 편입되면서 장충동 관할구역은 장충동1가, 장충동2가, 묵정동이 포함되어 오늘에 이른다.⁵⁵⁾

01. 장충동1가 獎忠洞一街

광희동사거리에서 장충체육관 앞 교차로에 이르는 장충단로 동쪽,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북동쪽 일대에 위치한 장충동1가(獎忠洞一街)의 동명은 이곳 남쪽에 있던

장충단(獎忠壇)의 이름을 따서 제정한 것이다. 장충동1가는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명철방(明哲坊)에 속하였고 일제 강점기 동사현정(東西輯町)으로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에 중구 장충동1가로 되었다.

장충동1가는 동으로 신당동, 남쪽과 서쪽에 장충동2가가 위치하며 북쪽으로 광희동2가와 접하고 있다. 장충단로와 동호로가 동의 서쪽과 남쪽을 지나며 이웃 동과의 경계 역할을 하는데 도로 연변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많은 주택이 밀집해 있다. 일찍부터 일본인이 거주했던 지역적 특성으로 아직도 일제식 건물구조를 지닌 가옥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예전에 이곳과 신당동에 걸쳐서 숲벌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숲이 많은 벌판이어서 숲벌이라 불렀으며, 한자명으로 수평리(蓆坪里)라고 하였다. 지금은 숲 대신 주택과 빌딩이 밀집해 있다. 또한 지금의 장충동1가에서 광희동2가에 걸쳐 지레목골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신당동 쪽으로 가는 길에 산줄기가 끊어져 가로질러 가는 길목이 있었는데, 이처럼 지레목골이란 산줄기가 끊어진 곳이라는 의미이며 한자명으로는 그 음을 따라 지례동(知禮洞)이라 하였다.

장충단은 1895년 을미사변 당시 순직한 궁내부대신 이경직(李耕植)과 훈련대장 홍계훈(洪啓薰) 이하 장병들과 임오군란, 갑신정변 당시 순국한 장병들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내던 제단이다. 장충단 터는 그 장충단이 있던 곳으로 지금의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57-10 일대에 해당한다. 1900년 원수부(元帥府)는 어영청(御營廳)의 분원인 남소영(南小營)이 있던 자리에 단을 설치하였고, 고종이 장충단이라 명명하였다. 이듬해인 1901년, 육군법원장 백성기(白性基)의 상소로 임오군란, 갑신정변, 을미사변에서 순직한 여타 장병들을 함께 제향하게 되었다.

장충단은 현재 장충단비가 있는 곳에서 국립극장까지 아우르는 넓은 공간이며, 제단을 비롯해 상당히 많은 시설과 부속건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주 건물인 장충단 제단은 현 신라호텔 자리에 건설되었고, 부속건물들은 현 장충단공원 자리에 건설되었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제가 1908년부터 대한제국 정부에 장충단에서 지내는 제사를 중단하도록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권피탈 후에는 장충단 비석을 파내어 숲속에 버리고, 사전(祀典)과 부속건물을 폐쇄하였다. 1919년 일제는 장충단과 동대문 근처의 훈련원(訓練院) 터를 묶어 공원운동장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장충단공원의 과거와 현재

그해 6월에 공원을 개원하였다.

광복 직후 장충단 터에 일제가 세웠던 건물과 기념비들은 모두 철거되고, 1956년 동작동 국립묘지가 조성되기 전까지 국립묘지로 사용되었다. 이후 장충단 일대에 장충체육관, 영빈관, 신라호텔, 자유센터, 타워호텔, 국립극장, 재향군인회관 등이 들어섰다. 다만 장충단 비석만이 현 남산공원 수표교 서쪽에 다시 세워져 그 영욕의 세월을 증거한다. 1988년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청에서는 매년 9월에서 10월에 장충단 제향을 이어가고 있다.

장충동1가 35번지에는 관운장(關雲將)을 모시는 성제묘(聖帝廟)가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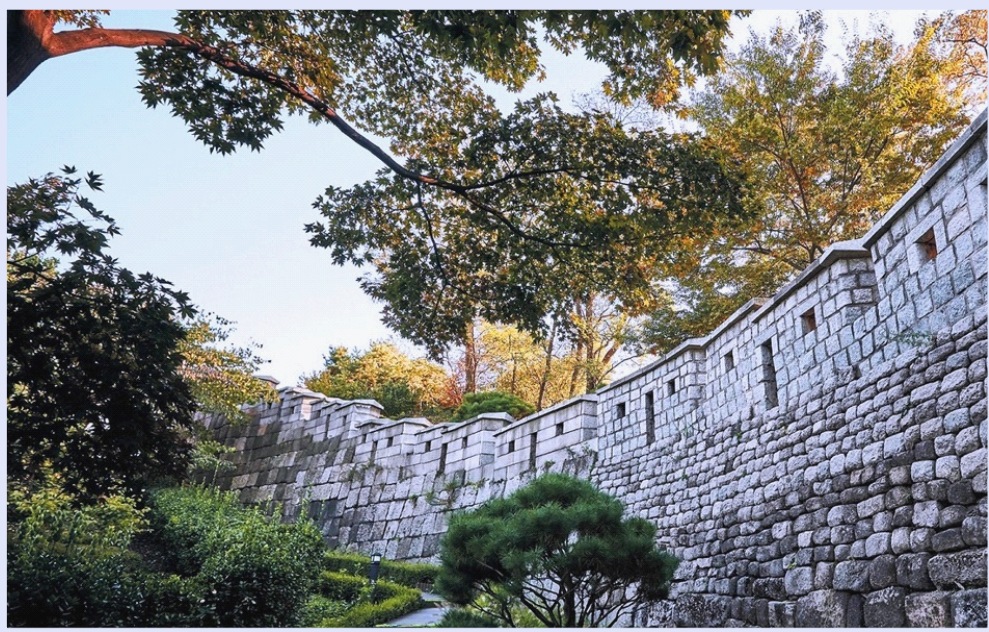
매년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낸다. 관우(關羽)를 모시는 신앙은 임진왜란에 참전한 명나라 군대에 의해 전래되었으며, 이는 전란의 고난 속에서 군사를 지켜주는 무장(武將)의 존재가 신앙의 대상으로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가와 민간 모두 관우를 모시는 관왕묘(關王廟)를 건립하기 시작하는데, 그 무렵 서울 도성에는 관우를 모시는 사묘(祠廟)가 동묘(東廟)·서묘(西廟)·중묘(中廟)·남묘(南廟)·북묘(北廟)로 분포되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중 동묘와 남묘는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묘였고, 중묘와 북묘, 서묘는 민간에서 모시던 것이다. 장충동1가에 있었던 관왕묘는 민간에서 모시던 것이었다.

관왕묘에 대한 제례의식은 영조에서 정조 연간에 이르며 더욱 높아져서 갖가지 제례의식이 정비되었고, 대한제국 선포 이후인 1901년부터는 관왕묘가 관제묘로 격상되기에 이르렀다. 이 무렵 이곳 관왕묘도 성제묘(聖帝廟)로 격상되었다. 그러나 1908년 관왕묘에 대해 나라에서 제사를 올리는 것이 철폐됨에 따라 이후 관우를 모시는

신양은 민간으로 국한되었다. 성제묘는 1972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며, 현재도 민간에 의해 제사가 거행되고 있다.

장충동1가 91주택은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문화주택으로 장충체육관 맞은편 언덕의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1,408.3㎡의 대지에 지어진 석조주택이다. 1930년대 일본인의 주거문제 해결과 서울의 인구과밀을 해결하기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장충동 일대에 문화주택지구가 조성되었다. 장충동1가 91주택은 일제 강점기 서울의 대표적인 상류층 주택으로, 다른 문화주택과 달리 넓은 대지에 석재를 주 자재로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문화주택은 서구식 외관과 공간 구조를 갖춘 주택으로, 전통주택과 달리 수도와 난방 등 근대적 시설을 갖춰 생활의 편리성이 보장되어 큰 인기를 끌었다. 1920년대부터 일부 도입되기 시작한 문화주택은 1930년대 중반부터는 대규모 문화주택 단지의 조성과 함께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장충동과 신당동이 대표적인 문화주택 단지였으며, 문화주택은 광복 이후에도 낙후된 취락구조 개선을 위한 모델



장충동 지역의 서울성곽 길

로 제시되었다. 아울러 이 건물은 아울러 초창기 문화주택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어서 서울의 주거 문화사의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이다.

장충동1가 동쪽, 신당동과의 경계지점은 서울성곽이 쌓였던 곳으로 일제 강점기에는 많은 일본인이 거주하면서 심하게 훼손되었고, 광복 이후 6·25전쟁을 거치고 일반주택들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옛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한편 장충체육관에서 옛 동대문운동장 방향으로 300m 정도에 걸쳐 장충동 족발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중구 장충단로 일대를 일컫는 이 거리는 중구의 먹거리 특화거리로서, 한때 장충체육관에서 경기가 있는 날이면 관람객과 선수들로 가득했다고 한다. 지금도 장충동 족발거리는 족발을 즐기 위해 찾는 식도락가들로 붐비고 있다. 2000년에 서울특별시 중구 특화거리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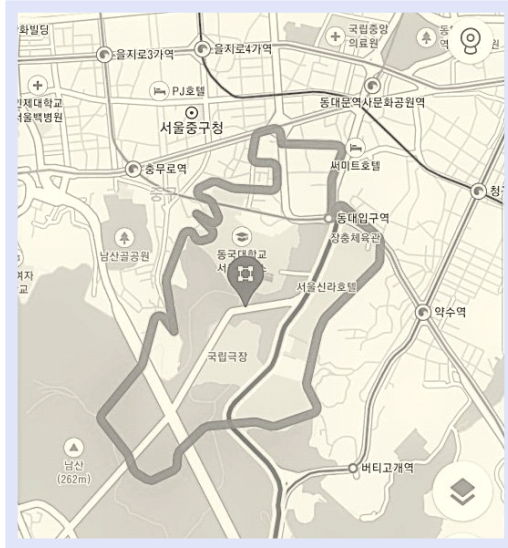
02. 장충동2가 獎忠洞二街

장충단로 서쪽 일대와 동국대학교, 장충단공원 일대의 넓은 지역인 장충동2가(獎忠洞二街)는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명철방(明哲坊)에 속했던 지역이다. 일제 강점기 서사현정(西四軒町)이라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중구 장충동2가가 되었다. 장충동2가의 동명은 이곳에 있던 장충단의 이름을 따서 제정한 것이다.

장충동2가는 북쪽으로 목정동, 쌍림동, 장충동1가와 접하고, 남쪽으로는 남산을 경계로 용산구 한남동과 구 경계를 이루고 있다. 동쪽으로는 신당동, 다산동과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필동3가, 예장동과 접한다. 또한 장충동2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장충단로가 지나며, 신라호텔 앞에서 갈라져 남산을 통과하여 용산구 이태원동에 이르는 남산2호터널이 관통하고 있다. 예장동에서 시작하여 남산을 거쳐 용산구 한남동에 이르는 남산1호터널도 통과하고 있다. 남산공원과 장충단공원이 이어져 관내 면적의 2/3를 차지하는 장충동은 오래 전부터 서울 시민의 휴식처로 각광 받아오던 곳이며 많은 교육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지금은 흔적을 찾기 어렵지만 장충동2가에는 조선시대의 자연마을이 여럿 있었다.

남소문골은 장충동2가, 쌍림동, 광희동 1~2가, 을지로6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남소문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한자명으로 남소문동(南小門洞)이라 하였다. 풀무고개는 원래 쌍림동 북쪽 부근에 있던 고개로 1890년대까지 많은 풀뭇집이 있어서 풀무고개 혹은 대장고개라고 불렸으며 한자로는 야현(治峴)이라 하였다. 풀무고개가 있던 장충동2가, 목정동, 충무로5가에 걸쳐 있는 마을을 야현동(治峴洞)이라 하였다.



장충동2가의 관할구역 경계

장충단에서 시작하여 동대문운동장 서쪽을 거쳐 오간수로 흘러들어가는 물길을 남소문내라고 불렀으며 한자로는 남소문동천(南小門洞川)이라 하였다. 쌍이뭇골내는 장충동2가에서 시작하여 쌍림동을 거쳐 청계천으로 들어가는 내이므로 쌍이문골내라고 불렀으며 한자명으로는 쌍이문동천(雙里門洞川)이라 하였다.

장충단은 1900년(광무 4) 고종에 의하여 남소영(南小營, 조선시대에 수도 방위와 왕실 호위를 맡은 어영청의 분영)이 있던 장소에 을미사변 때 순국한 훈련대 연대장 홍계훈(洪啓薰)과 궁내부대신 이경식(李耕植) 이하 여러 장병을 제사하기 위하여 만든 곳이다. 그러나 일본은 장충단이 대일감정을 악화시킨다는 구실로 제사를 못하게 하면서 장충단 비석을 파내어 숲속에 버리고 사전(祀典)과 부속 건물을 폐쇄하였다. 또한 1919년 이곳 일대를 공원으로 만들고 벚꽃 수천 그루를 심은 뒤, 광장·어린이놀이터·산책로·공중변소·교량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장충단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경성부가 관할하게 하였다.

장충단공원에서 한남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마루에는 남소문(南小門)이 있었다. 남소문은 1457년(세조 3)에 한강나루를 통해 남쪽으로 가려면 광희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거리가 멀고 불편하므로 도성에서 한강나루터로 곧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했다. 그러나 설치된 지 12년만인 1469년(예종 1)에 남소문이 수레가 통과하지



중구청과 중구문화원이 매년 가을 주관하는 장충단 추모문화제

못해 실용적이지 못하며 음양학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이유로 폐문되었다.

한편 남소영은 조선시대 남부 명철방(明哲坊) 남소문 옆에 있었는데, 현재 중구 동호로 257-10의 장충단공원 사전(祠殿) 터 아래가 된다. 남소영은 중앙에 설치된 오군영(五軍營) 중 하나였던 어영청(御營廳)의 분영이었다. 규모는 194칸에 이를 만큼 컸고, 18문의 창고 부근에는 군영과 관련된 건물들이 집결되어 있었다.

장충단공원 입구에 위치한 수표교(水標橋)는 본래 조선 초기에 건축된 청계천의 돌다리이다. 다리의 기둥에 눈금을 긋고 그 옆에 수표를 세워 청계천의 수위를 측정했다. 청계천2가에 위치했으나 1959년 청계천 복개공사 때 홍제동으로 잠시 이전되었다가, 1965년 현재의 자리로 옮겨졌다.

장충체육관은 우리나라에 건립된 최초의 실내경기장이다. 원래 육군체육관으로 사용하던 것을 서울시에서 인수하여 본격 경기용 체육관으로 개보수한 것이다. 장충체육관의 설계는 건축가 김정수가 담당하였으며, 구조설계 및 건축설계는 건축가 최중완이 맡았다. 현대식 돔양식의 원형경기장인 장충체육관은 대지 1만 865㎡에 건평

7,755㎡, 수용인원 8,000명의 대규모 실내체육관이다. 1963년 2월 1일에 개장한 이래 수많은 대회와 문화행사가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1988년 제24회 올림픽경기대회 기간에는 유도과 태권도 경기장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장충체육관은 준공 후 50년이 경과해 시설



리모델링 후 재개관한 장충체육관

이 노후하여 2012년 5월 30일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해서 2015년 현재의 모습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재개관하였다. 체육관 서편으로 장충단공원이 있고, 남쪽으로는 신라호텔, 북쪽에는 동호로가 인접해 있다.

현재 장충동2가에는 장충단공원 동쪽으로 장충체육관·신라호텔 등이 있고, 서쪽으로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가 넓게 자리하고 있다. 장충단로를 따라 남쪽으로 남산2호터널·국립극장·한국자유총연맹·반얀트리클럽앤스파서울 등이 위치하고 있다.

03. 목정동 墨井洞

퇴계로4가와 퇴계로5가 로터리 사이 남쪽에 위치한 목정동(墨井洞)은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명철방(明哲坊)과 훈도방(薰陶坊)에 속했던 지역이다. 일제 강점기 주변 일부를 병합하여 신정(新町)으로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중구 목정동으로 개칭되었다.

목정동은 동남쪽으로는 장충동1~2가에 접하고 있으며, 서쪽과 북쪽으로는 충무로5가와 필동3가에 맞닿아 있다. 퇴계로의 남쪽에 위치하며 동국대학교의 북쪽 산록에 있는 목정동은 퇴계로5가에서 장충단으로 가는 훈련원로가 연결되어 있는 지역으로 교통이 비교적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다. 뿐만 아니라 동의 북쪽과 동쪽, 남쪽으로는



목정동의 관할구역 경계

지하철 3·4호선이 지나고 있으며 폭 5m 이상의 이면도로가 비교적 발달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목정동의 동명 유래는 지금의 목정동, 충무로4~5가, 필동2~3가에 걸쳐 있던 먹절골이라는 마을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먹절골이라는 마을 이름도 이곳에 먹절 혹은 묵사(墨寺)로 부르던 절이 있었기 때문에 연유되었으며, 묵동(墨洞)·묵사동(墨寺洞)으로도 부른다.

뿐만 아니라 동네 한 귀퉁이에 매우 깊

은 우물이 있어 늘 시커멓게 보이므로 감정우물(검정우물) 혹은 오정동(烏井洞)으로 불렸는데, 바로 먹절골의 감정우물이라는 뜻에서 비롯되었다.

목정동에는 여러 개의 자연마을이 있었다. 옛날부터 풀무재 혹은 풀무고개라고 부르던 지역 일대에 형성된 마을이 있었는데 지금의 목정동과 충무로5가, 장충동2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한자명으로는 야현동(冶峴洞)이라고 하였다. 이 풀무고개에는 풀무를 쓰는 많은 대장간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1960년대 말까지도 이 일대에서 대장간을 쉽게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남산 북쪽 산자락에 위치한 목정동은 예부터 풍경이 수려하고 환경이 쾌적하여 많은 문인과 명사들이 기거하면서 독서를 하고 시를 읊으면서 즐겼던 지역이다. 이에 대해서는 『동국여지비고』와 『한경지략』에도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묵사동에 있었던 이안눌(李安訥)의 집에는 비과정(琵琶亭)이라 불리는 정자가 있었고, 조문명(趙文命, 1680~1732)은 귀록정(歸鹿亭)을 짓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연암 박지원의 「허생전」의 주인공인 허생(許生)이 은둔해 살았다고 전하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목정동에는 명종 때 영의정으로 선조를 왕위에 모셔 들이게 한 동고(東皐) 이준경(李浚慶)의 고기(故基)가 있어 유명하였다. 그가 살던 마을을 찬샘골 또는 찬신정동(巔新井洞)으로 불렸는데 이것은 마을에 유달리 찬 샘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목정아파트에서 바라본 목정동. 퇴계로를 경계로 북쪽에 고층 빌딩이 많이 들어서 있다.

한편 목정동은 서울에서 처음으로 공창(公娼)이 생겨난 지역이다. 1904년 6월 일본 거류민회에서 7,000원의 비용으로 그들의 거주 지역인 충무로에서 가까운 목정동과 쌍림동 일대의 토지 7,000평을 매입하여 신정유곽(新町遊廓) 단지를 만들고 동년 10월 25일 제1루(第一樓)에서 영업을 시작한 데서 비롯된다. 신정유곽의 제1루는 개업 당시 10명의 유녀로 하여금 제2종예기의 감찰을 받아 영업하였는데 1908년에는 20곳으로 늘어나면서 이 지역을 동서 두 군데로 나누어 동쪽은 한국인이 경영하는 한성대좌조합(漢成貸座組合)을 결성하였고 서쪽은 주인과 유녀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된 신정유곽조합을 결성하였다.

목정동 1-23번지에는 일제 강점기에 전매국인쇄공장(專賣局印刷工場)이 있었다. 광복과 함께 국유지로 편입되면서 민간인에게 다시 불하되었다가, 1963년 12월 9일 종합병원인 제일병원이 설립되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제일병원을 비롯하여 퇴계로 주변으로 오토바이 상가들이 들어서 있으며 주택가 곳곳에 인쇄소와 제본소를 비롯한 도서출판 업체들이 들어서 있다.

제6장 광희동 권역

광희동은 충무로4~5가, 인현동2가, 예관동, 쌍림동, 광희동1~2가, 을지로6~7가, 오장동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는 행정동명이다. 2018년 기준 광희동의 면적은 1.36㎢이며 인구는 2,899세대에 6,039명이 거주하고 있다.⁵⁶⁾

광희동의 동명 유래는 1936년 태조가 도성을 처음 축조할 때 광명(光明)의 문을 의미하는 광희(光熙)라는 이름을 붙인 도성 8문 가운데 하나인 광희문에서 비롯되었다. 인현동은 인현2가에 있는 인현이라는 고개 이름을 따서 붙여졌는데 인현은 원래 인성북재를 줄인 말로 이 고개 밑에 선조의 일곱째 아들인 인성군공이 살았기 때문에 인성군의 부(府)가 있는 고개라 하여 인성북재 또는 인성현이라 하고 이를 줄여서 인현이 되었다. 한편 오장동은 옛날 이곳에서 다섯 장사가 살았다고 하여 오장사골이라고 하였고, 예관동은 조선시대에 이곳에 예관이라는 교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쌍림동은 마을 입구에 문을 세우고 방수하여 도적을 경비하던 이문(里門)한 쌍이 있는 것에서 연유하였다. 원래 상리문동이라 부르던 것을 쌍이문골, 쌍리라고도 하였다.⁵⁷⁾



광희동1가의 관할구역 경계와 광희동주민센터

01. 광희동1가 光熙洞一街

광희동사거리 서북쪽,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일대에 위치한 광희동1가(光熙洞一街)는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명철방(明哲坊)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일제 강점기 광희정1정목(光熙町一丁目)으로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광희동1가로 되었다. 이곳의 동명은 도성 8문 중 사소문의 하나인 광희문(光熙門)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광희문은 현재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박물관역 4번출구에서 신당동 방향으로 가는 나지막한 고개에 이르러 퇴계로 쪽으로 길을 건너면 광희문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광희동1가는 동쪽으로 을지로7가 및 광희동2가와 접해 있고, 남쪽으로 마른내길을 경계로 하여 쌍림동과 이웃하고 있다. 서쪽은 오장동, 을지로5가와 접해 있고 북쪽은 을지로6가에 잇닿아 있다. 지반이 부여된 이래 주택지로 많은 사람들이 군거한 이 일대는 도성문인 광희문과 홍인지문 중간에 위치했던 까닭에 두 문을 통해 성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각이 발달했던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1880년대 이래로 대거 진출한 일본인들이 충무로를 중심으로 동서로 길게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고 또 장충단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박문사(博文寺)를 건립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면서부터 점차 일본인 중심 주거지로 바뀌었다. 반면 외곽지대인 성벽을 중심으로 빈민촌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광희동1가의 자연마을로는 남소문동, 남정동, 석교동, 어교동, 쌍이문동이 있었다. 또한 예전에는 이곳에 남산에서 흐르던 개울이 있어서 현재 을지로6가 국립중앙의료원 서쪽을 지나 청계천으로 흘러갔다. 이 개울에는 다리가 여럿 있었다. 그중 광희동1가와 오장동 사이에 어교(漁橋)라는 다리가 있었다. 이 다리가 놓인 곳의 지형이 언청이와 같이 생겨서 언청다리라 부르던 것을 음이 변하여 어청다리로 되었다. 한자로는 어청교(於淸橋)·어교(於橋)·어교(漁橋)로 되었다. 어교가 된 것은 붕어 입과 언청이의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곳과 광희동2가 사이에 있던 개울에 무당다리라 불리던 다리가 있었는데, 개울가 인근에 무당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어서 무당골다리라고 하다가 무당다리로 된 것이다. 한자로는 수당교(水唐橋)라 하였다. 또 광희동1가와 광희동2가에 걸쳐 있던 석교동(石橋洞) 역시 이곳에 돌로 만든 다리가 있다 하여 유래되었는데 돌다릿골이라고도 하였다.

광희동1가의 옛 지명 가운데 하나인 남정동(藍井洞)은 을지로6가와 광희동1가 서쪽에 걸쳐 있던 마을인데 우물가에 자생하는 쪽[監草, 남초]이 많았으므로 쪽우물이



일제 강점기의 광희문

라 불렀고 이 우물 주변 마을을 쪽우물골이라 한 것에서 유래한다. 또한 쪽우물과 반대 방향인 광희동1가 173번지 별관 한가운데 있는 우물을 벌우물 혹은 볼우물이라 불렀는데, 인근 별관의 못물을 다 댈 수 있을 만큼 수량이 풍부했다고 한다. 오늘날엔 쪽우물과 벌우물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별관이던 일대에 빼곡하게 빌딩과 상가들로 들어차 있다.

02. 광희동2가 光熙洞二街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퇴계로 남쪽에 위치한 광희동2가(光熙洞二街)는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명철방에 속한 지역이었다. 일제 강점기 광희정2정목(光熙町二丁目)으로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광희동2가로 되었다. 이곳의 동명은 도성 8문 중 사소문(四小門)의 하나인 광희문이 이곳에 있어 그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현재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박물관 4번 출구에서 신당동 방향으로 가는 나지막한 고개에 이르러 퇴계로 쪽으로 길을 건너면 광희문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광희동2가는 동쪽으로 신당동, 남쪽으로 장충동1가와 잇닿아 있으며, 서쪽은 광희동1가 및 쌍림동과 경계를 이루고, 북쪽은 을지로7가에 연해 있다. 동의 서쪽으로 장충단로가 지나고 한가운데는 퇴계로가 동서로 관통하고 있으며 지하철 4호선과 5호선이 통과하고 있다. 도성 안과 밖을 오가는 광희문의 있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집거하던 지역이다.

광희동2가를 이루는 옛 지명으로 곡정동(谷井洞)은 골짜기에 우물이 있었으므로 골짜기우물 혹은 곡정(谷井)이라 하고 인근의 마을을 골우물골이라 한 것이다. 형제골 혹은 형제동(兄弟洞)이라 부르던 마을은 의종기로 유명한 형제가 살던 마을에서 붙여진 명칭이며, 남성밀골은 남성저동(南城底洞)으로도 불렀는데 도성의 남쪽인 광희문 근처 성벽 아래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뱃골은 배동(裵洞)이라고도 부르는데 광
 회동2가와 을지로7가에 걸쳐 형성된 마을
 로 배나무가 많다고 하여 배나무골이라 부
 르던 것이 줄어들어 뱃골로 되었다. 동산
 말은 동산리동(東山里洞)이라고도 불렀는



광희동2가의 관할구역 경계



광희문은 여러 차례의 개보수를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데 광희동2가와 을지로7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동산이 있으므로 이름이 유래되었다.

190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쌍림동, 묵정동, 광희동 일대를 연결하는 신정유곽(新町遊廓) 단지를 형성하면서 진고개 끝에서 광희동을 거쳐 왕십리로 연결되는 동부간선도로의 개수를 시작하여 곳곳의 개천이 복개되어 도로로 사용되었다. 또한 1925년 5월 경성운동장 공사에 착공하여 이듬해 3월 준공하고 1928년 2월부터 부영버스가 운행되면서부터 이 일대는 사람들의 왕래가 더욱 빈번하게 되었다.

광희문은 1396년(태경계5) 한양도성이 완성될 때 창건되었으며,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이 광희문이라는 명칭을 붙였다고 전해진다. 광희문은 다양한 이칭(異稱)이 존재해 수구문(水口門), 남소문(南小門), 시구문(屍口門) 등으로도 불렸다. 수구문은 풍수지리에서 수(水)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문이라는 의미에서, 남소문은 남대문과 동대문 사이에 위치한 문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리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시체가 빠져나간다는 의미에서 시구문으로 더 많이 통했는데, 조선시대에는 소의문과 광희문을 통해서만 상여가 성 밖으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광희문은 조선시대에 몇 차례에 걸쳐 개보수가 이루어졌다. 1422년(세종 4)에 한 차례 광희문의 개축이 있었으며, 1711년(숙종 37)에도 금위영에 명하여 이 문을 개축하였다는 기록이 『숙종실록』에 전한다. 이후 문루가 제대로 세워지고 광희문이라는 현판이 걸린 것이 1719년(숙종 45)이었다. 광희문의 파손이 시작된 것은 일제 강점기에 이른바 문화주택지 조성이라는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부터다. 1913년 전차지선(電車支線)이 놓이게 되면서 북쪽 성곽이 헐렸고, 1915년에는 문루가 무너졌다. 광복 후 6·25전쟁으로 파괴된 문루가 그대로 방치되던 중 1966년 퇴계로 확장공사가 진행되면서 퇴계로7가 쪽의 성곽마저 추가로 철거되었다.

광희문 복원은 1975년 서울 성곽에 대한 전체 복원사업이 수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계획에 따라 광희문의 홍예를 15m 남쪽으로 옮겨 쌓았으며, 멸실된 문루를 복원함과 동시에 주변 일대를 녹지화하는 조경사업이 실시되었다. 2003년에는 광희문에서 남쪽으로 120m 정도에 이르는 성곽에 대한 복원이 이루어졌다.

03. 을지로6가乙支路六街

동대문역사문화공원과 훈원원공원 사이, 국립중앙의료원이 동의 중앙을 넓게 차지하고 있는 을지로6가(乙支路六街)는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명철방(明哲坊)에 속했던 곳으로 일제 강점기 황금정6정목(黃金町六丁目)으로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을지로6가로 되었다.

을지로의 동명은 세종로나 충무로 등과 같이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위인 가운데 한 분인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乙支文德)의



을지로6가의 관할구역 경계

성(姓)을 따온 것이다. 1914년 지금의 을지로입구에 해당되는 부근을 구리개(을지로 1가와 을지로2가 사이에 있던 고개) 또는 동현(銅峴)이라 불렀는데 이 뜻을 살려 한자로 다시 옮긴 것이 황금정6정목이었고 1946년에 을지로6가로 개칭되었다.

을지로6가는 북으로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종로구 종로6가와 마주하고 동쪽은 장충단로를 사이에 두고 신당동 및 을지로7가와 접해 있다. 남쪽은 광희동1가와 접하고 서쪽은 을지로5가 및 방산동와 이웃해 있다. 을지로5가, 을지로6가, 방산동에 걸쳐 있는 지역을 예전에 연방동으로 불렀는데 연꽃이 자생하고 있는 데서 그 명칭이 유래되었다. 원래 연밥이 굵기로 유명해서 연밥동이라고 부르던 것이 변해서 연방동이라 하였고 이곳의 연밥을 먹으면 피부가 하얗게 되고 윤기가 돈다 하여 부녀자들이 앞을 다투어 찾았다고 한다.

을지로6가 북쪽 청계천에는 5칸의 홍예문으로 축조한 석교인 오간수다리·오간수문(五間水門)이 있었다. 이 수문은 1907년(광무 11) 경성부에서 청계천의 유속(流速)에 저해 요소가 된다 하여 헐어 버렸다. 이 수문 바로 남쪽에는 오간수문을 축소시킨 이간수문(二間水門)이 있었으나 이 역시 일제 강점기에 철거되었다.

한편 현재 국립의료원이 위치한 지역은 조선 초기 태조 때부터 1894년(고종 31)까지 무관을 뽑는 과시(科試)를 시행하고 군사들의 무술훈련 및 병서(兵書), 전진(戰陣) 등의 강습을 맡아오던 훈련원(訓練院)이 있었다. 그래서 이곳 일대를 훈련원동으로도 불렀다. 대한제국 때 일본이 정미(丁未) 7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뒤 한국군을 강제로 해산시킨 장소도 바로 훈련원이었다. 일본은 1907년 8월 1일 훈련원에서 한국군해산을 강행하였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시위대대 제1대대 박승환(朴昇煥) 대대장이 한국군 해산을 반대하기 위해 자결하자 이를 계기로 훈련원에서 강제로 무장해제당한 한국 군인들은 남대문 부근으로 진출하여 일본군을 상대로 무력으로 저항했다. 이 사건은 이후 본격적인 무장항일투쟁의 시발점이 되었다. 훈련원이 해산되고 난 뒤 이곳은 경성사범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헌법재판소,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었다. 현재 훈련원 터 일대는 훈련원공원 주차장으로 바뀌었다.

조선시대에 을지로6가 북쪽 청계천 부근에는 중인 이하의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바라본 동대문쇼핑타운

던 곳이었다. 1957년 광고 방면부터 청계천이 복개되기 시작하여 을지로6가를 지나 마장동까지 복개공사가 완료된 후, 그 노변으로 의류전문시장인 평화시장상가가 신축되어 을지로6가는 상업지역으로 변신하게 되었다. 현재 이곳은 평화시장을 비롯하여 두산타워·밀리오레·헬로우에이피엠·굿모닝시티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전통 재래시장과 현대식 쇼핑몰이 혼재된 대단위의 쇼핑타운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서울시청 앞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까지 이어지는 연결하는 폭 30m, 길이 2,740m의 을지로의 마지막 구간이기도 하다. 현재 도심 재창조라는 시대 흐름에 맞춰 ‘세운재 정비촉진계획’ 등 을지로 일대 도심 산업이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발 및 관리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한편 중구 을지로 245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위치해 있다. 이 병원은 6·25전쟁으로 인한 부상병사와 민간환자를 치료하고 의료진을 양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한국재건단,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3국(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이 공동으로 재원을 투입해 1958년 설립한 의료기관이다. 개원 후 10년간 국립의료원을 공동운영하던 국제연합한국재건단과 스칸디나비아 3국의 주체들은 1968년 10월 운

영권을 한국 정부에 이양하였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게 되었으며, 1980년 8월부터 1983년까지 3년에 걸쳐 병원의 증·개축공사를 진행하였다. 1986년 응급 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었고, 1991년 한방(韓方) 진료부가 개설되었다. 1991년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였고, 2000년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를 설치하였다. 2009년 4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2010년 4월 국립의료원은 특수법인으로 개편되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을지로39길 40(을지로6가 18-14)에는 중구 구민회관이 있다. 1988년, 옛 서울 읍대 자리에 공사를 착공해 1990년 4월 10일에 개관한 구민회관 내에는 중구의회와 중구생활체육회를 비롯하여 민족통일협의회, 한국여성문예원 등의 각급 직능단체들이 입주해 있다. 중구 구민회관은 중구민들의 종합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은 물론, 심신 단련 및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04. 을지로7가乙支路七街

동대문역사문화공원과 지하철 2·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사이에 위치한 을지로7가(乙支路七街)는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명철방 지역으로 일제 강점기 황금정7정목(黃金町七丁目)으로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을지로7가로 되었다. 1914년 지금의 을지로입구에 해당되는 부근을 구리개 또는 동현(銅峴)이라 불렀는데 이 뜻을 연유로 한자로 다시 옮긴 것이 황금정7정목이었고 1946년에 을지로7가로 개칭되었다.

을지로7가는 동와 북으로 신당동, 남쪽으로는 광희동2가, 서쪽은 을지로6가와 장충단로를 사이에 두고 경계를 접하고 있다. 동 면적의 대부분을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 차지하고 있어 을지로길 남쪽 지역에만 상가와 주택가가 조금 형성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도성 바로 안팎지역이어서 서민들이 많이 군집하고 있었으며 도성 철거 이후 을지로가 넓게 확장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곳 사람들은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문밖 사람이라는 표현을 싫어하고 늘 문안에 산다는 것을 강조하여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은근한 기대와 부러움을 느낄 수가 있었다. 한때 을지로7가의 대부분은 야구장과 축구장으로 구성된 동대문운동장이고 을지로 남쪽 지역에만 약간의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었다.

현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일대에는 조선시대 훈련도감(訓練都監)의 군대 주둔지인 하도감(下都監)이 있었다. 1593년 8월 훈련도감이 임시기구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하도감이 설치된 것은 상설기구로 변모한 이후에 마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훈련도감



을지로7가의 관할구역 경계

은 임진왜란 중인 1593년에 설치되었고, 18세기에는 상설 기구로서 5군영의 하나가 되었으며 궁성수비 및 서울의 방어를 맡았다. 훈련도감의 규모가 커지면서 북영(北營), 남영(南營), 신영(新營), 하도감(下都監), 북일영(北一營), 서영(西營) 등의 영사가 두어졌는데 이 중 하도감은 남부 명철방 훈련원 동쪽에 있었다.

이 자리에는 본래 동대문운동장이 있었다. 1925년 5월 24일에 기공하여 이듬해 3월 31일에 준공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하도감과 훈련도감, 임오군란 때에는 청(淸)나라 제독 오장경(吳長慶)이 진을 쳤던 자리로서 면적 9만 5,764㎡의 종합경기장이었다. 건립 당시의 명칭은 경성운동장이었다. 이후 이 운동장은 80년간 한국 스포츠와 영욕의 역사를 같이했다. 광복 이후 서울운동장으로 개칭되었다가 1984년 서울종합운동장(현 잠실종합운동장)이 개장하자 1985년부터는 다시금 동대문운동장으로 재개칭되었다. 그러나 워낙 오래된 시설인데다가 도시계획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유로 2007년 철거를 시작하여 폐장되었다. 현재 구 동대문운동장 부지에는 2009년 10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 개장하였으며, 2014년 3월에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개장하였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은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조성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일부이다. 2007년 동대문운동장 철거작업을 시작하면서 매장된 유물들이



철거 전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던 동대문운동장(중구문화원 사진공모전 입상작)

출토되자 2008년 문화재 발굴조사에 착수하여 이때 발굴된 유물을 보존 및 전시하기 위해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조성계획을 발표한 후 2009년 10월에 개장했다. 이처럼 많은 유물이 발굴된 까닭은 조선시대에는 이곳에 치안을 담당하던 하도감과 훈련도감, 일제 강점기에는 경성운동장이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유서 깊은 자리이기 때문이다. 부지면적은 6만 5,232㎡이며, 주요시설은 동대문역사관, 서울 한양도성(서울 성곽)과 이간수문(二間水門) 유적, 동대문운동장기념관, 이간수 전시장, 이간수마당, 갤러리 문(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05. 쌍림동雙林洞

광희동사거리에서 퇴계로5가교차로에 이르는 퇴계로 남·북쪽에 위치한 쌍림동(雙林洞)은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명철방에 속했던 곳으로 일제 강점기 병목정(竝木町)이라 불리다가 1946년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쌍림동이 되었다. 쌍림동의 동명은 마을 입구에 도적을 경비하던 한 쌍의 이문(里門)에서 유래되었다. 원래 쌍리문동(雙里門洞)이라 부르던 것이 음이 변해서 쌍림동으로 되었는데 쌍이문골·쌍이못골·쌍문동·쌍리라고도 하였다.

쌍림동은 동쪽으로 광희동2가 및 장충동1가와 접해 있고, 남쪽은 장충동2가에 연해 있다. 서쪽은 목정동, 충무로5가, 오장동에 닿아 있으며 북쪽은 마른내로를 사이에 두고 광희동1가와 접한다. 쌍림동 한가운데로 퇴계로가 지나면서 동을 남북으로 나누고 있고 서쪽의 동호로와 북쪽의 마른내로로 인해 교통이 매우 발달한 곳이며 지적 정리가 잘되어 있다. 퇴계로를 중심으로 동의 북쪽 지역은 상업지역이며 남쪽은 전형적 주택지구로 형성되어 있다.

쌍림동을 이루는 조선시대의 자연마을로는 장충동2가, 쌍림동, 광희동1~2가, 을지로6가에 걸쳐 있던 남소문골이 있다. 남소문이 있으므로 남소문동 혹은 남소동(南小洞)라고 하였다. 또 이문(里門) 한 쌍이 있었다 하여 쌍이문골로 부르던 곳이 있었다. 쌍림동의 동명 유래가 된 이문은 조선 세조 때 “경성의 각 부락에 이문을 만들어 세우라”는 전지를 한성부에 보내면서부터 비롯되었다. 병조(兵曹)의 계청(啓請, 왕에게 아뢰어 청하는 일을 이르던 말)으로 각 이문 안의 인구를 참작하여 10호 이하는 매일 밤 2명씩, 20호 이하는 3명씩, 30호 이하는 4명씩, 그 이상은 매일 밤 5~6



쌍림동의 관할구역 경계



퇴계로 360에 남아 있는 공작소(대장간)

명씩 부락민이 나와서 이문에서 숙직(宿直)을 하였으며 외방(外方)에도 민가가 조밀한 곳이면 이문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성종 때는 도적을 경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으로 금했던 사치스러운 잔치나 소음이 발생할 때에도 이문의 숙직자가 단속하도록 되어 있었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서울에 남아 있던 100여 개의 이문은 거의 소실당한 채 복구되지 못하였고 순종·현종 때에는 종로구 공평동에 있는 이문 터와, 이곳 쌍림동의 이문 터 그리고 몇 곳이 동명으로만 남았을 뿐 서울의 이문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한편 이 지역은 1890년대까지 풀무집들이 많아 번창했던 까닭에 풀무재[治峴]라 불렀는데 이는 남산의 산줄기가 뻗어 내려와 생긴 고개로 현재는 평지화 되어 찾아볼 수 없다. 고개를 사이에 두고 좌우로 즐비하게 대장간들이 늘어서 있어서 이 고개를 풀무고개 혹은 대장간고개라고도 하였다. 지금은 동호로로 편입된 쌍림동 73번지 북쪽 일대이다. 풀무고개에는 일제 강점기에 100여 곳의 대장간이 있었다고 한다. 해방 후 1970년대까지만 해도 많이 남아 있었으나 현재는 겨우 서너 군데 정도만 명맥을

있고 있다.

쌍림동에는 조선 초의 개국공신으로 영의정을 지낸 남재(南在, 1351~1419)가 살았다. 남재는 이성계(李成桂)의 위화도회군(威化島回軍)을 도와 조선이 건국된 후 대사헌과 우의정, 좌의정을 지낸 인물이다. 본관이 의령(宜寧)이며, 초명은 겸(謙), 자는 경지(敬之), 호는 구정(龜亭)이다. 남재의 집에는 모양이 마치 말구유처럼 생긴 바위가 있었는데 이 바위를 구유바위, 한자로 조암(槽岩)이라 하였다. 그래서 남재의 집을 조암루(槽岩樓)라고 불렀다.

한편 남재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광해군 때 영의정을 지낸 이준경(李浚慶)의 집터도 있었다. 권간(權奸)으로 국정을 마음대로 하며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과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 등 많은 신료들을 정계에서 몰아내고 광해군 말기 권력을 좌지우지했던 이이첨(李爾瞻) 역시 쌍림동에 살았던 인물이다.

06. 인현동2가仁峴洞二街

풍전호텔과 신성상가를 중심으로 마른내로 남북 지역에 위치한 인현동2가(仁峴洞二街)는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성명방(誠明坊)과 낙선방(樂善坊)의 일부에 속했던 곳으로 일제 강점기 행정정2정목(櫻井町二丁目)이라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인현동2가로 되었다.

인현동의 동명은 인현동1~2가와 예관동에 걸쳐 있던 ‘인성북재’라는 고개에서 유래하였다. 인성북재란 조선 선조의 일곱째 아들인 인성군(人城君) 영(瑛)이 고개 밑에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를 한자로 인성부현(仁城府峴), 인성현, 인현이라고 하였다.

인현동2가는 동으로 예관동, 남쪽은 충무로4가와 접하며, 서쪽은 인현동2가, 북쪽은 을지로4가와 경계를 마주한다. 마른내로가 동의 한가운대를 동서로 관통하며, 서부 지역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주상복합건물인 삼풍상가와 신성상가가 점유하고 있고, 동의 동북부 지역에는 덕수중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중구청와 인접한 곳이기도

하나 대부분의 지역이 오래된 건물과 재래시장 및 음식점이 차지하고 있다.

인현동2가는 조선시대에 일본 사신 유숙소인 동평관(東平館)이 있어서 이 일대를 왜관동(倭館洞)이라 하였다. 동평관은 일본 사신이 들어와 머물던 곳으로 조선 초기부터 일본과 왕래가 있어서 그들이 머물 곳을 마련해 주었는데, 1420년에는 일본인들이 질서를 어기므로 이곳에 감호관(監護官)을 두고 감시케 하는 한편 동평관 주위로 울타



인현동2가의 관할구역 경계

리까지 돌렸다고 한다. 1445년에는 일본인들이 담을 넘어 민가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자 의금부(義禁府)에서 이들을 체포하여 구금한 일이 있었고, 그 뒤 삼포왜란 때에도 의금부에서 10여 명을 감금하는 등 동평관에 머무르는 일본인들이 일으킨 폐단이 많았다. 임진왜란 이후 동평관은 일본 사절의 상경을 불허하면서 폐쇄되었다.

인현동2가는 조선시대부터 사람들의 내왕이 비교적 많았고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인 거리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옛 지명이 많이 남아 있다. 남산에서 뻗어온 자락이 앞의 청계천과 만나 풍수지리상으로 명당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곳에는 우물도 많다. 인현동2가의 옛 자연마을로는 널우물골과 독우물골이 있다. 널우물골은 인현동2가와 을지로4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널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널 판지로 열기설기 만들어 놓은 이 우물은 얕으면서도 수량이 많았는데 이 근처의 마을을 한자로 판정동(板井洞)이라 하였다. 독우물골은 인현동2가, 예관동, 을지로4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우물 가장자리를 항아리로 쌓아 올린 독우물이 있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인데 웅정동(甕井洞)이라고도 하였다.

인현동2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건물은 1966년부터 착공되기 시작한 세운상가 8개 동의 일부인 풍전(豐田)호텔과 신성상가다. 본래 이곳은 일제 강점기 경성의 소재지(疏開地)였다. 1945년 3월 10일 일본 도쿄에 미군의 대대적인 공습이 이루어지



인현동에 위치한 PJ호텔

7월 제14대 서울시장 김현옥(金玄玉)이 무허가건물의 철거를 지시한 후 기습적인 철거작업이 완료되었다. 철거가 이루어지자 즉시 세운상가 건물의 준공에 착수하였는데, 세운(世運)은 ‘세상의 기운이 다 모인다’라는 뜻으로 김현옥이 지은 명칭이라고 하며, 건물의 설계는 건축가 김수근(金壽根)이 맡았다. 1967년부터 1971년 사이에 세운상가 건물 8동이 모두 완공되었다.

이 중 풍전호텔은 풍전산업이 건설을 맡은 10층 규모의 건물을 활용, 1975년에 개관한 1등급 관광호텔이다. 또한 신성상가는 신성공업이 건설을 맡아 1968년 10층 규모의 상가 건물로 완공하였다. 세운상가는 1970년대 당시로써는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건물이었는데, 서울의 명물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강남이 개발되고, 1987년 용산전자상가가 건립되면서 이곳의 상권은 크게 약화되었다. 이에 2006년 세운상가의 철거계획이 발표되고 철거에 들어가 2008년 현대상가가 있던 곳에 초록띠공원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대상가 철거 후 우여곡절 끝에 2014년 세운상가 철거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었다. 현재 풍전호텔은 2007년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호텔PJ로 이름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자, 일제는 공습에 의한 화재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시의 일부 공간을 비우는 소개를 실시하였다. 1차 소개작업은 5월 11일부터 6월 말까지 진행되었는데, 소개 대상 가운데 한 곳이 현재의 세운상가 일대였다. 광복 후 이곳은 공터로 있다가 무허가 판자촌이 들어서고, 사창가가 자리잡았다. 그러던 중 1966년 7

07. 예관동藝館洞

마른내로와 창경궁로가 교차하는 중구청교차로가 동의 중심을 관통하는 예관동(藝館洞)은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낙선방(樂善坊)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일제 강점기에 화원정(花園町)이라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예관동이 되었다. 예관동의 동명은 조선시대 이곳에 예관(藝館), 즉 도서관(校書館)이란 관청이 있었기 때문에 비롯되었다.

도서관은 조선시대 서적의 출판·출납에 관한 일과 향축(香祝)·인전(印篆)의 관리 등을 맡은 기관이다. 여기에는 내관과 외관이 있었는데 경복궁 안 사옹원(司饔院) 남쪽에는 궁궐 안에서 같은 업무를 맡는 내관이 있었고, 외관은 남부 훈도방(薰陶坊)으로 충무로2가에서 남산동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다. 그곳에도 도서관동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도서관이 훈도방에서 이곳으로 옮긴 시기와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예관동은 동쪽으로 오장동 및 충무로5가와 경계를 마주하며 남쪽으로 충무로4~5가와 접한다. 또한 서쪽은 인현동2가, 북쪽은 을지로4가로 에워싸여 있다. 동의 한가운데를 동서 방향으로 마른내로가, 남북으로 창경궁로가 교차하고 있으며 중구청이 있어서 사통팔달한 교통로와 함께 중구 행정이 이루어지는 중심지역이기도 하다. 대



예관동의 관할구역 경계

부분이 상업지구로 형성되어 있는 이곳은 마른내길 남쪽이 구획정리가 잘된 반면 북쪽은 아직도 작은 지면들로 촘촘히 쪼개어져 있다.

예관동은 동쪽 경계지역인 충무로5가와 오장동을 따라 흐르는 하천이 있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여러 다리가 놓여 있었고 이와 관련된 지명들도 많이 남아 있다. 독우물골은 예관동, 인현동2가, 을지로4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큰 인성بات재 동쪽에 항아리로 쌓아올린 독우물이 있었으므로 불

여진 이름이다. 일명 양정동(養井洞)이라고 하였다. 뒷넷골은 마을 뒤쪽으로 시내가 흐르기 때문에 붙여진 마을 이름인데 일명 후천동(後川洞)이라고도 하였다. 70번지 일대가 해당된다.

무침다릿골은 오장동, 예관동, 충무로5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오장동 22번지 서남쪽과 예관동 67번지 동남쪽에 있던 다리가 장마가 지면 물속에 잠기므로 무침다리라 불렸으며, 근방에



2010년 리모델링한 중구청 청사

있던 마을을 무침다릿골 또는 침교동(沈橋洞)이라 하였다. 배다릿골은 오장동과 예관동에 걸쳐 있던 마을로, 오장동 10번지와 예관동 25번지 사이에 나무로 된 다리를 놓았기 때문에 이 근방에 있던 마을을 배다릿골 또는 주교동(舟橋洞)이라 하였다. 오궁골은 예관동과 충무로4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일명 오궁동(五宮洞)이라고 하였다.

예관동을 동서로 관통하는 마른내로는 폭 20m, 길이 1.72km의 왕복 4차선 도로로 중구 저동1가 명동성당교차로에서 중부경찰서앞교차로와 중구청교차로를 지나 광희동교차로에서 장충단로·퇴계로를 만나 끝난다. 마른내로는 퇴계로·을지로·청계천로·종로·율곡로와 함께 서울 도심부를 동서로 달리는 6대 간선도로 중 하나다. 마른내로의 이름은 마른내로가 통과하는 인현동1가의 옛 지명인 건천동(乾川洞)에서 유래하였다. 이 지역은 비가 오지 않으면 바닥이 말라붙어 통행로로 사용하다가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면 금세 물이 불어 시내가 되어버리는 개천이라 하여 마른내라 불렀다. 근처 마을은 마른내골, 마른넷골이라 불렸고, 한자로 건천동이 된 것이다.

예관동 120-1번지에는 중구의 행정을 관할하는 중구청이 있다. 지금의 중구청사는 1979년 지상5층, 지하1층으로 준공되었다. 이후 1985년 증축과 2010년 리모델링을 통해 지상7층, 지하3층의 깔끔한 외관을 갖춘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중구청교차로에서 지하철 2·5호선 을지로4가역에 이르는 창경궁로 북쪽 노변으로는 가구 상가들이, 남쪽 노변으로는 지업사를 비롯한 인쇄 관련업체들이 밀집해 있다.

08. 오장동五壯洞

중구청교차로에서 오장동사거리에 이르는 마른내로 남북에 위치하는 오장동(五壯洞)은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낙선방(樂善坊)과 명철방(明哲坊)의 각 일부에 속하였다. 일제 강점기 초음정(初音町)이라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오장동이 되었다. 오장동의 동명은 옛날 이곳에 다섯 명의 장사가 살아서 ‘오장삿골’이라 부르던 데서 비롯되었다. 이 ‘오장삿골’을 한자로 옮겨 오장동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다섯 명의 장사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고 어느 시대인지도 추측할 수 없다.

오장동은 동쪽으로 동호로를 경계로 하여 쌍림동, 광희동1가와 접해 있고 남쪽은 충무로와 연해 있다. 서쪽은 예관동과, 북쪽은 을지로4~5가와 서로 잇닿아 있다. 오장동의 한가운데는 동서로 마른내로가 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대의 건어물 취급 시장인 중부시장이 자리하고 있다. 일찍부터 상업이 발달한 곳이기도 한 이곳은 상가지구로 잘 정리되어 있는 편이다.

조선시대 오장동의 자연부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뗏골은 오장동과 을지로5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허리띠를 만드는 집이 있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한자로 대



오장동의 관할구역 경계

동(帶洞)이라 하였다. 오장동과 예관동 사이에는 남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묵사동천이 있었다. 이곳에 있던 다리를 무침교(無沈橋) 또는 침교(沈橋)라 했는데 이는 장마가 지면 다리가 물에 잠겼기 때문이다. 또한 나무로 된 다리도 있었는데, 주교(舟橋)라고 하였다. 현재 이 개천은 노인정 터 위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복개되었다.

오장동에는 1957년 개설된 중부시장이 있다. 본래는 남대문·동대문시장



서울 최대 건어물 시장인 중부시장

의 포화한 상권을 나누기 위한 시장이었는데, 농수산물 위탁상인들이 모여들어 주로 건어물과 해산물을 거래하면서 1960년대 중반 이후 건어물 전문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중부시장은 1980년대 중반까지 전국에서 가장 큰 건어물시장이었다. 전국에 유통되는 건어물의 대부분은 이곳으로 올라와 위탁판매 후 전국으로 팔려나갔다. 2012년 기준 중부시장의 대지면적은 1만 6,327㎡, 점포는 946개, 건물은 약 67개 동에 달한다. 다른 채래시장과 마찬가지로 대형마트가 생기며 점차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중부시장을 찾고 있다. 취급 품목 및 점포수를 보면 건어물 점포가 가장 많아 현재도 건어물 하면 중부시장을 연상케 한다.

마른내길 남단에는 함흥냉면으로 유명한 냉면집이 여러 곳 있다. 처음 중부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1·4 후퇴 때 함경도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이 시장가에 좌판을 편 채 시작했던 냉면집인데 전통 함흥식 냉면의 육수와 양념으로 인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져 지금은 오장동 냉면이라는 대명사로 되어 으레 함흥식 냉면을 떠올린다. 오장동 함흥냉면의 원조는 함경도 흥남 출신의 노용원 할머니로 1953년에 이

곳에서 ‘홍남옥’을 열었다가 이후 ‘오장동홍남집’으로 상호를 바꾸었다. 1954년에는 한혜선 할머니가 ‘오장동 함홍냉면’을 개업하였는데, 이 두 할머니는 모두 세상을 떠났다. 1957년에는 ‘홍남옥’의 1세대 주방장이 ‘신창면옥’을 개업하였다. 이 세 식당이 오장동의 3대 함홍냉면집으로 불렸다. 이후 이 거리에는 더욱더 함홍냉면 전문식당이 늘어나면서 마침내 오늘날과 같은 함홍냉면 전문식당으로 특화된 거리가 되었다.

09. 충무로4가忠武路四街

퇴계로 북쪽, 지하철 3·4호선 충무로역 동북쪽에 위치한 충무로4가(忠武路四街)는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낙선방(樂善坊)과 성명방(誠明坊)에 속했던 곳으로 일제 강점기에 본정4정목(本町四丁目)으로 불리다가 1946년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충무로4가로 되었다. 충무로4가의 동명은 일제 강점기 본정통(本町通)이라 불렀던 것을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 1545~1598) 장군의 시호를 따라 충무로라 한데서 비롯되었다.

충무로4가는 동쪽으로 충무로5가, 남쪽으로는 필동2~3가와 접한다. 서쪽은 충무로3가와 필동1가, 북쪽은 인현동1~2가 및 예관동에 접하며, 퇴계로가 동·남동쪽을 지나며 남북으로는 세운상가에서 이어진 진양상가가 형성되어 있다. 퇴계로 연변에는 재개발된 고층 빌딩을 비롯한 일반상가와 음식점이 늘어서 있고 길 안쪽 골목 방향으로 아직 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재래식 주택을 개조한 다양한 상가와 공장, 사무실 등이 들어서 있다.

충무로4가 지역은 조선시대에 도성 안 지역으로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으며 일제 때에도 일본인들이 일찍부터 자리 잡은 곳이어서 빠른 발전을 하였다. 이 때문에 옛 지명이 남아 있는 곳이 많다. 남뫼골은 남부동(南部洞)이라고도 하며 필동1~2가, 인현동1가, 충무로3~4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5부의 하나인 남부가 있었으므로 붙여진 명칭이다. 예관동은 인현동2가와 충무로4가 걸쳐 있던 마을로 예관(藝館)이 있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인데 일명 예동(藝洞)이라고도 불렸으며 오궁(五宮)골은 예관



충무로4가의 관할구역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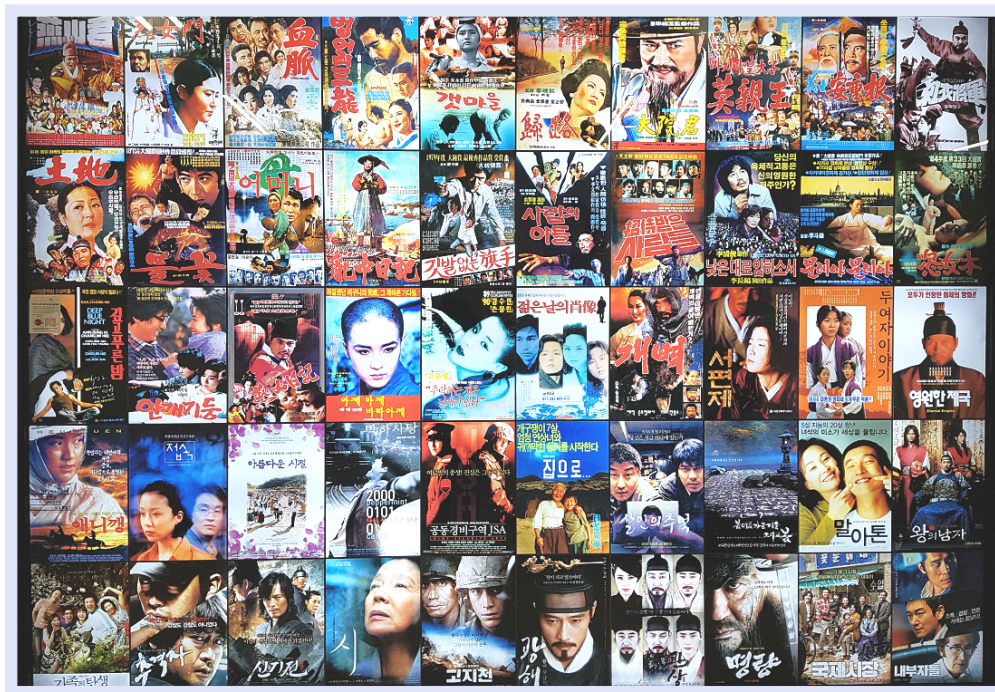
동과 충무로4가에 걸쳐 있던 마을이고 회동(晦洞)은 충무로4가, 인현동1~2가에 걸쳐 있던 마을이었다.

조선시대 충무로4가 일대에 있던 생민골(生民골)이라는 마을에 세조 때 사육신(死六臣)의 한 사람인 취금현(醉琴軒) 박팽년(朴彭年, 1417~1456)이 살았다. 『동국여지비고』에 보면 “박팽년의 집이 낙선방 생민동에 있는데 반송(盤松) 한 그루가 있어서 육신송(六臣松)이라 했으나 지금은 고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박팽년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자는 인수(仁叟), 호는 취금현, 시호는 충정(忠正)이다. 1434년(세종 16) 알성문과(謁聖文科, 조선시대에 왕이 성균관의 문묘에 참배한 뒤 보던 문과)에 을과(乙科)로 급제, 1438년에 사가독서(賜暇讀書, 인재 양성을 위해 젊은 문신에게 휴가를 주어 학문에 전념하게 한 제도)를 했을 만큼 세종의 총애를 받았다. 성삼문(成三問)과 더불어 집현전(集賢殿)에 발탁되어 한글 편찬에도 참가하였다.

박팽년은 문종으로부터 어린 단종을 부탁받고 1453년(단종 1) 형조참판이 되었다. 1455년(세조 1) 충청도 관찰사에 제수되었다가 이듬해 다시 형조참판이 되었다. 1456년 성삼문 · 하위지(河緯地) · 이개(李塏) · 유성원(柳誠源) · 유응부(兪應孚) · 김질(金質) 등과 단종 복위운동을 추진하였으나 김질이 밀고하여 처형당하였다. 1691년(숙종 17)에 관작(官爵)을 회복하고, 1758년(영조 34) 이조판서에 증직(贈職)되었다. 박팽년이 살았던 집은 남아 있지 않으나, 일제 강점기 그 장소에는 조선총독부 정부총감 관저가 들어섰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건물은 영빈관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충무로 지역은 한국 영화산업의 본산으로 유명하다. 충무로와 영화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춘사(春史) 나운규(羅雲奎, 1902~1937)를 비롯한 영화인들이 충무로로 들어와 영화 제작사를 차리기 시작했다. 극장 근처에 사무



‘영화의 거리’ 충무로(지하철 충무로역의 영화 포스터 전시)

실이 필요했고, 당시 예술가들의 요람인 명동과 경성 최대 변화가 종로보다 땅값이 싼 충무로가 제격이었다. 1950년대 말 17~18곳의 영화사가 충무로에 모여들었는데, 이때부터 충무로라는 지명은 한국영화를 상징하는 말이 됐다.

또한 충무로4가 지역은 인쇄업소와 출판사가 밀집되어 있다. 충무로 인쇄골목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 중구 삼일대로(저동1가)에 ‘경성인쇄공업조합’이 설립된 이래, 조합 인근에 일본인 인쇄업체들이 밀집하면서 시작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중구와 종로구에 다수의 인쇄업체들이 자리했는데 6·25전쟁을 겪으면서 대규모의 인쇄시설이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다. 1968년 세운상가가 들어서면서 종로3가와 퇴계로3가를 잇는 상가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충무로 일대에는 홍보판촉물, 상업인쇄 등을 다루는 인쇄업체들이 입지하면서 인쇄골목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또한 장교동 일대의 도시재개발로 인하여 그곳에 있던 5백여 개의 인쇄 관련 업체들이 모두 인현동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충무로 인쇄골목의 규모가 커져갔다. 현재 을

지로3가역 인근 명보아트홀에서 마른내로를 따라 중구청에 이르는 1.5km 구간 일대를 ‘충무로 인쇄골목’이라 일컫는다. 출판사·인쇄소·지업사 등이 골목마다 들어찬 이 거리가 국내 최대 출판·인쇄골목이다.

충무로 인쇄골목은 인쇄산업 환경의 변화와 폐수·분진 등 공해와 소음문제로 인해서 그 규모가 과거에 비해 축소되었고 항상 철거대상으로 지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충무로 인쇄골목을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 5대 특화 제조업 집적지구 중의 하나로 키우겠다는 계획과 함께 3차원 프린팅서비스 등을 적용한 첨단서비스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는 충무로 인쇄골목에 맞는 맞춤형 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충무로 인쇄골목의 현대화와 첨단화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10. 충무로5가忠武路五街

동호로와 창경궁로 사이의 퇴계로 남북쪽에 위치한 충무로5가(忠武路五街)는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명철방과 낙선방의 일부에 속했던 곳으로 일제 강점기에 본정5정목(本町五丁目)으로 불리다가 1946년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충무로5가로 되었다. 충무로5가의 동명은 일제 강점기 진고개 일대에 놓여있던 길을 본정통(本町通)이라 불렀던 것을 충무공(忠武公) 이순신 장군의 시호를 따라 충무로라 한데서 비롯되었다.

충무로5가는 동쪽으로 오장동, 쌍림동과 접하고 남쪽은 장충동2가, 목정동, 필동3가와 접한다. 서쪽은 충무로4가와 북쪽은 예관동 및 오장동으로 에워싸여 있으며 퇴계로의 일부가 동을 남북으로 분단하고 일부는 목정동과 경계지역을 이루기도 한다. 퇴계로 북쪽의 충무로5가는 도심재개발공사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의 지번 정리는 되어 있으나 그 남쪽은 아직 전형적인 주택지구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충무로5가 지역에 있었던 조선시대의 다양한 자연마을 이름이 남아 있다. 먹절골은 목정동, 충무로4~5가, 필동2~3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먹절 혹은 묵사(墨寺)가 있

었다고 하여 유래되었다. 먹제골, 묵사동(墨寺洞), 혹은 묵동(墨洞)이라고도 불렸다.

무침다릿골은 오장동, 예관동, 충무로5가에 걸쳐 있던 마을이다. 예관동 70번지와 충무로5가 82번지 부근에 있는 다리가 비만 오면 물에 잠기기 때문에 무침다리 혹은 무침교(無沈橋)라 했는데, 무침교가 있는 동네라는 뜻에서 붙여진 명칭이며 한자로는 침교동(沈橋洞)이라 하였다.



충무로5가의 관할구역 경계

쌍이문골은 쌍림동, 묵정동, 충무로5가, 오장동, 광희동1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이 문 한 쌍이 있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쌍문동(雙門洞), 쌍리(雙里), 쌍이문골, 쌍이못골 등으로 불렸다. 오장삿골은 오장동, 충무로5가, 을지로5가에 걸쳐 있던 마을인데 역대에 걸쳐 이름난 장사 다섯 명이 이 마을에서 살았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오장동(五壯洞)이라고도 하였다.

조선시대 이곳 일대에 있었던 묵사동(墨寺洞, 오늘날의 남산 밑 언저리)에는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이 살았다. 동인이던 그가 서인 정철(鄭澈)의 처벌을 논의할 때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뉘자 온건파로서 남산 밑에 거주하여 남인이라 하고 이발(李撥)은 북악산 아래 거주하여 북인이라 부르게 되었다.

유성룡은 1566년에 문과에 급제한 후 이조판서·우의정·좌의정에 올랐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도체찰사(都體察使)로 군무를 총괄하고 이순신과 권율 같은 명장들을 등용시켰으며, 이어 영의정이 되어 선조를 따라 평양에 이르렀을 때 나라를 그르쳤다는 반대파의 탄핵을 받고 일시 면직되었다가 다시 영의정이 되어 왜란을 수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가 이순신을 천거하여 일본 수군을 격파함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 것은 묵사동과 이순신이 살던 건천동(乾川洞, 마른내골)이 이웃해 있어서 일찍부터 두 사람 사이에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충무로5가를 관통하는 퇴계로는 조선 태조 때 한양 천도 후 도성 도로구획 단계부터 있었던 서울의 가장 오래된 길 가운데 하나다. 당시 청계천 남쪽에서 남향으로 달리던 길은 대부분 남산을 등진 퇴계로를 만나면서 끝났다. 당시 퇴계로는 지금은 없는 호현동(好賢洞, 현 신세계백화점 근처)에서부터 광희문까지 뻗어 있었다.



오토바이거리 지하보도 공간에 마련된 '서울창업카페 충무로점'

일제 강점기 서울역에서 지금의 신당역 사거리까지, 이른바 혼마치를 관통하는 도로를 처음에는 야마토마치도리[大和町通]라고 부르다가 1937년 총독부고시에 따라 쇼와도리[昭和通]라고 명명하였다. 광복 후 1946년 10월 1일 일본식 동명을 우리말로 정리하는 사업에 따라 유학자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호를 따서 퇴계로라 이름 짓는다. 1966년에 잠시 노선 단축과 함께 광희로(光熙路)로 개칭했다가 1972년 다시 퇴계로로 환원하였다.

퇴계로 주변으로는 오토바이 상가가 형성되어 있어 일명 오토바이거리라고도 불린다. 서울에서 거래되는 중고품과 신제품의 주요 판매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데 각종 오토바이가 전시되어 있어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오토바이 상가 뒤쪽으로는 낡은 건물로 중소규모의 사무실과 인쇄업소가 즐비하게 자리 잡고 있었으나 최근 도로변 쪽이 재개발되어 고층빌딩이 들어서고 있다.

제7장 을지로동 권역

을지로동은 을지로3·4·5가, 주교동, 방산동, 입정동, 초동, 산림동, 인현동1가, 저동2가 등 10개 법정동의 행정을 담당하는 동장 관할명칭이다. 2018년 기준 을지로동의 면적은 0.6km²이며 인구는 1,230세대에 1,877명이 거주하고 있다.⁵⁸⁾

을지로동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변경할 때, 세종로나 충무로 등과 같이 우리나라 위인 가운데 한 분인 을지문덕 장군의 성을 따서 붙여졌다. 주교동은 주교동 126번지 북쪽에 있던 배다리, 즉 주교로 불리던 다리가 있으므로 연유한 동명이며 주교는 이곳에 주교사가 있었다는 데서 연유했다고도 한다.

방산동은 부근에 있는 가산 또는 조산이라 부르던 곳에 심어져 있던 무궁화 꽃의 향기에서 연유되었고, 입정동은 갯방, 즉 갯을 만드는 집에 우물이 있으므로 동리 이름을 갯방우물골이라고 한데서 유래되었고, 초동은 초전동의 약칭으로 지금도 초전골로 전해오며 개초(蓋草), 마(麻), 갈(葛) 등을 가공하지 않고 재료 그대로 짜는 초물전이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생긴 이름이다.

산림동의 동명은 살리뭇골이라는 옛 자연마을의 명칭에서 유래하였으나 산림동은

4·5가동에 편입시킨 후 을지로3가, 을지로4가, 을지로5가, 주교동, 방산동, 입정동, 산림동, 초동, 인현동1가, 저동2가 등 10개 동으로 관할구역이 조정되었다. 그 후 2005년 3월 15일(중구조례 제631호) 서울특별시 중구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로 을지로3·4·5가동은 을지로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른다.⁵⁹⁾

01. 을지로3가乙支路三街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 주변지역에 위치한 을지로3가(乙支路三街)는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훈도방(薰陶坊)과 성명방(誠明坊)에 속했던 곳으로 일제 강점기 황금정3정목(黃金町三丁目)으로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을지로3가로 되었다. 을지로의 동명은 세종로·충무로 등과 같이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위인 가운데 한 분인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의 성(姓)을 따온 것이다. 1914년 지금의 을지로입구에 해당되는 부근을 구리개(을지로1가와 을지로2가 사이에 있던 고개) 또는 동현(銅峴)이라 불렀는데 이 뜻을 연유로 한자로 다시 옮긴



을지로3가의 관할구역 경계와 을지로동주민센터

것이 황금정3정목이었고 1946년에 을지로3가로 개칭되었다.

을지로3가는 동쪽으로는 산림동 및 을지로4가와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을지로2가와 저동1가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초동 및 인현동1가와, 북쪽으로는 입정동 및 수표동과 이웃하고 있다. 또한 충무로(도로명)가 을지로3가의 남북으로 지나며 동을 동서로 양분하고 있다.

을지로3가와 입정동·수표동에 걸쳐 있던 마을을 시궁골·시금동(詩琴洞)·시동(詩洞)이라 하였는데 그 유래는 영조 때 학자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이 수표교 동쪽에 살면서 벗들과 시금(詩琴, 시를 읊고 거문고를 켜다)을 즐겼기 때문이다. 또한 을지로3가·저동2가·초동에 걸쳐 있는 마을을 신을 파는 가게들이 있어서 신전골이라 하였고 한자로 이동(履洞)이라 하였다. 이 마을에는 정조의 사위 홍현주(洪顯周)의 집인 금옥당(金玉堂)이 있었다.⁶⁰⁾

광복 직후 을지로3가에는 많은 고물상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을지로3가를 지나다 보면 길 양쪽에 있는 상점이 거의 시멘트 대리점, 타일이나 목욕실용 자재를 진열하고 있는 건축자재 취급상가와 철물상가, 가구상가 등이 몰려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지역에 건축 자재상이 몰려 있는 것은 6·25전쟁 때 을지로 지역이 크게 파괴된 관계로 재건이 활발했기 때문이며, 그 후 1960년대부터 도시개발과 건물 신축이 유행하면서 발판을 굳혔고,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강남개발과 1990년 초의 신도시 건설의 불을 타고 호황을 누렸기 때문이다.

을지로 연변에 위치한 동들은 공통적으로 모두 상업중심지역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을지로3가 역시 마찬가지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을지로2가는 수제 고급가구점이 줄지어 있었고 을지로3가는 커튼 전문업체가 많았으나 지하철 2호선 공사 중 이 일대에 불어 닥친 경기침체와 강남개발로 관련 업체가 속속 이전해 나가고 이후로는 건축 자재상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문고리부터 육조, 변기, 바닥 및 천장 마감재, 각종 출입문, 타일 등 가격도 몇 천 원대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물품이 다양하게 진열 판매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을지로3가 지역은 소규모의 인쇄 출판업체들이 집중되어 있다. ‘봉투에서 전공서적까지’라는 구호를 내건 이 지역은 을지로 좌우 이면도로 안쪽에 빼곡하



최근 각광받고 있는 중구 문화관광 프로그램인 '을지유람'

게 들어찬 영세 인쇄소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2000년대 이후로는 신축 빌딩에 현대식 인쇄 시스템을 갖춘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중구에 등록 및 미등록된 전체 인쇄 출판업체들의 약 95%, 서울시 전체의 약 40%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10월경부터 시작되는 연하장과 달력 인쇄에 소요되는 각종 고급지의 대규모 수요 장소가 을지로3가이다.

한편 최근 을지로3가를 중심으로 1960~1980년대 산업화를 이 끌었던 을지로의 공장 및 상점들과 그 시절의 문화를 체험하는 관

광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 중구청이 운영하는 '을지유람'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을지로의 좁은 골목을 따라 오래된 맛집과 우리나라 근대화의 흔적이 남아 있는 오래된 상점들을 둘러볼 수 있다.

특히 노가리호프 골목과 타일·도기 거리 등은 물론 최근 을지로 일대에서 활동 중인 청년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의 작업장에도 들러 직접 공방 체험을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쇠락하는 구도심을 살리고자 하는 경제적 의미뿐 아니라 사라져가는 옛 모습을 기억하고 되살리고자 하는 문화적 의미를 앞세운 시도이다. '을지유람' 프로그램은 옛 추억을 더듬는 노년층뿐만 아니라 산업화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에 게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동절기를 제외하고 매달 둘째·넷째 토요일에 운영된다.

현재 을지로3가 지역에는 을지로동주민센터를 비롯하여 인테리어·건축자재·조명관련 상가와 인쇄·출판 관련 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다.

02. 을지로4가乙支路四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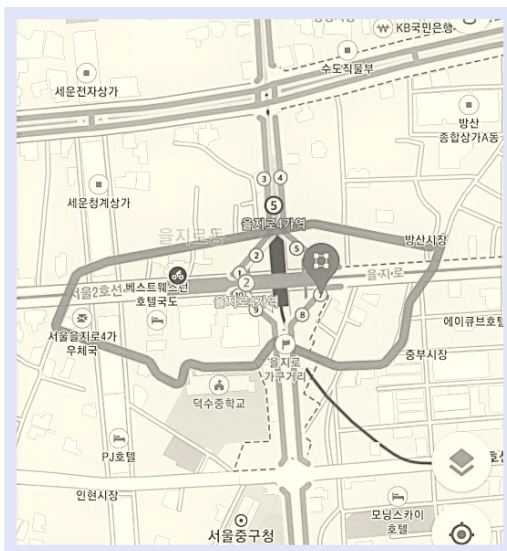
지하철 2·5호선 을지로4가역 주변 일대에 위치한 을지로4가(乙支路四街)는 조선 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성명방과 낙선방에 속했던 곳으로 일제 강점기 황금정4정목(黃金町四丁目)으로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을지로4가로 되었다. 을지로의 동명은 세종로·충무로 등과 같이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위인 가운데 한 분인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의 성을 따온 것이다.

1914년 지금의 을지로입구에 해당되는 부근을 구리개(을지로1가와 을지로2가 사이에 있던 고개) 또는 동현(銅峴)이라 불렀는데 이 뜻을 연유로 한자로 다시 옮긴 것이 황금정4정목이었고 1946년에 을지로4가로 개칭되었다.

을지로4가는 동쪽으로는 을지로5가와 접하고, 서쪽으로는 을지로3가 및 초동과 이웃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인현동1가와, 북쪽으로는 산림동 및 주교동과 맞닿아 있다. 또한 을지로4가는 창경궁로가 남북으로 지나고 있다.

을지로4가에는 우물 관련 지명이 많다. 인현동2가와 을지로4가에 걸쳐 있는 널우물골은 우물 뚜껑을 판자로 덮어놓았기 때문에 널우물이라 불렸으며 마을 이름이 되었다. 독우물골도 인현동2가와 을지로4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마치 우물 속의 모양이 돌절구처럼 생긴 우물이 있으므로 명칭이 유래되었다. 일제 초만 하더라도 널우물은 젊은 사람들이, 독우물은 나이가 든 사람들이 자주 이용했으며 특히 홀로 된 부인들은 밤중에 독우물 물을 길어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어서 어둠이 내린 밤거리에 물 항아리를 이고 모여드는 과부들로 북적거렸다고 한다.

곧은우물골은 직정동(直井洞)으로도 불렸으며 깊은 우물이 곧바로 파내려져 있는 우물이 있어서 동네 명칭이 유래



을지로4가의 관할구역 경계

되었다. 그런가 하면 은방(銀房)이 있는 마을은 은방골 혹은 은동(銀洞)이라 하였다.

을지로4가와 을지로5가를 이어주는 곳에는 청녕교(靑寧橋)가 있었다. 이 다리는 성종의 셋째 딸 공신옹주(恭愼翁主)와 결혼한 청녕위(靑寧尉) 한경칩(韓景琛)이 부근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다.

을지로4가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토지와 상권을 장악한 지역이었다. 1924년경의 주택 현황을 보면 한국인은 313호, 일본인 226호가 거주했다. 1910년대 말에는 을지로4가에 황금관(黃金館)과 광무대(光武臺)라는 무성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이 있었다. 이 영화관들은 1930년대 후반 문을 닫았는데 해방 후 이곳에는 국도극장이 새로이 생겨났다. 국도극장은 1946년 10월 15일에 설립되었는데 서울 중심가의 개봉관 가운데서 방화(邦畵)를 많이 상영하는 극장이었다. 현재 영화관은 없어지고 재개발되어 국도호텔이 세워져 있다.

을지로4가 부근도 을지로3가와 마찬가지로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상가가 많다. 지하철 2호선 을지로4가역을 나서면 길 양쪽의 상가에서 철근을 자르는 소리가 귀를



을지로 도로변에서 바라본 삼풍상가

울리고 상점 안을 가득 채운 타일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그 외 가구, 철물, 목재 등을 취급하는 상가도 많이 눈에 띈다. 특히 이 지역에서 판매하는 가구는 주로 사무용품으로서 철제가구가 대중을 이루는데 각 점포는 기능이 다양하고 디자인이 특색 있는 제품을 전시하여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특히 사무용 가구는 장시간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능력을 위해 철제이면서도 원목색깔이나 아이보리 빛깔의 제품이 선보이고 있고 사무자동화에 따른 다양한 기능의 가구들도 전시되고 있다. 인근에는 주방용가구점과 인테리어 전문점도 많이 들어서 있다.

을지로4가 310번지에는 삼풍상가가 자리하고 있다. 삼풍상가는 현대상가(현재는 철거됨), 세운상가가동, 청계상가, 대림상가, 풍전호텔, 신성상가, 진양상가와 함께 이른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일부를 이룬다. ‘세운상가’가 만들어지게 된 사회적 구조는 일제 강점기 전쟁으로 조성된 소개도로 건설이 직접적인 발단이 되었다. 식민 정부에 의해 강제로 소개(疏開)되어 ‘거대한 공지’로 남았던 공간이 해방과 6.25전쟁 이후 국유지로 편입되고, 이곳에 피난민들의 판잣집이 가득 들어차게 된 것이다. 소개공지는 이후 민간에 불하되어 사용되다가 결국 1966년 서울의 대개조 프로젝트의 시범으로서 세운상가가 세워졌으며, 상가 주변은 점점 다양한 업종들이 집적하게 되면서 복잡하게 얽혀 현재의 경관을 만들어 냈다. 주변에는 명동과 을지로 주변의 고층빌딩이 입지해 있어 세운상가 일대는 마치 도심 속의 ‘섬’과 같은 분위기를 발산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넓고 노후화된 세운상가 일대를 재개발하고자 하는 서울시 당국과 관련 상인 및 시민들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03. 을지로5가乙支路五街

을지로와 동호로가 교차하는 을지로5가 교차로 주변에 위치한 을지로5가(乙支路五街)는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명철방(明哲坊)에 속했던 지역으로 일제 강점기 황금정5정목(黃金町五丁目)으로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을지로5가로 되었다. 을지로의 동명은 세종로·충무로 등과 같이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위인 가운데 한 분인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의 성을 따온 것이다.

1914년 지금의 을지로입구에 해당되는



을지로5가의 관할구역 경계

부근을 구리개(을지로1가와 을지로2가 사이에 있던 고개) 또는 동현(銅峴)이라 불렀는데 이 뜻을 연유로 한자로 다시 옮긴 것이 황금정5정목이었고 1946년에 을지로5가로 개칭되었다.

을지로5가는 동쪽으로는 을지로6가 및 광희동1가와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을지로4가와 연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오장동, 북쪽으로는 방산동 및 주교동과 접한다. 동의 남북으로는 동호로가 지나고 있다. 을지로5가에 있던 옛 마을로 미나릿골과 청짜다리골을 들 수 있다. 미나릿골은 오장동과 을지로5가 사이에 있던 핏골 서쪽에 있던 마을로 이곳에는 미나리를 재배하던 넓은 밭이 있었으므로 미나릿골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근동(芹洞)이라 하였다. 조선시대의 을지로5가는 장인을 비롯하여 상인이나 하급 관리가 많이 살았는데, 이들이 농사를 짓는 일은 거의 없었으므로 남촌의 한복판이 되는 이곳에서 재배되던 미나리는 상업 작물로 소비되고 있었던 듯하다.⁶¹⁾

이곳에는 청짜다리·청자교(淸字橋)라는 다리가 있었는데, 이는 이 다리에 ‘청(淸)’자가 새겨져 있어서 붙여진 것이다. 그래서 이 부근을 청교동(淸橋洞) 또는 청짜다리골이라고 하였다. 청짜다리는 을지로5가 252번지 북쪽에 있던 다리이다. 일감정(一鑑亭)은 명철방 청교동에 있던 정자이다. 이 정자는 조선 인조·효종 때 문신인 좌참찬(左參贊) 취병(翠屏) 조형(趙珩)의 소유였는데 근처에 그 후손들이 살고 있었으므로 청녕위다리 조씨 혹은 청녕교(淸寧橋) 조씨라고 부르기도 했다. 일감정은 광복 이후에 헐려서 지금은 그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을지로5가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토지와 상권을 장악하던 곳이었다. 1924년 6월호 『개벽』 잡지를 보면 당시 을지로5가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주택 수는 120호였는데 조선인은 300호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을지로5가에 살던 조선인이 일본인의 세력에 밀려 마포나 도화동·청파동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이 지역에는 을지시장이 있었는데 동대문시장·방산시장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이 시장은 본래 1932년 7월에 일본인이 세운 황금사설시장(黃金私設市場)에서 비롯되었다. 1939년에 황금정시장(黃金町市場)으로 바뀌었다가 광복 후 적산으로 처리되어 1948년 황금시장으로 되었다가 6·25전쟁 때 파괴되어 일반상가로 건설되었다.

한편 을지로5가에는 신극계의 거성(巨星)으로 꼽히는 윤백남이 설립한 윤백남프로



을지로5가에 자리 잡고 있는 훈련원공원

덕선이 있었다. 윤백남(尹白南, 1888~1954)은 1904년 황실 유학생으로 도입하여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고등예과를 거쳐 도쿄고등상업학교를 졸업했다. 한일강제병합 이후에는 『매일신보』 기자로 활동하며 문필생활을 시작했고, 1912년에는 조일재(趙一齋)와 함께 신파극단 문수성(文秀星)을 창단해 배우로도 활약하는 등 연극활동을 겸했다. 1916년 이기세(李基世)와 함께 신파극단 예성좌(藝星座)를 조직했으며, 1917년 백남프로덕션을 창립해 몇 편의 영화를 제작, 감독하기도 했다.

윤백남은 1922년 민중극단을 조직해 자신이 쓴 「등대지기」·「기연(奇緣)」·「제야의 종소리」 등과 번안·번역극을 상연했다. 1923년에는 한국 최초의 극영화인 「월하(月下)의 맹서」의 각본과 감독을 맡았다. 이후 조선키네마에 입사해 「운영전(雲英傳)」을 감독했고, 1925년 윤백남프로덕션을 만들어 「심청전」을 제작했다. 1930년 연극으로 눈을 돌려 박승희(朴勝喜)·홍해성(洪海星)과 경성소극장(京城小劇場)의 창립 동인이 되었으나 곧 해산되었다. 초기 그의 작품은 계몽주의적·인도주의적 경향을 띠었으나 점차 현실파배적인 역사소설이나 야담류로 흘렀고, 1933년 무렵에는 본격적인 야담가로 나서기도 했다.⁶²⁾

을지로5가는 한때 스테인레스 상가와 조명상가 등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었으나 최근 을지로와 동호로 도로변을 중심으로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고층 빌딩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04. 주교동舟橋洞

청계천 남쪽, 지하철 4·5호선 을지로4가역 동북쪽 일대에 위치한 주교동(舟橋洞)은 조선시대 초기에 한성부 남부 명철방(明哲坊)에 속했던 곳으로 일제 강점기에 주교정(舟橋町)이라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주교동이 되었다. 주교동의 동명은 이곳 북쪽에 있던 배다리, 즉 주교(舟橋)라는 다리가 있던 데서 유래하였고, 주교는 이곳에 주교사(舟橋司)가 있었던 데서 연유했다고 한다. 주교는 나무로 된 다리이며 주교사는 조선 후기 1789년(정조 13)에 설치된 관청이었다.

주교동은 동쪽으로 방산동 및 을지로5가와 접하고, 남쪽은 을지로4가와 이웃한다. 서쪽은 산림동과 연해 있으며, 북쪽은 청계천로를 사이에 두고 종로구와 구 경계를



주교동의 관할구역 경계

이루고 있다. 청계천이 복개되기 전에는 천변에 위치한 나쁜 환경으로 중인 이하의 계층이 주로 살았던 곳이다. 청계천이 복개되고 을지로6~7가에 평화시장이 들어서면서 1975년에 설립된 방산시장의 기능도 확대되어 방산종합시장으로 성장하여 이 지역의 성격을 상업지대로 변경시켰다.

주교동에 있던 자연마을 가운데 뒷골은 산림동과 주교동에 걸쳐 있는 마을로 이곳이 배다리의 뒷골목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자로는 후동(後洞)이라고 한다.

또한 창전골이라는 이름은 가족 신창전(가족 신발창을 파는 시전)이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유래되었는데 한자로 창전동(昌麿洞)이라 하였다.

별우물골은 별우물이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한자로는 벌정동(伐井洞) 또는 평정동(坪井洞)이라고 한다. 별우물은 주교동 281번지에 있었는데 벌판 한가운데 우물이 있다 하여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새경다리골은 주교동과 예지동, 그리고 종로4가에 걸쳐 있던 마을이다. 새경다리가 있었으므로 소경 다리골 또는 새경다리골이라고도 불렀는데 한자로는 효교동(孝橋洞) 혹은 효교(孝橋)라 하였다.

새경다리라 부르게 된 것에는 두 가지 설이 있다. 그 첫째는 이곳에 아들 형제를 둔 과부가 살았는데 이웃에 사는 서당 글방선생 역시 홀아비인지라 과부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모하다가 마침내 밤마다 개울을 건너 함께 지내다 새벽닭이 울면 다시 건너갔다. 이를 알아챈 아들이 글방선생이 옷을 적시지 않고도 건널 수 있게 다리를 놓았다 하여 효자다리라 부르던 것이 변해서 효교로 되고 다시 새경다리로 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야기는 이 다리 근방에 앞일을 잘 알아맞히는 소경이 살았으므로 소경다리라 하던 것을 한자로 효교(孝橋)라 썼다는 것이다.⁶³⁾

주교동도 을지로3가와 마찬가지로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토지와 상권을 장악 하던 곳이었다. 주교동에는 자동차 부속품을 취급하는 상가와 전자기기상이 밀집해 있고 대표적인 건물은 19번지에 위치한 방산종합시장이다. 방산종합시장은 주교동에 자리 잡은 채래시장이다. 을지로4~5가와 청계천 사이에 있으며, 청계천 쪽으로는 광장시장, 을지로 쪽으로는 중부시장과 마주보고 있다. ‘종합 포장 인쇄타운’을 표방하는 인쇄 및 포장 관련 전문시장이다. 건물형 방산종합상가와 가로형 방산시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945년 광복 이전에 이 지역에는 작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광복 직후에는 미군이 을지로6가 쪽에 주둔하면서 미군부대에서 유출된 각종 식료품이 거래되기 시작했고, 이른바 ‘양키시장’으로 불리며 활성화됐다. 그러다가 6·25전쟁 때 폭격으로 거의 폐허가 되었으나, 9·28 서울수복을 계기로 다시 미군부대에서 유출되는 식료품들이 모여들면서 성황을 이뤘다. 특히 소시지·육류·통조림 등 외래식품과 함께 서울 일원에 흩어져 있던 가내수공업 형태의 제과공장에서 생산되던 각종 과자류가



‘종합 포장 인쇄타운’으로 유명한 방산시장

대량 집산(集散)됨으로써 전국적인 과자류 시장으로 이름을 떨쳤다. 과자류 집산지가 되자 과자의 필수재료인 밀가루와 설탕의 도매업이 성행하고, 과자류 포장을 위한 종이류 거래까지 활발해지며 일명 ‘종이골목’이 형성됐다.

1960년대에 들어서는 외래군수품에 대한 단속으로 외제식료품 대신 설탕·밀가루를 비롯하여 통조림·과자류·차류(茶類)·조미료 등을 취급하는 식료품 상가가 주축을 이루며 전국 최대 규모의 식료품 도매시장으로 발전했다. 방산종합시장은 1976년 9월 폐교된 방산국민학교 터에 약 45억 원의 자본을 투입하면서 개설되어 1976년 11월 허가되었다. 2012년 현재 대지면적 9,737㎡, 건축충면적 2만 3,335㎡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 2동으로 구성돼 있다. 시장 내 점포수는 2,513개이고, 일일 이용객수는 1만여 명이다. 현재 주거래 품목은 각종 포장자재, 장판·벽지, 판축물, 제판·출력, 종이, 인쇄물, 수건 등이며, 오전 8시에 개장하여 오후 8시에 폐장한다. 제빵과 관련된 각종 기계와 도구를 취급하는 상점들이 밀집해 있는 베이커리골목 또한 방산종합시장의 명소이다.

05. 방산동 芳山洞

청계5가교차로에서 동남쪽으로 청계천과 동호로를 끼고 위치하는 방산동(芳山洞)은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명철방(明哲坊)에 속했던 지역이다. 일제 강점기 연방정(蓮芳町)·방산정(芳山町) 등으로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방산동이 되었다. 방산동의 동명은 부근에 있던 가산(假山)에 심어져 있던 무궁화의 향기에서 연유되었다.

을지로6가 18번지 동쪽 끝에서 방산동 4번지 서북쪽 끝까지 청계천 양쪽으로는 가산 혹은 조산(造山)이라 부르던 언덕이 있었다. 가산은 바로 영조와 순조 때 대대적인 준설작업 후 청계천변에 쌓아놓은 흙이 크게 산을 이룬 데서 나온 말이다. 가산의 북쪽 언덕은 광무 2년(1898)에 전기회사 차고를 만들기 위하여 대부분 사용하였고 남쪽 언덕은 1917년 동대문초등학교를 세울 때 대부분 갖다 쓰고 그 이듬해 조선약학교(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전신)를 건립할 때 사용하였다. 쌓여 있던 나머지 모래는 1922년 경성사범학교를 지을 때 사용하여 원래대로 평탄하게 되어 지금은 가산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방산동은 동쪽으로 을지로6가와 연해 있고 서쪽으로는 주교동, 남쪽으로는 을지로5가와 접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청계천로를 지나 동대문시장과 연결되어 있다. 예전에 방산동과 을지로5가를 이어주는 곳에는 오교(午橋)라는 다리가 있었다. 그래서 그 주변의 마을을 오교동(午橋洞)·오교다리라고 하였다. 오교 근방에 소와 말이 거래되어 우교(牛橋)라고 했던 것이 한자가 비슷한 오교(午橋)로 되었다고 한다. 방산동 20번지와 종로5가 343번지 사이 청계천에는 마전교(馬廐橋)가 있었다. 마전교라는 이름은 이 다리 인근에 말을 매매하



방산동의 관할구역 경계



관우의 영정을 모신 성제묘

는 말시장이 마진(馬廐)의 역할을 한 데서 유래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오교(午橋)의 유래 외에도 마진교에서 오교가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는데, 이는 12간지(十二干支) 중 말을 오(午)라고 하는 데서 그 연유가 있다는 것이다.

방산동 4-96번지에는 관우(關羽)를 모시는 사당인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7호 성제묘(聖帝廟)가 있

다. 소설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관우의 영정을 모신 곳으로 순수한 민간인에 의해 세워진 묘당(廟堂)이다. 성제묘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의 목조건물로 낮고 견고한 석단 위에 세운 단층 건물인데 현액은 현성전(顯聖殿)으로 되어 있다. 앞에는 네 쪽의 분합문을 달았고, 맞은 편 벽에는 작은 보개(寶蓋)가 있는 감실(龕室) 안에 관우 부부상이 걸려 있다. 이 건물은 조선시대 민속신앙 및 의식구조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방산동 18번지에는 병사의 무술훈련 및 전술 등의 강습을 맡았던 훈련원이 있었다. 훈련원은 조선 태조 원년(1392)에 설치되어 처음에는 훈련관으로 불렸는데 태종 때 이곳으로 옮겨 청사 남쪽에 활쏘기 등 무예를 연습하고 무과시험을 보는 대청인 사청(射廳)을 지었으며 세조 12년(1466)에 훈련원으로 고쳤다. 병조(兵曹) 예하기구였던 훈련원은 군사훈련을 체계화하고 무과시험을 담당할 기관의 필요성 때문에 설치되었다. 왜란과 호란을 겪은 뒤 군제의 변화가 필요해짐에 따라 훈련원은 1795년(정조 19년)에 관원의 수를 증원하였다. 이후 대한제국 말기 국권피탈의 과정에서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에 의해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됨에 따라, 1907년 훈련원도 해산되었다. 현재 훈련원 터 일대는 훈련원공원(訓練院公園) 주차장으로 바뀌었다.

훈련원 앞에 있는 다리는 훈련교, 혹은 훈련원다리라 불렸으며 훈련원 안의 우물은 통우물 혹은 통정(桶井)이라 불렸다. 이 우물은 물맛이 좋기로 서울에서 첫째로 꼽

았다. 통우물이라는 이름은 처음에 우물을 팔 때 큰 버드나무 뿌리 밑에 물줄기가 있으므로 뿌리의 속을 도려내고 우물을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 큰 통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통우물은 그 통이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맛이 깨끗하여 여름에는 차고 겨울에는 더우며 가물거나 장마가 저도 넘치거나 줄지 않았다고 한다.

방산동 성제묘 부근에는 방산초등학교가 있었다. 방산초등학교는 광복 직후에 세워진 공립학교인데 1970년 2월에 폐교되어 현재는 방산종합시장 상가가 들어서 있다. 방산동 북쪽 청계천 변에는 1960년대에 생겨난 의류생산·판매시장인 평화시장이 을지로6가 방향으로 길게 이어져 있다.

06. 입정동笠井洞

청계천 관수교 남쪽, 지하철 3호선 을지로3가역 4번 및 5번 출입구 앞쪽에 위치한 입정동(笠井洞)은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성명방(誠明坊)과 훈도방(薰陶坊)에 속했던 곳으로 일제 강점기 입정정(笠井町)이라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입정동이 되었다. 입정동의 동명은 갯방, 즉 갯을 만드는 집에 우물이 있어서 동네 이름을 ‘갯방우물골’이라고 한 데서 유래되었다.

입정동은 상업중심지로 형성되어 있는데 청계천변은 조선시대에 중인과 서민들이 주로 거주했다. 개항 후 종로는 한인 상인들이 상권을 지탱하고 있었지만 충무로를 중심으로는 일본 세력이, 소공동과 명동을 중심으로는 중국 상인들이 뿌리를 내렸다. 청일전쟁 이후 중국 상인들은 청계천 방면으로 밀려났다. 일제 강점기에는 을지로 남쪽을 중심 무대로 삼은 일본 상



입정동의 관할구역 경계



도로명 충무로 연변에 자리 잡은 입정동의 공구상가

권과 종로를 중심으로 한 민족 계열의 상권이 경쟁을 벌이게 됨으로써 자연히 입정동 · 수표동 · 산림동 지역이 이들 양 상권 다툼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였다. 오늘날 입정동 주변 청계천 변에는 모터 · 보일러 · 기계공구 · 철제 · 철근 등을 취급하는 공구상가와 전기 · 기계용품 전문상이 밀집되어 있다.

입정동 북쪽에는 하릿교 또는 하랑교(河浪橋)가 놓여 있었다. 이 다리가 하남위(河南尉)의 집 왼쪽 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유래되었다고도 하고, 부근에 화류장농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시전이 있었기 때문에 화류장농교라 하다가 화류교(樺榴橋)로 줄어들어 다시 하릿교 · 하랑교 · 하교(河橋) · 화교(花橋) 등으로 변했다는 설도 있다. 석교인 이 다리 서쪽 측면에는 ‘임신개조(壬申改造)’라는 네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개축년도를 추측할 수가 있으나 청계천 복개공사 때 철거되었다.

입정동에 있었던 자연마을로는 갑동(甲洞), 마계동(馬契洞), 살리못골, 챗골, 시금동(詩琴洞), 초동(草洞), 임동(林洞) 등을 들 수 있다. 그중 갑동은 입정동과 수표동에 걸쳐 있는 옛 마을이고, 마계동은 연원을 입증할 자료들이 남아 있지 않으나 조선시대 청계천변에 마구류를 만들거나 파는 시전이 있었다는 기록을 참고해 볼 때 아마도

마구류를 취급하던 시전이나 이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았기 때문에 유래된 동명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입정동과 수표동 및 을지로3가에 걸쳐 있는 시동(詩洞)은 조선 후기 성리학과 문장으로 널리 이름을 떨친 유학자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이 살면서 친구들과 같이 시와 거문고를 즐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김창흡은 문장과 시에 능하여 많은 시를 남겼다. 그는 증조부와 아버지가 좌의정과 영의정을 지낸 가문에서 태어났고 이단상(李端相)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나 과거에는 관심이 없어서 아버지의 명으로 진사시에 합격한 뒤에는 과장(科場)에 발을 끊었다.

그 뒤 여러 관직을 제수받았으나 관직에 나가지 않고 시를 즐기고 불경과 성리학을 깊이 탐구하였는데 그가 관직에 나가지 않고 학문에만 몰두한 것은 기사환국(己巳換局)에 연루되어 아버지가 사사되고 신임사화(辛壬士禍) 때 형 창집(昌集)이 유배지에서 죽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다음은 삼연이 야인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의 어려운 생활을 목도하고 그것을 시로 남긴 것이다.

우리 조선나라에서 가장 큰 걱정은 군사가 없는 것
사색당파는 갈래가 많고 힘은 나뉘어 합치지 못하였네.
이런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지누나
어이 옛 성인들만이 나라를 깊이 사랑하였으랴.
농사지어 바치는 세금보다는 군포로 바치는 돈이 더 많아
밭 갈던 소마저 팔아 넣고 허덕이며 힘들게 살아간다네.
관청의 부역 되도록 줄이고 군포도 또한 감해 버리며
장정들 모두 대오를 지어 무기 들고 국방에 나서게 하나.
백성들 굶주리고 헐벗지 않아야 예의도덕 지키는 법이라
가난한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자애로운 정치랴.
울곡 선생은 백성을 위하라는 옛 성인의 뜻을 깨달아
향약을 지키라고 내물기보다는 백성구제를 먼저 하였다네.⁶⁴⁾

삼연은 이 시에서 당시 조선 사회에서 가장 큰 장애로 자리하였던 사색당파의 폐해와 백성에게 큰 부담을 주었던 군포의 남징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그 자신이 당쟁으로 인해 가문이 화를 입었으므로 당쟁에 대해 남다른 비애가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07. 산림동山林洞

청계천 세운교 남쪽, 대림상가(大林商街) 좌우에 위치한 산림동(山林洞)은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성명방(誠明坊) 지역으로 일제 강점기 임정(林町)으로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산림동이 되었다. 산림동의 동명은 예전에 이곳 일대가 살리못골이라 불리던 것에서 유래하였다. 그러나 이곳은 살리못골의 의미인 산림과는 관계없는 하천변의 평지에 형성된 마을이므로 이 동명이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다. 하지만 이곳이 지금은 평지이지만 동·서쪽의 주교동·입정동의 지대가 낮아 자연 지형에 따른 명칭에서 연유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산림동은 동쪽으로는 주교동이 있고, 서쪽으로는 을지로4가, 남쪽으로는 입정동이 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청계천로를 사이에 두고 종로구와 구 경계를 이루고 있다.



산림동의 관할구역 경계

대림상가 동쪽 부근으로 예전에 우물바닥이 바위로 된 돌우물이 있어 석정동(石井洞)이란 마을과 우물가에 기와조각과 벽돌조각을 깎 연와(煉瓦)우물이 있어 연정동(鍊井洞)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그리고 삼대동(三臺洞)이란 마을은 세운상가 동쪽 부근의 구릉 가운데 돈대 크기만 한 언덕이 세 개 나란히 있었으므로 이름이 연유되었다. 후동은 뒷골이라고도 부르는데 배다리의 뒤쪽에 있다 하여 붙여진 명칭이며 주교동과 산림동에 걸쳐 있었다. 또한 말



조명기기를 취급하는 점포가 많이 입주해 있는 대림상가

굽다리는 입정동에 있는 하릿교다리와 새경다리 사이에 있던 교량으로 지형이 말굽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산림동의 대표적인 건물은 대림상가다. 을지로4가에서 구 국도극장(현 국도호텔) 맞은편으로 향하면 각종 전자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뽁뽁이 들어찬 대림상가 건물이 보인다. 대림상가는 세운상가와 연결된 상가로서 2000년대 초까지 250여 개의 점포가 1~5층에 입주하여 영업하고 6층부터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 대림상가는 세운상가와 구름다리로 연결되고 다시 인현동1가의 삼풍상가와도 연결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청계천 복원과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해 구름다리는 철거되었다.

대림상가를 비롯한 세운상가는 용산전자상가의 개발로 컴퓨터, 전자 업종이 대거 이전하면서 1990년대부터 전면 철거 의견이 제기되었다. 2006년 세운상가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전체 상가를 철거한 후 녹지축을 조성하고 주변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보상 문제와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사업성이 악화되어 전면 철거 계획은 보류되었으며, 2014년 서울시가 세운상가 존치 결정을 공식화하면서 현재는 재정비촉진지구의 분리 개발방식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림상가는 1990년대 말까지는 주로 전자·가전제품, 컴퓨터, 카메라, 시계 등을 취급하여 세운상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현재는 국내외

고급 오디오, 게임기, 노래방 기기, 조명 기기 등을 도매가로 판매하고 있다.

한편 대림상가 주변 산림동에는 기계부속·공구·전기용품 등을 취급하는 상가가 집중되어 전문거리를 형성하고 있다. 그 가운데 모터 부속상가는 청계천로에 연한 동의 동북쪽 지역에, 공구 전문상가는 대림상가 동측에 집중되어 있고, 전기용품은 대림상가 서쪽과 상가 1~2층에 주로 모여 있다.

08. 초동草洞

명보사거리 서쪽, 마른내로 남북에 위치한 초동(草洞)은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훈도방(薰陶坊)에 속했던 곳으로 일제 강점기에 약초정(若草町)이라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초동이 되었다.

초동의 동명 유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첫째는 이곳에 있던 개초(蓋草)·마(麻)·갈(葛) 등을 가공하지 않고 원료 그대로 파는 초물전(草物塵)이 있어서 초전골 또는 초전동(草塵洞)이라고 했는데, 이를 줄여서 초동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 일대에 있던 마을에 물맛이 맵고 톡 쏘는 후추우물인 초정(椒井)이 있어서 초

정골이라고 했는데, 초전골 또는 초동이라고 변형되었다는 것이다.

초동은 동쪽으로 인현동1가와 접하고 서쪽으로는 저동2가와 접한다. 남쪽으로는 충무로3가와 접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을지로 3가와 연하여 있다. 또한 초동의 남북 축으로는 도로명 충무로가 지나고 동서 축으로는 마른내로가 지난다. 두 도로는 명보사거리교차로에서 만난다. 도로명 충무로는 청계3가 관수교 이북으로 돈화문로로 직결되는 편도 4차선의 일방통행로



초동의 관할구역 경계

로 2010년 도로명 주소 개편 과정에서 중구 구간(관수교 이남)만 분리하여 새로 부여한 명칭이다. 흔히 말하는 범정동 충무로는 세로축의 일방통행로가 아닌 가로축의 골목길들이며, 이 길들을 따라 충무로1~5가로 편제되어 있다.

초동에 있던 자연마을로는 궁기동(宮基洞), 전주묵(全周墨)골, 초전(草廩)골, 초정(椒井)골 등을 들 수 있다. 궁기동은 초동, 충무로3가, 저동2가에 걸쳐 있던 마을인데 저동2가에 영화전이 있었으므로 궁텃골이라고도 하였다. 또 전주묵골은 초전골에 있던 마을로서 밭 한가운데 맵싸한 물맛으로 이름난 초정이 있었으므로 전초우물골 또는 전주묵골이라고 하였고, 초전골은 초동, 충무로3가, 입정동에 걸쳐 있던 마을로 초정이 있었으므로 초정골이라고 하였는데 그 후 음이 변하여 초전골 또는 초동이라 불리게 되었다.⁶⁵⁾

일제 강점기에 초동은 일본인들이 토지와 상권을 장악하고 집단 거주하던 곳이었다. 1924년 6월호 『개벽』 잡지에 의하면 이곳에 거주하는 일본인 가구 수는 326호이고 한국인 가구 수는 300호가 채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일제 강점기에 이곳에는 약초좌(若草座, 약초극장)와 서본원사(西本願寺) 경성별원(京城別院) 등이 있었는데 약초좌는 이후 수도극장, 스카라 극장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영화관으로 운영되었다. 서본원사 경성별원은 일본 사찰인 서본원사의 여러 별원 중 하나이다. 지금은 모두 터만 남아 있다.

초동의 중심 거리라 할 수 있는 명보사거리 동북쪽에는 2009년 개관한 명보아트홀이 자리 잡고 있다. 명보아트홀은 뮤지컬 및 연극 전용극장으로 명보극장이 그 전신이다. 명보극장은 1957년 8월 26일에 개관한 1,224석 규모의 단관극장으로 한국 영화를 주로 상영하던 방화관(邦畵館)이었다. 당시 극장은 한국 영화를 주로 상영하는 방화관과 외국 영화를 상영하는 외화관(外畵館)으로 구분되었는데, 명보극장은 국도극장·국제극장 등과 함께 방화관으로 출발하였다. 1970년대부터는 외국 영화도 상영하였는데, 작품성이 뛰어난 외국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으로 평판이 높았다.

명보극장은 1994년 명보프라자로 개칭한 뒤 5개 상영관을 갖춘 우리나라 최초의 복합상영관으로 재개장하였으나, 멀티플렉스 영화관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2008년 폐관되었다. 2009년 같은 자리에 뮤지컬과 연극을 공연하는 복합 문화공간 명보



초동에 있었던 스카라극장(중구문화원 사진공모전 입상작)

아트홀이 들어섰고, 단판 226석 규모의 명보실버극장을 개관하였다. 2010년 소유주 신영균이 명보아트홀·신영영화박물관 등의 사재를 기부하여 신영균예술문화재단을 창립하였으며, 이 재단에서는 ‘아름다운예술인상’을 제정하고 2011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09. 인현동1가仁峴洞一街

마른대로 남북, 삼풍상가와 신성상가 서쪽에 위치한 인현동1가(仁峴洞一街)는 조선 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성명방(誠明坊)에 속했던 곳으로 일제 강점기 행정정1정목(櫻井町一丁目)이라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인현동1가로 되었다. 이곳의 동명은 인현동1가·인현동2가·예관동에 걸쳐 있던 인성북

재라는 고개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다. 인성북재는 이 고개 밑에 선조의 일곱째 아들인 인성군(人城君) 영(瑛)이 살았기 때문에 인성군의 집이 있는 고개라는 의미이다. 이를 한자로 인성부현(仁城府峴)·인성현·인현이라고 하였다.⁶⁶⁾

인현동1가는 동쪽으로는 인현동2가와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초동, 남쪽으로는 충무로4가와 인접해 있다. 또한 북쪽으로는 을지로3~4가와 접하며 동의 한가운데를 동서로 마른내로가 지나면서 남북으로 양분하고 있다.



인현동1가의 관할구역 경계

인현동1가에 위치했던 옛 자연마을로는 대인현동, 상동, 산림동, 필동, 회동, 건천동 등이 있다. 특히 건천동(乾川洞)은 인현동1가 40번지 부근의 마을을 말하는데 생민동(生民洞)에서 흘러나오는 개천에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이 마을은 마른내[乾川]가 있는 곳이어서 건천동이라 하였는데, 이 개천은 비가 오지 않은 날은 바닥이 말라붙어서 통행길로 사용하지만 비만 내리면 개천으로 변했다. 조선 선조 때 문인이자 허균의 형인 허봉(許葑)은 『성소북부고(性所覆瓿稿)』에서 건천동 일대를 일컬어 국조(國祖) 이래로 명인이 많이 탄생한 곳이라 하였다. 과연 마른내 근처에서는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을 비롯해서 단종 때 영의정을 지낸 정인지(鄭麟趾), 두만강 호랑이라 일컫던 김종서(金宗瑞), 세조가 본인의 제갈량이라면서 농지 않았던 양성지(梁誠之), 홍길동전(洪吉童傳)으로 유명한 허균(許筠), 이순신을 등용한 유성룡(柳成龍) 등이 살았다.

특히 인현동1가 40번지는 충무공 이순신(李舜臣, 1545~1598)이 태어난 곳이다. 이순신은 조선 중기의 명장으로,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로 있으면서 조선군을 이끌고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어 왜군을 격퇴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본관은 덕수(德水)이고, 자는 여해(汝諧), 시호는 충무(忠武)이다.



인현동의 인쇄골목

이순신은 1545년(인종 1)에 한성부 건천동에서 이정(李貞)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28세 되던 1572년(선조 5)에 훈련원 별과(別科)에 처음으로 응시했다가 말에서 낙마하여 골절상을 입고 낙방하였고, 1576년(선조 9)에 다시 이곳 훈련원에서 식년시 무과(武科)에 응시하여 병과(丙科)에 합격하였는데, 이때가 임진왜란을 16년 앞둔 해였다.

이후 1591년(선조 24) 47세의 나이로 현재의 여수 지역에 그 본영이 있었던 전라좌도(全羅左道) 수군절도사영(水軍節度使營)의 절도사로 임명되었다. 이곳에서 그는 나중에 벌어질 임진왜란에서 크게 활약할 조선 수군의 대표적인 전투선인 판옥선(板屋船) 20여 척을 운용하였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그 해에 이순신의 수군은 옥포해전, 사천해전, 한산도대첩, 부산포해전 등을 승리로 이끌며 왜군의 해상 활동을 저지하였고, 이듬해인 1593년(선조 26)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수군을 총지휘하는 삼도수군통제사에 임명되었다. 그러다 1597년 정유재란 직전인 2월에 통제사에서 해임되어 백의종군(白衣從軍)의 명을 받았다. 그러나 그해 7월 정유재란 발발과 함께 삼도

수군통제사 예하의 조선 함대가 칠천량해전에서 궤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으면서 조선 조정은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하였다. 그리하여 9월 명랑대첩에서 13척의 조선 함대로 133척의 왜군 함대에 맞서 싸워 31척을 격파하며 승리하여 정유재란의 전세를 역전시켰다. 1598년(선조 31) 정유재란이 끝나던 해 조선 수군과 왜의 수군이 마지막으로 맞붙은 노랑해전에서, 이순신은 왜군의 탄환을 맞고 전사하였다. 1643년(인조 21) 인조가 그에게 ‘충무(忠武)’라는 시호(諡號)를 내렸으며, 1688년(숙종 14) 명랑대첩비가 건립되었고, 1706년(숙종 30) 충청남도 아산에 이순신을 기리는 현충사(顯忠祠)가 건립되어 오늘에 이른다.

건천동은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이 어린 시절 살았던 곳이기도 하다. 조선 선조 때의 명재상인 유성룡은 퇴계 이황의 제자로 성리학의 대가였으며, 대사헌·경상도관찰사 등을 거쳐 영의정을 지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과 권율 같은 명장을 천거하여 국난을 승리로 이끄는 데 기여하였으며, 죽을 때까지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 조선의 명 재상 가운데 한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다. 임진왜란 때 겪은 뼈저린 후회와 교훈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 『징비록(懲毖錄)』을 저술하였다.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28 주유소 앞 화단에 1989년에 설치한 ‘유성룡 집터’ 표지석이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1998년 4월 문화재지정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유성룡 집터 부근인 퇴계로4가 교차로에서 필동3가까지의 약 375m의 도로를 ‘서애로(西厓路)’로 지정하였다.

한편 인현동은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이 토지와 상권을 장악하고 주로 살았던 곳이며, 광복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주택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불량지구였다. 지금은 상당히 정비된 상태로 재래시장인 인현시장과 주상복합건물로 건축된 삼풍상가가 있다. 삼풍상가는 을지로4가와 인현동1가 사이에 걸쳐 있으며 세운상가와 산림동에 있는 대림상가와 구름다리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200여 개의 상점에서 주로 가전제품과 조명가구 등을 취급하였다.⁶⁷⁾

10. 저동2가 茱洞二街

마른내로와 수표로가 중부경찰서 앞 교차로에서 동의 중심을 통과하는 저동2가(茱洞二街)는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훈도방(薰陶坊)에 속했던 곳으로 일제 강점기 영락정2정목(永樂町二丁目)으로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저동2가로 되었다. 저동이라는 동명은 이곳에 조선시대 모시를 취급하는 상점인 저포전(茱布廐)이 있었기 때문에 유래되었다. 예전부터 저전골·저전동(茱廐洞)으로 불리던 것이 저동으로 약칭되었다. 저포전은 조선시대 한성부에 설치되었던 육의전 중 하나로 모시를 팔았다.

저동2가는 동으로 초동, 서로는 저동1가와 접하며, 남으로는 충무로2~3가와, 북으로는 을지로2~3가와 접하고 있다. 저동2가의 동서로는 마른내로, 남북으로는 수표로가 지나고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에 위치한다. 저동2가의 자연 마을로는 궁기동(宮基洞), 냉정동(冷井洞), 이동(履洞), 죽동(竹洞) 등이 있었다. 궁기동은 궁텃골이라고도 하며 초동과 저동2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영희전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지금의 중부경찰서와 영락교회, 영락병원 일대에 해당된다.⁶⁸⁾

영희전(永禧殿)은 본래 세조의 맏딸인 의숙공주(懿叔公主)의 저택이 있던 곳으로

이후 조선왕조의 태조·세조·원종·숙종·영조·순조의 영정(影幀)을 모시고 제사 지내는 곳이 되었다. 이 자리에는 현재 중부경찰서가 위치하고 있다. 1894년 중부경찰서로 출발하여 1910년에는 남부경찰서, 일제 강점기에 본정경찰서(本町警察署)로 바뀌었다. 1946년 9월 17일에 수도경찰청이 창설되고 관할경찰서 명칭을 개정할 때 본정경찰서를 중부경찰서로 개칭하였다. 또한 바로 옆의 부지에는 영락교회가 들어서 있다. 이 자리에는 일제 강점기



저동2가의 관할구역 경계

에 천리교(天理敎) 경성분소가 있었는데 한경직 목사를 비롯하여 이북 출신 기독교 신자 27명이 베다니전도교회를 세운 것이 영락교회의 시초이다.

저동2가는 조선 초 시진행랑(市塵行廊)이 설치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시진행랑은 종묘와 사직단을 세우고 궁궐과 관아 청사의 건설이 완성된 후인 태종 12년(1412)부터 두 해에 걸쳐서 건설되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조선 건국 이래 전통적인 상업지역으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 있으며 현재도 회사나 은행 등이 밀집되어 고도로 발달한 핵심 상업지구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저동2가 85번지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민간 의료기관 가운데 하나인 서울 백병원(白病院)이 있다. 경성의학전문학교 외과 주임교수이던 백인제가 서울 명동 지역에 세운 병원이다. 백인제는 1928년 일본 동경제국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36년에는 1년 6개월간 프랑스·독일·미국에 유학을 하였다. 그는 당시 국내 의술계의 제1인자로 손꼽힐 정도의 실력파였다. 1932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외과의 겸직 주임교수였던 우에무라[植村] 박사가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우에무라 외과의원을 남겼다. 백인제는 우에무라 외과의원을 인수해서 1940년 백인제 외과의원을 개원했는데, 이것이 현재 백병원의 모태이다. 광복 후 백인제는 자신이 모은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결과 1946년 12월 재단법인 백병원을 설립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립 공익법인이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백인제는 동생과 함께 납북되었다. 이후 병원은 아들인 백낙조(白樂朝)와 백낙환(白樂皖)이 물려받아 운영했다. 1979년 백낙조가 인제대학을 설립했고, 1983년 9월 인제의과대학이 인제대학으로 개편됨에 따라 병원 명칭을 인제대학교 부속병원으로 바꾸었다. 이어 1979년 부산 백병원을 시작으로 1989년 서울 상계 백병원, 2000년 일산 백병원, 2001년 동래 백병원, 2010년 해운대 백병원을 설립하였다.

한편 저동2가는 을지로 골뱅이골목으로도 유명하다. 골뱅이골목의 시초는 1960년대 이곳의 구멍가게에서 골뱅이 통조림에 쥐포를 찢어 넣고 매콤한 양념을 버무려 팔았던 것에서 유래하였다. 그러다가 골뱅이무침 가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중구 수표로45 일대에 지금과 같은 골뱅이골목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곳의 골뱅



저동2가에 형성되어 있는 을지로 골뱅이골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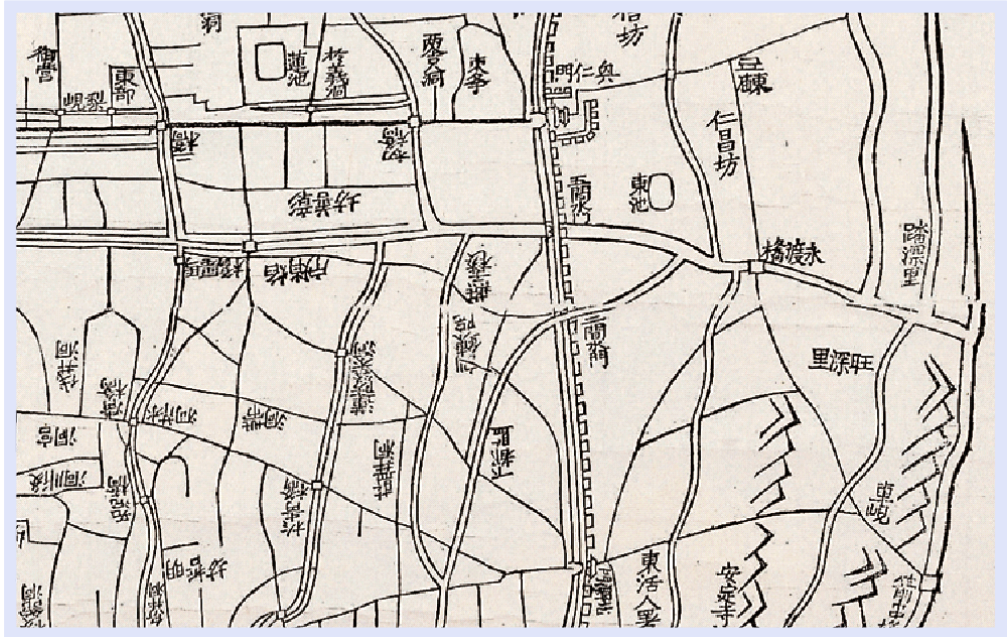
이무침은 주로 마늘과 고춧가루, 채 썬 파가 듬뿍 들어가며 매콤하고 독특한 맛이 특징이다. 골뱅이무침 특유의 매운 맛을 중화시키기 위해 조개국물이나 계란말이 등이 함께 제공되며, 무침에는 쥐포 대신 대구포가 들어가기도 한다. 을지로 골뱅이골목은 한 잔 술과 함께 매콤한 골뱅이무침을 즐기기 위해 도심의 직장인들과 주머니 가벼운 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⁶⁹⁾

제8장 신당동 권역

신당동(新堂洞)은 흥인동(興仁洞), 무학동(舞鶴洞) 등 2개의 법정동과 신당동 중 금호동길 북쪽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동장 관할구역 명칭으로써, 1949년 이후 구획된 성동구 신당동 중에서 흥인동회, 무학 제1동회, 무학 제2동회 지역이다.

신당동의 동명은 무당이 받드는 신령을 모시는 신당(神堂)에서 유래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광희문(光熙門) 밖에 있는 이곳을 중심으로 많은 무당촌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갑오개혁 때 발음이 같은 신당(新堂)으로 바뀌었다. 청계천 남쪽 다산로 동서쪽에 위치한 흥인동은 동대문의 이름 ‘흥인지문(興仁之門)’에서 유래되었고, 신당동 네거리 남서쪽 퇴계로와 다산로를 끼고 있는 무학동은 도로교통안전협회 남쪽에 있는 ‘무학봉’에서 연유하였다. 무학봉에는 학이 날아와서 춤을 추었다는 설과 조선의 도읍을 정할 때 무학대사가 이곳에 올라 지역의 지형을 살펴보았다는 설 등이 전해진다.

195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 동설치조례에 의해 여러 동을 관할하는 행정동 제도를 실시하면서 동회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재조정되었다. 1966년 7월 6일에는 서울특별시조례 제419호 서울특별시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중 개정조례에



「수선전도」 중 신당동 부근

의해 홍인동과 무학동이 각각 분동되었고, 1970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13호 동장정원 및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조례에 의해 홍인동사무소와 무학 제1·2동사무소를 신당 제1동사무소로 변경하여 을지로7가 종점을 기점으로 신당동 264-1번지, 274-2번지, 295-27번지에 이르는 도로 서쪽과 398-38번지를 경유하여 중구 경계선의 동쪽 지역과 홍인동·무학동 전역을 관할하였다. 197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7816호로 대폭적인 구·동의 관할구역 재편성이 있을 때 성동구 중에서 황학동·홍인동·무학동 전역과 신당동·상왕십리동 각 일부 지역이 중구로 편입되었고, 이후 2013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179호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해 행정동 신당1동이 신당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⁷⁰⁾

6개 간선도로와 4개 지하철노선이 지나는 역세권 지역, 대형 의류상가 밀집으로 주야간 인구이동 집중지역, 퇴계로 남측은 주거지역이고 북측은 관광특구지역이며 상업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 2018년 기준 신당동의 면적은 0.55km²이며 인구는 4,417세대에 9,457명이 거주하고 있다.⁷¹⁾

01. 신당동新堂洞

광희문 동쪽에서 도로교통공단 교차로까지의 퇴계로 남쪽 일대에 위치한 신당동은 조선 초기 한성부 성저십리에 속한 곳으로 일제 강점기에 신당정(新堂町)이라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성동구 신당동이 되었다. 이후 197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7816호로 중구 신당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신당동의 동명은 광희문 밖에 있는 이곳의 신당을 중심으로 많은 무당들이 모여 무당촌을 이루었다고 해서 유래되었다.

광희문은 수구문(水口門) 혹은 시구문(屍軀門)이라고도 하였는데, 조선시대 사소문의 하나로 서소문과 함께 도성 안의 상여를 밖으로 내보내던 문이라 하여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 시구문 밖 신당동 일대에는 공동묘지가 있었다. 1920년까지만 해도 많은 묘지가 겹겹이 있었고 일본인의 전용 화장터인 신당리 화장장도 있었다. 무당들은 죽은 사람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며 명복을 빌어주는 의식을 행하기도 하였기에 신당동을 중심으로 신당이 설치되었고 무당들이 많이 살게 되었던 것이라 짐작된다.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못한 관계로 무당들은 일반인의 질병 치료까지도 담당하였는데 조정에서도 이를 어느 정도 용인하고 감독기관도 설치하였다.

조선 개국 후 한성부의 행정구역을 5부 52방으로 나눌 때 이 지역은 한성부 성저십리(城底十里)에 포함되었다. 영조 27년(1751) 반포된 수성책자인 「도성삼군문분계총록」에 의하면 남부 두모방 신당리계였으며 1894년 갑오개혁 때 남서(南署) 두모방 왕십리계의 신당리동으로 되었다. 1910년 10월 1일에는 조선총독부령 제7호로 경기도 경성부 남부 두모방 왕십리계 신당리동이라 칭하였고,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로 경성부의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도성 안을 5부 36방으로 하고 도성 밖을 8면으로 하는 5부 8면제를 실시하면서 부에는 부장, 면에는 면장을 두어 경성부윤의 지휘 감독을 받게 할 때 경성부 두모면 신당리가 되었으며, 1913년 12월 29일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두모면 신당리 일부가 남부로 편입되었다. 이듬해 4월 1일 경기도고시 제7호로 고양군 한지면 신당리로 되었다. 1936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8호로 경성부의 관할구역이 확장되면서 경성부 신당정이 되었고, 1943년 6월 10일 부령



「대경성부대관」 중 신당정 부근(1936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제163호에 의해 출장소제도를 폐지하고 새로 구제도를 실시하게 되자 동부출장소의 관할이었던 신당정은 성동구에 소속되었다.

광복 직후인 1945년 말 ‘경성부정회연합회’가 구성되면서 일제 강점기에 사용되던 일본식 동명을 개칭하자는 건의가 나왔고, 이에 광복 1주년이 되던 1946년 8월 경성부는 서울시로, 신당정은 신당동으로 개칭되었다. 중구의 동쪽에 위치한 법정동인 신당동은 본래 매우 넓은 지역이었다. 1947년 말 신당동은 황학동, 용곡동(홍인동으로 개칭), 동무학동, 서무학동, 중무학동, 남무학동, 북무학동, 앵구남동, 앵구중동, 앵구문화동, 앵구행동, 앵구생구동, 유락동의 13개 동회로 분할되었다.⁷²⁾ 그러다가 1955년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 동설치조례에 따라 동을 통합하고 254개 동회를 대폭 변경하는 행정동 조정이 있었는데, 이때 1940년대에 시행했던 행정동의 조정이 비로소 실현되었으며 주민 수를 기준으로 분동하거나 통폐합하는 제도가 정착되었다.

1966년 7월 6일에는 서울특별시조례 제419호 서울특별시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

례 중 개정조례에 의한 동 관할구역 조정으로 신당동 240-25번지를 기점으로 133번지에 이르는 도로 북쪽 지역과 168-1번지 청계천까지의 도랑을 경계로 하는 동쪽 지역을 법정행정구역으로 하는 황학동이 분동되고, 중구 을지로7가 전차정류장 앞을 기점으로 신당동 264-1번지에 이르는 도로와 북으로는 청계천까지의 도랑 옆 도로를 경계로 하는 서쪽 지역을 법정행정구역으로 하는 흥인동이 분동되었으며, 광희문을 기점으로 신당동 241-5번지에 이르는 도로와 245-2번지에 이르는 도로 및 흥인동 경계선을 따라 중구 경계까지의 동쪽 지역을 법정행정구역으로 무학동이 각각 분동되었다.

1970년 5월 18일에는 서울특별시조례 제613호 동장정원 및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조례에 의해 신당동 관내 8개 동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흥인동사무소와 무학제1·2동사무소가 신당제1동사무소로, 충현동사무소가 신당제2동사무소로, 약수동사무소가 신당제3동사무소로, 청구동사무소가 신당제4동사무소로, 문화동사무소가 신당제5동사무소로, 동화동사무소가 신당제6동사무소로, 유락동사무소가 신당제7동사무소로, 상왕십리제1동 일부와 상왕십리제2동 전역 및 황학동사무소 전역이 신당제8동사무소로 각각 바뀌었다.

197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7816호에 의한 대폭적인 구·동의 관할구역 재편성이 있었을 때 성동구 중에서 황학동, 흥인동, 무학동 전역과 신당동 및 상왕십리동 일부 지역이 중구로 편입되었다. 1978년 10월 10일에는 서울특별시조례 제1286호에 의해 동명칭 및 구역 획정이 있었는데, 서울특별시조례 제1287호에 의한 동 통합 및 분동으로 신당제8동이 황학동으로 개칭되면서 신당동 일부가 황학동에 편입되었다. 1980년 7월 1일에는 서울특별시조례 제1413호 동사무소 설치조례에 의해 신당제7동이 폐동되어 신당제5동과 신당제6동에 편입되었다. 그러다가 2013년 7월 신당동의 동별 명칭이 변경되어 신당1동은 신당동, 신당2동은 다산동, 신당3동은 약수동, 신당4동은 청구동, 신당6동은 동화동으로 바뀌었다. 신당5동은 백학동과 유락동 두 개의 동명에 대한 주민 선호도가 비슷하여 변경이 보류되었다.

한편 신당동 236번지와 304번지 일대에는 동활인서(東活人署)가 있었다. 동활인서는 본래 동소문 밖 동부 연화방에 있다가 신당동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경



2018년 가을에 열린 신당동 마을축제(신당동주민센터 제공)

지략』에는 “동활인서는 동소문 밖 연화방에 있었는데 지금은 쇠퇴해서 폐지했다”라는 기록이 있다. 영조와 정조 연간에 제작된 「도성대지도」에는 동활인서의 위치가 동소문동으로 되어 있으나 김정호가 그린 「수선전도」에는 신당동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정조 이후에 이곳으로 이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활인서는 도성 안의 환자, 특히 전염병 질환을 주로 구호하던 의료기관으로서 동서 두 곳에 설치하였다. 고려 때 동서대비원의 후신으로 태조 원년(1392) 한성부의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처음에는 대비원(大悲院)이라 하였다. 태종 14년(1414) 9월의 배불정책에 따라 대비원이란 명칭이 불교의 대자대비(大慈大悲)에서 나온 것이라 해서 활인원으로 고쳤고, 세조 12년(1466)에 활인서로 개칭되었다가 임진왜란 때 폐지되었다. 광해군 4년(1662) 12월에 예조의 건의로 다시 설치되었는데 인조 22년(1644)과 24년에는 전염병이 만연하여 활인서에 수용된 환자가 699명에 이르렀다. 그 뒤 활인서는 유명무실하다가 영조 때 다시 그 역할이 증대되었으나 고종 19년(1882)에 결국 폐지되고 그 사업은 혜민서(惠民署)와 통합되어 제

중원(濟衆院)으로, 다시 대한적십자병원으로 이어졌다.⁷³⁾

혜민서는 주로 의약을 사용해 서민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었으나 활인서는 의원 이외에도 무당을 분속시켜 도성 안 환자 가운데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구료하였다. 활인서는 주로 전염병 환자를 취급했기에 전염병이 심할 때는 활인서 주위에 병막(病幕)을 쳐서 환자들을 수용했고, 한편으로는 무당으로 하여금 전염병 유행에 대한 역귀를 퇴치케 하였으며, 때로는 의료 이외의 구호사업을 병행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무당들이 환자 치료에 힘썼으므로 그들에게는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 주었다. 병자의 집이 가난하여 치료비를 내지 못하면 국고에서 미곡을 대납해 주었는데, 하루에 주는 쌀은 1되 정도였으며 해마다 병자의 수를 기록하여 감사에 보고해서 회계를 밝히게 하였다.

조정에서는 무당들을 성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지만 많은 무당들이 활인서에 속해 있어서 그 근본이 없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를 금해야 한다는 기록이 매우 많다. 활인서에는 땀내고 찜질하고 목욕하는 시설도 갖추고 있었다.⁷⁴⁾

02. 흥인동興仁洞

흥인동(興仁洞)은 청계7가 교차로에서 신당역 교차로에 이르는 다산로 동쪽과 서쪽에 위치한다. 도성 사대문 중 하나인 흥인지문(興仁之門)에서 동명이 유래하였고, 현재는 지하철 6호선 신당역·충무아트센터·왕십리주방가구거리 등이 이 지역에 속해 있다. 흥인동은 조선 초기 한성부 성저십리 지역이었다가 후기 한성부 남부 두모방에 속했던 곳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신당리, 신당정 등으로 불렸고,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신당동이 되었다. 1966년 1월 6일에 서울특별시조례 제419호에 의해 신당동에서 분동되어 성동구 흥인동이 되었으며, 이후 197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7816호에 의해 구역이 변경되어 중구에 속하게 되었다. 1950년에 발행된 『서울시세일람』에는 신당동의 행정동명으로 흥인동이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홍인동의 동명을 있게 한 홍인문은 동대문이라고도 하는데 수도 서울의 동쪽 관문으로 조선 태조가 수도를 방위하기 위하여 도성을 쌓을 때 건설된 문이다. 태조 5년(1396)에 건설되어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친 수축과 개축이 있었으나 그 원형만은 현재까지 보전되어 보물 제1호로 지정되었다. 현재의 위치는 종로구 종로6가 69번지이다.



홍인동의 관할구역 경계

홍인동은 조선 초부터 한성부 관할 구역에 속했으나 1751년에 만든 「도성삼군문분계총록」에 의하면 한성부 남부 두모방(豆毛坊) 신당리계에 속했고, 1894년 갑오개혁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될 때에는 한성부 남서 두모방(성외) 왕십리계 신당리동에 속하였다.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7호로 경기도 경성부 남부 두모방(성외) 왕십리계 신당리동이 되었다가, 이듬해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로 경성부 두모면 왕십리계 신당리로 되었으며, 1913년 12월 29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로 두모면 신당리 일부는 남부 신당리로 되고 일부는 1914년 4월 1일 경기도고시 제7호로 고양군 한지면 신당리가 되었다. 1936년 4월 1일에는 조선총독부령 제8호로 고양군 한지면 신당리는 경성부 신당정으로 편입되었고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로 성동구 신당정이 되었다.

1946년 10월 일제식 동명의 우리말 변경 원칙에 따라 성동구 신당동이 되었으며 1966년 7월 6일 서울특별시조례 제419호로 성동구 홍인동이 되었다. 197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7816호로 중구 홍인동으로 구역 변경이 이루어져 오늘에 이른다.

홍인동은 현재 신당동의 행정 관할을 받고 있는데, 광복 직후 한때 용곡동(龍谷洞)이라 불리다가⁷⁵⁾ 1950년 홍인동으로 개칭되었다. 195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에 의한 행정동제를 실시할 때 홍인동의 관할구역은 중구 을지로7가 종점 앞을 기점으로 신당동 264-1번지에 이르는 도로와 북쪽 영미교까지의 도랑 및 도로

를 경계로 하는 서쪽 지역을 관할하는 현재의 신당동 지역의 절반에 가까웠다. 1966년 7월 6일 서울특별시조례 제419호 서울특별시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중 개정조례에 의해 신당동에서 분동되어 범정동 홍인동이 탄생되었다. 1970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13호에 의해 홍인동은 무학동과 함께 신당동 관할구



중구의 예술 및 공연 거점 역할을 하는 충무아트센터

역이 되었으며, 1975년 10월 1일 성동구에서 중구 관할 지역으로 변경되었다.

홍인동은 북쪽으로는 청계천을 경계로 종로구 창신동과 마주하는 구 경계지역이며, 남쪽으로는 왕십리길을 사이에 두고 무학동과 신당5동과 접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황학동과 접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신당동과 인접해 있다. 전체적으로 홍인동의 지형은 ‘기역’자를 눕혀 놓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주택가라기보다 공공기관과 상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공기관으로서 동대문 전화국이 신당동로터리인 홍인동 86번지 일대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옆으로 한국전력기술연구소가 있다.

홍인동을 통과하는 다산로 주변에는 성동공업고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다. 예전에는 광희중학교가 같은 구내에 있었으나 시설과 학생 수의 증가로 성동구 응봉동 205번지 응봉역 뒤편으로 이전하였다. 신당역 9번 출구에 인접해서 충무아트센터가 자리하고 있어서 시민을 위한 예술 및 공연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03. 무학동舞鶴洞

무학동(舞鶴洞)은 도로교통안전협회 남쪽에 위치한 무학봉(舞鶴峰)의 산 이름에서 유래한 동명이다. 학이 이곳 봉우리에 날아와 춤을 추었다고 해서 무학봉이 되었으며,⁷⁶⁾ 무학이라는 명칭은 무학봉 남쪽 기슭에 있던 동네를 무학골이라 한 데서 비롯

되었다. 무학동은 조선 초기부터 한성부 관할구역 내에 속했는데 1751년 만든 「도성삼군문분계총록」에는 한성부 남부 두모방(성외) 신당리계 및 신촌리계였다고 나온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될 때 한성부 남서 두모방(성외) 왕십리계 무학동이 되었다.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7호로 경기도 경성부 남부 두모방(성외) 왕십리계 무학동이 되었다가, 이듬해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로 경성부 두모면 왕십리계 무학동이 되었고, 1914년 4월 1일에는 경기도고시 제7호로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 하왕십리가 되었다가, 1936년 4월 1일 부령 제8호로 경성부 하왕십리정으로 편입되었으며, 1943년 6월 10일 부령 제163호로 성동구 하왕십리정이 되었다.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의 우리말 변경 원칙에 따라 성동구 하왕십리동이 되었으며, 1966년 7월 6일 서울특별시조례 제419호로 성동구 무학동이 되었다가, 197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7816호로 중구 무학동으로 구역변경이 이루어졌다.

현재 무학동은 신당동사무소의 행정관할을 받고 있는데 광복 후 일제 때의 정회제도(町會制度)와 성격이 비슷한 동회제도를 실시하면서 동무학동, 서무학동, 남무학동, 북무학동이 설치되었으나⁷⁷⁾ 1950년에 남무학동을 폐동하면서 ‘무’자를 생략하여 동명칭을 동학동, 서학동, 북학동이라 하였다.⁷⁸⁾



무학동의 관할구역 경계

195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 동설치조례에 의해 행정동제도를 실시하면서 동학동은 무학제1동으로, 서학동 및 북학동은 무학제2동으로 개칭되었다. 이때 무학제1동의 관할구역은 신당동 중에서 광희문을 기점으로 신당동 241-5번지에 이르는 길과 홍인동의 경계선을 따라 중구 경계선까지의 동쪽 지역을 분할한 곳이었고, 무학제2동은 신당동 중에서 광희문을 기점으로 신당동 241-5번지에

이르는 도로와 남쪽 도랑을 따라 307-5번지, 339-3번지, 393-38번지를 경유하여 중구 경계까지의 동쪽 지역이었다.

1966년 1월 6일 서울특별시조례 제419호 서울특별시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중 개정조례에 의해서 신당동 중 광희문을 기점으로 신당동 241-5번지에 이르는 도로와 245-2번지에 이르는 도로 및 홍인동 경계선을 따라 중구 경계까지의 동쪽 지역을 무학동이라 하고 관할구역은 무학동 일원으로 하였다.

1970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13호 동장정원 및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조례에 의해 무학동은 홍인동과 신당동 중 중구 을지로7가 전차 종점을 기점으로 신당동 264-1번지, 274-2번지, 295-27번지에 이르는 도로 서측과 398-38번지를 경유하는 중구 경계 동측 지역과 함께 신당 제1동의 관할구역으로 되었다.

197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7816호에 의해 성동구 관할구역에 속했던 무학동은 중구 신당제1동의 관할구역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른다.

무학동은 동·서·남쪽은 신당동과, 북쪽은 왕십리길을 사이에 두고 홍인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동쪽으로는 다산로가 지나며 다산로와 왕십리길 연변에만 상업지구로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도로 안쪽은 주택지구이다. 성동구청이 자양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크기는 작아도 마름모꼴의 신당동로터리가 있어 교통 및 행정 중심지였으며 성동구의 어느 지역보다 하천복개가 먼저 이루어져 노상주차장으로 사용했던 곳이다.

무학동 동쪽으로는 개천이 남북으로 흐르고 있었는데 현재는 복개되어 찾아볼 수가 없다. 이 하천은 신당동 남쪽에서 시작되어 다산로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 무학동을 지나 광희초등학교 앞을 거쳐 청계천으로 흘러간다. 이 지천을 ‘무당개울’이라고도 불렀는데 그 좌우편에 무당들이 많이 살았기에 연유된 이름이고 개울 중간에는 무원교(巫院橋)가 있었다고 전한다.⁷⁹⁾

한편 중부소방서 뒤로 넘어가는 야트막한 고개는 ‘무당고개’라고 불렀는데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이곳에도 무당집이 여러 곳 있어서 쾌자와 남옷을 입고 북과 장구 소리에 맞추어 굿을 하는 무당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 무렵엔 일대의 초가집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대문을 밀고 들어서면 어두컴컴한 방 안 한구석에 차려놓



무학동에 자리 잡고 있는 중부소방서

은 신당 앞에서 채수굿, 병굿, 오구굿 등을 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과 이들이 준비해 온 제사 음식이 바리바리 놓여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으나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대가 정비되면서 이런 진풍경도 사라져버렸다.

현재 무학동은 주민들을 위한 상가와 주거지역이 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인데, 공공기관으로는 43번지에 1976년 중구 태평로1가에서 이전해 온 중부소방서가 있으며 그 인근에 중구보건소가 자리 잡고 있다.

제9장 다산동 권역

다산동(茶山洞)은 청구로 남쪽과 다산로 서쪽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동장 관할구역 명칭이다. 다산동은 1949년 이후에 구획된 성동구 신당동 중에서 충현동회(忠峴洞會) 지역으로, 195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 동설치조례 실시 때 충현동사무소의 관할구역은 신당동 339-12번지를 기점으로 393-2번지, 386번지 앞 도랑을 따라 신당동 379-1번지, 359-9번지, 35-96번지, 432-14번지에 이르는 도로를 경계로 중구 경계선 동쪽 지역이었다.

1970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13호 동장정원 및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조례에 의해 충현동사무소는 신당제2동사무소가 되었고, 1975년 10월 1일 중구로 편입되었으며, 그 후 1992년 1월 3일 중구 조례 제170호 동경계 조정 때 신당제1동사무소 관할 일부 지역이 신당제2동사무소 관할에 편입되어 운영되다가 2013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179호에 의거한 동명칭 변경으로 다산동이 되어 오늘에 이른다.⁸⁰⁾

다산동은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의 호를 딴 다산로와 인접한 지역이라고 하여

이름이 붙여졌다. 현재 다산동주민센터는 중구 동호로15길 50(신당2동 432-24)에 위치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다산동의 면적은 0.51km²이며 인구는 6,906세대에 15,229명이 거주하고 있다.⁸¹⁾

지역적 특성으로는 다산로에 접한 장방형의 지형으로 다양한 계층이 함께 혼합 거주하는 주택 밀집 지역과 다산로변 일부 상가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과 성곽로 주변 고지대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주택개량사업으로 외형상 잘 정비 되었으나 기반시설이 취약하며 행정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지역에는 장충고등학교가 있다. 장충고등학교는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5길 93(신당2동 432-460)에 있는 사립고등학교로 1933년 4월 14일 경성원예학교 설립허가를 받아 개교하였다. 1943년 7월 20일 학교법인 고계학원이 본교를 인수하여 5년제 고등보통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첨단 원예기술을 가르쳤다. 1944년 9월 1일을 개교기념일로 제정하였으며, 1947년 8월 25일 고계중학교 설립인가를 받았다. 광복 이후 학제개정에 따라 1947년 9월 1일 6년제 인문계인 고계중학교로 개교하였고, 1953년 10월 15일 고계고등학교 설립허가를 받아 고계고등학교와 고계중학교로



다산동의 관할구역 경계와 다산동주민센터

개편되었으며, 1963년 8월 10일 ‘고계중·고등학교’를 ‘장충중·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⁸²⁾

다산동에 있는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1995년 1월 문을 열었다. 이 복지관은 하루 300여 명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2018년 현재 개관한 지 20년이 넘는 서울시 중구 제 1호 구립복지시설이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진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기능 강화 및 주민 상호 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서비스 전달 기구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18년 서울 중구는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을 전면 보수공사하기로 결정했다. 중구는 11월까지 구·시비 3억 8,000만 원을 들여 20여 년이 훌쩍 넘은 낡은 시설을 교체하거나 수리하기로 했다. 보수공사는 2층 강당과 지하 1층 스포츠실, 화장실 등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공간을 위주로 추진되며, 3·4층에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마련된다. 강당에서는 음향시설 교체, 흡음재 보강, 방음문 설치, 무대 설치 등이 이루어지고, 스포츠실에 최신 기능성 바닥재가 깔린다. 샤워실과 탈의실도 손본다. 건물 내 오래된 전기·통신설비를 교체하는 한편 층별 복도와 비상계단 사이에는 자동방화 유리문을 설치한다. 이처럼 대대적인 시행은 개관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⁸³⁾

다산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성곽길이다. 다산동의 성곽길은 장충체육관에서부터 신라호텔 옆을 따라 다산팔각정으로 이어진 약 1,050m의 길(동호동 17길)이다. 한양의 도성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수도를 방위했던 건축물이었다. 전 세계의 수도가 거의 평지에 자리 잡은 반면 우리나라의 서울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산성이 주된 건축물의 형태다. 다산동의 성곽길은 이 중 남산(목멱)구간의 일부가 된다. 남산의 정상에 오르면 서울 시가지가 한눈에 다 들어올 뿐 아니라, 동·서·남 세 방향으로는 경기도 양주, 광주, 시흥, 김포 일대가 일거에 관측되기 때문에 군사적 요충지이자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기도 하다.⁸⁴⁾

2015년에는 옛 한양을 둘러싼 성곽길에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관광 명소를 조성



2018년 가을에 개최된 다산동 마을축제(다산동주민센터 제공)

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중구의 1동 1명소 사업의 일환으로 성곽예술문화거리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성곽길을 남산, 장충체육관, 신라호텔, 국립중앙극장, 동국대와 연계해 예술과 문화를 즐기며 걸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에서였다. 2018년 5월에도 여섯 번째 맞이하는 ‘한양도성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제’가 개최되었다. 6백 년 전 조선 도읍의 자취와 현재 서울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살아 있는 역사의 현장에서 성곽의 안길과 바깥 길 모두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고 갤러리 전시, 버스킹 공연, 아트마켓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제10장 약수동 권역

약수동(藥水洞)은 신당동 중에서 지하철 3호선 약수역 남동쪽 출구, 즉 동호로 남쪽이자 다산로 동쪽 지역인 응봉산 기슭의 행정을 담당하는 동장 관할구역명칭이다. 1949년 이후에 구획된 성동구 신당동 중에서 약수동회(藥水洞會) 지역을 일컫는데, 1949년 6월 말 약수동회의 현황을 살펴보면 세대수는 1,763세대, 인구는 9,087명(남자 4,982명, 여자 4,105명)이었다. 참고로 2018년 기준 약수동의 면적은 0.48km²이며 인구는 7,789세대에 18,024명이 거주하고 있다.⁸⁵⁾

195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 동제(洞制) 실시 때 약수동사무소의 관할구역은 신당동 74-20번지 앞 도로를 횡단하여 369-28번지, 346-211번지 앞 도로를 따라 금호동을 경계로 신당동 374-20번지, 360-2번지, 354번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경계로 중구 경계선 동쪽 지역이었다.

1970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13호 동장정원 및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조례에 의해 약수동사무소는 신당제3동사무소가 되었고, 197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7816호에 의해 구·동간 관할구역을 재편하면서 중구로 편입되었다. 1993년 5월

3일 재개발사업 승인으로 1994년 4월부터 건물 1,830동을 철거하여 총면적 20,138㎡에 총 5,150세대의 아파트가 신축되었으며 2000년 6월 10일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다.⁸⁶⁾

지역적 특성으로 첫째, 중구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다산로와 동호로를 제외하고는 동쪽과 남쪽이 높은 산지로 되어 있다. 둘째, 약수동은 원래 약수가 유명하여 약수골로 불렸다. 그 약수는 위장병에 특효가 있어서 멀리서도 애용되어 약수동으로 불리다가 1970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로 신당3동으로 변경되었으나, 2013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거해 행정동 명칭이 신당3동에서 다시 약수동으로 바뀌었다. 셋째, 인구밀집지역으로 중구 전체 인구 중 15%인 2만여 명이 거주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하철 약수역은 3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응봉산의 수려한 경관을 빼놓을 수 없다.

신당동 끝과 약수동이 이어진 부근에서 한남동으로 넘어가는 곳에는 버티고개라는 높고 큰 고개가 있다. 옛날에는 길이 좁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도둑이 많았으므로



약수동의 관할구역 경계와 약수동주민센터

모양이 험악하고 마음씨가 곱지 않은 사람을 보면 ‘밤중에 버티고개에 가서 앓을 놈’이란 농담을 하였다고 한다. 순라군(巡邏軍, 조선시대 야간에 도적이거나 화재 등을 막기 위해 밤에 도성 안팎을 순찰하던 군인)들은 야경을 돌면서 ‘번도!’라고 외치면서 도둑을 쫓았는데 그 말이 변하여 번티(番峙), 버티, 버터 또는 한자명으로 부어치(扶於峙)가 되었다는 설도 있다.

또 다른 전설에 의하면 한성부의 진산인 삼각산의 인수봉이 어린애를 업고 나가는 형국이므로 그것을 막기 위해 서쪽에 무악[母岳峴]과 떡고개[餅市峴]를 두어서 어머니가 떡을 가지고 그 애를 달래서 머물도록 하고, 또 남쪽에는 벌아령(伐兒嶺)을 두어서 아이가 나가면 벌을 주겠다고 하여 그 아이를 못 나가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 벌아령이 변하여 버티고개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버티고개의 약수는 유명하였는데 약수동이란 행정동명도 이 약수에서 유래된 것이다. 약수동에는 약수가 여러 곳에 있었지만 특히 위장병에 특효가 있는 유명한 약수터가 지금의 대풍시장 위쪽에 있었다. 주민들에 의하면 이 시장터는 옛날 일본인 아파트였고 그 위쪽으로 일본인의 고급 여관 두 개가 있었으며 여관 옆 바위틈에서 흘러나오는 약수가 좋았다고 한다. 매봉산 기슭에는 일제 때 일본군 기병대가 주둔했었고 약수시장은 광우리시장으로서 일제 때부터 있었다.⁸⁷⁾

약수동의 길 건너편 동네인 다산동(옛 신당2동)도 남산에서부터 시작해 내려오는 물줄기가 많이 있어서 동네에 우물이 많았는데, 아직도 다산동에 70년 이상 사셨다는 노인들은 다산동 또한 약수동이라 부른다. 현재의 태양마트가 예전엔 대풍슈퍼였는데, 대풍슈퍼 자리에 우물터가 있었다고 말한다.

이들 토박이 노인은 현 태양마트 뒤편 주차장이 우물터인데 개인 사업장이라 확인 등이 불가능하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않는다. 또한, 약수동 우물터(약수터) 위치는 대풍슈퍼 자리, 약수교회 자리, 버티고개 이렇게 3곳 정도인데 동 차원에서라도 약수터의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는 기대감을 품고 있다. 약수동에서 길 건너 다산동이 시작되는 곳(화수분 빵집 아래)에는 아직 대풍약국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써 예전부터 약수동과 다산동을 아울러 ‘대풍’이라는 상호가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약수동은 동명에서도 알 수 있듯 약수가 유명한 곳이다. 예로부터 물맛 좋은 곳에



2018년 가을에 개최된 약수동 마을축제(약수동주민센터 제공)

서는 물로 하는 장사가 유명했는데, 그중에서도 약수동에는 떡집이 많았다고 한다. 개발로 인해 문을 닫거나 이전을 해 현재는 2곳만 남아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약수동 시장도 60개 이하의 상가라서 전통시장이 아닌 전통인증시장이다. 이 전통인증시장도 개발로 인해 언제 없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⁸⁸⁾

한편 약수동에 위치한 중구청소년수련관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에서 설립하고, (사)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로 2001년 9월 15일에 개관하였다.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5길 19(신당동)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2층과 지상 3층의 건물로 청소년 운영위원회와 수련관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업무지원팀, 활동교육팀, 지역복지팀, 진로체험센터, 청소년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지하 1층에 있는 청소년극장(172석)은 공연, 발표회, 세미나 등을 위해 대관할 수 있고, 1·2층 강의실 및 지하 1층 식당 등은 세미나와 소모임 등을, 3층에 있는 마룻바닥 형태의 체육관은 약 300명이 수용 가능하며 동호회 활동과 공연 및 발표회 등을 할 수 있다.

중구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자치 역량 강화, 글로벌 리더 양성, 청소년 문화 활성화, 청소년 참여 여건 조성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심리·정서적 지지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 체육과 취미 여가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해 오고 있다. 수련관은 청소년들이 공·사교육에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충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청소년 문화와 다양한 취미, 여가활동을 제공하고자 ‘청소년이 행복한 희망 세상 만들기’를 비전으로 항상 열려 있으며 꿈과 희망, 기회와 도전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⁸⁹⁾

또한 중구 다산로 6길 11에는 구립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이 있다. 1994년 4월 개관하여 1994년 5월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1995년 1월부터 상담사업과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였다. 인권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고충처리위원회도 두어서 참여 주민의 고충과 제안을 경청한다. 업무는 크게 재무·후생복지과, 여가·관계증진과, 지역협력과, 어르신일자리더하기센터로 나뉘어져 있고, 인근 지역을 위해 부설기관으로 청구노인복지센터와 동화동노인복지관을 분관해서 운영한다.⁹⁰⁾

제11장 청구동 권역

청구동(靑丘洞)은 지하철 3호선 약수역 북동쪽 출구, 즉 동호로 북쪽이자 다산로 동쪽 지역의 행정을 관할하는 구역명칭이다. 1949년 이후 구획된 성동구 신당동 중에서 청구동회(靑丘洞會) 지역으로서 1949년 6월 말 현재 청구동회의 현황을 살펴보면 세대수는 2,244세대, 인구는 12,058명(남자 6,329명, 여자 5,729명)이었다.

195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 동제 실시 때 청구동사무소의 관할구역은 신당동 308-2번지를 기점으로 374-20번지를 경유하여 346-98번지에 이르는 도로 동북방 지역과 신당동 308-2번지에서 금호동에 이르는 도로 남쪽 지역이었다. 1970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13호 동장정원 및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조례에 의거 청구동사무소는 신당제4동사무소가 되었고, 1975년 10월 1일 중구로 편입되었다. 2013년 7월 20일 신당지역 행정동 명칭변경에 따른 조례(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신당제4동에서 청구동으로 명칭이 재변경되어 오늘에 이른다.⁹¹⁾

청구동의 동명은 신당동에 있던 마을로 앵구동으로 불리던 일본식 명칭을 우리말



청구동의 관할구역 경계와 청구동주민센터

식으로 변경하여 붙여진 데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는 중국에서 동방에 있는 우리나라를 일컫던 말이기도 하다.

청구동은 일반주택과 아파트(약수하이츠, 삼성)로 형성된 주거 혼합지역이고, 성동구 경계지역으로 2개 환승 지하철역(약수·청구) 사이에 위치하며, 향후 역세상권 개발 기대 및 임대아파트 내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2018년 기준 청구동의 면적은 0.34km²이며 인구는 6,456세대에 14,877명이 거주하고 있다.⁹²⁾

이 지역에는 서울청구초등학교가 있다. 서울청구초등학교는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170(신당동 330-2)에 있는 공립초등학교로 1937년 9월 1일 경성앵구공립소학교로 설립되었다. 1941년 4월 1일 경성앵구공립국민학교로 개칭하였고, 1945년 11월 1일 재개교하면서 초대 이광천 교장이 취임했다. 1946년 5월 1일 서울청구국민학교로 개칭, 이후 1996년 3월 1일 서울청구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1997년 11월 교육부 지정 인성교육(열린학습) 자율시범학교가 되었고, 2002년 2월 1일 과학교육우수학교로 교육감 표창을 받았으며, 같은 해 3월 1일부터 서울교육

대학교 교육실습협력학교를 4년간 운영하였다. 2014년 12월 8일 중구청 미래 인재 육성사업 시범학교로 선정되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운영되었다. 특히 적성 교육으로는 독서속독부, 실험과학부, 논술창작부, 체스부, 경필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동부로는 19회 두산베어스기 우승, 35회 회장기 준우승, 추계대회 3위 등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야구부가 있다.⁹³⁾

동산초등학교는 서울특별시 중구 매봉18길 109(신당4동 333-579)에 주소를 둔 사립 초등학교다. 1956년 1월 16일 재단법인 제일학원이 설립된 후, 1966년 2월 4일 동산초등학교가 18학급으로 설립 인가되었고, 3월 10일 4학급으로 개교하였다. 1983년 10월 27일 학교법인을 서정학원으로 변경하였다.

2009년 9월 8일 ‘2009학년도 하반기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에 지정되었고, 같은 해 12월 30일에는 ‘2009학년도 영어공교육 강화우수학교표창’을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았다. 2010년 2월 12일 ‘서울형 방과후학교 선정(재단법인 행복 한 학교)’되었고 2011년 5월 13일 ‘2011 친환경 안심놀이터 공모전’에 입상했다. 특히 사항으로는 전산 시설과 인조 잔디 운동장·놀이공원·사랑의 학교 만들기 운동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전산 시설은 중부교육청 내의 학교 중에서 가장 우수하며, 인조 잔디 운동장은 국내에서 최초로 초등학교 교정에 조성된 것이다.⁹⁴⁾

재단법인 제일학원이 청구동에 설립한 또 하나의 학교는 대경상업고등학교이다. 1956년 1월 16일 학교법인 제일학원이 설립되면서 같은 해 2월 28일 대경중학교(6학급), 대경상업고등학교(주간 6학급, 야간 3학급)가 설립 인가를 받았고, 4월 16일 중구 을지로5가의 임시 교사에서 개교하였다. 1958년 5월 19일 중구 신당동의 현 교사로 이전하였으며, 1972년 1월 15일 고등학교 야간 3학급 증설 인가를 받아 전 학급 주간 24학급, 야간 21학급을 이루었다. 1983년 10월 27일 학교법인 서정(墅亭)학원으로 법인 명칭을 변경한다. 1997년 8월 8일 대경상업고등학교에서 대경정보산업고등학교로 개명하였으며, 1999년 5월 6일 남녀공학으로 학칙을 개정하였다.

2008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학과 학교 지정으로 ‘벤처창업과’를 신설했으며, 2012년 7월 30일 교육청 지원 산업분야별 특성화고에 선정(경영관리과, 금융관리과 학과 개편)되었고, 2015년 7월 31일 대경상업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인



2018년 가을에 개최된 청구동 마을축제(청구동주민센터 제공)

가(학칙 변경)를 받고 지금에 이르렀다. 대경상업고등학교는 서울 중구 매봉18길 111에 위치해 있다.⁹⁵⁾

청구동은 또한 2018년 6월 28일 타계한 고(故) 김종필 전 총리가 반평생을 살았던 곳이기도 하다. 등기부등본에는 김 전 총리가 1965년 5월 14일부터 이곳에서 살기 시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인생의 절반 이상인 53년간을 이 동네에서 보냈고 마지막 가는 길도 이 집에서였다. 흔히 ‘동교동의 DJ, 상도동의 YS’라고 말하듯, ‘청구동 하면 JP’가 떠오른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정치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했던 3김(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의 시대가 청구동을 끝으로 완전히 막을 내린 것이다.⁹⁶⁾

제12장 신당5동 권역

신당5동(新堂5洞)은 신당동 중에서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남쪽, 즉 다산로 동쪽이자 왕십리길 남쪽 일대의 행정을 담당하는 동장 관할구역 명칭이다. 신당5동은 1949년 이후에 구획된 성동구 신당동 지역 중의 문화동회(文化洞會) 일원과 유락동회(有樂洞會) 일부 지역인데 참고로 1949년 6월 말 문화동회 현황을 살펴보면 세대수는 1,675세대, 인구는 8,736명(남자 4,476명, 여자 4,260명)이었다.

195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 동제 실시 때 문화동사무소의 관할구역은 신당동 302-4번지를 기점으로 297-1번지 앞 도로를 따라 289-3번지를 경유하여 282-22번지 앞 도로를 경계로 신당동 292-72번지 앞까지의 지역이었다. 1970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13호 동장정원 및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조례에 의해 문화동사무소는 신당제5동사무소로 되었고, 1975년 10월 1일 중구로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렀다.⁹⁷⁾

1980년 7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1413호 동사무소 설치조례에 의해 신당제7동이 폐동되어 신당 제5동과 제6동에 편입될 때 동의 규모가 늘어났다. 현재 신당제5



신당5동의 관할구역 경계와 신당5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는 다산로44길 85(신당동 150-7)에 있으며, 2018년 기준 신당5동의 면적은 0.39km²이며 인구는 4,466세대에 9,679명이 거주하고 있다.⁹⁸⁾

신당5동은 첫째, 난계로 동쪽으로 무학봉공원, 한진그랑빌아파트 측과 성동구 경계를 형성하고 있고 둘째, 주택 및 점술, 영세 의류제조업, 소규모 요식 서비스사업, 아파트 등이 혼재하고 있으며 셋째, 저소득 서민층 거주 지역이며 현재 2개소에서 주택개발사업 추진 중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

신당5동에 위치한 성동고등학교는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에 있는 공립고등학교로 1949년 개교하였다. 현재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90길 17(신당5동 161)로 되어 있다. 성동고등학교는 당시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 속에서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익히게 하고 민족의 정기를 심어주기 위하여 우국지사들에 의해 1906년 2월 현 YMCA 자리에 황성기독교청년회관으로 설립되었으며, 당시에는 중등과·영어과·공업과 등 두었다. 1908년에 정식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후 1912년 12월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으로 개편하였고, 1929년 6월 중앙기독교청년회학교로 개칭했으며, 1939년 10월 경성영창학교(京城英彰學校)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1946년 7월 6년제 중학교로 인가되어 1949년 8월 드디어 현재의 위치에 있는 구 (舊) 제삼공립여자중학교 교사에 성동공립중학교를 설립하였고, 1950년 5월 경성영창학교에서 편입된 학생 664명을 성동중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배출하였다. 1951년 1월에 1·4후퇴로 대전에 임시교가, 당해 5월 부산시 영도구 신선동에 피난교가 개설되었다. 1951년 9월 학제 개편에 따라 신당중학교와 성동고등학교로 분리되어 이듬해 3월 성동고등학교 제1회 졸업생을 배출(부산에서 97명)하였다. 1953년 9월 10일 부산 피난교와 대전 임시교가 서울로 복귀하였다.

1968년 10월 성동중학교와 성동고등학교로 재분리되었으며, 1974년 10월 신 교사를 준공하고 성동고 기념비를 건립하였다. 1980년 2월 29일 성동중학교를 폐교하고 운동장을 확장했다. 2009년 12월 학교평가 최우수교로 선정되어 교육과학기술장관 표창장 수상하였고, 2010년 3월에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었다. 2015년 3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재지정되었다.



2018년 가을에 개최된 신당5동 마을축제(신당5동주민센터 제공)

학생활동으로는 광복 전까지 3·1운동과 6·10만세운동 등 독립운동과 농촌 계몽 운동에 앞장섰고, 야구부가 1960년대 고교 야구계에서 두각을 보였다. 1986년 서울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게임 개최식 공개행사에서는 「사슴놀이」와 「고싸움놀이」 등을 공연하였다.⁹⁹⁾

한편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는 중구 퇴계로 88가길 8(신당동)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안 실용음악고등학교로 2006년 9월 서울실용음악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하였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예수마을교회 소속이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2008년 12월 대안학교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2009년 9월 정식 고등학교 학력 인정 승인을 받았다. 2011년 3월 KBS 2TV 드라마 「드림하이」 특별콘서트에서 ‘기린예고’의 실제 모델로 출연하였다. 2013년 2월 미국 버클리 음대 공식 매거진 『Berklee Today』에 한류를 만들어 가는 고등학교로 소개되기도 했다.

2014년 7월 서울실용음악학교에서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2014년 11월에는 SBS 특집 다큐 「대안 교육을 돌아보다」에서 교육의 롤모델로 제시되기도 했다. 2016년 9월 개교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히로미를 초청하는 내한 기념 공연을 기획, 그해 12월에 공연을 열어 성황리에 마쳤다. 2017년 2월 뮤지컬과를 개설하여 뮤지컬과 1기를 출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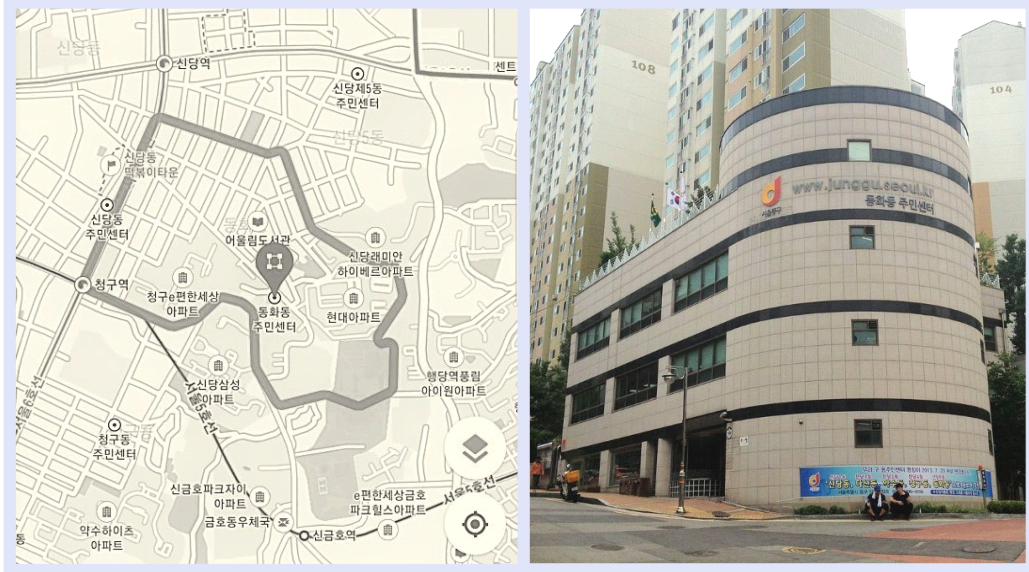
현재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전공으로는 실용음악과(관악과, 기타과, 드럼과, 미디작편곡과, 베이스과, 보컬과, 피아노과)와 뮤지컬과로 나뉘며, 총 8개의 전공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¹⁰⁰⁾

제13장 동화동 권역

동화동(東化洞)이라는 이름은 문화동의 동쪽에 위치한 데서 유래한다. 옛 신당6동 지역이며, 신당동 가운데 새로운 주택들이 들어서 ‘문화생활’을 하는 동네라는 뜻이 함축돼 있다. 2018년 기준 동화동의 면적은 0.26km²이며 인구는 4,190세대에 11,218명이 거주하고 있다.¹⁰¹⁾

동화동은 현재 다산로와 청구로에 접하여 성동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1949년 이후에 구획된 성동구 신당동 지역 중 동화동회(東化洞會) 일원과 유락동회(有樂洞會) 일부 지역이었다가 195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로 새로운 동제를 실시할 때 동화동사무소의 관할구역이 조정되었다. 이때 동화동사무소의 관할구역은 신당동 67-75번지를 기점으로 62-35 번지, 59-1번지 앞 도로를 경계로 하왕십리동 경계까지와 신당동 67-75번지에서 52-15번지, 54번지를 경유하여 문화동 경계에 이르는 도로의 동북방 지역이었다.

1970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13호 동장정원 및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조례에 의해 동화동사무소는 신당제6동사무소로 되었고, 1980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동화동의 관할구역 경계와 동화동주민센터

조례 제1413호 동사무소 설치조례에 의해 신당제7동이 폐동되어 일부가 신당제6동에 편입되었으며, 그 후 1992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0호 동경계 조정 때 신당제5동사무소 관할 일부 지역이 신당제6동 사무소 관할에 편입되었다. 2013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79호에 의거 주민센터 명칭이 신당제6동에서 현재의 동화동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동화동주민센터는 신당동 850번지에 있다.¹⁰²⁾

지역적 특성으로 성동구와 경계를 이루는 청구로와 다산로에 접하고 있고 동쪽 고지대에는 아파트 단지와 쾌적한 대현산배수지공원이 위치해 있다. 동화누리길 주변은 상가 및 주거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동화동의 중심지역이다.

동화동에는 1969년 개교한 금호여자중학교가 있다. 이 학교는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6(신당6동 36-234)에 있는 공립중학교로서 1968년 8월 6일 금호여자중학교 설립 인가(10학급)를 받고 1969년 3월 3일 개교하여 신입생 12학급의 입학식을 열었으며, 1972년 2월 25일 제1회 졸업식을 거행하였다. 2018년 2월 8일 제47회 163명의 학생이 졸업(누계 24,430명)하였고, 현재 3학년 19학급으로 이루어져 있

다. 걸스카우트, 역사사진반, 방송반 등의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¹⁰³⁾

서울흥인초등학교는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6길 11에 있는 공립초등학교이다. 1946년 10월 20일 서울흥인국민학교로 설립 인가되었으며, 1946년 11월 14일 16학급(학생 수 1,049명)으로 개교하였다. 1948년 3월 25일 제1회 졸업식을 거행하며 15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1971년 9월 1일 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와 교사를 교체, 이전하여 개교하였다. 2018년 3월 1일 현재 6학년 21학급으로 편성되어 있고, 총 학생 409명이 재학 중이다.¹⁰⁴⁾ 특색 교육 활동으로 정보화 사회 일꾼을 기르기 위한 학교 홈페이지 활용과 꿈 다짐을 통한 신념 교육,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통한 독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¹⁰⁵⁾

서울시 중구에서 유명한 공원으로 응봉공원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런데 서울에서 ‘응봉’이란 명칭을 쓰는 곳은 모두 세 군데로 금호동2가의 ‘응봉근린공원’, 금호동과 신당동에 걸쳐 있는 ‘응봉공원’, 응봉산의 ‘응봉숲’이 바로 그것이다. 많은 사람이 개나리동산으로 유명한 ‘응봉숲’을 응봉공원으로 알고 있지만, 공식 명칭은 ‘응봉숲’, 혹은 ‘응봉산’이다.

응봉공원은 배수지에 조성된 공원이라 ‘대현산배수지공원’이라고도 불린다. 중구 신당동, 성동구 금호동, 왕십리, 행당동까지 아우르고 있는 응봉공원은 잔디광장뿐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 트랙, 산책로 등 시민들이 다양하게 시설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안전공원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약수동과 청구동, 동화동 등 중구지역에 널리 걸쳐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즐겨 찾는다.¹⁰⁶⁾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계로 61-46에 위치한 응봉공원은 중구와 성동구의 경계에 있으며 면적 7만 5,570㎡의 대현산배수지 위의 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한 공원이다. 5만 2,629㎡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속하고 나머지는 중구에 속한다. 1998년 착공하여 2002년 10월 30일 완공한 대현산배수지 대규모 공사 때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 본부가 공원 조성에 동참하였으며, 2003년 5월 31일 개원식을 개최하였다.

콘크리트로 복개된 대현산배수지 위에 들어선 공원은 다양한 생활 체육 시설 및 휴식공간과 녹지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목적 잔디광장(5,317㎡), 다목적경기장(980㎡)을 비롯하여 조깅트랙(1.2km), 배드민턴장(6면),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2018년 가을에 개최된 동화동 마을축제(동화동주민센터 제공)

의 다양한 체육시설이 구성되어 있으며, 주광장(1,692m²)과 야외무대, 이벤트광장, 휴게광장, 어린이놀이터 2개, 화장실 2동, 음수대 2개, 건강지압보도, 산책로 (6,612m²), 정원, 파고라·피크닉테이블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107)

응봉공원(鷹峰公園)의 ‘응봉’이라는 말은 산의 모양이 매처럼 보이기 때문에 붙여졌다고도 하고 조선시대 왕들이 여기서 매사냥을 하였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옛날에는 하나의 줄기였으나 도시개발로 인해 응봉산·대현산·대현산배수지·금호산·매봉산의 5개 지역으로 나뉘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 대표적인 공원인 응봉공원의 면적은 65만m²로, 중구·성동구·용산구에 걸쳐 있다. 이 중 중구청 관할에 속하는 지역은 신당3동에서 신당6동까지로 2003년에 개원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매봉산·금호산·대현산까지 관할 지역으로, 배드민턴장 7개면, 자연학습장, 쉼지공원 수경시설, 이대부지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등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이 자리 잡

고 있어 이용객들의 건강한 웰빙공원으로 각광받고 있다.¹⁰⁸⁾

중구에 있는 또 하나의 응봉공원은 응봉근린공원(신당동 산36)이다. 신당동의 응봉공원은 10만 7694㎡의 면적에 이르는 대공원으로 약수동과 청구동, 동화동 등 신당동 지역에 널리 걸쳐 있다.¹⁰⁹⁾ 그동안 꾸준히 보수정비사업을 해오며 공원 관리에 힘쓰던 서울시 중구는 2017년 황톳길과 황토볼 풀장을 개장한 데 이어 올 2018년에는 응봉근린공원 내에 있는 찜지공원에서 산림치유지도사와 함께 하는 ‘힐링숲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¹¹⁰⁾

제14장 황학동 권역

청계천 남쪽, 지하철 2호선 신당역과 도로교통공단교차로에 이르는 곳에 위치한 황학동(黃鶴洞)은 조선시대 한성부 성저십리였던 곳으로 일제 강점기 황학동·신당리·신당정(新堂町) 등으로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모두 우리말로 바꾸면서 신당동으로 개칭되었다. 이후 1966년 7월 6일 서울특별시조례 제419호로 홍인동·무학동과 함께 법정동으로 분동(分洞)되었다. 2018년 기준 황학동의 면적은 0.33km²이며 인구는 6,478세대에 13,356명이 거주하고 있다.¹¹¹⁾

황학동(黃鶴洞)이라는 동명이 생긴 유래는 정확하지 않으나 1936년에 만든 「대경성정도」에 의하면 대부분 논밭이던 이곳에 황학(黃鶴)이 날아왔었다는 이야기가 있어 비롯된 듯하다.¹¹²⁾ 또한 현재 신당5동 관내에 옛날 자연부락의 하나인 백학동이 있기 때문에 이와 대비하여 황학동의 동명이 유래하지 않았나 유추해볼 수 있다.

황학동은 현재 동쪽 난계로를 경계로 성동구 상왕십리동과 접하고 있으며 서쪽은 중구 홍인동이다. 남쪽은 왕십리길을 경계로 신당제5동과 접해 있고 북쪽은 청계천로를 경계로 종로구 숭인동과 접해 있다. 황학동과 신당제5동 사이에 왕십리길이 뻗어



황학동의 관할구역 경계와 황학동주민센터

있고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이 있다.

황학동의 지역적 특성으로는 청계천과 퇴계로길 사이의 직사각형 형태의 일반 주거, 시장, 상가 및 재개발 지구가 혼합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과 최근 정비를 마친 대표적 전통시장인 신중양시장, 주방가구, 기계공구 등 상가 밀집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다는 점, 도심 재개발 및 청계천 복원사업 등으로 노후화된 기존시설이 개선되어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¹¹³⁾

청계천7가와 청계천8가 중간 즉 황학동에서 송인동 송신초등학교와 동묘로 나가는 교차로에는 조선시대에 가설된 영도교(永渡橋)가 있었는데 지금은 청계천 복개공사로 사라졌다. 영도교는 성 밖에 있던 교량 중의 하나로 조선 초에는 왕십평대교(旺尋坪大橋)라고도 하였으며 고종 이후에는 영미교(永尾橋)라고 불렀는데 「도성대지도(都城大地圖)」나 「수선전도(首善全圖)」 등 한성부 지도에는 대부분 표기되어 있던 주요 다리였다. 영미동(永尾洞)에서 내려오는 개천 끝에 놓인 다리라 해서 영미교라고도 하였다는 이 다리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단종이 세조에게 왕위를 내놓고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영월로 귀양 갈 때 이 다리를 건



2018년 가을에 개최된 황학동 회화나무 축제(황학동주민센터 제공)

났으며 이때 송비(宋妃)는 이곳까지 따라와 단종과 생이별을 하고 승인동의 정업원 암자에 시녀 셋과 함께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지내면서 매일 동망봉에 올라 동쪽 영월을 바라보며 부군의 평안을 빌었다. 그리하여 이 다리를 그후부터 영이별교(永離別橋)라고 일컫게 되었고 이것이 영미교로 변음되었다.¹¹⁴⁾

영도교는 조선 성종 때 돌다리를 놓으면서 지어진 이름으로 동대문 쪽에서 왕십리 방향으로 가려면 이 다리를 건너야 했기에 교통량이 많은 중요한 다리였다. 고종 초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 궁궐의 석재로 사용하기 위해 이 다리를 헐어야 했으므로 철거되었고 그 대신 나무다리가 놓였으나 장마 때면 가끔 다리가 떠내려가서 그 옆에 떠엄돌을 놓아 한때 떠엄다리라 부르던 징검다리가 있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성종 때 이 다리를 영도사(永導寺)의 중들을 동원하여 놓았기 때문에 이름을 영도교(永渡橋)라 했다는 설도 있다. 복개되기 전까지 일제 때 놓인 것으

로 추측되는 콘크리트 다리가 있었다.

이 지역에서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다. 황학동 일대는 일제 중기까지 거의 논밭이었으나 현재는 중앙시장과 상가들이 밀집해 있다. 중앙시장은 성동시장(城東市場)이라는 이름으로 1946년 5월 1일에 설치되었다. 이 시장은 미국과 채소 등이 집산되는 도산매시장으로 예전에는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과 함께 3대시장으로 손꼽던 대규모 시장이었으나 현재는 대형 백화점 등에 밀려 소시민들의 시장으로 전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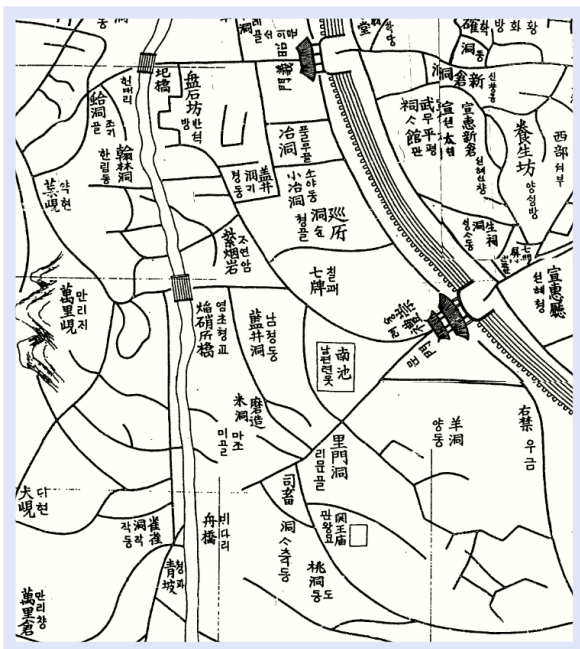
한편 청계천이 복개된 길은 청계천로라 하는데 길옆에는 삼일아파트가 길게 늘어서 있다. 삼일아파트 뒤편에는 서울의 명물이라 할 수 있는 ‘황학동중고품시장’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일대는 많은 중고품상들이 밀집되어 대개 리어카 행상들이 옛, 강냉이와 바꾸거나 헐값으로 사 모은 고물들을 진열하여 고물의 최종 집산지 역할을 하였는데, 이곳 상인들은 모두 취급상품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기술자가 되다시피 하여 이들의 손을 거치면 전혀 쓸모없는 듯한 고물도 실용성 있는 재생품으로 탈바꿈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왕십리길 연변이 채소와 곡류 중심시장이라면 청계천 연변의 이곳은 중고품시장으로, 블록별로 전자골목·가구골목·자동차부속품골목·의류골목·구두골목 등이 정해져 있어서 서민들의 발걸음을 유도하는 곳이다.¹¹⁵⁾

제15장 중림동 권역

중림동(中林洞)은 법정동인 중림동 외에 의주로2가(義州路2街)·만리동1가(萬里洞1街)·만리동2가 등 4개 동의 행정을 담당하는 동장 관할구역 명칭이다. 조선 초 한성부를 5부 52방의 행정구역으로 나눌 때 서부 반석방(西部 盤石坊)과 반송방(盤松坊)에 속하였으며, 약전중동(藥田中洞)과 한림동(翰林洞)의 글자를 각각 한자씩 따온 데서 중림동이란 동명이 비롯되었다. 의주로의 동명은 서울~의주 간 시발 지역으로 북으로 가는 도성문인 서대문에서 두 번째 블록이며 의주로 통하는 길이란 뜻에서 나왔다. 일제 경성부 시대 의주통2정목((義州通2丁目)이라 하던 것을 우리말로 고친 것이다. 만리동의 동명에는 두 가지 유래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광복 후 처음 만들어진 이름으로 만리현(萬里峴)에서 유래하였다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종 때 한글 창제를 반대한 최만리(崔萬理)가 살던 곳이라는 데서 유래하였다고 하는 설이다.

현재 중림동 자치센터는 양정길 31(만리동2가 194-58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47년 말 중림동사무소 관내의 각 동 중 의주로2가는 의주로 1·2가동회, 만리동1가는 만리동1가동회, 만리동2가는 만리동2가서부동회와 남부동회가 각각 설치되



1902년 발행된 「서울 지도」의 중림동 부근

동되면서 중립동 관할구역으로 병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¹¹⁶⁾

3개 구가 인접한 지역으로 손기정 체육공원, 서소문역사공원 등 녹지공간이 많아
서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주거여건으로는 일반주택과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으며, 만리동 1·2가는 지형상 고지대가 많고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라는 점을
지역적 특성으로 꼽을 수 있다. 2018년 기준 중립동의 면적은 0.48km²이며 인구는
5,739세대에 12,814명이 거주하고 있다.¹¹⁷⁾

01. 중림동中林洞

서소문역사공원 서쪽,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 남동쪽 일대에 위치한 중림동(中林洞)은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서부 반석방(盤石坊)과 반송방(盤松坊)에 속했던 곳으로 일제 강점기 중림정(中林町)이라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서대문구 중림동이 되었다. 이후 1975년 10월 1일(대통령령 제7816호)

어 행정을 담당했다. 195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 동설치조례에 의해 동장 관할구역의 행정동제를 실시할 때 중립동 일원을 관할하는 중립동사무소가 설치되었고, 197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7816호로 대폭적인 구·동의 관할구역 재편성이 이루어짐에 따라 중립동은 중구로 편입되었으며 중립동을 비롯하여 의주로2가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였다. 1980년 7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1413호 동사무소설치조례에 의해 만리동사무소가 폐

중구 청파로 447-1에는 사적 제252호로 지정된 약현성당(藥峴聖堂)이 있다. 이 성당은 약현 고개에 대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준공하였기에 중림동 성당이라기보다는 약현성당으로 통칭된다. 약현성당은 1891년(고종 28)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끝나고, 서소문 성지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순교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정신을 본받기 위해 세운 건물이다. 약현성당은 종현본당(鐘峴本堂, 현 명동성당)에서 분리되어 서울에서 2번째, 전국에서는 9번째로 설립된 본당이다.

구역 내에는 손기정공원이 있다. 원래 양정중·고등학교가 있었으나 이 학교가 강서구 목동 911번지로 이전함에 따라 이 자리에 일제치하에서 우리나라 젊은이의 기개를 활짝 펴고 베를린 마라톤대회에서 당당하게 월계관을 차지한 손기정선수를 기념하기 위한 공원이 조성된 것이다.

294 | 서울 중구, 동네방네 이야기

현(藥峴)으로 가는 갈림길 중간에 있다고 해서 가운뎃말이라고 했는데, 한자명으로 약전중동(藥田中洞)이라고 한다. 한림골은 중림동과 서대문구 합동(蛤洞)에 걸쳐 있는 마을이다. 이곳은 서울에서 거래되던 싸전 도매상 5군데 중 하나인 소의문(昭義門, 서소문) 밖의 미전(米廩)이 있던 곳이기도 하다. 한림골의 내력은 『동국여지비고』에 “이 정암(李廷菴)·정형(廷馨)·정겸(廷謙)의 3형제가 모두 이곳에 살면서 한림(翰林) 벼슬을 지냈으므로 그들이 거주하던 곳을 한림동이라 하게 되었다”라는 대목에서 찾을 수 있다. 선조 때의 명신으로 정암이 병조참판, 정형이 부제학, 정겸이 이조참판을 역임하는 등 삼형제가 모두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명성 또한 높았다고 한다.¹²⁰⁾

중림동의 서북쪽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형제정동(兄弟井洞)이 있었다. 형제우물이라 부르던 것이 있었다고 해서 유래되었으나 우물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이었는지 지금은 알 길이 없다. 이 지역은 옛날에도 역시 주택가였는데 아마도 이정암 형제의 미담 때문에 붙여진 마을 이름이 아닌가 하는 설도 있다. 이 형제정동은 약전계에 속했던 것이 아니고 반송방 차자리계로 금위영(禁衛營) 후영(後營)에 속했으며 애오개 못 미쳐 있던 깨끗한 마을이었다.

약전현(藥田峴) 또는 약고개라 부르던 지역은 만리동 입구에서 충정로3가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장안에 약을 공급하였다 하여 붙여진 동명으로, 근방에서 약밥을 만들어 파는 노파가 있었다 해서 유래된 것이라고도 한다. 과거 ‘이명래고약’으로 유명해진 곳이며 인접한 곳에 종근당제약 사옥이 있어서 약현이라는 명칭의 대를 잇고 있다. 지금 서울역 뒤 서울로7017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만리동고개로 가지 않고 그 옆길의 아현삼거리로 가는 언덕길로 나서면 중림동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꼬불 꼬불한 작은 길이 길게 뻗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옛 약현이다.

다음은 중림동에 살았던 유명한 인물들이다.¹²¹⁾ 중림동 155번지에는 정조 때 영의정 약현 김익(藥峴 金燾)의 집이 있었다. 그 아들 재찬(載讚)도 영의정이 되었으므로 부자(父子) 정승집으로 유명하였다. 중종 때 독암 조종경(獨庭 趙宗敬)이 살던 집은 남대문 밖 염초청 옆에 있었다. 청림결백하기로 유명했던 그의 집 담 안에 감나무 두 그루가 있어서 매년 감이 많이 열렸는데 길을 가던 사람이 보고 “감이 저렇게 많이 열렸으니, 팔면 그 값을 많이 받겠다” 하는 말을 부인 이씨가 듣고 부끄러워하여



중림동 약현성당(중구문화원 사진공모전 입상작)

남편과 상의하자 조종경은 “사대부 집에서 과목(果木)을 심어서 이익을 본대서야 어찌 세상에 나설 수 있으랴” 하고 그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하였다고 한다.

허백당(虛白堂) 터는 약전현 즉, 지금의 약현성당 근방인데 성종 때 대제학 용재 성현(慵齋 成俔)이 살던 집이 있었다. 무학대사가 많은 사람이 와서 절을 하며 잘못을 빌 곳이라 하여 특별히 이곳에 집터를 잡아주었는데 집을 짓고 별당의 이름을 빈 곳이라는 뜻으로 허백당이라 지은 후 성현은 밤이면 이곳에 올라 시를 읊고 술잔을 기울였다. 그러던 어느 날 달이 밝고 바람이 맑으므로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홀로 시를 읊으며 즐기고 있는데 때마침 집에 온 손님이 자다가 깨어 창틈으로 허백당에 앉아 시를 읊는 성현을 보고는 신선이 하강한 줄 알고 급히 일어나 그의 뒤를 따르매, 인기척을 느낀 성현이 돌아보자 손님은 성현인 것을 알고 멋쩍어하며 그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에 성현도 크게 웃었다고 한다.¹²²⁾

중림동 149-2번지(중구 청파로 447-1)에는 약현성당이 있다.¹²³⁾ 약현성당은 길이 약 32m, 너비 12m로 이루어진 396㎡의 소규모 성당 건축물이다. 이 건물은

1886년(고종 23) 조불수호통상조약(朝佛修好通商條約)을 계기로 종교의 자유가 허용된 이후 천주교를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자 명동성당 아래 공소(公所, 본당보다 작은 천주교회)로 1892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고딕성당으로 지어졌다. 1977년 11월 22일에 사적 제252호로 지정되었다.

약현성당은 본래 1887년 수렛골에서 한옥공소로 출발하였다. 블랑(Marie Jean Gustave Blanc) 주교가 지금의 중구 순화동 지역인 남대문 밖 수렛골에 집 1채를 마련해 교리 강습을 위한 강당을 차렸는데, 이것이 약현본당의 시작인 약현공소이다. 공소가 설립되고 신자가 늘어나자, 1891년 종현본당의 두세(Camille Doucet) 신부는 뫼텔 주교의 허락을 얻어 1891년 약초가 많아 약초고개라고 불리던 언덕을 매입해 성당 건축의 터전을 마련하였고, 1891년 10월 27일 성당 정초식이 거행되었다. 그해 11월 9일 두세 신부가 초대 주임으로 부임함으로써 약현본당이 정식으로 설정되었다. 당시 약현본당의 관할구역은 서울 도성의 외곽 지역뿐 아니라 경기도와 멀리 황해도 백천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이었다. 프랑스 신부 코스트(George Coste)의 설계 감리로 1891년 10월에 착공해 1년 만인 1892년 준공하였는데, 1898년 건축된 명동성당보다 6년 먼저 세워졌으며 한국 최초의 서양식 벽돌로 지어진 교회건축물로 중요한 건축사적 가치를 지닌다. 약현성당은 이후 건축된 벽돌식 성당의 원형이 되었다.

02. 의주로2가義州路二街

서소문역사공원 일대에 위치한 의주로2가(義州路二街)는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서부 반석방(盤石坊)에 속했던 곳으로 일제 강점기에 의주통2정목(義州通二丁目)이라 불리다가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서대문구 의주로2가(義州路二街)로 되었다. 1975년 10월 1일(대통령령 제7816호) 관할구역이 변경되어 중구 의주로2가가 되었다. 의주로2가의 동명은 의주로 가는 길목이라는 뜻에서 일제 강점기에 의주통2정목이라 하던 것을 우리말로 고친 것이다.¹²⁴⁾

의주로2가에 있던 자연마을로는 개정동(蓋井洞), 네거리, 대동(帶洞), 반천동(半泉洞), 뱃골, 자암동(紫岩洞), 정자동(亭子洞), 조갯골, 초리우물골, 풀뭇골, 한동(汗洞) 등을 들 수 있다.¹²⁵⁾

개정동은 뚜껑우물이 있는 마을이어서 뚜껑우물골이라 했는데 이를 한자명으로 표기한 것이다. 헨다리 앞 참터 동쪽 근방이 되는데 이 우물은 크고 깊을 뿐만 아니라 수량이 많아 늘 흘러내리므로 한 번도 품어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뚜껑을 늘 덮어두고 있다가 사형을 집행하는 망나니가 사람을 죽일 때 뚜껑을 열고 칼을 씻던 뚜껑우물이 있어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의주로2가의 관할구역 경계

초리우물골은 미근동, 충정로2가, 의주로1가, 의주로2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초리우물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미정동(尾井洞), 미동(尾洞)으로 부르던 것이 미동(湫洞)이 되었다. 이 우물은 샘솟아 오르는 본래의 우물 외에 물이 흘러내리는 지점에 작은 샘이 또 하나 있어서 그 작은 샘을 꼬리우물이라 불렀는데, 대개 허드렛물로 사용하였다. 꼬리우물을 서울 지역 사투리로 쓴 것이 초리우물이다.¹²⁶⁾

반천동은 반우물이 있어 반우물골이라고 했는데, 이를 한자명으로 표기한 것이다. 네거리는 의주로1가와 의주로2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서 거리가 네 갈래로 나뉘어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사거리라고도 한다.

대동은 관복의 흉대(胸帶)를 수놓아 팔던 띠전이 있었으므로 띠골이라 하였고 이를 한자명으로 표기한 것이다. 문관은 운학(雲鶴)을, 무관은 호랑이 그림을 수놓았다. 뱃골은 배를 취급하는 시전이 있는 마을이어서 이름이 붙었으며 한자명으로는 포동(布洞)이 된다. 이곳에서 취급하던 배는 종루 육의전보다는 질이 낮은 것이지만 미처 문안으로 들어가 흥정하지 못한 물품들도 있어서 상당한 값을 받았으므로 “서소문 밖 뱃골 배장수는 배 두드리고 산다”는 말이 전한다. 대개 삼남지방의 물품이 마포나루

에 부려진 것을 이곳에서 취급했다. 이 과정에서 뱃골 상인들과 마포 물상객주들은 상부상조하여 남대문 다음으로 지방소식이나 도성 안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자암동은 순화동, 의주로2가, 봉래동1가에 걸쳐 있는 마을로 ‘자줏빛 바위’가 있다고 해서 유래된 이름이다. 이를 줄여 잼배라고 했고, 한자명으로는 자암동(紫岩洞)이다. 이 바위에 자줏물 염색 옷감을 널어 말렸기 때문에 물감이 바위에 배어 색이 변한 것이라는 설도 있다. 정자동은 정자가 있어서 연유된 마을 이름으로 정자골이라고도 한다. 조갯골은 의주로2가와 서대문구 합동 사이에 걸쳐 있는 마을로 조개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도가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한자명으로는 합동(蛤洞)이라 한다. 마포를 비롯하여 서해안에서 들어온 조개류나 새우젓 등을 취급했는데, 한국경제신문사와 대왕빌딩 자리가 노량진수산시장이 생기기 전 수산시장이었다. 지금은 그 맞은편 합동시장에서 규모는 작지만 수산물을 취급하고 있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풀뭇골은 의주로2가와 순화동에 걸쳐 있는 마을로 쇠를 달구어 연장을 만드는 풀뭇간(대장간)이 모여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한자명으로 야동(冶洞)이라고 한다. 풀무재가 있던 지금의 인현동, 예관동, 쌍림동 근방의 풀뭇골과 함께 유명한데 이 지역은 주로 서소문 밖 농경지에 사용하는 농기구를, 쌍림동 지역은 광희문과 남소문 밖에서 쓰는 것을 만들었다.

한동(汗洞)은 한증막이 있는 마을이라서 붙여진 명칭으로 한증막이라고도 하였다. 피부병과 부인들의 산후병 치료를 위해 항아리 모양으로 진흙을 짓이겨 만들어 땀을 낼 수 있게 만든 것이 한증막인데 개인용과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갖추어졌다. 한증막은 지금의 사우나와 역할이 비슷한 것으로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에 있는 한증막 수는 모두 50여 개가 되었으며 일제 때만 해도 20여 곳이 성업했다. 특히 아주개의 한증막과 남소문 근방, 동작구 상도1동의 한증막을 비롯해 창동의 한증막은 피부병에 특효가 있다고 했고 이곳은 부인병에 좋다 하여 주로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였다. 뒷골길은 의주로2가 큰길 동쪽에 있는 골목으로 참터에서 참형한 죄인의 목을 큰길에다 매달아 놓는 효수(梟首)를 하였으므로 그것을 피하여 뒷골목을 만들고 그곳으로 다녔기 때문에 생겨난 이름이다.

봉래교(蓬萊橋)는 염청교 동쪽 부분에 놓인 다리로 1896년 경의선 철로가 놓이자



한국경제신문사가 들어선 자리에 예전에 수산시장이 있었다.

철길을 건너다니는 사람이 열차에 치이는 일이 많아졌으므로 그 위에 가설한 인도육교(人道陸橋)인데 봉래동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 또한 동의 남쪽에는 염천교(鹽川橋)가 있는데, 이곳에 화약을 제조하는 염초청(焰硝廳)이 있어서 그 이름이 유래하였다. 본래 염청교(焰廳橋)·염초청다리라고 하다가 음이 변하여 염천교가 되었다.

헌다리는 의주로2가 38번지와 합동 16번지 사이에 있던 다리다. 나무로 다리를 놓고 흙으로 덮었으므로 흙다리라고 했던 것이 변하여 헌다리가 되었다. 한자명으로도 이교(圮橋)라고도 했다. 헌다리 부근에 큰 바위가 땅에 묻혀 있다는 땅바위가 있다.

합동에서 아현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는 잔돌이 많이 박히고 깔려 있어서 잔돌박이 고개라고 부르며 춘향이고개라고도 한다. 옛날 이 고갯마루 근처에 성춘향과 이도령처럼 금슬 좋은 부부가 살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 집을 춘향이집이라고 불렀다고 한 데서 유래되었다.¹²⁷⁾

서소문역사공원은 중구 의주로2가에 있다. 넓이가 1만 7,340㎡이고 1973년 11월 22일 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주요시설로는 분수대 2곳, 정자 2곳, 궁도장과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 등이 있으며 900여 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갖추고 있다. 이 땅에 천주교가 들어온 이래 박해를 당할 때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다. 공원의 명물은 천주교기념탑이다. 1984년 12월 순교자현양탑이 세워졌으나 1999년 5월 15일 다시 건립하였다.¹²⁸⁾

조선시대 서소문 밖 저잣거리였던 이곳은 국가 행형장으로 사용되었던 공간으로 사회변혁가 등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었으며 조선후기에는 가톨릭교도들이 다수 희생되었던 장소이기도 하다. 지금은 ‘서소문역사공원 조성사업’이 한창으로 2016년 2월 착공 이래 2018년 9월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서소문역사공원은 지상1층~지하4층의 연면적 2만 4,700여㎡에 달하는 규모의 복합공간으로 지상은 현 서소문공원을 리모델링해 역사공원으로 꾸미고 지하는 기존주차장을 줄여 역사전시실, 기념전당, 추모공간,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¹²⁹⁾ 2018년 가을 서소문역사공원 조성현장에서 서울 곳곳에 남아있는 순교성지와 천주교 관련 사적지를 연결하는 아시아 최초의 ‘천주교 서울 순례길’이 선포되었다.

03. 만리동1가萬里洞一街

청파로와 만리재로가 만나는 곳 서쪽 일대에 위치한 만리동1가(萬里洞一街)는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반석방(盤石坊)에 속했던 곳으로 일제 강점기에 봉래정3정목(蓬萊町三丁目)이라 불리다가 1946년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만리동1가로 되었다. 만리동1가의 동명은 만리현(萬里峴, 현재 만리동고개)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일설(一說)에는 세종 때 한글 창제를 반대했던 최만리(崔萬理)가 살던 곳이라 하여 유래되었다고도 한다.¹³⁰⁾

예전부터 만리재는 고개가 높고 크다고 하여 큰 고개라고도 했다. 예전에는 이 고개 동쪽에 동산(東山)이라는 작은 산이 있었는데 만리재의 동쪽 산이라 하여 동산이

라고 했다. 또 동산 남쪽에는 봉우리가 하나 있었는데, 모양이 소반과 같이 납작하게 생긴 흙으로 된 봉우리였다. 이 봉우리의 흙은 서울역사를 건설할 때 지대가 낮은 곳을 메우는 데 사용하여 지금은 평탄한 곳으로 바뀌었다.

만리동1가에 있는 마을로는 가운데땃말(中洞)과 동산말(東山洞), 별말, 아랫말, 장자우물골이 있다. 이외에도 만리재의 동쪽 산에서 유래한 동산과 소반봉, 물 떨어진 다리, 험한 다리도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지명이다.



만리동1가의 관할구역 경계

가운데땃말은 만리동1가·중림동·봉래동2가에 걸쳐 있는 마을로 남대문에서 가자면 만리재와 약현으로 가는 갈림길 중간에 있으므로 붙여진 명칭이다. 약전중동(藥田中洞) 또는 줄여서 중동(中洞)이라고도 한다. 동산말은 만리동1가와 만리동2가에 걸쳐 있는 마을로 동산이 있어서 명칭이 유래되었으며 동산동(東山洞)이라고도 한다. 별말은 동산말 남쪽 별관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아랫말은 만리동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장자우물골은 장자우물이 있다 해서 연유된 마을 이름으로 이 장자우물은 만리동1가 290번지로 옛날에 큰 장자가 살았다고 한다.¹³¹⁾

만리동1가 62번지에는 동산(東山)이라는 작은 산이 있었는데 만리재의 동쪽에 있는 산이라고 하여 동산으로 불렸다고 하며, 만리재는 고개가 크고 높다고 해서 큰고개라고 불리기도 했다.

소반봉은 동산 남쪽에 있던 봉우리를 일컫는데, 모양이 소반처럼 납작하게 생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암반이 없고 대부분 흙으로 형성된 탓에 서울역사를 건설할 당시 지대가 낮아서 물이 고이는 지역을 고르는데 헐어서 사용했다. 따라서 지금은 평탄한 곳으로 바뀌어버렸다.

깎아지른 듯한 곳에 놓인 다리인데 사람이나 짐승이 떨어져도 다치는 일이 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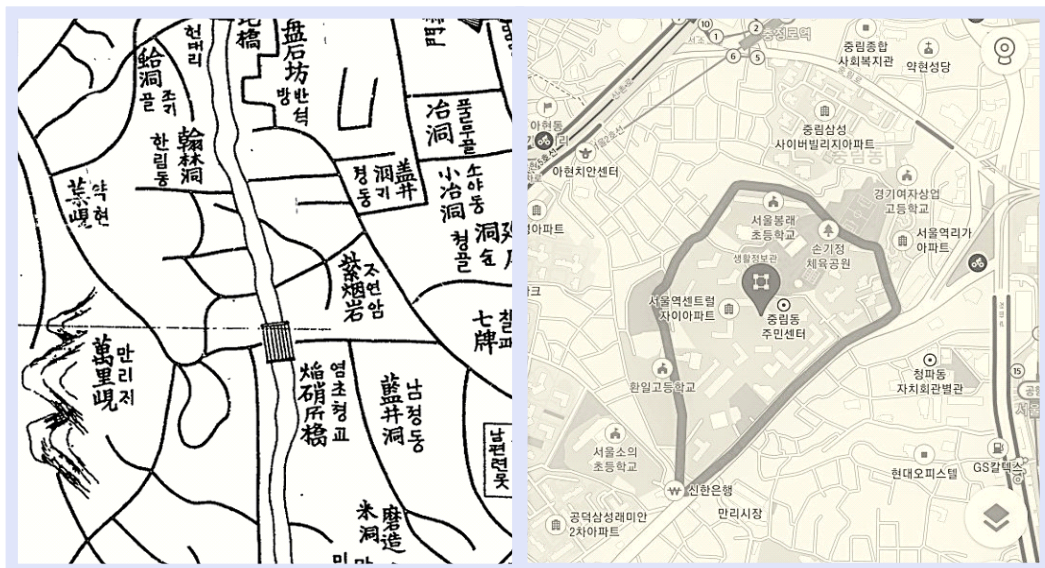
만리동1가에 위치한 중림동주민센터

다리가 만리동1가 50번지에 있었다고 한다. 일명 물 떨어진 다리라고 하는데 1966년 발간된 『한국지명총람』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이와 대조적으로 만리동1가 100번지 부근에는 험한 다리 있었는데, 다리는 비록 낮으나 사람이 나 짐승이 떨어지지만 하면 상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만리동1가에는 1971년 5월에 개교한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와 손기정 체육공원 일부가 자리 잡고 있다.

04. 만리동2가 萬里洞二街

만리동 고개, 만리재로 북쪽에 위치한 만리동2가(萬里洞二街)는 조선시대 초기 한성부 남부 반석방(盤石坊)에 속했던 곳으로 일제 강점기에 봉래정4정목(蓬萊町四丁目)이라 불리다가 1946년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만리동2가로 되었다. 만리



「서울 지도」(1902)의 만리동 부근과 만리동2가의 관할구역 경계

동2가의 동명은 만리현(萬里峴, 현재 만리동고개)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일설에는 세종 때 한글 창제를 반대했던 최만리가 살던 곳이라 하여 유래되었다고도 한다.

만리동2가의 주요 지명으로는 동산말·박우물골·삼태동이 있다.¹³²⁾ 동산동(東山洞) 또는 동산말이라 부르던 곳은 만리동1가와 만리동2가에 걸쳐 있는 마을로서 동산이 있다 해서 이름이 붙여졌고, 박우물골은 말 그대로 박우물이 있는 고을을 일컫는다. 삼태밧골은 양정중학교 서쪽에 있는 마을로 마을 모양이 삼태미처럼 생겼다고 붙여진 명칭이며 삼태동(三台洞)이라 하였다. 웃말은 만리동 맨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또한 만리재 북쪽에는 봉학산(鳳鶴山)이 있는데 지금은 꼭대기까지 거의 집들로 들어차 있어서 봉황과 학이 내려앉아 도성을 바라보았다는 옛 전설과는 이제 거리가 멀어진 듯하다.

만리재는 만리동2가에서 마포구 공덕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인데 세종 때 학자 최만리가 살았다고 해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최만리는 조선시대의 문신이며 학자이다. 자는 자명(子明)이고, 호는 강호산인(江湖散人)이다. 본관은 해주(海州)이며 최하(崔荷)의 아들이다. 1419년에 생원으로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에 기용되어 집현전 박

사를 겸임했다. 1427년에 교리(校理)로서 문과증시에 급제하였고 1437년 집현전 직제학을 거쳐서 이듬해 부제학으로 승진하였다. 1439년 강원도관찰사로 나갔다가 이듬해 다시 부제학으로 복귀하는 등 세종의 총애를 받았다. 그해에 청백리로 발탁되었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뒤 1444년에 6조목의 이유를 들어 이를 반대하여 한때 세종의 노여움을 샀다. 환관의 사모(紗帽) 착용이 옛 제도에 어긋남을 지적하여 중국의 제도에 따르도록 주장하여 시행케 했다. 20년 뒤 세조는 최만리를 “예전 세종대 문종이 세자였을 때 서연관 최만리·박중립 등은 세자를 보필하면서 작은 잘못이 하나라도 있으면 반드시 간언했다. 지금 생각해도 이 두 신하는 그 임무를 다했다고 할 만한데, 우연히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만큼 직간(直諫)으로 당시 이름이 높았던 것이다.¹³³⁾

만리재 고개는 높고 큰 데다 북쪽에 작은 고개인 애오개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큰 고개라고도 불렸다. 해마다 정월 보름이 되면 삼대문(三大門) 밖과 애오개 사람들이 돌팔매로 편싸움을 하던 곳으로 유명한데, 삼문 밖 사람들이 이기면 경기도가 풍년이 들고, 애오개가 이기면 8도에 풍년이 든다고 하여서 용산와 마포 사람들도 애오개편을 도와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편싸움을 하던 곳으로는 이곳 이외에 도동에서 후암동으로 넘어가는 우수재와 종로의 비파정, 동대문 밖 안감내, 신당동의 무당내가 유명하다.¹³⁴⁾

봉학산 자락에 위치한 까닭에 만리동2가에는 유명한 바위가 많은데 대표적인 것으로 감투바위, 병바위, 벼락바위 등이 있다. 감투바위는 벼락바위 동북쪽에 있는 바위로 그 모양이 감투와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병바위는 만리재 봉학산 마루터기에 있는 바위로 큰 바위가 작은 바위에 얹혀 있어서 병거지 모양으로 보인다 하여 처음엔 병거지바위라 부르다가 병바위로 바뀌었다. 벼락바위는 만리재 봉학산 동쪽에 있는 집채만 한 바위를 말하는데,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갈라져 있어서 이름이 붙었다.

만리동 일대에는 복숭아밭이 많이 있어서 도전계(桃田契)라 하였는데 나중에 조전계(租田契)로 바뀌었다. 서울소의초등학교 부근이 옛날 복숭아밭이 있던 곳이다.

만리동2가 122번지에는 박우물이 있었는데, 우물이 크고 물이 많아서 바가지로



손기정기념관 전경

퍼 올릴 수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삼태우물은 삼태밧굴에 우물 세 개가 있으므로 붙여진 명칭으로 삼태우물 또는 삼태정(三台井)이라고도 하였다. 만리동2가 1번지에 있던 큰우물은 크고 물이 많이 나서 아무리 가물어도 줄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만리동2가 전(前) 양정고등학교 동쪽 운동장은 선조 때 재상 약봉 서성(藥峯 徐省)의 집터가 있는데, 이를 서약봉터라 한다. 약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서성의 어머니 이씨는 비록 눈이 멀어 보지 못하였으나 이곳에 집을 수십간 짓는데 감역하는 것이 매우 치밀해서 정상인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다. 일찍이 이씨가 뛰어나다는 소문을 들은 목수가 일부러 대청 기둥을 거꾸로 세워 그녀의 능력을 시험코자 하였다. 구석구석 손으로 만지며 점검하던 이씨는 즉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며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자 목수가 기둥을 바로 고쳐 세웠다. 이런 일화도 있다. 이씨가 아직 젊은 나이에 어린 아들만 데리고 청상과부가 되었는데 아들을 위해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으나 아는 사람은 없고 가진 돈도 다 떨어져 가서 막연하던 차에 약현 객주에 머무르게 되었다. 평소 음식 솜씨가 뛰어난 이씨는 묵고 있던 주막집 주인이 혼

자서 애쓰는 것을 보고 도와줄 요량으로 부엌으로 들어갔다. 즉석에서 주먹밥을 만들어 과거를 보러 가는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모두 맛이 뛰어나다는 찬사를 하기에 그곳에서 주먹밥을 만들었는데 이를 약밥이라 하였다. 또 눈이 먼 이씨가 막걸리를 만들면서 한없이 걸러내자 맑은 술이 되었는데 그 맛 또한 일품이었으므로 사람들은 청주를 약주라 부르게 되었다.

만리동2가 6-1번지 일대에는 양정중·고등학교가 있었으나 양천구 목동으로 이전하고 현재는 그 자리에 손기정체육공원이 있다. 이 공원은 1936년 독일 베를린 하계 올림픽의 마라톤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손기정(孫基禎, 1912~2002)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의 모교였던 양정중·고등학교 자리에 1987년에 조성되었다. 2만 9,682m² 규모의 공원으로, 암울했던 일제 치하에서 우리 민족의 울분을 마라톤 세계 제패로 달래준 손기정 선수를 길이 기억하기 위하여 교사 일부를 철거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든 것이다. 광장과 산책로 2코스, 정자 2동, 노인정, 놀이시설 등을 비롯해 정보도서실이 있으며, 1982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5호로 지정된 손기정 월계관 기념수와 손기정 기념비, 손기정 동상이 세워져 있다. 이전한 양정중·고등학교가 월계수까지 옮길 수 없었으므로 대신 어린 묘목을 목동으로 이식하였다. 2012년 10월에는 공원 내에 손기정기념관이 개관하여 손기정평화마라톤대회 등 여러 가지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¹³⁵⁾

후주(後註)

- 1) 조선시대에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를 파악했기 때문에 인구통계에 누락이 많았다. 학자들은 전체 인구의 30~40%가 통계에서 빠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한양 사람들' 참조.
- 2) 나각순, 「서울지명의 변천과 특징」, 『향토서울』 72, 1985, pp.125~128.
- 3) 나각순, 앞의 글, pp.130~137.
- 4) 서울특별시, 『서울, 도시계획 연혁』, 2016, p.25.
- 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4권, 1981 참조.
- 6) 서울특별시중구, 『2017 규정백서』, 2017, pp.9~13.
- 7)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p.24~33.
- 8) 서울특별시중구, 『자랑스런 중구』, 1989, p.27.
- 9)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p.36~51.
- 10) 국민일보 인터넷 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126179>
- 11) 서울특별시중구, 『자랑스런 중구』, 1989, pp.47~49.
- 12)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p.36~43.
- 13)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동별 통계' 참조.
- 14)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동별 통계' 참조.
- 15) 서울특별시중구, 『2017 규정백서』, 2017, p.558.
- 1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p.167~179.
- 17) 위키백과, '환구단' 참조.
- 18)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 19) 서울특별시중구, 『자랑스런 중구』, 1989 p.132.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 서울편, 1966, p.262.
- 20)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p.179~184.
- 2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p.185~190.
- 22)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 두산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 23)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44403&cid=46656&categoryId=46656>
- 24)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동별 통계' 참조.
- 25) 서울특별시중구, 『2017 규정백서』, 2017, p.561.
- 2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289 재인용.
- 27) 위키백과,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참조.
- 28) 남대문교회 홈페이지(<http://www.ndmc.or.kr>) 참조.
- 29)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encykorea.aks.ac.kr/>) 참조.
- 30)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동별 통계' 참조.
- 31) 서울특별시중구, 『2017 규정백서』, 2017, p.566.

- 32) 위키백과, '삼일대로' 참조.
- 3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p.150-151.
- 34)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인현동' 참조.
- 3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3권, 1979, p.277.
- 3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문화사적편, 1987, p.586.
- 37)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I 서울편, 1966, p.258
- 38)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p.87-93.
- 39)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4권, 1981 pp.1162-1173.
- 40)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 서울편, 1966, p.263
- 4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p.134-142.
- 42)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p.94-107.
- 4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문화사적편, 1987, pp.599-600.
- 44)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문화사적편, 1987, pp.578-580.
- 4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p.398 재인용.
- 46)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47)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p.415.
- 4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 49)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동별 통계' 참조.
- 50) 서울특별시중구, 『2017 규정백서』, 2017, p.569.
- 5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465.
- 52)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467 재인용.
- 5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 54)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동별 통계' 참조.
- 55) 서울특별시중구, 『2017 규정백서』, 2017, p.584.
- 56)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동별 통계' 참조.
- 57) 서울특별시중구, 『2017 규정백서』, 2017, p.588.
- 58)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동별 통계' 참조.
- 59) 서울특별시중구, 『2017 규정백서』, 2017, p.592.
- 60)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 서울편(1966). pp.269.
- 6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p.591-592.
- 62)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윤백남' 항목 참조(<http://encykorea.aks.ac.kr/>)
- 6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p.600-601.
- 64)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p.612-614 재인용.
- 65)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 서울편(1966). pp.275-276.
- 66)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 서울편(1966). pp.271-272.

- 67)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p.626-634.
- 68)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 서울편(1966). p.274
- 69)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제2판, 1992). pp.635-645.
- 70) 서울특별시중구, 『2017 구정백서』, 2017, p.595.
- 71)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동별 통계' 참조.
- 72) 서울특별시, 『시세일람』, 1948, p.24.
- 7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문화사적편, 1987, p.581.
- 74)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581.
- 75) 서울특별시, 『시세일람』, 1948, p.24.
- 76) 한국관광공사, 『문화유산과 관광자원』 서울편, 1987, p.116.
- 77) 서울특별시, 『서울시세일람』, 1948, p.24.
- 78) 서울특별시, 『서울시세일람』, 1950, pp.24-25.
- 79)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 서울편, 1966, p.97.
- 80) 서울특별시중구, 『2017 구정백서』, 2017, p.599.
- 81)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동별 통계' 참조.
- 82) '장충고등학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두산백과, 위키피디아 참조.
- 83) 박대로 기자, 「신당종합사회복지관 11월까지 새단장」, 뉴시스, 2018. 09. 27.
- 84) 신하권, 『한양도성 서울을 흐르다』, 북촌, 2016, p.186.
- 85)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동별 통계' 참조.
- 86) 서울특별시중구, 『2017 구정백서』, 2017, p.602.
- 87)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p.660-661.
- 88) 서울중구문화원, 『신당동 돌레돌레머고』 참조.
- 89) 서울중구청소녀수련관 홈페이지(www.j-youth.org).
- 90)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약수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www.yssenior.co.kr).
- 91) 서울특별시중구, 『2017 구정백서』, 2017, p.606.
- 92)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동별 통계' 참조.
- 93) '서울청구초등학교', 두산백과. 서울청구초등학교 홈페이지 참조
- 94) '동산초등학교(서울)', 두산백과. 동산초등학교 홈페이지 참조
- 95) 대경상업고등학교 홈페이지(www.daekyeong.hs.kr) 참조
- 96) 황덕현, 「동교동 · 상도동 이어 'JP 청구동 자택'도 역사 속으로」, news1뉴스, 2018. 06. 23.
- 97) 서울특별시중구, 『2017 구정백서』, 2017, p.609.
- 98)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동별 통계' 참조.
- 99)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성동고등학교 홈페이지(www.sungdong.hs.kr) 참조.
- 100)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홈페이지(www.seoulmusic.hs.kr) 참조.
- 101)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동별 통계' 참조.

- 102) 서울특별시중구, 『2017 규정백서』, 2017, p.612.
- 103) '서울금호여자중학교', 두산백과, 금호여자중학교 홈페이지 참조.
- 104) 서울흥인초등학교 홈페이지(www.heungin.es.kr) 참조.
- 105) '서울흥인초등학교', 두산백과 참조.
- 106) 시민기자 문청아, 「응봉공원에 봄이 왔어요」, 내 손안에 서울, 2017. 04. 26.
- 107) 이진우 기자, 「대현산 배수지 완공 서울시, 24일부터 가동」, 문화일보, 2003. 07. 16.
- 108) '응봉공원', 서울시 중구 문화관광 홈페이지 참조.
- 109) 박종일 기자, 「노후된 응봉공원 재탄생」, 아시아경제, 2016. 09. 02.
- 110) 「중구, '힐링숲 프로그램' 운영」, 헤럴드경제, 2018. 06. 14.
- 111)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동별 통계' 참조.
- 112)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6』, 성동구편(1981), p.195.
- 113) 서울특별시중구, 『2017 규정백서』, 2017, p.615.
- 114) 김영상, 『서울 명소고적』, p.198.
- 11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p.668-670.
- 116) 서울특별시중구, 『2017 규정백서』, 2017, p.618.
- 117)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동별 통계' 참조.
- 118)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p.670-671.
- 119)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 서울편, 1966, pp.73-74.
- 120)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672 재인용.
- 12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p.674-677.
- 122) 천주교 중림동교회 『약현』, 1990 참조.
- 123) '약현성당', 중구역사문화자원. '가명학교', NAVER 지식백과. 천주교 중림동교회, 『약현』, 1990.
- 124)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3』, 서대문구편(1977), p.156 참조.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 서울편, 1966, p.72 참조.
- 125) 한글학회, 앞의 책, p.71.
- 12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p.681-682.
- 127) 한국관광공사, 『문화유산과 관광자원』, 서울편, 1987 참조.
- 128) '서소문공원', 두산백과 참조.
- 129) '중구, 서소문역사공원 7부 능선 연내 완공', 헤럴드경제, 2018. 09. 10.
- 130)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 서울편, 1966, p.61.
- 131) 한글학회, 앞의 책, p.61.
- 132) 한글학회, 앞의 책, p.62.
- 133) '최만리', 인물한국사, NAVER 지식백과.
- 134) 조풍연, 『서울잡학사전』, 정동출판사, 1989, p.316 참고.
- 135) 서울특별시중구, 『자랑스런 중구』, 1989, p.87

찾아보기

1) 조선시대에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를 파악했기 때문에 인구통계에 누락이 많았다. 그래서 학자들은 전체 인구의 30-40%가 통계에서 빠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한양 사람들’ 참조.

2) 나각순, 「서울지명의 변천과 특징」, 『향토서울』 72, 1985, pp.125-128.

3) 나각순, 앞의 글, pp.130-137.

4) 서울특별시, 『서울, 도시계획 연혁』, 2016, p. 25.

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 육백년사』 4권, 1981 참조.

6) 서울특별시중구, 『2017 구정백서』, 2017, pp.9-13.

7)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p.24-33.

8) 서울특별시중구, 『자랑스런 중구』, 1989, p.27.

9)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p.36-51.

10) 국민일보 인터넷 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126179>

11) 서울특별시중구, 『자랑스런 중구

』, 1989, pp.47-49.

12)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p.36-43.

13)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동별 통계’ 참조.

14)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동별 통계’ 참조.

15) 서울특별시중구, 『2017 구정백서』, 2017, p.558.

1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p.167-179.

17) 위키백과, ‘환구단’ 참조.

18)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19) 서울특별시중구, 『자랑스런 중구』, 1989 p.132.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 서울편, 1966, p.262.

20)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p.179-184.

2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p.185-190.

22)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 두산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23)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4403&cid=46656&category=>

ryId=46656

24)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동별 통계’ 참조.

25) 서울특별시중구, 『2017 구정백서』, 2017, p.561.

2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289 재인용.

27) 위키백과,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참조.

28) 남대문교회 홈페이지(<http://www.ndmc.or.kr>) 참조.

29)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http://encykorea.aks.ac.kr/>)

30)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동별 통계’ 참조.

31) 서울특별시중구, 『2017 구정백서』, 2017, p.566.

32) 위키백과, ‘삼일대로’ 참조.

3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p.150-151.

34) 서울역사박물관, ‘인현동’ 참조.

3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3권, 1979, p.277.

3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문화사적편, 1987, p.586.

37)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 서울편, 1966, p.258

38)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

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p.87-93.

39)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4권, 1981 pp.1162~1173.

40)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 서울편, 1966, p.263

4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p.134-142.

42)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p.94-107.

4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문화사적편, 1987, pp.599~600.

44)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문화사적편, 1987, pp.578-580.

4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p.398 재인용.

46)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47)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p.415.

4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49)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동별 통계’ 참조.

- 50) 서울특별시중구, 『2017 구정백서』, 2017, p.569.
- 5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465.
- 52)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467 재인용.
- 5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 54)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동별 통계’ 참조.
- 55) 서울특별시중구, 『2017 구정백서』, 2017, p.584.
- 56)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동별 통계’ 참조.
- 57) 서울특별시중구, 『2017 구정백서』, 2017, p.588.
- 58)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동별 통계’ 참조.
- 59) 서울특별시중구, 『2017 구정백서』, 2017, p.592.
- 60)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 서울편(1966). pp.269.
- 6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p.591-592.
- 62)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윤백남’ 항목 참조(<http://encykorea.aks.ac.kr/>)
- 6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p.600-601.
- 64)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p.612~614 재인용.
- 65)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 서울편(1966). pp.275-276.
- 66)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 서울편(1966). pp.271-272.
- 67)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p.626-634.
- 68)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 서울편(1966). p.274
- 69)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제2판, 1992). pp.635-645.
- 70) 서울특별시중구, 『2017 구정백서』, 2017, p.595.
- 71)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동별 통계’ 참조.
- 72) 서울특별시, 『시세일람』, 1948, p.24.
- 7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문화사적편, 1987, p.581.
- 74)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581.
- 75) 서울특별시, 『시세일람』, 1948, p.24.
- 76) 한국관광공사, 『문화유산과 관광

자원』서울편, 1987, p.116.

77) 서울특별시, 『서울시세일람』, 1948, p.24.

78) 서울특별시, 『서울시세일람』, 1950, pp.24-25.

79)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 서울편, 1966, p.97.

80) 서울특별시중구, 『2017 구정백서』, 2017, p.599.

81)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동별 통계’ 참조.

82) ‘장충고등학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두산백과. wikipedia.

83) 박대로 기자, 「신당종합사회복지관 11월까지 새단장」, 뉴시스, 2018. 09. 27.

84) 신희권, 『한양도성 서울을 흐른다』, 북촌, 2016, p.186.

85)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동별 통계’ 참조.

86) 서울특별시중구, 『2017 구정백서』, 2017, p.602.

87)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p.660-661.

88) 서울중구문화원, 『신당동 뜰레뜰레머꼬』 참조.

89) 서울중구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www.j-youth.org).

90)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약수노인

종합복지관

홈페이지

(www.yssenior.co.kr).

91) 서울특별시중구, 『2017 구정백서』, 2017, p.606.

92)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동별 통계’ 참조.

93) ‘서울청구초등학교’, 두산백과. 서울청구초등학교 홈페이지.

94) ‘동산초등학교(서울)’, 두산백과. 동산초등학교 홈페이지.

95) 대경상업고등학교 홈페이지 (www.daekyeong.hs.kr).

96) 황덕현 기자, 「동교동·상도동 이어 ‘JP 청구동 자택’도 역사속으로」, news1뉴스, 2018. 06. 23.

97) 서울특별시중구, 『2017 구정백서』, 2017, p.609.

98)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동별 통계’ 참조.

99)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성동고등학교 홈페이지 (www.sungdong.hs.kr) 참조.

100)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홈페이지(www.seoulmusic.hs.kr) 참조.

101)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동별 통계’ 참조.

102) 서울특별시중구, 『2017 구정백서』, 2017, p.612.

103) ‘서울금호여자중학교’, 두산백

과, 금호여자중학교 홈페이지 참조.

104) 서울흥인초등학교 홈페이지
(www.heungin.es.kr) 참조.

105) ‘서울흥인초등학교’, 두산백과.

106) 시민기자 문청야, 「응봉공원에
봄이 왔어요」, 내 손안에 서울, 2017.
04. 26.

107) 이진우 기자, 「대현산 배수지
완공 서울시, 24일부터 가동」, 문화일
보, 2003. 07. 16.

108) ‘응봉공원’, 서울시 중구 문화관
광 홈페이지.

109) 박종일 기자, 「노후된 응봉공원
재탄생」, 아시아 경제, 2016. 09. 02.

110) 「중구, ‘힐링숲 프로그램’ 운영
」, 헤럴드경제, 2018, 06, 14.

111)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동별 통계’ 참조.

112)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
명연혁고6』, 성동구편(1981), p.195.

113) 서울특별시중구, 『2017 구정
백서』, 2017, p.615.

114) 김영상, 『서울 명소고적』,
p.198.

11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
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p.668-670.

116) 서울특별시중구, 『2017 구정
백서』, 2017, p.618.

117)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동별 통계’ 참조.

118)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
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p.670-671.

119)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 서
울편, 1966, pp.73~74.

120) 『동국여지비고』 권2 부방조 서
부 반석방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
동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672 재인용.

12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
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p.674-677.

122) 천주교 중립동교회 『약현』,
1990 참조.

123) ‘약현성당’, 중구 역사문화자원
홈페이지. ‘가명학교’, NAVER 지식백
과. 천주교 중립동교회 『약현』, 1990
참조.

124)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
명연혁고3』, 서대문구편(1977), p.156.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 서울편,
1966, p.72.

125) 한글학회, 앞의 책, p.71.

12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
명연혁고2』, 중구편(2판, 1992),
pp.681-682.

127) 한국관광공사, 『문화유산과 관
광자원』, 서울편, 1987.

- 128) ‘서소문공원’, 두산백과.
- 129) ‘중구, 서소문역사공원 7부 능선 연내 완공’, 헤럴드경제, 2018. 09. 10.
- 130)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 서울편, 1966, p.61.
- 131) 한글학회, 앞의 책, p.61.
- 132) 한글학회, 앞의 책, p.62.
- 133) ‘최만리’, 인물한국사, NAVER 지식백과.
- 134) 조풍연, 『서울잡학사전』, 정동출판사, 1989, p.316 참고.
- 135) 서울특별시중구, 『자랑스런 중구』, 1989, p.87.

지은이

박성현 朴星炫, 문학박사

1970년 서울 생(生).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한국 근현대문학 전공). 2009년 <중앙일보> 중앙신인문학상에 당선되었으며, 2013년 서울문화재단 창작기금을 수여하였다. 시집 『유쾌한 회전목마의 서랍』을 출간하였으며, 현재 서울교육대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김관용 金官用, 시인

1970년 서울 생(生).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2015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하였으며(시 부문), 동국대학교 BK21사업단 연구원을 지냈다. 오랫동안 오페라, 연극, 광고기획, 문화전시 등 문화예술 관련 사업에 종사한 다채로운 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학술적 글쓰기를 비롯한 시, 에세이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중구, 동네방네 이야기

중구향토사자료 제18집

발행처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원

발행인 중구문화원장 이종철

기 획 중구문화원

집 필 박성현·김관용

발행일 2018년 12월 31일

제 작 도서출판 상상박물관

ISBN 979-11-954622-3-0 03910

©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원 **비매품**

100-2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장교동 1번지 한화빌딩 1층)
전화 02) 775-3001, 팩스 02) 775-3068
홈페이지 www.junggucc.or.kr